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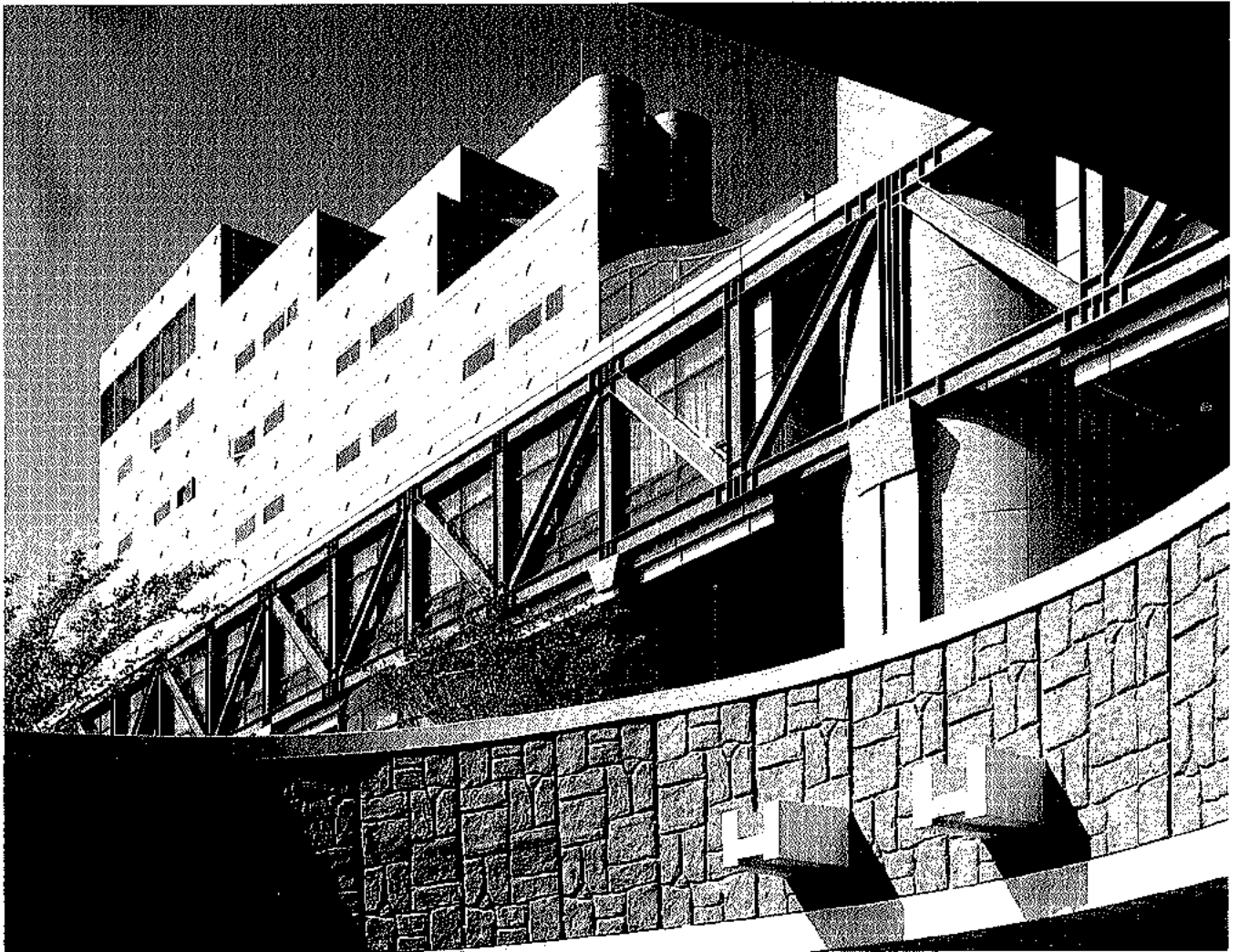
KOREAN ARCHITECT

月刊 建築士 1994년 1월호
등록 297호(매월 15일 발행)
발행·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등록·1967년 3월 23일
등록번호·(서)라-26
1995년 12월 31일 제3종우편물
(나)급인가

建築士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January 1994



칼럼

국제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특별기고

모두에게 물어보고 싶다/김태웅

회원작품

충청은행 전산센터/전상백

대전 대림빌딩/김 호

|광만

!경남화관/조대희+이광인

/김준웅

크립 하우스/조웅식+곽성문+박용수

휘

J

540.5

대 92 ㄱ

297c. 4

회원 팜장

여성회원이 보는 건축계 개혁 방향

특집

우리 건축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건축기행

실크로드 탐방/문진호

현상설계

강동구 의회 의사당, 경남공립 특수학교, 군포 시민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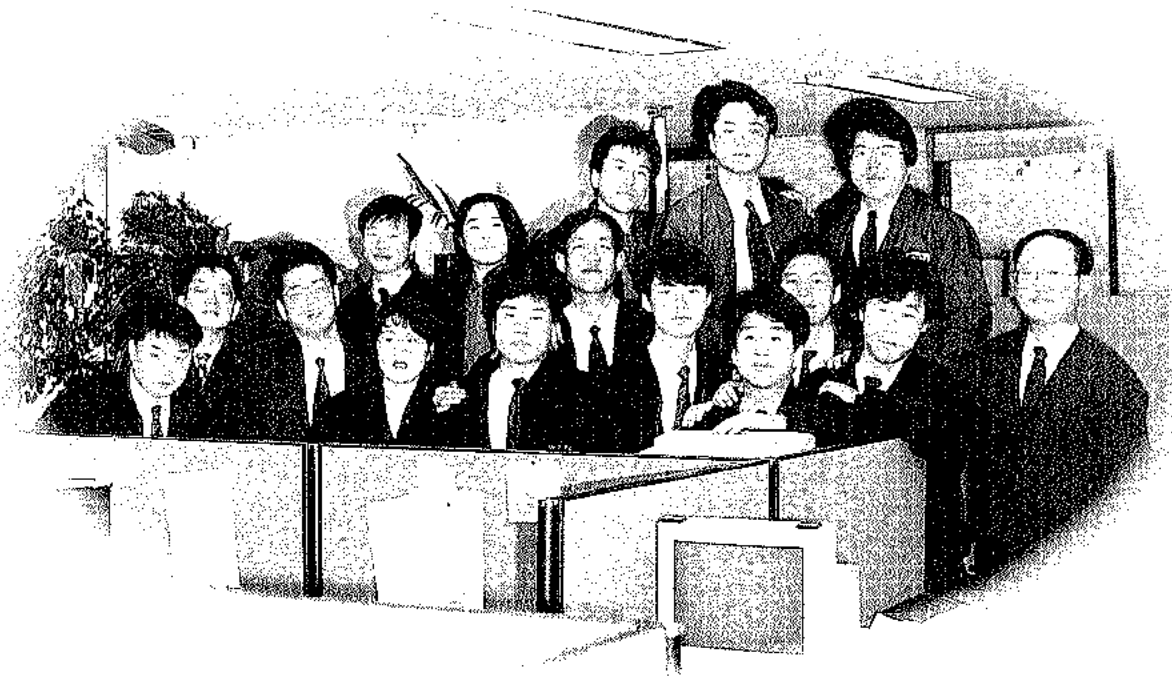
기획연재

도심재개발의 관리처분계획(II)/최찬환

중국의 고건축을 보는 눈(3)/한동수

1

JANU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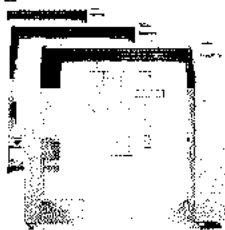


신뢰로 자라납니다.

수많은 컴퓨터회사 중에서
건축설계의 전문적인 지식과 고도의 컴퓨터 활용기술을
갖춘 전문회사만이 믿을수 있는 건축CAD의 TOTAL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건축CAD전문회사인 (주)건캐드
그간 250여개사의 성공적인 건축CAD시스템 구축한 풍부한 경험과 차원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신의 정보와 지속적인 기술을 지원하여
고객의 실질적인 만족과 이익을 제공합니다.

성공을 향한 신뢰의 선택 (주)건캐드!

하드웨어



- 최상의 고성능 컴퓨터 486 SYSTEM
- 저렴하고 다양한 CAD SYSTEM 보유
- 원격한 호환성과 뛰어난 확장성
- LAN, PLOTTERS, PRINTER, MONITOR 등

소프트웨어



- 최고의 건축CAD설계지원시스템 CADPOWER Ver.6.0
- 건축설계지원시스템 MECADPOWER
- AutoCAD R11, R12, 집합권 등 판매

CAD기술연구소



- 최고의 건축CAD활용 기술연구
- 건축CAD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 건축설계진상화 프로그램 운영
- 건축CAD 3D 렌더링, 모델링 용역

건축CAD교육센터



- 건축설계실무에 바탕을 둔 교육
- 체계적인 단기/중기 건축CAD교육
- 다양한 시간대의 전문과정 개설
- 건축CAD실무자 양성 및 취업알선

아프터서비스



- 신뢰, 성실의 애프터서비스 제공
- 24시간 신속한 서비스 체계구축
- 고객 업무 작업의 연속성 유지체계
- 실무자의 시스템 관리 능력 교육

건축 CAD 전문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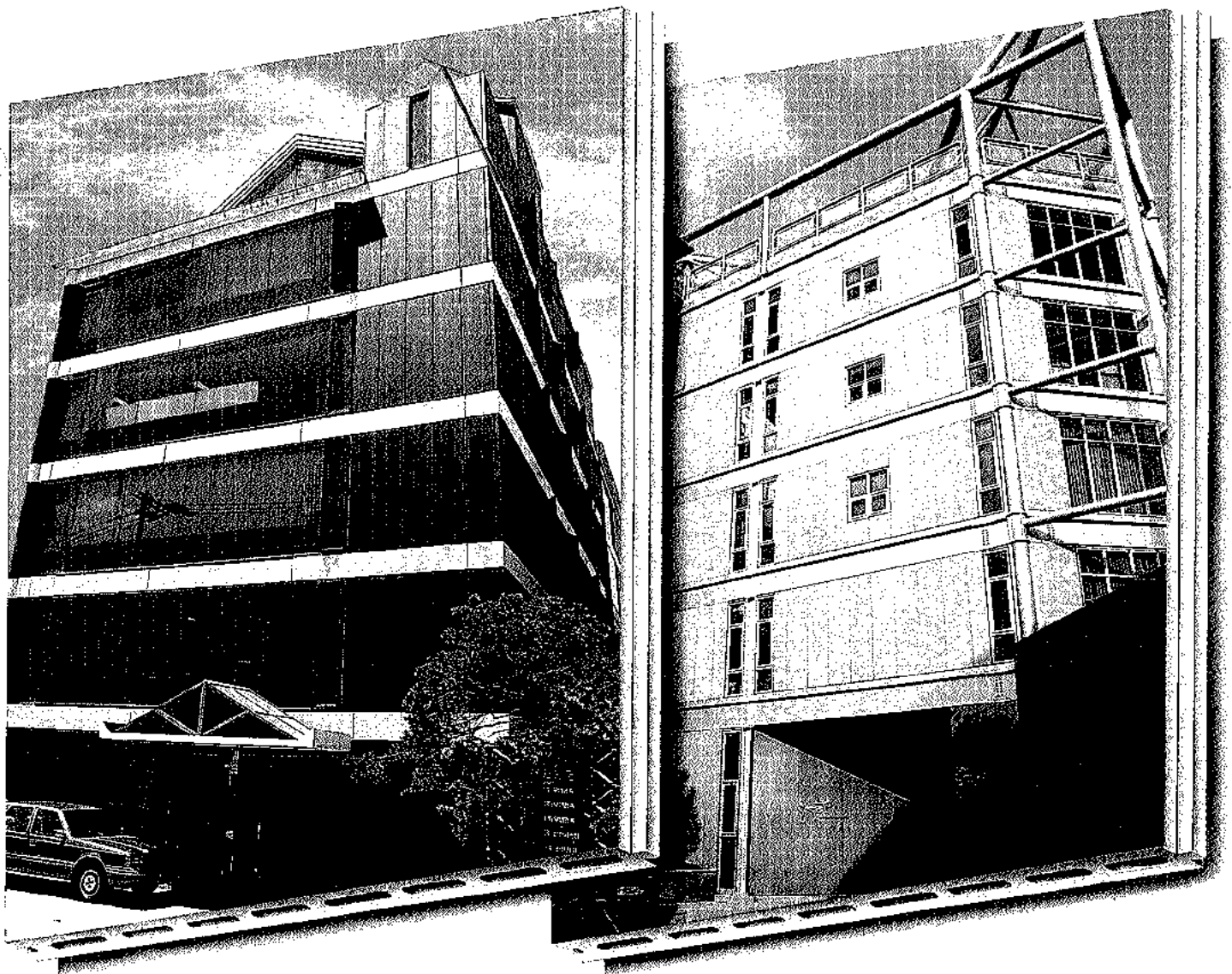
주식회사 건캐드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444-2 풍원빌딩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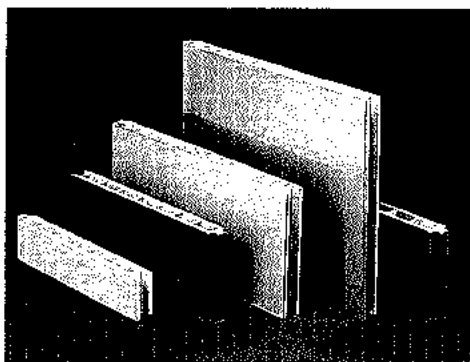
대표전화 : 584-6480, FAX 587-1803

CAD연구소 : 풍원빌딩 5층

전화 : 598-1486, 1487



미려한 건축물에는 벽산 베이스판넬입니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 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치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M^2 당 무게가 50kg 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외장성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타일, 본타일, 페인트 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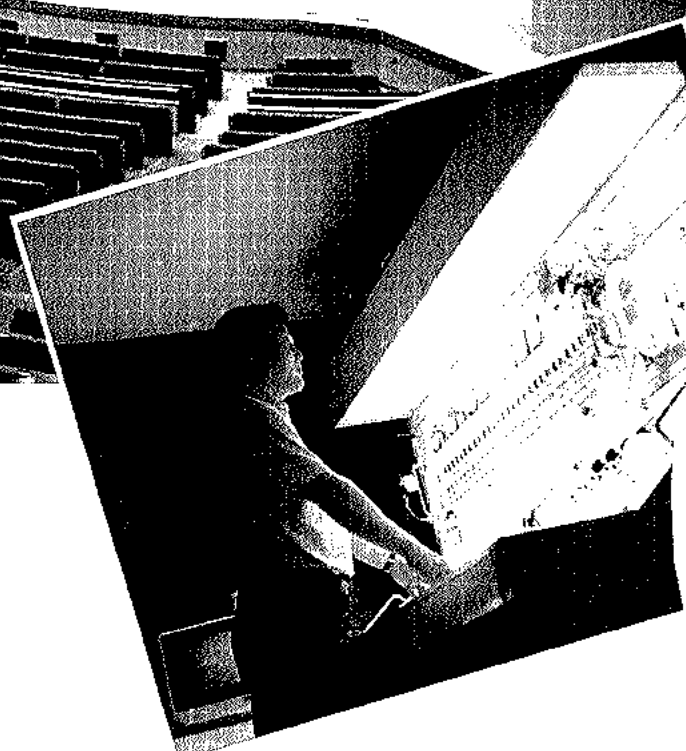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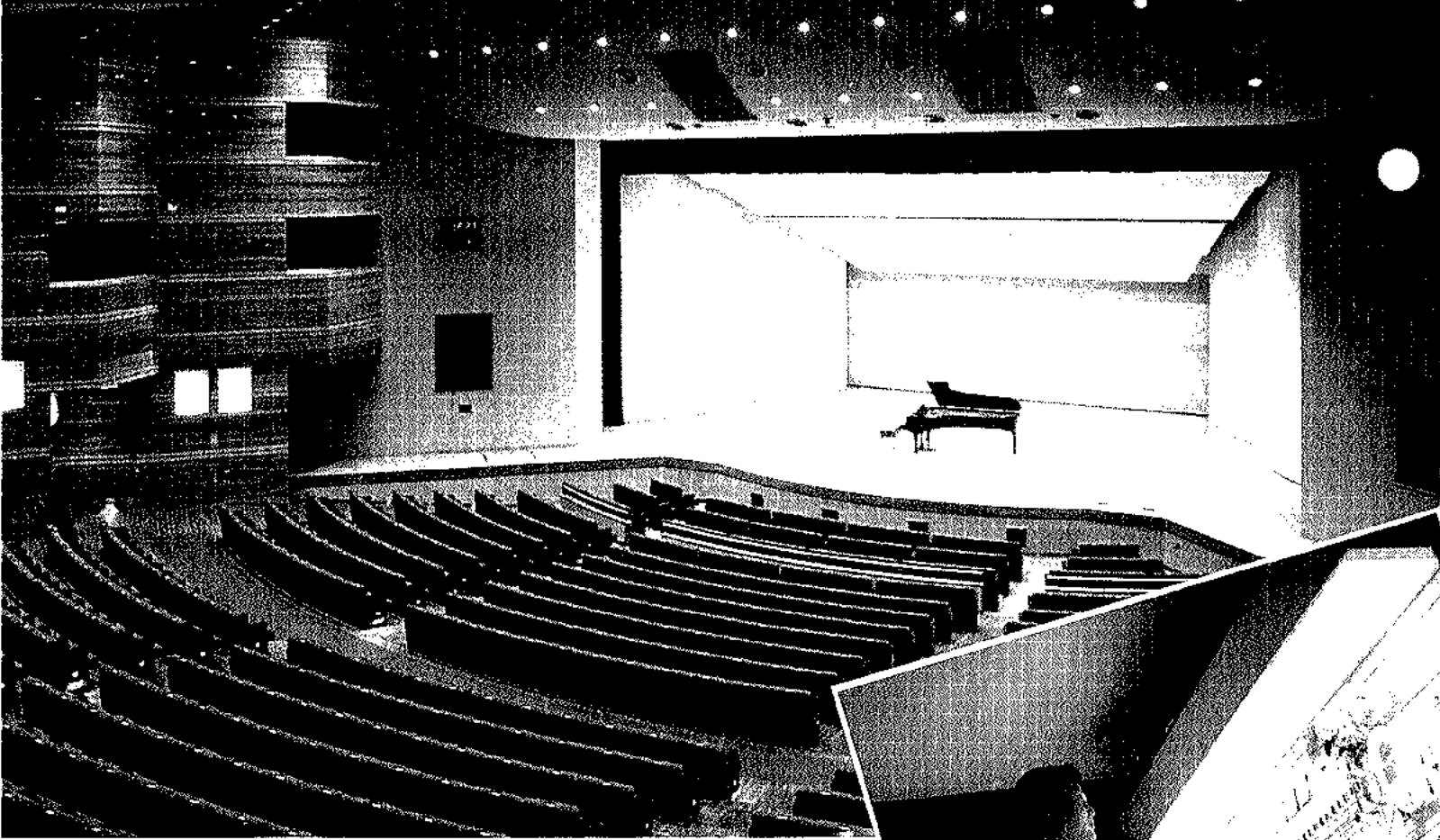
용도/건축물의 외벽·간막이·계단·도로변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 압출판넬

벽산 베이스

• 제품·시공문의상담 (02)260-6250~8 특수영업부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 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실적

- ◉ 세종문화회관
- ◉ 국립극장
- ◉ 웨라튼워커힐
- ◉ 롯데호텔
- ◉ 부산문화예술회관
- ◉ 이화여대강당
- ◉ 유관순기념관
- ◉ 충현교회 본당
-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 ◉ 리틀엔젤스 전용공연장
- ◉ 서울·제주 신라호텔
- ◉ 수안보 와이카카관광호텔
- ◉ 안양문화예술회관
-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 계동 센타 예술극장
- ◉ 육군박물관
- ◉ 대전시민회관
- ◉ 부곡하와이 돔

주요 생산품목

- STAGE & STUDIO
-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大雅互電株式會社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서울특별시 麻浦區 城山洞 108-1
TEL. (02) 332-4500(代表), (02) 335-4642(代表)
FAX. (02) 392-2751

工場: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串面 山 209-1 松麻里 山 209-1
TEL. (0341) 987-4184, (02) 632-0216

입고는 즉시 출고는 40초

삼성셔틀파킹



삼성이 만든 차세대 주차설비, 셔틀파킹

1978년 국내최초로 기계식 입체주차설비를 제작 설치한 삼성이
드디어 미래형 주차설비인 셔틀파킹을 선보입니다.

연속적인 동시 입출고

삼성셔틀파킹의 가장 큰 특징은 입고실과 출고실을 분리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입출고시에 다음 팔레트가 동시교대로 준비되므로 입출고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분당 300m의 고속이동대차

셔틀파킹 시스템의 고속성능 발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속이동대차는 1분에 약 300m의 속도로 주행하며, 정확한 정지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분당 120m의 고속 승강기

자동차가 팔레트에 실려 입고되면 고속 승강기를 통해 지시된 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삼성 셔틀파킹은 1분에 120m를 승강하는 고속 승강기를 내장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신속하게 자동차를 원하는 층으로 이동시킵니다.

팔레트 동시교대로 대기시간 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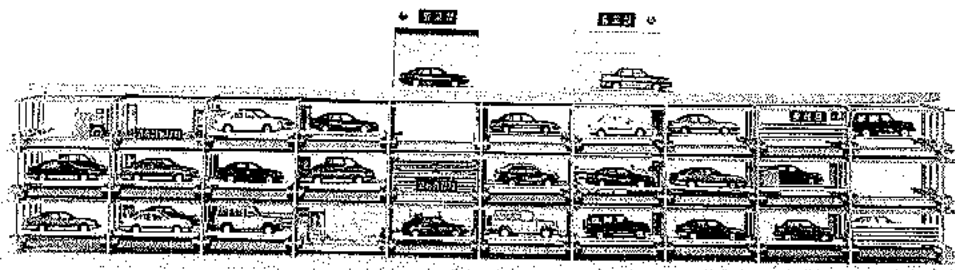
셔틀파킹의 최대 비밀은 팔레트 교환시스템에 있습니다. 자동차가 팔레트에 실려 고속 승강기로 옮겨질 때, 다음 차를 위한 빈 팔레트가 동시교대로 입고실에 대기하므로 종래시스템에서 문제시되던 입고대기시간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5배 공간효율

셔틀파킹의 한 유닛(Unit)은 3단 기준으로 평균 138대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선반은 최고 6단까지 설치가능하고, 유닛을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 대규모 주차도 가능합니다. 바닥면적 대비 설비 가동효율과 주차공간활용면에서 종래의 기계식 주차장에 비해서 5배 이상 효율적입니다.

문열림 사고방지 시스템 채택

기계식 주차설비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자동차 문열림 사고—이러한 사고는 자동차의 파손은 물론, 전체 주차시스템의 밸런스를 깎니다. 셔틀파킹은 팔레트에 자동차의 문열림 방지장치 부속되어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세계속에 한국을 펼쳐가는 —

SAMSUNG

삼성중공업

king[®] CERACO-PANEL

환상의 최첨단 신소재

세라믹 외장판넬

건축외장재로

48년동안 한결같이 전자재 생산만을 고집해온

삼화의 킹 세라코 판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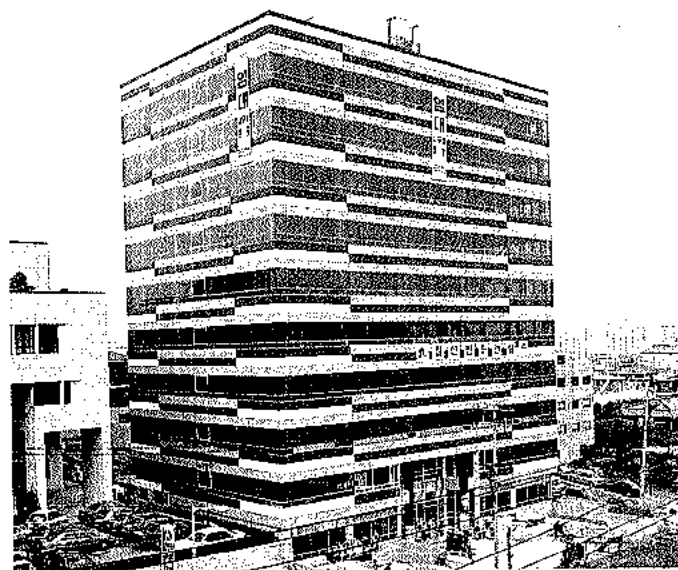
23만 m² 를 설계에 지정해 주신

건축사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삼화정밀 전자사업부

임직원 일동 드림



서초빌딩 / 한건축 / 일신전흥건설(주) / 시공면적 4,100m²

king[®] 三華精密株式會社
SAM HWA PRECISION CO., LTD.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9-9(한국관세사회관 2층)

전화 (02)516-2700, 516-7383-5 FAX(02)517-8709

제1공장/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미개리 338 전화 (0351)63-3111-4 FAX(0351)63-0067

제2공장/경기도 미금시 평내동 41-1 전화 (0346)592-2103 FAX(0346)591-8011

■ 서울·경기 총대리점 및 전문시공업체

弘星五營株式會社

전화 (02) 511-6431~5 , FAX (02) 545-5169

새로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의지를 다졌습니다



연합인슈킨실

더욱 큰 도약을 위해!

10년간 아끼던 대명건업이란 이름을 뒤로 하고, 1993년 12월 15일 연합인슈킨실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도전으로, 급변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연합인슈킨실 -

시공 건축물의 A/S 제도, 공정준수 운영 등의 선진 건축 개념의 도입과, 신건축공법 개발을 통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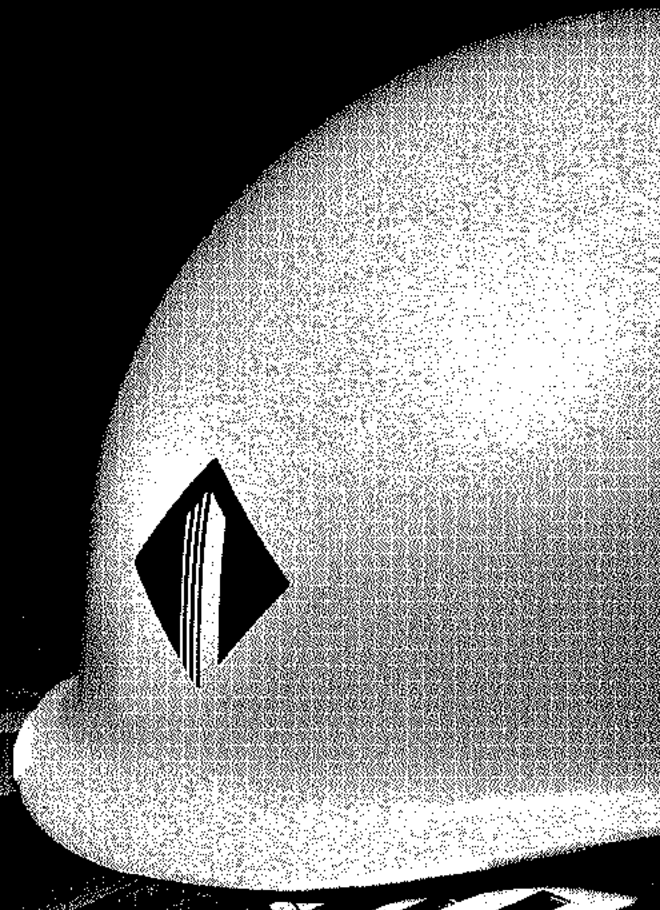
보다 앞선 시공력으로 전문 시공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다져 나갈 것입니다.

새로워진 이름과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도약할, 그 함찬 의지를 지켜봐 주십시오.



연합인슈킨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3-6 연합인슈 빌딩
TEL : (02) 555-6891 FAX : (02) 553-1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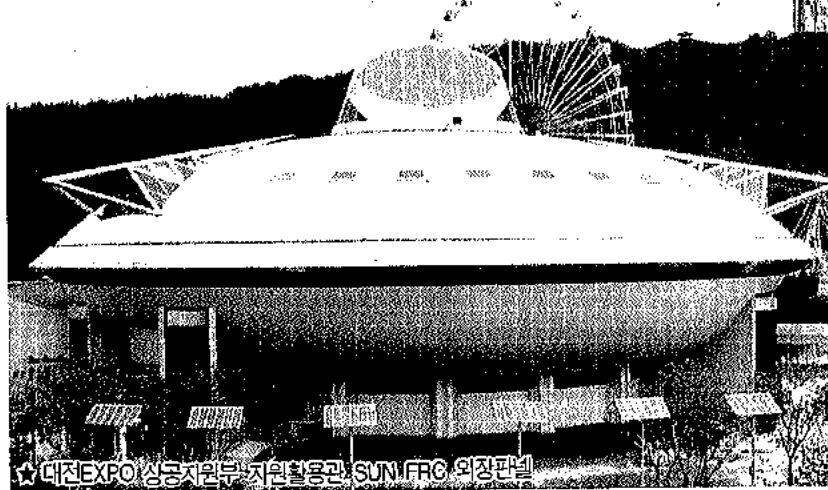




하이테크 첨단 파인세라믹스 SUN FRC

SUN F.R.C 장기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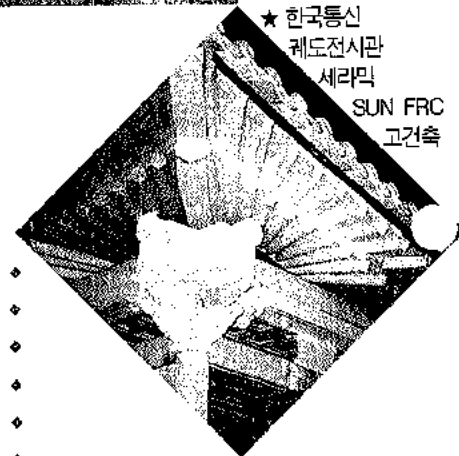
내연성(aA법)		불연성
인장강도(kg/cm ²)		254
압축강도(kg/cm ²)		663
휨강도(kg/cm ²)		407
충격강도(kg cm/cm ² , Charpy)		9.0
밀도(g/cm ³)		1.762
흡수율(%)		0.01
경도(Durometer, H ₂ D)		93
내열성(100°C, 2hr)		이상없음
내약 품 성	α 10% 황산	이상없음
	α 10% 염산	이상없음
	α 10% 질산	이상없음
	α 10% 수산화나트륨	이상없음
	α 95% 메틸 알콜	이상없음



☆대전EXPO 성공지원부 지원활동관 SUN FRC 외장판넬



☆SUN FRC 지구관 세라믹 영상인공폭포



★ 한국통신
케도전시관
세라믹
SUN FRC
고건축

1. SUN F.R.C 기술설명서

1. SUN FRC는 조형성이 뛰어나고 어떤 곡면이나 크기형태(디자인)의 제작이 자유로우며 1m/m~200m/m 두께로 제작이 가능한 파인 세라믹스입니다.

2. SUN FRC는 콘크리트에 비해 낮은 물의 계수에서 인장강도와 휨강도가 10배나 높습니다. 경화는 낮은 온도에서도 뛰어난 유연성 때문에 효과가 큼니다. 인장강도 시험결과 오랜 시간에도 일정성을 유지하고 100년에 준하는 가속실험결과 외부노출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용융도가 뛰어나 어떤 형태의 변화에도 다양성있게 사용할 수 있고 가볍고 강도가 높아 300m/m~300m/m~3m/m의 평균무게가 450g 정도이어서 대략 FRP와 비슷합니다.

3. 온도 팽창계수는 강철과 비슷하게 낮은 F에서 inch당 7~10"입니다. 충격에 강하며 하중에 의한 손상은 그 부분뿐이고 균열이 없어 보수가 용이합니다. 일반마모에는 물론 연마기에 의한 기계적 마모에도 저항성이 강하고 필요에 따라 페인트 등을 표면에 처리할 수 있고 판넬 자체에 원하는 색상을 넣어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4. SUN FRC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완전 불연성이며 시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이 없는 고성능력을 갖고 있는 무공해 첨단 신소재인 것입니다. 또한 현장 접합 시공시 전기용접, 볼트 등으로 작업이 용이하고 보온, 방수, 방음, 방사선 차폐, 낙뢰부전도 등에 효과가 커서 일반 건물내외 장제와 고건축 문화재 복원 등 조형물제작에 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가격: 물가지료 75쪽 참조

콘크리트 보다 3배 단단한 시멘트 압출 판넬

신소재의 탁월한 특성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사용되어온 에이스판넬 -
(주)서일건영이 에이스 판넬의 국내생산으로 건축 문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납품, 시공 실적으로 그 장점이 입증된 서일 에이스 판넬 -
이제 판넬제라면 서일 에이스판넬을 주목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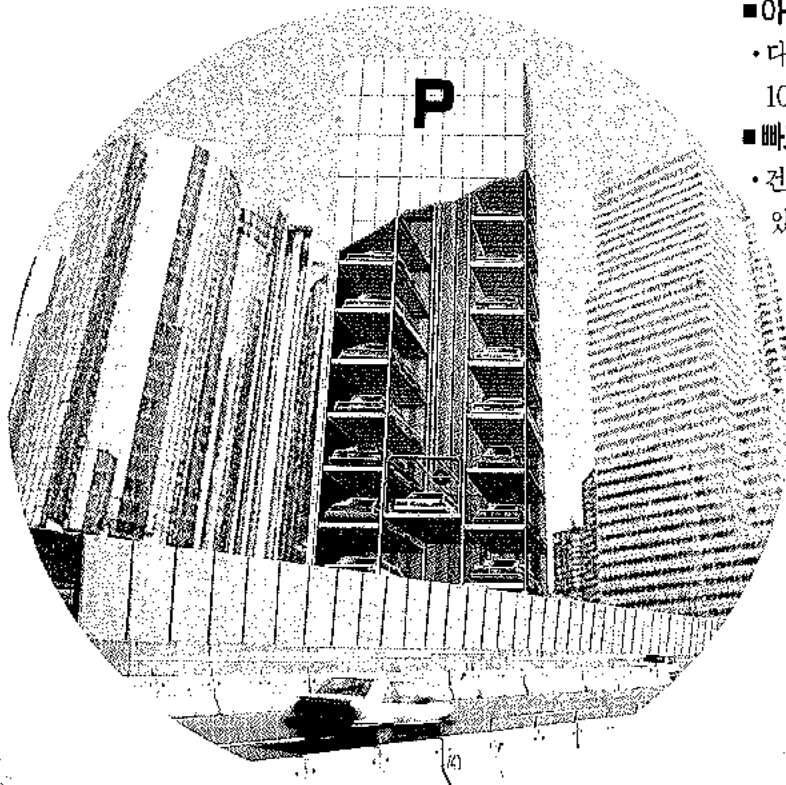
서일 에이스판넬

서일 에이스판넬의 특징점

- 얇고 단단하다.
 - 中空구조이므로 경량이며 방음, 단열효과가 뛰어납니다.
 - 벽의 두께가 1/3로 줄어 보다 넓은 실내공간이 확보됩니다.
- 아름다운 모양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 다양한 표면무늬의 연출이 가능하여 건축주의 취향을 100% 만족시킵니다.
- 빠르게, 경제적으로 시공한다.
 - 전식공법이므로 계절에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시공 할 수 있습니다.

서일 에이스판넬의 용도

- 고층빌딩, 아파트의 외벽재 및 바닥재
- 산업프랜트 및 공장의 내·외벽재
- 조립식 농촌주택의 내·외벽재
- 도로 및 철도변의 방음벽
- 주차타워의 외벽재
- 지하 이중벽



■ACE란?

(Autoclaved Cement Extrusion)
시멘트 복합소재를 진공압출 한 후,
고온고압의 증기 양생에 의해
완성하는 건축자재 제조분야의
新기술을 뜻합니다.

ACE 공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판넬은
내·외벽재로 적합한 고강도의 전혀
새로운 물성을 보유하게 됩니다.



■대리점 상담문의:

02) 552-0945/ 영업부



주식회사 서일건영

發行人: 吳雄錫
 編輯企劃: 編纂委員會
 委員長: 李鍾寬
 委員: 金文圭, 金仁祐, 吳元根,
 金相景, 金信孜, 姜健熙
 編輯・取材: 弘報部/梁元錫, 鄭孝相,
 李洪植, 趙漢國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070
 電話: 代表 (02)581-5711,
 581-5712~14
 팩시밀리: (02)586-8823
 登錄番號: 서울 라-26(月刊)
 登錄: 1967年 3月 23日
 U. D. C.: 69/72(054-2): 0612(519)
 印刷人: 李鳳秀/正文社

신년사/吳雄錫	12
칼럼	
무엇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가? (3)/朴舒弘	4
특별기고	
모두에게 물어보고 싶다/金泰雄	16
논단	
나라살림과 우리의 자세/朴景煥	18
회원작품	
충청은행 전산센터/全相伯	20
대전 대림빌딩/金浩	26
태화기업사옥/李光萬	30
국민연금 관리공단 경남회관/趙大熙+李光仁	34
노보텔 엠버서더/金春雄	40
우정힐스 컨트리클럽 하우스/趙鍾植+郭成文+朴容秀	46
피정의 집/金東暉	50
계획작품	
방이 4103/全恩培	54
스캐치	
대전시청사 계획(안)/柳翼顯	56
회원광장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趙仁淑	58
겸손하고 성실한 건축사가 되자/金花子	60
특집	
우리 건축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金正新/金炯宇/李好瑾/李範幸/崔英集/承孝相/朴敏澈	74
기획연재	
도심재개발의 관리처분 계획(II)/崔燦煥	85
기고	
통폐합돼야 할 건축사의 감리업무/尹汝旭	90
건축기행	
실크로드 탐방/文震昊	92
현상설계	
강동구의회 의사당	102
경남공립 특수학교	106
군포 시민회관	108
기획연재	
중국의 고건축을 보는 눈(3)/韓東洙	110
협회소식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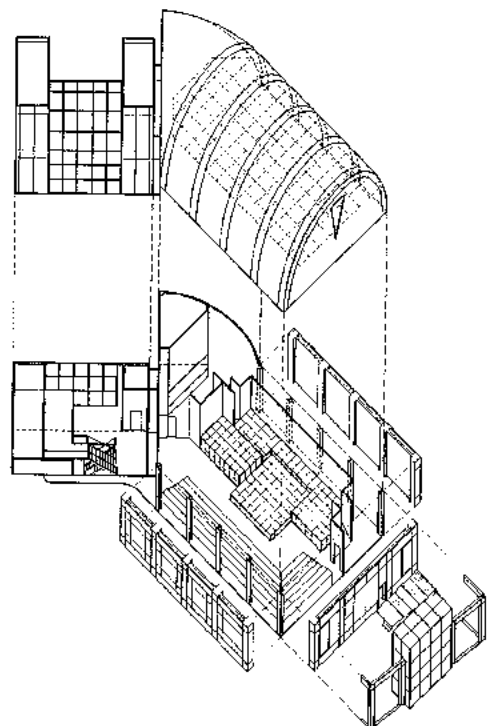
표지사진: 대덕 과학문화 센터
 (설계/(주)정림건축, 9312호 게재)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당심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603-55, 581-5715~8, 서대문분회/서대문구연희동169-25, 333-6411, 관악분회/관악구신림동1422-17, 882-6744, 도봉분회/도봉구수유동191-13, 903-3425, 영등포분회/영등포구당산37181, 632-2143, 강동분회/강동구상대동317-4, 484-6840, 강서분회/강서구화곡동1105-05, 604-7168, 성동분회/성동구구의동252-16, 446-5244, 동대문분회/동대문구신설동101-7, 923-0158, 종로분회/종로구수성동46-18, 735-0905, 마포분회/마포구상산동275-1, 333-5251, 송파분회/송파구송파50-12, 423-9158, 중구분회/중구로2749-11, 279-1415, 용산분회/용산구원효로1가129-22, 717-6607, 서초분회/서초구서초1동1623-1, 552-8468, 은평분회/은평구녹번동79-32, 368-1486, 동작분회/동작구사당동206-6, 315-3026, 강남분회/강남구논현동242-30, 517-3071, 노원분회/노원구상계1동707-4, 933-8076, 양천분회/양천구신정동1027-9, 653-2592, 송파분회/송파구민동166-46, 437-7356, 성북분회/성북구삼전57110, 922-5117, 구로분회/구로구로동86-4, 852-2275
 ■ 부산직할시건축사회/부산시진구범천동647-18, 28, (051)634-4973~9
 ■ 대구직할시건축사회/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3711-8, (053)753-8880~5
 ■ 인천직할시건축사회/인천직할시남동구간곡1동558-1, (032)437-3381~4
 ■ 광주직할시건축사회/광주직할시북구중흥동694-10, (062)521-0025~6
 ■ 대전직할시건축사회/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87-1, (042)255-9360~4
 ■ 경기도건축사회/경기도수원시매산로371124-5, (031)47-6129~30, 직할분회/경기도수원시매산로371124-5, (031)43-6662, 7072, 안양분회/안양시안양동523-5, (031)49-2698, 부천분회/부천시중구원미동88-1, (032)664-1554, 성남분회/성남시수정구태평동3407, (0342)755-5445, 화성부군회/화성부지의장부동182, (0351)876-0458, 송탄분회/송탄시서정동343-22, (0333)666-6153, 고양분회/고양군현당주교334, (0344)63-8902, 구리분회/구리시수택동409-2, (0346)63-2337, 의정부분회/의정부이천읍중앙리192-1, (0336)635-0545, 광명분회/광명시현상동220-2, (02)684-5845, 안산분회/안산시고장동536-1, (0345)80-9130, 시흥분회/((032)694-4121
 ■ 강원도건축사회/강원도춘천시죽전동39-5, (0361)54-2442, 원주분회/원주시중앙동60-54, (0371)43-7290, 강릉분회/강릉시상대동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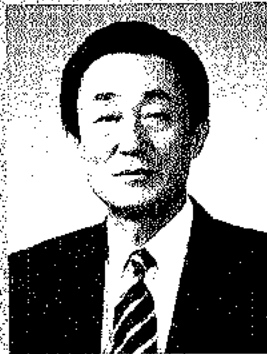
Greeting New Year Address/ Oh, Woong-Suk	12
COLUMN	
What is Made us a Criminal?(3)/ Park, Suh-Hong	14
FEATURE	
I Want to Question by Everybody/ Kim, Tae-Woong	16
PLATFORM	
New Year's National Economics and Our Posture/ Park, Kyeong-Hwan	18
WORKS	
The Bank of Korea Chung-Chong Computer Center/ Jeon, Sang-Baek	20
Daelim Building/ Kim, Ho	26
Tae-Hwa Enterprise/ Lee, Kwang-Man	30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Kyung Nam Branch/ Interplan Architects & Associates	34
Novotel Ambassador Seoul/ Kim, Choon-Woong	40
Woojeonghills Country Club House/ Cho, Yong-Sik · Kwak, Sung-Moon & Park, Yong-Soo	46
Retreat House/ Kim, Dong-Hwi	50
PROCESS WORKS	
Pang-i-dong 4103/ Chun, Eun-Bae	54
SKETCH	
Taejeon City Hall Project/ Ryu, Ik-Hyeon	56
PLAZA	
Why Architect?/ Cho, In-Souk	58
Modest & Industrious Architect/ Kim, Hwa-Ja	60
ISSUE	
Many Problems Awaiting Solution of Architecture Education System, and It's Reform Measure	
Kim, Jung-Shin/ Kim, Hyung-Woo/ Lee, Ho-Jin/ Lee, Boem-Jae/ Choi, Yong-Jip/ Song, Hchieh-Sung/ Park, Min-Cheol	64
REPORT	
Adjustment of Rights in Management and Disposition of Urban Renewal/ Choi, Chan-Hwan	85
FEATURE	
Architect's Supervision must Rearrange/ Yoon, Yeo-Wook	90
ARCHITECTURE TRAVEL	
A Report of the SilkRoad Inquiries/ Moon, Jin-Ho	92
COMPETITION	
Kang dong-gu, Assembly Hall	102
Kyungnam Public Institution Physically Handicapped School	106
Kunpo Civilians Hall	108
REPORT	
The Ancient Architect of Chinese(3)/ Han, Dong-Soo	110
KIRA NEWS	120

Publisher : Oh, Woong-Suk
 Editor :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Lee, Chong-Kwan
 Member : Kim, Moon-Kyu/ Kim, In-Cheol
 Oh, Won-Keun/ Kim, Sang-Kyeong
 Kim, Kyeong-Ja/ Kang, Keon-Hee
 Assistant Editor : Public Relations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 581-5712~4
 FAX : (02)586-8823
 Registered Number : Seoul Ra-26
 Registered Date : March 1967
 U.D.C. : 69/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0391)41-7371 · 속초분회/속초시동명동466-63, (0392)33-5081 · 삼척분회/삼척시남양동55-43, (0394)31-8708 · 영월분회/영월군영월읍영동1리960-12, (0373)374-2659
 ■ 충청북도건축사회/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32-187-3, (0431)56-2752, 53-7342 · 충주분회/충주시석전동673-1, (0441)847-3082 · 개천분회/개천시의원동8-8, (0443)43-6253 · 옥천분회/옥천군옥천읍삼양리222-206, (0475)33-3502
 ■ 충청남도건축사회/대전직할시서구화정동783-238(추신회관), (042)266-4088 · 천안분회/천안시문화동160-1, (0417)551-4551 · 홍성분회/홍성군홍성읍오관리239-1, (0541)32-2755 · 부여분회/부여군부여읍동남리703-1, (0463)835-2217 · 대천분회/대천시대천동197-10, (0452)34-3367 · 서산(0455)64-8500
 ■ 전라북도건축사회/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636-5(대류빌딩508), (0652)87-6007~8 · 이리분회/이리시남중동1가77-22, (0653)52-3796 · 군산분회/군산시전경동35-4, (0654)43-3816 · 남원분회/남원시하정동106-2, (0671)32-5000
 ■ 전라남도건축사회/광주직할시서구화정동783-238(추신회관), (062)346-7567, 33-9944 · 목포분회/목포시대안동1, (0631)72-3349 · 순천분회/순천시장천동51-11(0661)743-2457 · 여수분회/여수시관문동441번지, (0662)652-7023
 ■ 경상북도건축사회/대구직할시서구신천4동338-1, (053)742-8317~8 · 포항분회/포항시북도동43-8, (0562)44-6029, 46-1664 · 경주분회/경주시북도동801-4, (0561)2-4710 · 구미분회/구미시송정동34-3, (0546)51-1537~8 · 안동분회/안동시서부동157-4, (0571)54-5705 · 김천분회/김천시남도동24-2, (0547)434-2541 · 영주분회/영주시하정3동341-12, (0572)34-5560 · 경춘분회/경춘시중앙동280-3, (0581)53-6677 · 상주분회/상주시남도동36-7, (0582)32-5888 · 강산분회/강산시동방동859-5, (053)812-6721 · 담양분회/담양군담양읍천내리113-3, (053)634-6336 · 영천분회/영천시장곡동26-10, (0536)34-8256
 ■ 경상남도건축사회/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7-47, (0551)46-4530~1 · 울산분회/울산시남구신경동585-6, (0522)74-8836 · 진주분회/진주시문정동7-20, (0551)745-6403 · 창원분회/창원시서호동163-16, (0557)645-7420 · 김해분회/김해시부원동611-1, (0525)35-5692 · 밀양분회/밀양시내일동392-1, (0527)355-4848 · 거창분회/거창군거창읍중앙리274-3, (0598)43-6090 · 양산분회/양산군양산읍남부동467-19, (0523)84-3050 · 거제분회/거제군신협읍교리리139-2, (0558)635-3432 · 삼천포분회/삼천포시동문동91-6, (0593)33-9779
 ■ 제주도건축사회/제주도제주시2도1동1289-6, (064)52-3248 · 서귀포분회/서귀포시사귀동299-6, (064)62-2233

新 年 辭



吳雄鎬회장

변혁의 한 해를 보내고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 아침을 맞아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망의 새해에는 우리 건축계가 발전적 변혁이 결실을 맺는 중요한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UR의 타결로 국내건설시장이 올해부터 외국업체에 문호를 개방합니다. 1월부터 일반건설업이 빗장을 푸는 것을 필두로 96년부터는 외국건축사가 국내건축사와 공동계약의 경우 개방이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국제경쟁도 치열했지만, 그동안 우리 서비스 분야는 보호장벽이 쳐져있는 가운데 이뤄진 경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뿐입니다. 이제는 과거 말로만 예고하여 왔던 국제화, 개방화시대가 아닙니다. 국경없는 지구촌에서 이겨나가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벌여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全方位에서 밀어닥치는 파고를 이겨내지 않고는 스스로의 위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의 변혁에 대비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나치게 규제된 법령과 제도, 잘못된 관행속에서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같은 과거 행태와는 다른 차원의 대응전략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건축계와 정부는 일체가 되어, 患部作新의 단호한 자세로 올바른 제도와 건전한 관행을 지향하여 이 나라 건축문화를 꽃피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건전한 경쟁체제가 정착되도록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협회는 피동적 대응 행태에서 벗어나 뚜렷한 목표제시와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회원 여러분의 업무와 권익을 지원해 나가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협회는 각 위원회와 사무처 조직을 발전적으로 개편하고, 정세변화에 대비하여 지난 해에 이룩하지 못한 건축사법 개정 추진을 비롯한 정부방침에 따른 설계도서 신고제 및 설계감리분리 제도 폐지 등의 후속 대책을 수립하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에는 건축사법과 건축법과의 통합 등 관련법 개정 논란과 행정쇄신위원회의 개혁 정책 속에서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협회의 위치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쫓기며 지냈던 한해였습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우리와 관련된 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감리자를 건설부장관이 지명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르는 시행령 및 동규칙과 운영방침이 앞으로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부실공사방지 차원에서 크게 기대하였던 소형건축물 감리업무분리시행폐지 조치 대안중 하나로 기대하였던 소형건축물 시공자등록제도는 건설업법 개정안으로 건설부에서 정식으로 국회에 제안하였으며 새로운 계층의 건설업제도 신설보다는 기존 업제도의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과 다른 반대 의견에 부딪쳐 또 다시 새로운 각도에서 해결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법령인 건축사법 개정은 93년도에는 여러가지 사유로 해결되지 못하였으나 신년도에는 반드시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협회는 감리업무의 철저와 건축물의 품질제고를 위한 건축자재시험소 설치, 협회의 능동적 홍보기능 강화와 신문발간, 기타 연구사업 등 회원의 품위보전과 권익향상을 위해 보다 봉사지향적 사고로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 대망의 갑술년을 맞이하여 심기일전하여 새롭게 재도약을 기약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의 변화와 개혁을 이겨낼 자신감과 저력을 지니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건축문화를 창달해 나가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밝으며 반드시 희망찬 영광이 있을 것을 믿어마지 않습니다.

신 정부의 개혁위업과 경제정책의 성공을 확신하며,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994. 1. 1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吳 雄 錫

무엇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가? (3)

What is Made us a Criminal? (3)

—국제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朴舒弘/단 · 회산종합건축사사무소

by Park, Suh-Hong

올해로 서울 정도 600년의 해를 맞았다. 동시에 새해는 정부가 약속한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의 준비의 해이기도 하다.

정치적 비중이 높긴하였지만 집권1기를 비교적 성공리에 마친 김정권이 주도할 내년의 개혁과 변화의 물결은 금년의 그것에 못지 않을 강도를 갖고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등 각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주지의 사실이다. 더하여 연전의 우리나라의 UN가입을 전후로 한 급변하는 세계대세는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의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국외자의 입장에 머무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2차대전 이후 서방국들은 1930년대 블록경제의 재현을 막기 위해 미국의 주도 아래 다자주의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했다.

비록 경제적인 논리와 요구에 의해 출발된 것이긴 해도 이와 같은 세계의 질서는 1970년대 이후 쌍무주의 및 지역주의의 관행에 의해 점차 약화된 입지를 갖기까지 반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여 왔다.

하지만 다자주의 무역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UR(우루과이라운드)를 효시로 세계는 다시 분화의 조짐을 보이면서 끼리끼리의 해체모여 작업이 진행중이다. 물론 그런 움직임의 이면에는 산업혁명이후의 앵그로색슨에 의한 1세기간의 세계지배와 이어진 게르만의 수습년, 그후 양키의 50년간의 세계지배가 1980년대를 기점으로 끝나버렸다는 그들 나름의 절박함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북미의 공동체인 NAFTA는 현실화 하고 있고 아프리카도 남북을 통합하는 공동체가 준비중이며, 유럽을 하나로 묶는 조약은 곧 발효단계에까지 와 있다. 아시아에는 아세안의 모임이 있고 아랍권을 통합하는 작업도 곧 가시화 되리라는 예측하에서 우리나라의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참여도 그러한 줄기기의 하나로 이해되면서 대통령의 「국제화」선언 역시 당연한 이 시기의 시대적 논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새삼스러울 것 없는 얘기지만 국제화에 대한 인식과 요구는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및 의식에 깊이 침투되어 있다. 1980년대의 해외여행 자유화에 상당부분 의거한 것이긴 해도, 자원이 부족하고 국내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대외지향적 전략을 갖고 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가능한 한 넓은 지역에서 개방적 거래질서가 유지되는 환경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우리 모두 심정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마이클잭슨의 공연이 거부되는 각론에 접어들어서는 우리 모두가

「반국제화」의 대열에 일사불란하게 서 있는 것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관료의 경직성」에 있다.

그레그 전주한대사가 말한 「한국의 관료들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한국의 국제화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특히 이 부분에 우리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관료의 경직성은 자연스럽게 각종 행정규제와 정책의 일관성 부재라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놈의 집한 채 짓는데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까다로우냐?」 우리 모두 한 번 이상은 들어 봤음직한 이러한 경구 뒤에 숨은 우리 모두의 비애를 그들은 외면하고 있다.

미(美)적 감수성만을 키워나갈 시기에 젊은 건축인들로 하여금 좌절하게끔 만드는 그들 관료들의 경직스런 폭거는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서울이 과연 자랑할 만한 도시로 되어 있는 것인가.

국제화라는 것이 구호를 크게 외치거나 큰 행사를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더욱이 급작스럽게 찾아온 몇 번의 외국여행의 기회가 국제화로 길어 아님을 분명하다. 유럽중세의 도시들을 바라보며 그 정제된 아름다움에 감격해서 우리도 국제화해서 저렇게 하자는 큰 목소리는 더욱 아니다. 오늘날의 그들 도시는 우리가 단순히 바라다보기만 해서는 잘 보이지 않는 자유인들이 도시주인이 되어서 만든 오랜 역사를 포용하고 있다. 그들 주민들의 자유스러움 이면에는 오랜 옛날 부르조아의 탄생을 잉태한 성(城)의 형성이 있었고, 그 성의 봉건 영주들로부터 탈출한 농노들이 있었다. 그 농노들의 자유를 쟁취하려는 처절한 삶의 모습, 바로 그것에서 오늘날 도시의 모습이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국제화의 길은 열리리라고 믿는다.

단일민족이라는 특수성에서 오는 것인지는 몰라도 우리에게겐 묘한 이중성과 배타성이 있다. 외국인들의 우리에게 대한 투자를 경제침략의 아류로 인식하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대중국이나 동남아의 투자를 우리의 영토확장 정도로 생각하는지, 호연지기를 뽐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한 민족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보다 먼 곳을 보게 됨은 필지의 사실이라고 볼 때, 올바른 국제화의 길은 먼저 우리 것에 대한 확인과 긍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대외적인 민족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오랜 민족의 염원이 해소될 수 있는 통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점들이 생기기라는 것 또한 예견된다. 도시에서 주거에 이르기까지 여태까지의 우리의 삶의 근저를 뿌리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이제부터라도 폭넓은 준비가 필요함은 물론 대책마련을 위한 거국적인 의견 수렴에 우리 협회가 일익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국제화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또 하나의 단서가 있다고 생각된다.

자기 것을 사랑하고 긍정치 못하는 자는 결코 남을 사랑하고 긍정해 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자기 것을 이해하고 긍정치 못하는 민족은 당연히 세계로 뻗어나갈 수가 없다. 그런면에서 국제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우리됨을 이해하고 그를 긍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제와 한국방문의 해 같은 구호를 제론할 필요도 없이 서울이 가장 서울답게 부각됨은 서울의 지방화—보다 작은 서울을 위한—라는 것은 이제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서울의 지방적 특색—달리 말해 서울의 건축적 특징—이야말로 더 늦기전에 우리 세대가 준비하면서 고쳐야 할 과제중의 과제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런 건축공간이 수용하는 특징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삶의 공간일 수밖에 없고 보편적이며 대중적인 삶의 본체를 추구하는 집요한 자세야말로 자연스러운 국제화의 첩경이기 때문이다.

오랜시간 우리들은 「집」에 대한 평가를 하드웨어적 기준으로만 접해왔다. 건축을 한다는 우리들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 몇 평짜리 집이며, 평당 얼마짜리냐는 물음만이 있을 뿐이지 벽돌이나 거실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부엌이 어떤 특징으로 디자인 되었느냐는 물음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우리 주변에 세워지는 집들의 수명(Life Cycle)을 거론할 때에도 물리적 수명만을 거론할 뿐이지 점차 짧아지고 있는 사회적 수명은 별로 언급을 안한다.

매일 접하고 있는 건축자에게 있어서도 외국산으로 상당부분 이뤄져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그들 외산자재의 소프트웨어의 축을 이루는 요소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있다.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선진국들은 이미 자국의 영역을 뛰어 넘어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지적소유권이나 고유브랜드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화급을 다투게 되었고 이태원상가에서 구입한 프랑스 고유브랜드의 가짜상품을 프랑스 출입국 관리소에서 사법처리하겠다는 결정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넘어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과연 고유브랜드가 없는 것인가. 개방화시대에 건축의 국제화란 외국업체나 물건의 우리나라에의 진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나가야만 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 다만 사고의 혁신적 대변혁만 이뤄진다면 가능하다. 또한 사고의 대전환이란 것도 우리 주변의 가까운 것에서부터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온돌이란 우리 전통의 난방방식이지만, 그걸 약간 시스템화 시켜 추운 북방으로 진출한다면 훌륭한 상품이

되리라는 걸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바닥 난방방식의 세계적 권위자들이 아니겠는가. Kotae 높은 일본주택업자들이 그들 북방지역의 난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기웃거리면서 바닥온돌 시스템의 설계 사양을 배우려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 하기에 충분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통상 우리의 것을 거론할라치면 전통건축을 들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한다. 또 그런 의견상의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우리 선인들의 공간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기도 한다. 계층으로 분화된 공간의 질서에 있어서나 그 질서에서 재편된 다목적 사용을 위한 공간의 지혜와 그런 지혜에서 유추되어 나온 각 상세에 이르기까지 정점인 미(美)를 향한 노력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건축의 감수성만을 축적해 나가던 시절에 진한 감동을 받았다고 하여서, 아니 과거의 사회 분위기가 그런 것을 요구했다고 하여서 무조건 형태를 재현하는 행위는 우리의 건축적 상황에 조금의 도움도 못된다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조선조를 살았던 사람의 삶과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민족적 자기긍정이란 것이 우리의 시선을 넓히는 초석은 될지언정 그것이 완성일 수는 없다. 그것의 완성을 위해서는 과거의 배타적 민족주의자들의 내부지향적 시각이 아닌 밖에서의 우리를 보는 「세계속의 우리」라는 시각이 조망될 수 있어야 하겠다.

지정학적으로 우리의 위치가 점점 더 동북아의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물론 북한도 포함하여)라는 방대한 잠재시장을 배후에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한 사실은 중국과 대만이 민족단위의 경제권을 형성해 가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북한과의 한반도 경제권이 수립될 수 있다면 더욱 눈여겨 보아야 할 사실일런지 모른다. 대외적인 민족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오랜 민족의 염원이 해소될 수 있는 통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점들이 생기기라는 것 또한 예견된다. 도시에서 주거에 이르기까지 여태까지의 우리의 삶의 근저를 뿌리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이제부터라도 폭넓은 준비가 필요함은 물론 대책마련을 위한 거국적인 의견 수렴에 우리 협회가 일익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국제화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또 하나의 단서가 있다고 생각된다.

모두에게 물어 보고 싶다

I Want to Question by Everybody

金泰雄/경상북도 건축사회 회장
by, Kim, Tae-Woong

우리 건축사회가 처한 오늘의 상황은 비상한 사태에 처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별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들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며, 이 원인들을 검토함에 앞서 우리는 겸허하고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협회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 내가 보고 느낀 바를 정리하고 소박한 나의 견해를 이에 관련된 분들에게 질문으로 물어 보고자 한다.

이 견해는 내가 생각한 바의 솔직한 정리이며, 이 물음은 진실을 조금이나마 규명하고, 이 자문(自問)을 통해서 자기 반성과 본 협회의 발전 및 우리의 건축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1. 대내적인 문제

1) 우리 회원들에게

지금까지 우리들은 각자의 이해(利害)에 집착하여 나의 발전과 협회의 발전이 공존되도록 생각의 폭을 넓혀 보았으며, 이 사회의 중요한 지도자로서 투철한 자아의식과 국가관을 가지고 우리의 업무를 수행해 왔는가? 를 묻고 싶습니다.

2) 협회 임원들에게

투철한 사명감과 협회를 위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큰 비전을 가지고, 계획하고 실천해서 이 나라 건축문화의 발전에 견인차의 역할을 다해 왔으며, 이 나라 건축의 최고의 민간조직으로써 국가의 건축과 도시문제들에 대한 훌륭한 제안과 정책개발에 기여하여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3) 건미준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여러분들의 주장이 현재의 건축설계와 감리분야의 현실에 부합된 주장이며, 그 주장의 정당성 이전에 이상과 현실의 심각한 괴리를 어떻게 조화(調和)시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상론(理想論)이 아닌 실천 가능한 현실론(現實論)인가?

•여러분들의 제안이 국가기관에 반영되어 현실적으로 법제화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거나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 할 경우, 이 국가와 사회 및 회원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겠는가?

•여러분들의 주장대로 건축사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업무를 하였다면 왜 우리 회원들의 대다수는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가?

•3배 이상의 건축사들이 올해 배출된 점은 환영하나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건축사의 질적 저하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

•과연 여러분들의 제안이 국민제안(國民提案)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가?

•마지막으로 본 협회 회원으로써 여러분들의 제안들이 본 협회와 협의를 거쳐야 정도(正道)라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점들을 묻고 싶습니다.

4) 감리단을 운영하시는 회원들에게

설계와 감리는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설계자가 감리를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협조하고 찬성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축은 그 시대정신의 표현이며, 인간의 존엄성이 수용되어야 하는 생활공간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문화재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건축이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는 척박한 문화환경이 다시는 이 나라에서
재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축사들은 현재의 암울한 현실을 넘어 조금은 화평함 속에 조그마한 미래의
희망을 갖고 진정한 우리들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정화(淨化)된 건축환경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대외적인 문제

1) 건축관련 국가기관들에 대해서

6·25동란으로 폐허화된 국토를 오늘의 번영된 조국을
건설하는 데 우리 건축사들의 노력과 봉사가 다른 어느 분야
보다 적지 않았다고 봅니다.

• 현재 건축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상황들은 불신과
규제의 대상으로 이에 상응한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정 우리 건축사들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볼
수 없는가?

• 지난 30여년 동안 진정한 의미의 건축이 몇 %나
건축되었는가?

• 건축은 재산의 증식수단으로 이용되는 전반적인
사회풍조 속에 아무런 제도적인 보장도 없는 건축사들에게
적법과 책임만이 요구되는 암울한 현실과 우리 건축사들이
진정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와 건축환경에 대한 고려는
해줄수 없는가?

진정한 건축은 자유와 창조적인 바탕 위에서 개화(開花)
될 수 있음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우리 건축사들이 감내한 무수한 처벌과
행정조치를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며,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 전국의 모든 사무소가 UR에 대비해서 대형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지역여건에 맞는 적절한
규모의 사무소들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때,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상태라고 고려될 수 없는가?

• 설계사무소의 대형화만을 유도하는 방향보다
설계분야에 관련된 모든 분야(구조, 전기, 소방, 기계설비,
조경, 실내디자인, 교통평가, 지역개발, 도시계획, 기타)의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고 더 현실적이라고 고려될 수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2) 국민 여러분들에게

건축은 그 시대정신의 표현이며, 인간의 존엄성이
수용되어야 하는 생활공간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문화재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건축이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는 척박한
문화환경이 다시는 이 나라에서 재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축사들은 현재의 암울한 현실을 넘어 조금은
화평함 속에 조그마한 미래의 희망을 갖고 진정한 우리들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정화(淨化)된 건축환경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건축에 대한 꿈과 정열을 이 국가를
위해서 맘껏 펼칠 수 있는 장(場)의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4천2백여 건축사들에게 큰 격려와 이해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아마 우리 회원들은 침울한 기분을
삼기일전해서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살림과 우리의 자세

New Year's National Economics and Our Posture

朴景煥/대한건축사협회 상근부회장

by Park, Kyeong-Hwan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1994년도 예산안의 편성내용 중 주요역점 분야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왜 국민 모두가 정부의 경제계획과 경제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조금 언급하고자 한다.

경제라 함은 일반적으로 돈의 흐름과 돈에 관한 학문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산업사회와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구조속에 있어서의 경제문제는 돈의 문제만이 아니고 정치, 사회, 교육, 문화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고, 국내문제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도 함께 염두에 두어 종합적인 측면에서 풀어나가야 하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쌀 수입개방 문제만 하더라도 쌀은 우리들에게 경제적 요소보다 비경제적 요소인 민족적 정신과 농민들의 생명과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경제적 수치와 논리로 풀 수 없는 국가적, 민족적으로 중대한 요소가 내재하고 있는 점 등이 바로 그 실례라 하겠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냉엄한 국제적 현실속에서 경쟁과 생존해야 하는 현대인으로서 경제원리에 충실해야만이, 때로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전전하게 비판하고, 때로는 경제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또한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국민층이 두터워질 때, 한나라의 국가적 경제가 더욱 활기와 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면 경제정책 방향과 94년도 주요역점 분야의 예산에 대하여 대별하여 요점만 살펴보겠다.

I. 경제정책방향

(KDI 경제전망)

구 분	'93	'94
경제성장률	4.5%	6.5~7.2%
소비자물가	5.4%	5.4~5.6%
세계경제성장률	1.2%	2.6%

1. 재정개혁

(1) 재정능력의 확충

- 조세면제를 제고
 -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세율 인상
 - 93년 19.3%에서 94년 20.2% 수준으로 제고
- 공공자금의 투융자 재원 활동 제고
 - 공공자금 관리기금 설치

연 기금 등이 금융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여유자금, 예탁된 자금은 재정투융자 정책금융의 재정흡수 및 국공채 연수재원으로 활용

- 인건비 비율 축소(공무원 정원 동결)
- 방위비 증가율 억제
- 경상비 증가율 억제

(2) 세제의 개혁

- 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개편
-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추진
- 다주택 보유 재산세 과세강화
- 담배 소비세 개선
 - 갑당 360원에서 460원으로 30% 인상추진
- 1세대 2차량 보유 취득세, 등록세의 중과

2. 금융개혁

(1) 금리자유화

(2) 금융실명제

- 금융실명제가 국민의 경제활동과 생활습관 속에 구조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3. 행정규제개혁

(1) 농림수산업분야

(2) 건설업분야

- 건설업면허 주기를 3년→1년 단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
- 해외건설업면허제→등록제로 전환

(3) 토지이용관련 규제완화

- 농지, 산지의 거래이용개발관련 규제완화
- 수도권 정비계획 및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 수도권권역을 5개권역→3개권역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
- 공단개발절차간소화 및 민간참여 확대

(4) 건축관련 규제완화

- 건축허가 심의절차 간소화
- 건축심의, 경관심의 등 건축허가 관련 심의제도를 통폐합 조정

(5) 수출입관련 분야

- 수출입절차 간소화
 - 기관 승인제도, 통관절차

4. 경제의식개혁

- (1) 공직자 의식개혁의 추진
 - 민간위식 개혁의 추진

II. 94년도 예산안의 개요

94년도 예산 기초는 경제활력 회복, 국가기강의 확립, 부정부패의 일소 등 깨끗한 정부를 위한 개혁의지를 뒷받침하는 예산이다.

1. 94년 예산안 개요

구 분	'93예산	'94예산(안)	증 감	
				%
합 계	380,500	432,500	52,000	13.7
○ 국 세	367,624	415,371	47,747	13.0
· 국 내 세	315,121	356,230	41,109	13.0
· 교 통 세	17,440	30,394	12,954	74.3
· 관 세 등 ¹⁾	35,063	28,747	△6,316	△18.0
○ 세 외 수입	12,876	17,129	4,253	33.0

1) 91년에 폐지된 방위세의 체납처분 등 포함('93 : 1,005 → '94 : 535억원)

2. 94년 예산안 주요역점분야의 편성내용

구 분	'93예산	'94예산(안)	증 감	
				%
○ 사회간접자본확충	46,795	60,772	13,977	29.9
○ 농림수산업부흥지원 (실사업비) ¹⁾	44,840 (26,224)	53,200 (32,730)	8,360 (6,506)	18.6 (24.8)
○ 중소기업지원	11,007	20,999	9,992	90.8
○ 과학·기술진흥	8,616	11,379	2,763	32.1
○ 교육 및 산업인력양성 (교육예산 총계)	7,483 (98,800)	10,037 (111,350)	2,554 (12,550)	34.1 (12.7)
○ 문화체육 지원	1,946	2,534	588	30.2
○ 국민복지증진 및 국가유공자 지원	27,664	33,524	5,860	21.2
○ 환경개선	3,070	4,130	1,060	34.5
○ 에너지 및 석탄산업	1,922	1,735	△187	△9.7
○ 외교·통일·공보	2,819	3,060	241	8.5
○ 지역균형개발 내실화	15,530	18,740	3,210	20.7
○ 방위비 지원	95,724	104,900	9,176	9.6
○ 민생치안 부문	9,312	11,683	2,371	25.5

1) 소록보상, 채무상환을 제외한 실사업비

3.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획기적 확충

[4조6,795→6조772억원(1조3,977억원, 29.9% 증)]

1. 유류관련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과 유류세를 인상에 따라 조정되는 계원 등으로「도로 등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로, 지하철, 철도 등 수송부문을 중심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

(^{'94} 주요 완공 사업)

- 도로 : 고속도로「인천~안산」등 신설 및「신갈~원주」등 확장, 국도 확장 330km
- 철도 : 서울~구로간 3복선 전철, 분당선 1단계(수서~분당)
- 항만, 기타 : 부산항 7부두 확장(110만톤/년), 인천항 6부두(180만톤/년), 울산 6부두(180만톤/년)

4. 대형투자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합 계	92까지				95이후
		92	93	94	95	
경부고속전철사업	107,400 (38,330)	1,122 (1,122)	3,079 (2,137)	5,436 (3,090)	97,763 (41,981)	
수도권신공항사업	39,865 (19,040)	877 (877)	2,132 (1,432)	5,610 (2,875)	31,246 (13,856)	
평양항전데이터부두	4,259 (2,629)	644 (503)	446 (264)	1,057 (378)	2,122 (1,482)	
계	151,524 (69,988)	2,643 (2,502)	5,657 (3,833)	12,103 (6,343)	131,121 (57,320)	

주 : () 내는 재정투자액

5. 중소기업지원의 획기적 확대

[11,007→2조999억원(90.8% 증)]

1. 신용보증 확대등을 통한 자금공급 확대 지원 : 4,092→11,433억원
2.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지원 : 4,840→1,721억원
3. 해외시장개척 및 대외경제협력 지원 : 2,075→4,845억원

6. 쾌적한 환경조성 및 맑은 물 공급

[3,070→4,130억원(1,060억원, 34.5% 증)]

1.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 : 2,197→2,907억원
2. 수질오염방지 기초시설 확충 : 368→587억원
3.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재활용 대책 추진 : 351→430억원

신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94년도 예산개요에 대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중요한 점은 경제적 수치나 계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문턱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실상과 현위치를 냉정히 비판해보고 우리의 취약부분과 장애요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 이를 보완하고 제거하는 길이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이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

신정부에서도 1차적으로 건전한 경제성장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경제의식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엿볼 수가 있다.

어느 경제학자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전입하기전에 최종적으로 집계되는 마지막 고비가 바로「국민의식개혁」이라고 말했다.

다시말해서 실물경제가 발전속도에 맞추어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결국 실물경제의 발전도 벽에 부딪히고 만다는 것이다.

한편, 경제성장을 “끊임없이 버리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즉 경제환경의 변화와 함께 경제발전단계에 따라서 종전의 낡은 법과 제도를 버리고, 낡은 관습과 사고방식을 버리고, 낡은 생활까지도 버리는 과정이 바로 경제성장이라고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91년도의 경제규모(GNP)가 33천억\$('91한국 2,727억\$), 1인당국민소득 27천\$('91한국 6,316\$), 수출 3,145\$('91한국 719\$), 경상수지가 흑자 729\$('91한국 적자 88억\$)으로서 경제대국인 미국을 밀어제치고 초 선진경제 3강국으로 부상되고 있는 역사와 생활관습을 우리와 비슷하게 하고 있는 이웃 일본의 국민의식수준과 그들의 감점을 몇가지 살펴보면, 첫째, 세계에서 가장 청렴결백하고 유능한 공직자를 가지고 있다. 각종 인허가에 있어서나 행정집행이 합리적이며 공정하여 무엇보다도 깨끗하다. 그리고 국민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공복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다.

둘째, 기업은 다른 나라보다 싸고 질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하여 이윤의 대부분을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와 시설비에 재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이윤보다 사원복지에 우선하고 신용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셋째, 국민들은 공공에 대한 인식과 준법정신이 투철하여 위법, 부실, 부조리에 대해서는 국민 스스로가 자제하고, 모든 관행과 행동양식이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 사회와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4배이상이나 되는 27천\$이나 되면서도 호화, 사치와는 거리가 먼 지극히 겸손한 생활과 성실, 친절, 근면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이 소비를 줄이고 절약해서 계속 경제력을 키우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국민들의 각계각층의 국민의식들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우리들의 취약점과 개혁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의 한민족도 끈기와 강인성과 지혜의 측면에서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의식개혁을 통한 자기정비를 향한 꾸준한 노력과 부단한 변화를 활발히 전개한다면 경제선진국에도 무난히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충청은행 전산센터

The Bank of Korea Chung-Chong Computer Center

全相伯/(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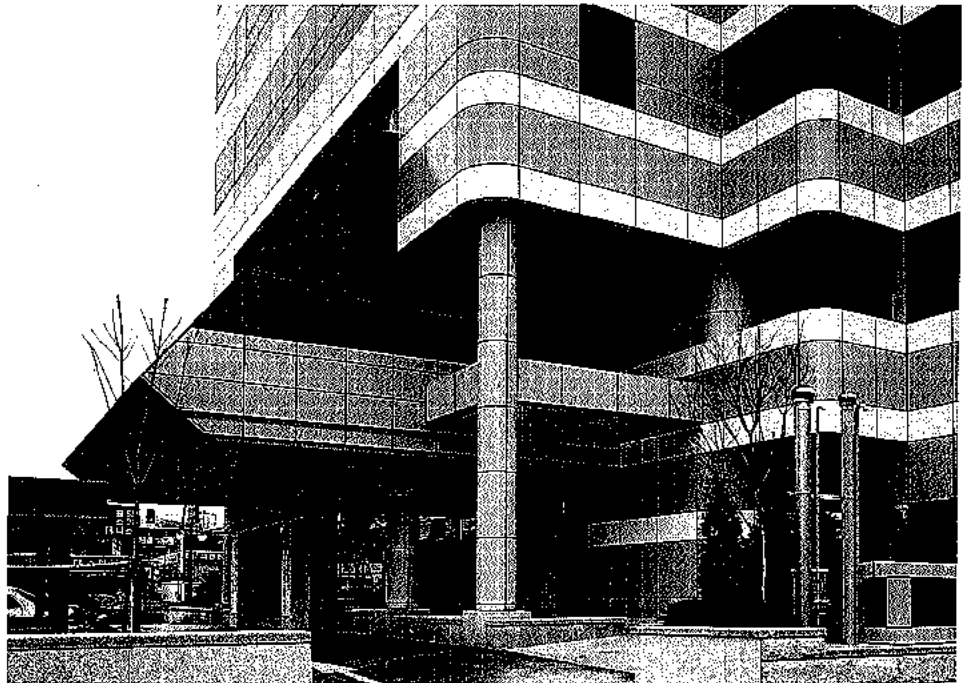
Designed by Jeon, Sang-Ba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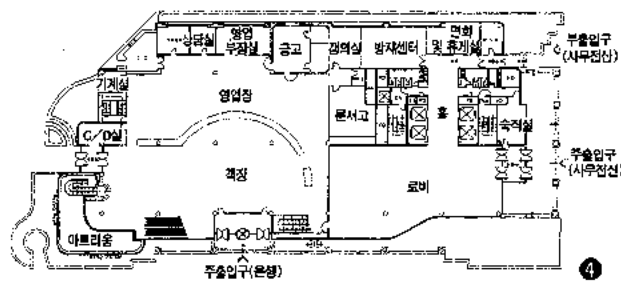
2

대지위치 / 대전직할시 중구 오류동 176-1번지
외 13필지
지역·지구 / 주거지역, 미관3종지구
대지면적 / 4,734.20㎡
건축면적 / 2,402.7㎡
연면적 / 23,233.37㎡
건폐율 / 50.73%
용적률 / 286.17%
규모 / 지하 3층, 지상 10층, 옥탑 2층
구조 /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법랑강판+T 24mm 칼라복층유리



3

- ① 동북측 전경
- ② 은행 영업장 전경
- ③ 서측에서 바라 본 주출입구측 상세
- ④ 1층 평면도



4



5

■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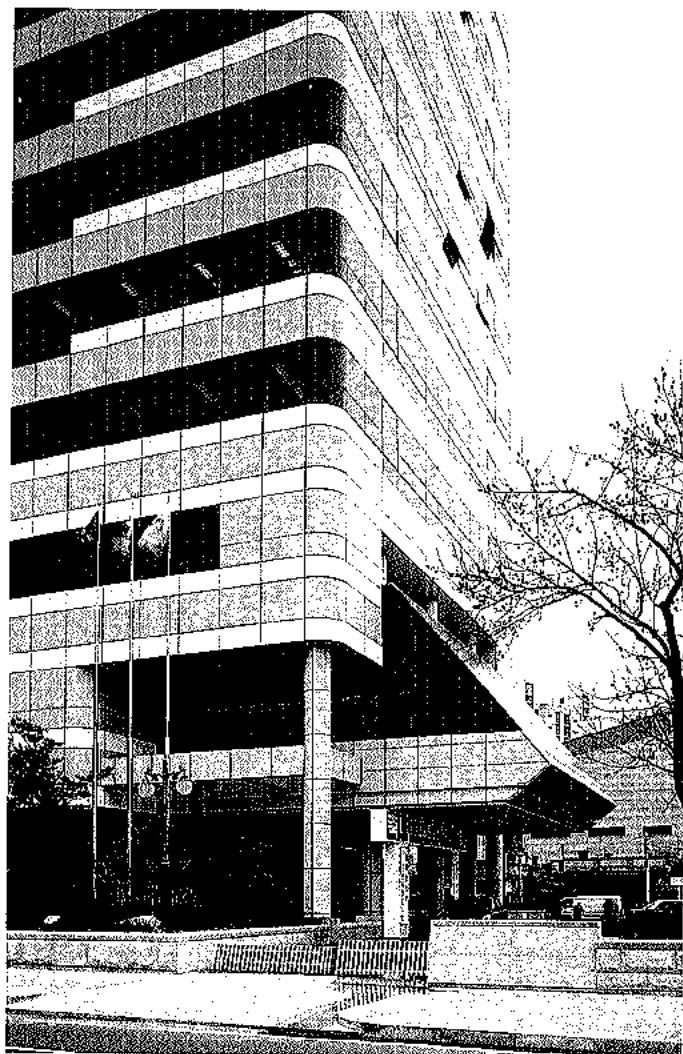
대전 중심가와 둔산행정타운을 잇는 간선도로 상에 위치한 충청은행 전산센터의 준공은 대전, 유성 및 충청지역의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주변 관공서와 기업체의 금융거래권으로 지역사회의 경제적 요구 및 문화적 요구까지 수용하는 개방된 은행의 이미지를 반영하였다.

1990년도 지명 현상설계에서 당선된 본건물은 체류로상의 표상적(Land mark)이며, 지역사회에 얼굴이 되고, 기능면에서도 3층의 개방된 아트라

움, 강당, 전시공간 등을 두어 은행이 단순한 현금 보관의 개념보다는 친숙한 방향의 은행이 되도록 하였다. 본건물은 은행의 기능적 특성을 살린 저층과 고층의 두개의 Mass로 남쪽에는 저층, 북층에 고층을 둠으로써 일조를 배려하고 대전 시청 방향에서 접근시 건물 조형의 조화성을 추구하였다.

고층부는 대지 중심에 위치하여 각기능(전산실, 영업장, 외부공간)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상징성을 부각시켰다. 한편, 고층부의 유리커튼월과 저층부의 경제한 수평미는 주변 APT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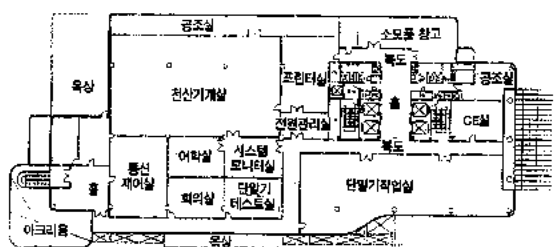
과 차량이 교차하는 가로변에 산뜻함을 주어 행인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요소가 되게 하였다. 또한 전면 35m도로와 8m도로 APT군에서 영업장 진입과 북쪽에 여유공간인 옥외 공간을 두어 사무 및 주차 진입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외부로부터 고객 동선과 사무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였다. 아쉬움이 있다면 설계당시 향후 은행 성장에 대비하여 계획한 전산센터 기능이 시공과정에서 축소되어 전문적인 전산 기능이 아닌 오피스 건물로 변모되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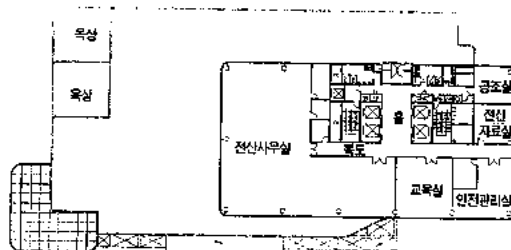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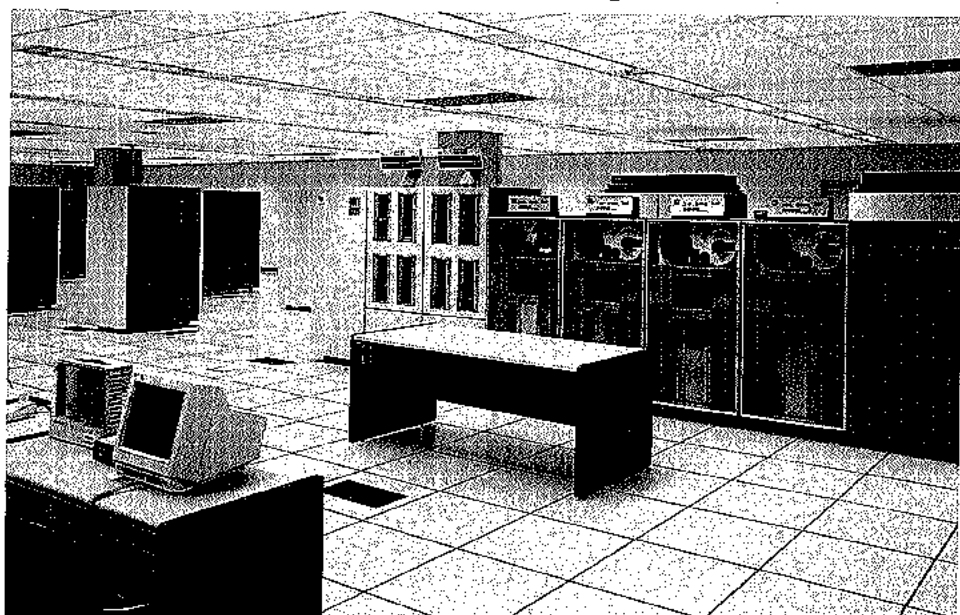
7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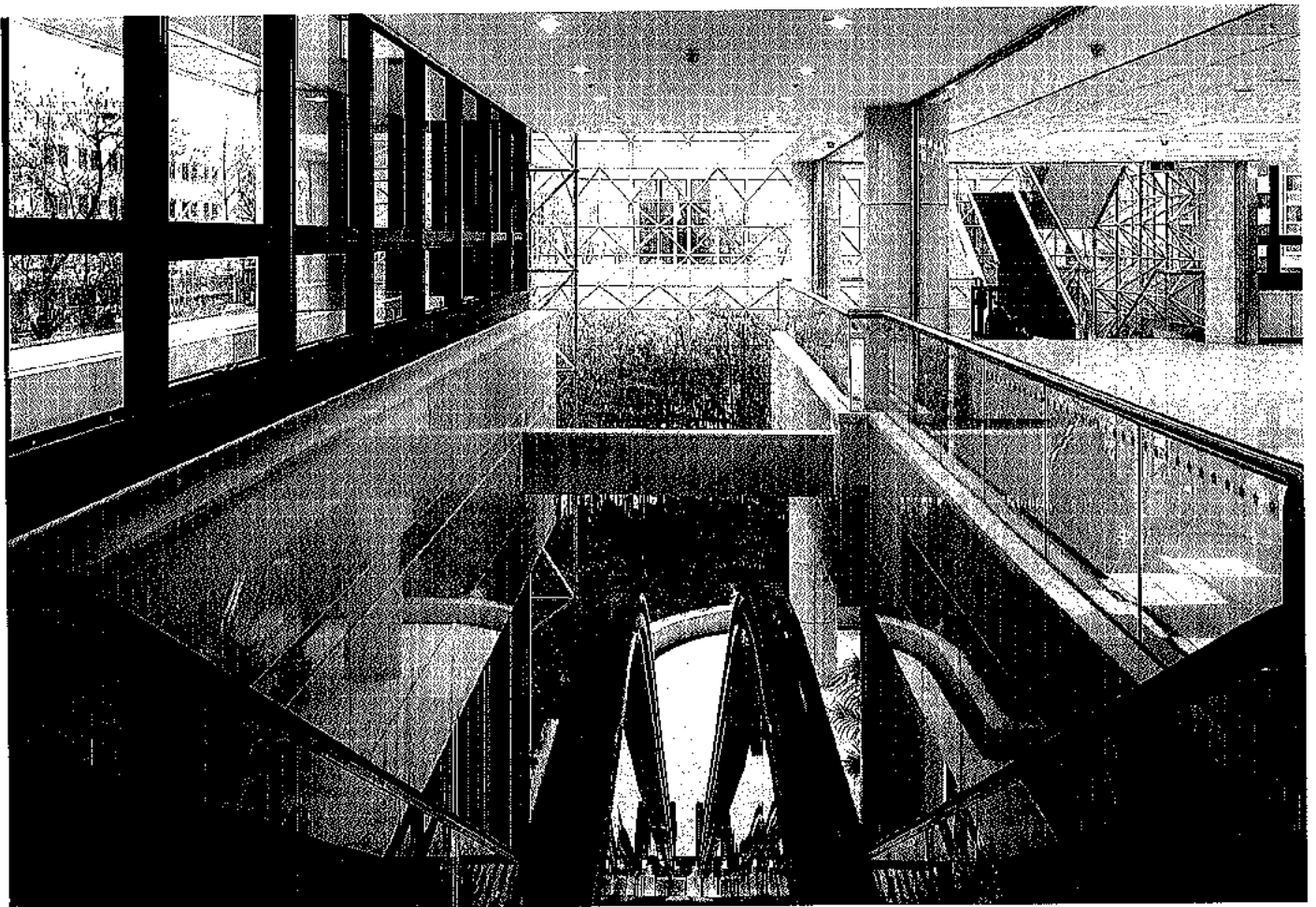


10

- ⑥ 남동측 전경
- ⑦ 동측에서 바라 본 주출입구측 상세
- ⑧ 계단실 상세
- ⑨ 3층 평면도
- ⑩ 4층 평면도
- ⑪ 전산실 내부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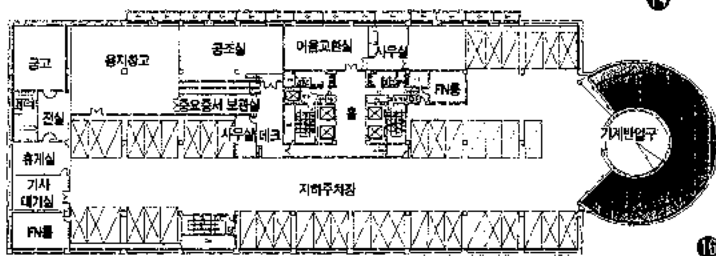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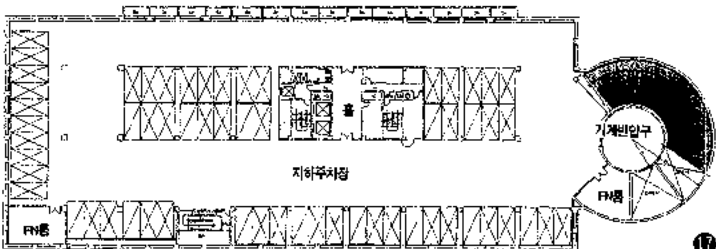
14



15



1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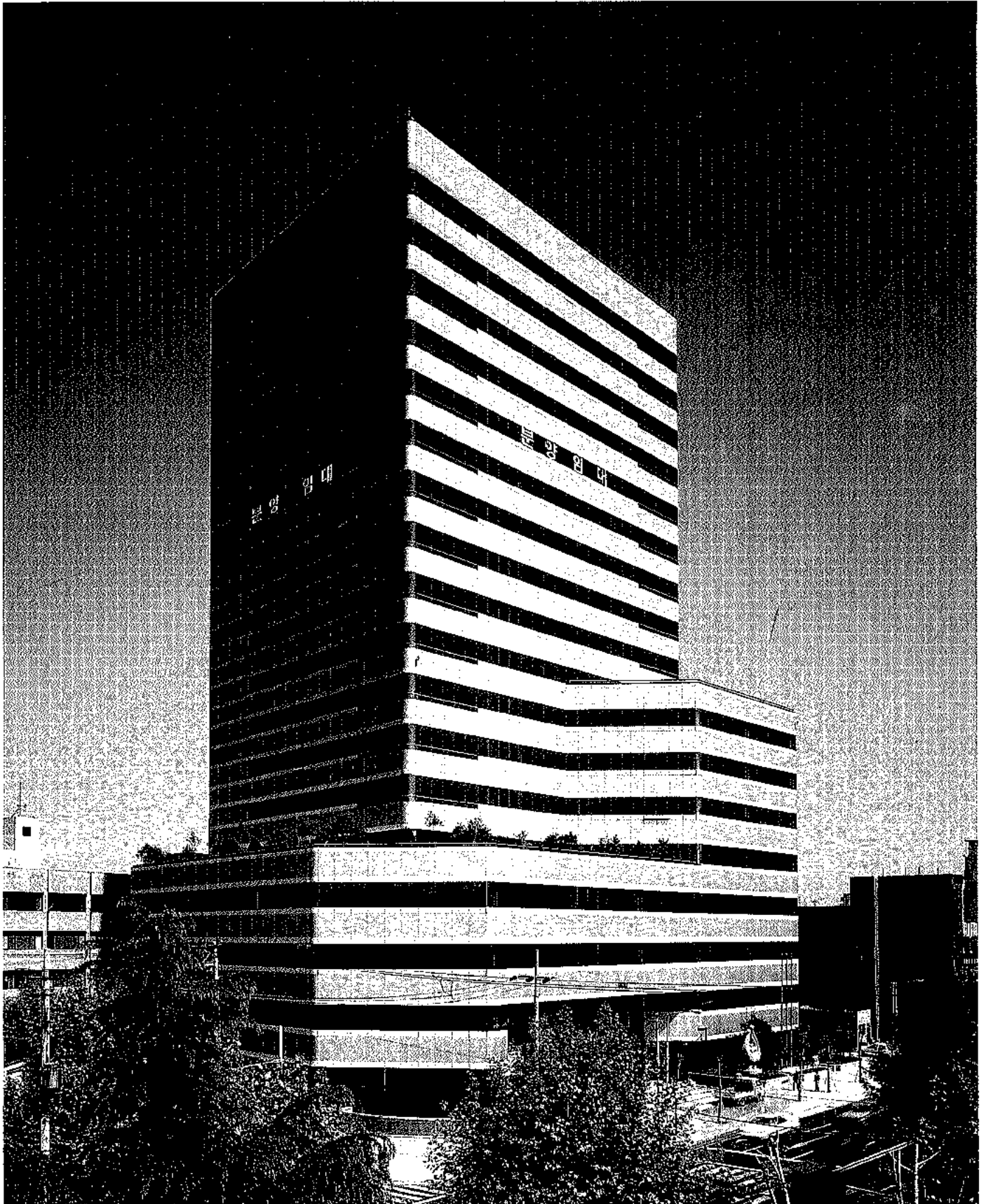
- ① 회의실 전경
- ② 에스컬레이터 부분 상세
- ③ 올려다본 천장 아트리움
- ④ 1층 엘리베이터 홀
- ⑤ 강당
- ⑥ 지하 1층 평면도
- ⑦ 지하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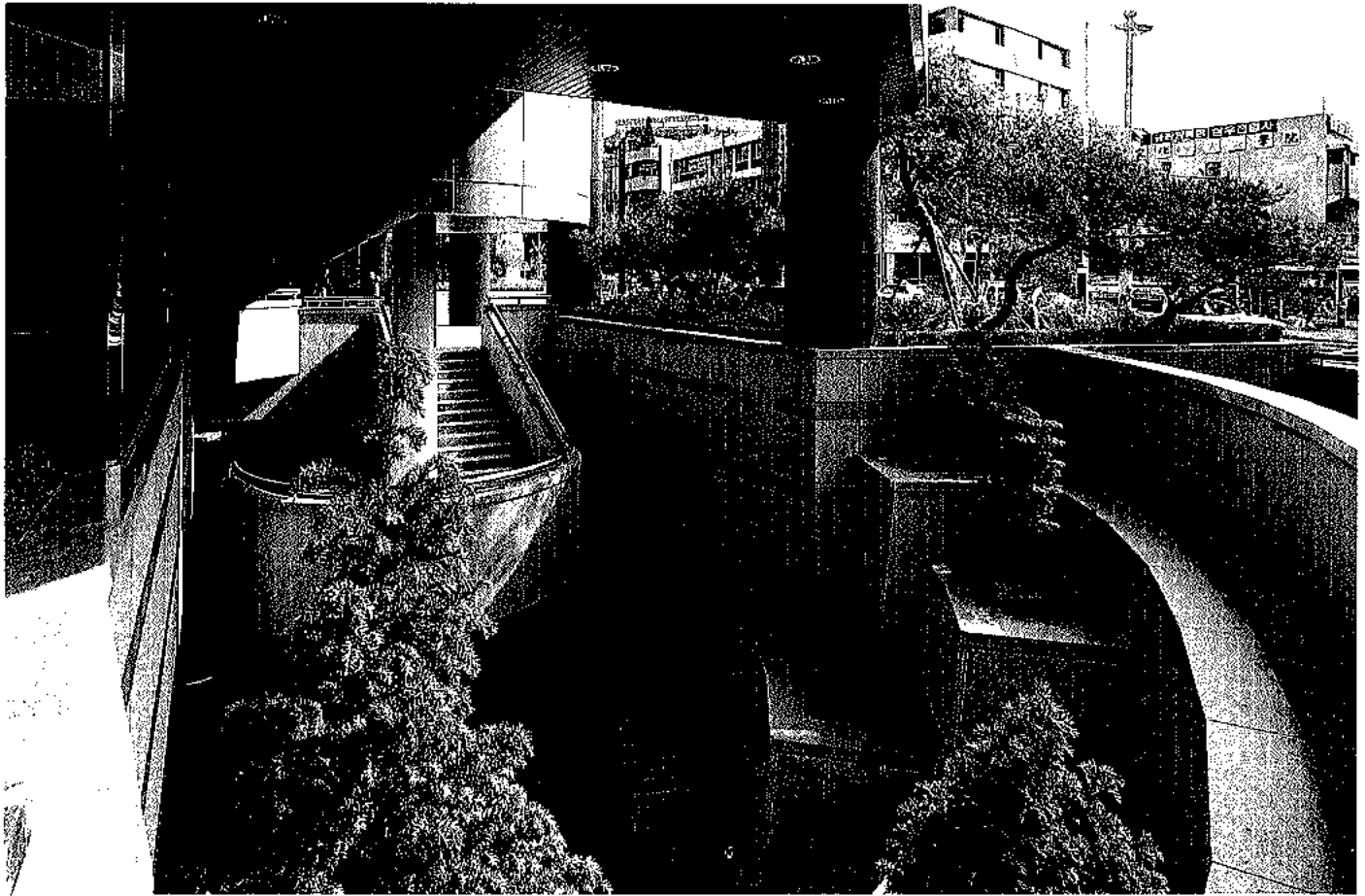
대전 대림빌딩

Daelim Building

金 浩/(주)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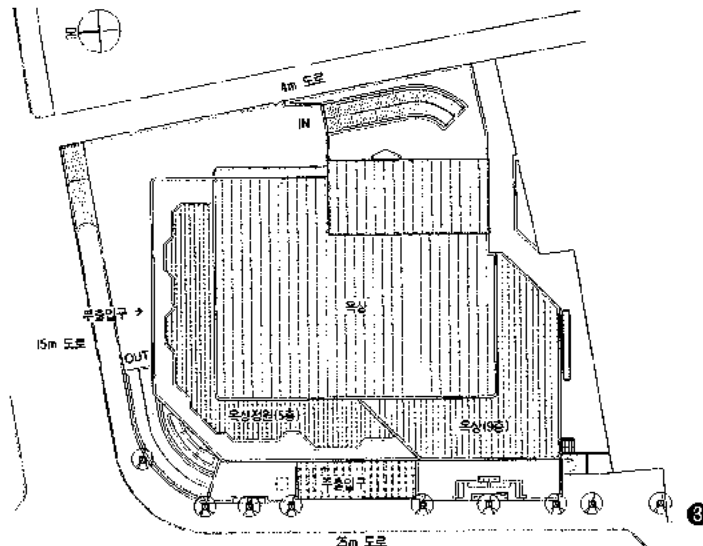
Designed by Kim, 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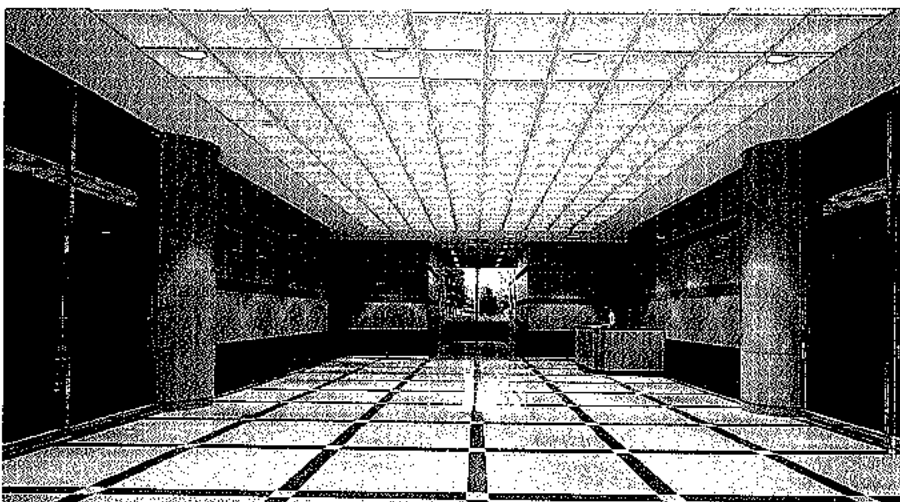


2

위치 / 대전직할시 중구 대흥동 452-3
 지역·지구 / 상업지역, 4종미관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고도제한지구, 방화지구
 대지면적 / 3,290㎡
 건축면적 / 1,807㎡
 연면적 / 32,651㎡
 건폐율 / 54.94%
 용적률 / 661.1%
 규모 / 지하 4층, 지상 18층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용도 / 업무시설
 주차대수 / 290대
 외부미감 / 복층유리+알루미늄복합패널



- ① 북서측 전경
- ② 지하 선콘 기본
- ③ 배치도
- ④ 1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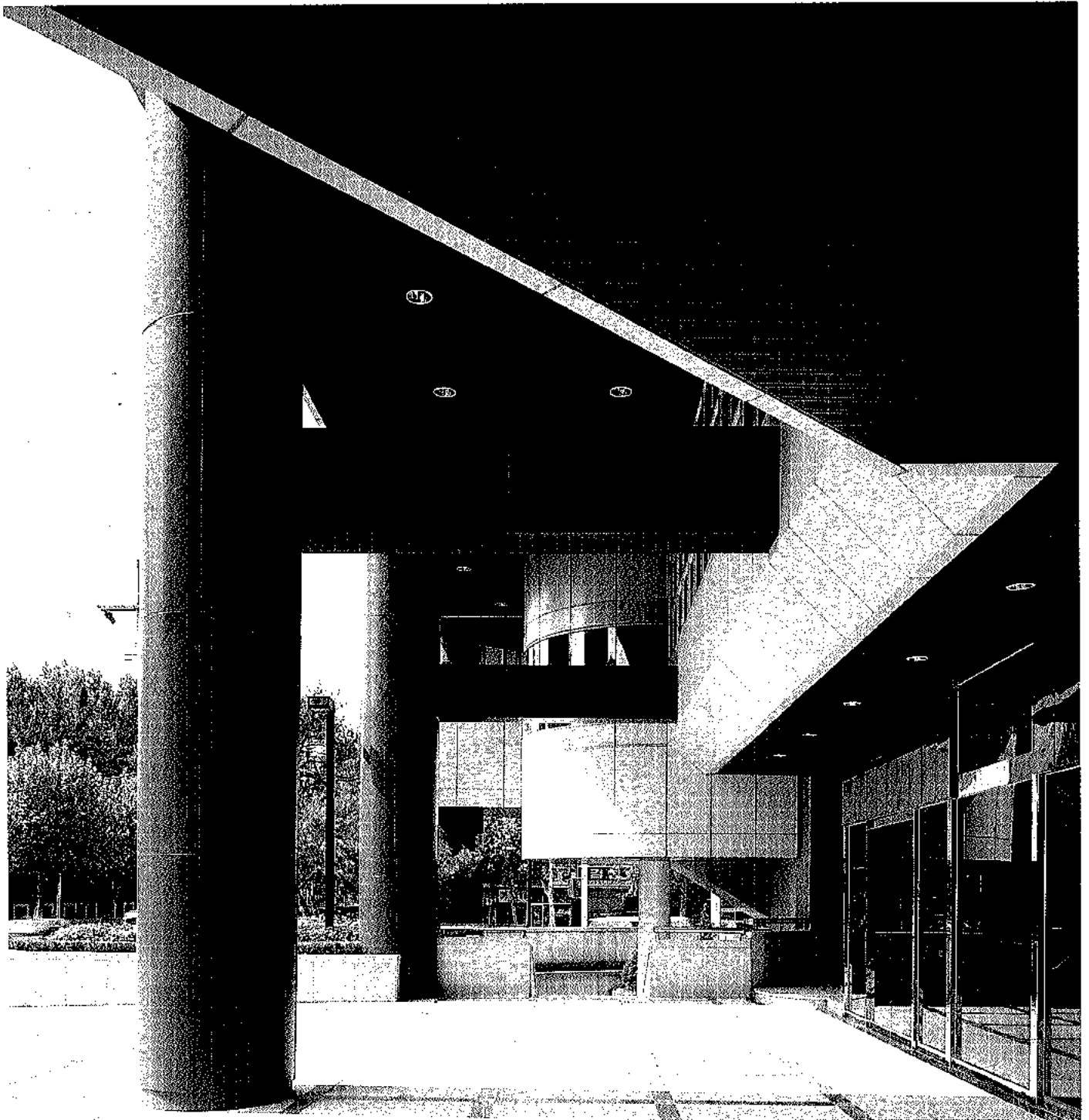
4

■ 설계소요

도시라는 환경속에서 대형건물의 계획은 그 자체의 기능과 상업적 목적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도시환경의 흐름에 융화되어야 함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의 부지는 25m, 15m 두개의 도로가 교차되는 가로모퉁이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 도로에 비해 상당히 고층화되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저층부와 고층부를 분리하여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포디엄부분과 타워부분으로 매스를 구성하였다.

이것은 도시적스케일과 보행자 접근스케일이라는 이중적 스케일을 고려한 것이며, 그에 따라 저층부에는 적절한 기능(은행, 미술관, 클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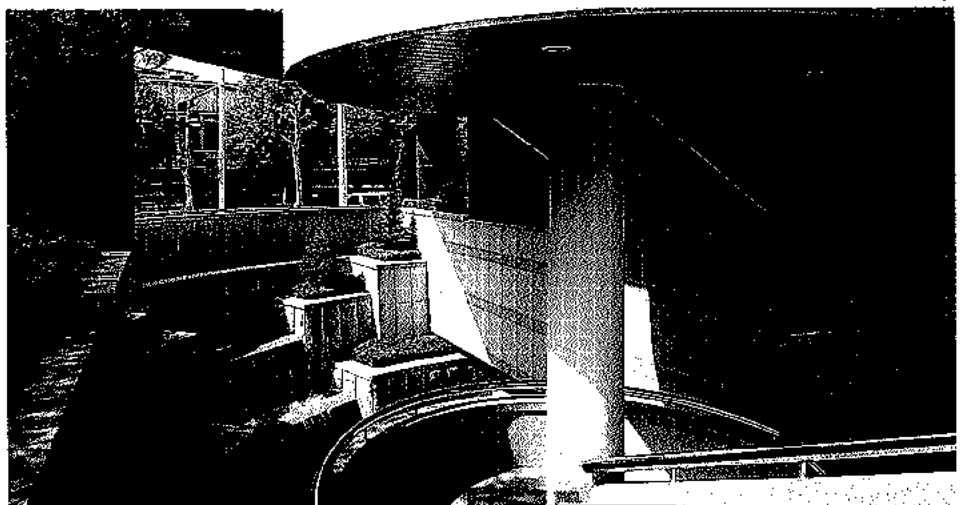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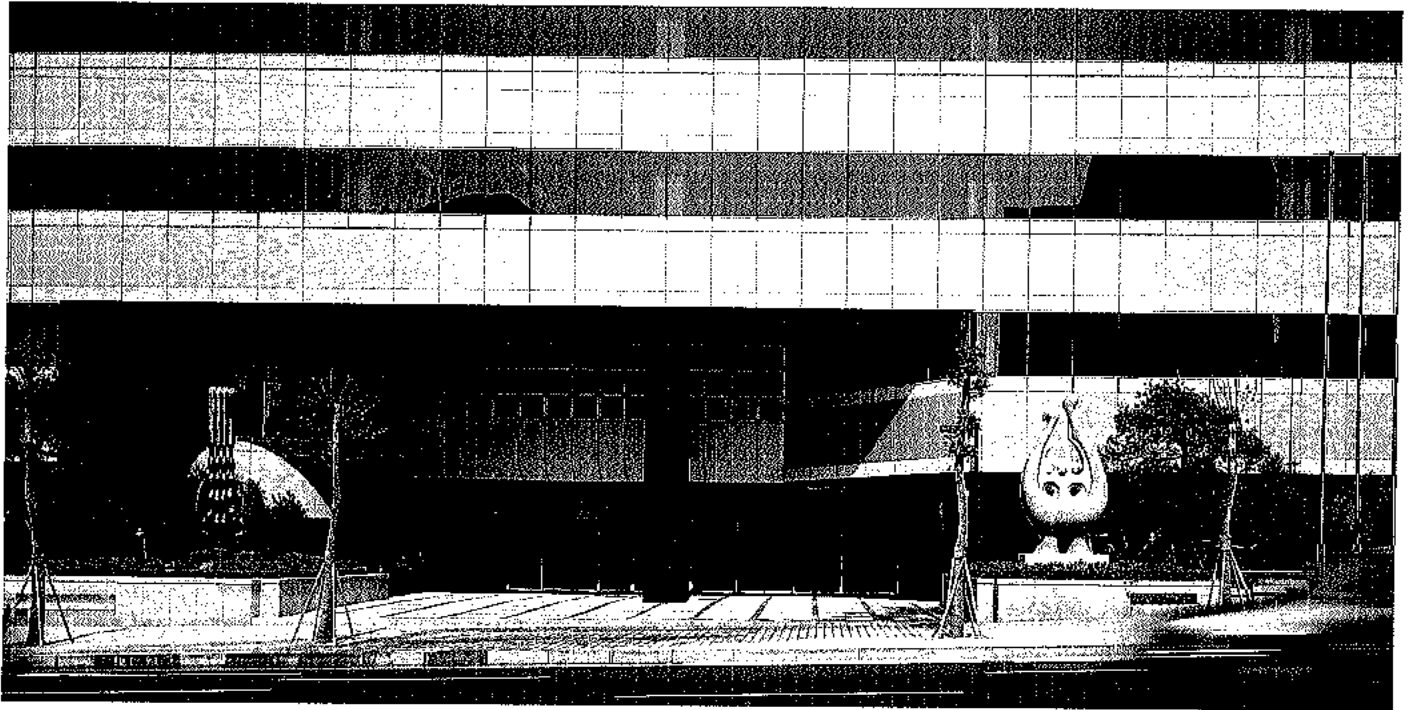
등)을 수용하고, 전체적으로는 메스의 단조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알루미늄 복합패널과 녹색유리의 수평띠가 서로 반복되어 수직적 상승감과 유발하는 고층부는 도시랜드 마크로서의 인지도를 높여주고, 가로모통이에 대응하여 사선으로 처리된 지층부는 돌출된 원형계단과 함께 보행자들에게 아기자기한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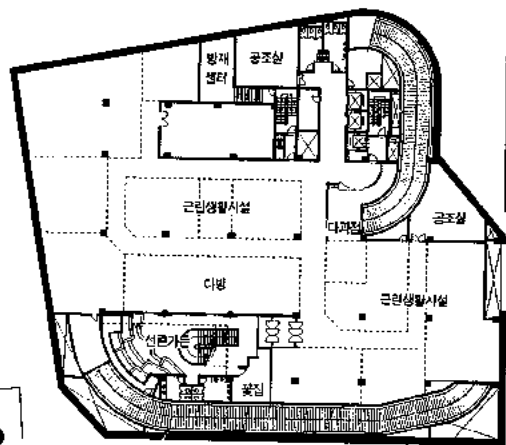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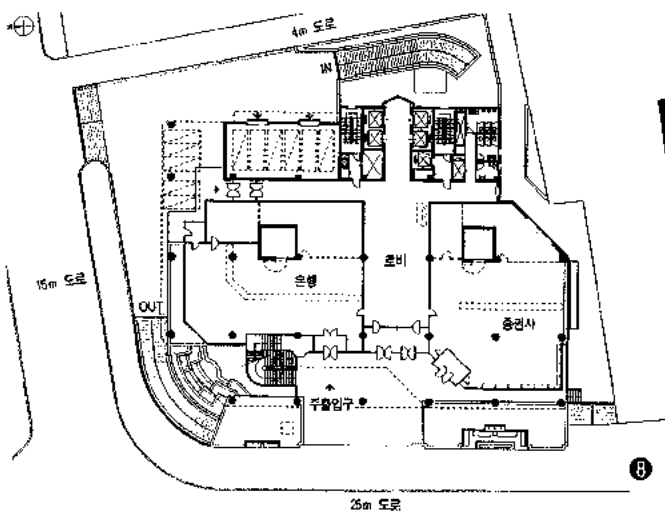
전면 대로쪽에 깊숙히 후퇴하여 설치된 소규모 플라자는 필로티공간으로 처리되어 선문가든으로 연결되었으며, 이러한 소규모 오픈스페이스는 도시인의 휴식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자그마한 배려이지만 그 역할은 결코 작지 않으리라 기대된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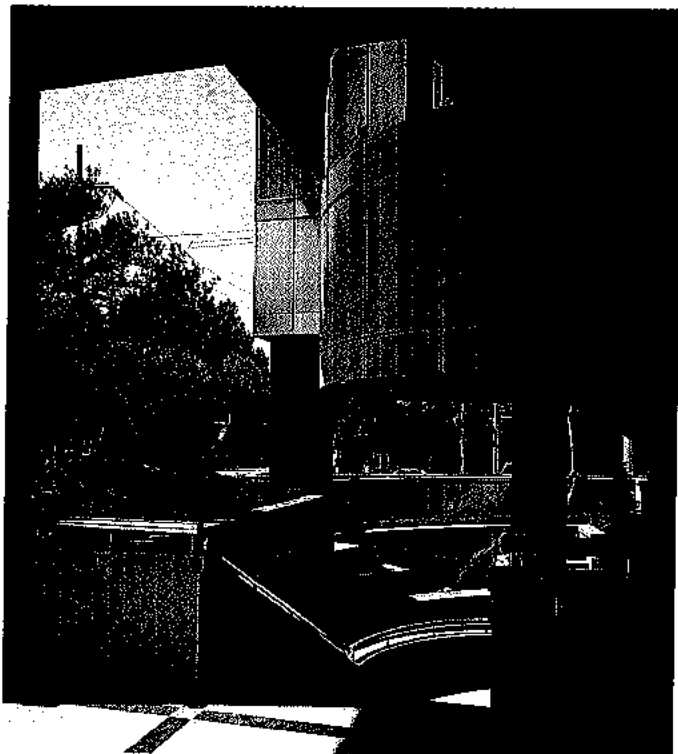
7



- ⑥ 주출입구측 현관상세
- ⑦ 선관 가든
- ⑧ 주출입구측 전경
- ⑨ 1층 평면도
- ⑩ 지하 1층 평면도
- ⑪ 주출입구측 돌출계단
- ⑫ 주출입구측 환경 조형물

8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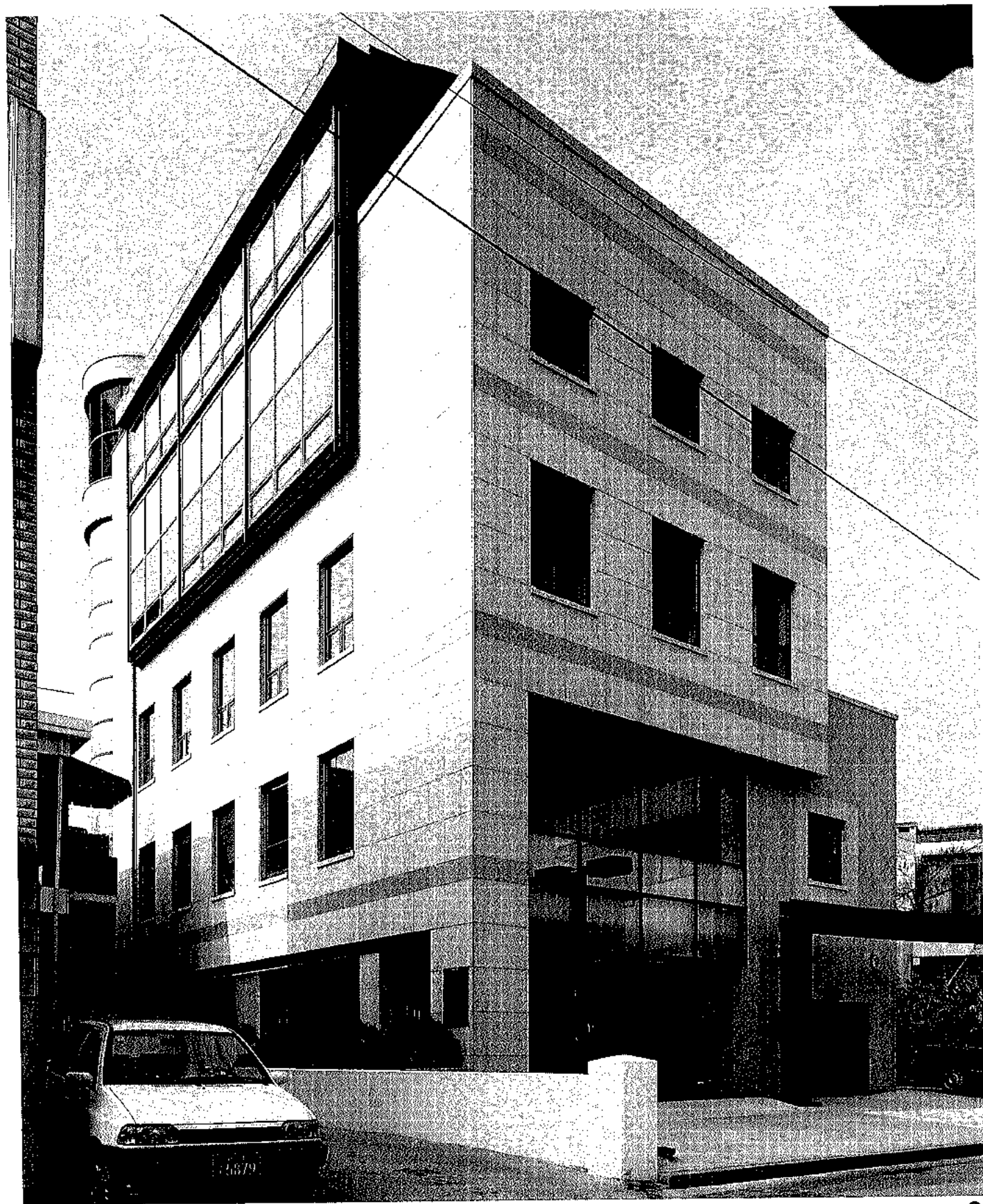
11

태화기업사옥

Tae-Hwa Enterpr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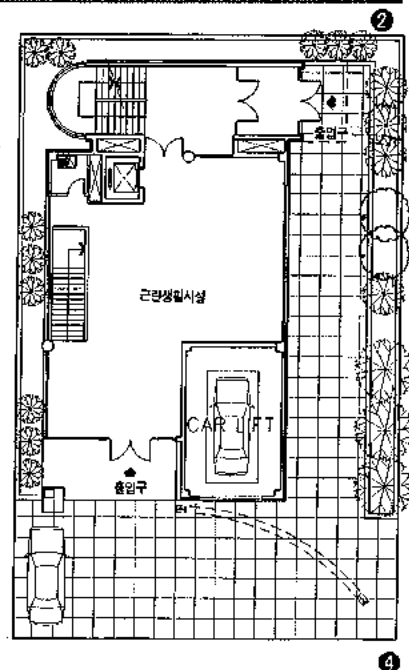
李光萬/(주)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Kwang-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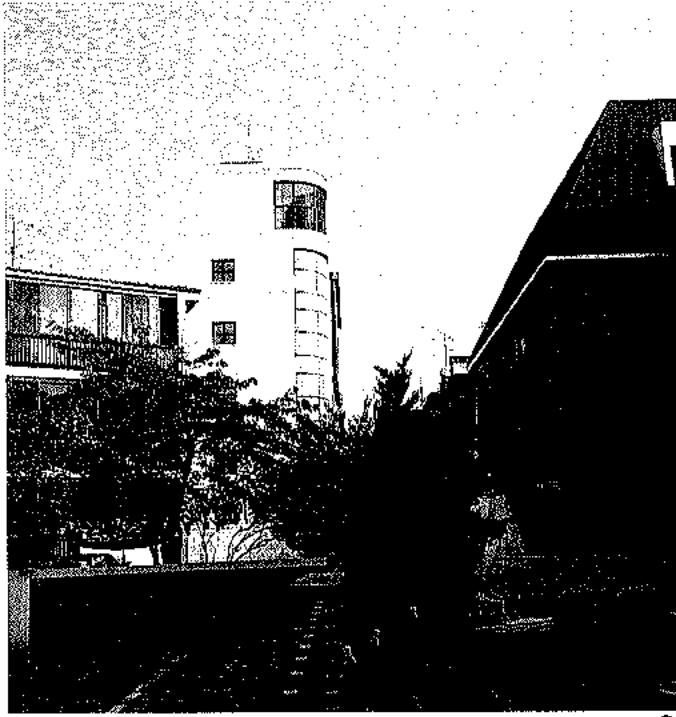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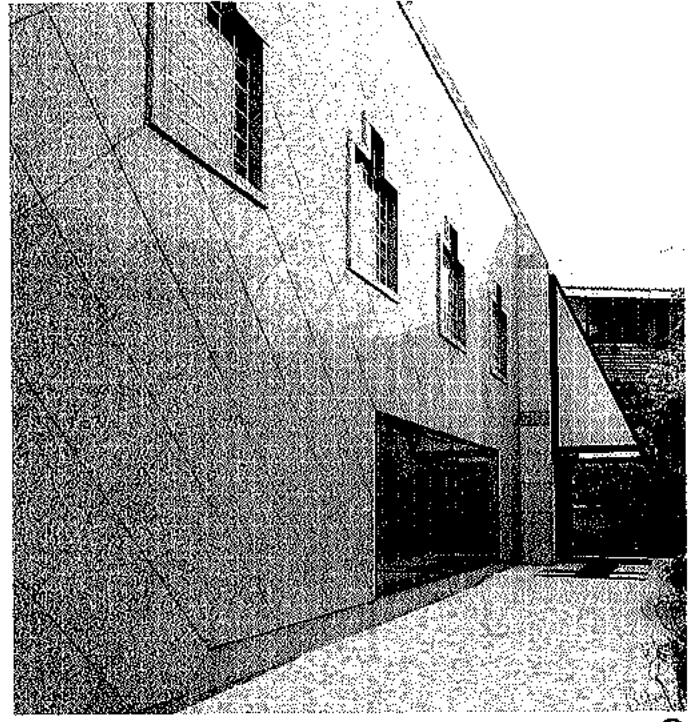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01-1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 421.3㎡
 건축면적 / 210.57㎡
 연면적 / 1,186.37㎡
 건폐율 / 49%
 용적률 / 187.1%
 규모 / 지하 2층, 지상 5층
 주차대수 / 13대



- ① 전경
- ② 3층 사무실 전경
- ③ 정면 전경
- ④ 배치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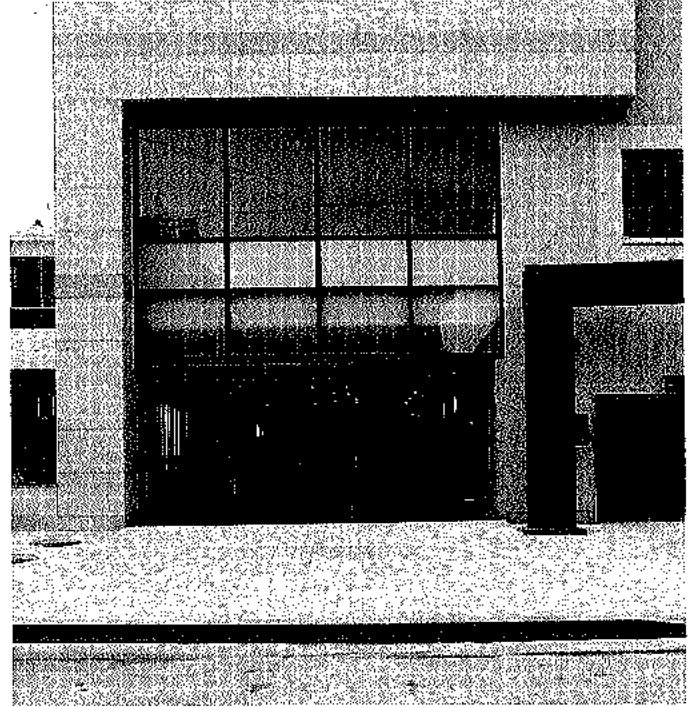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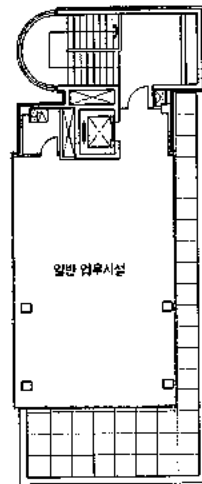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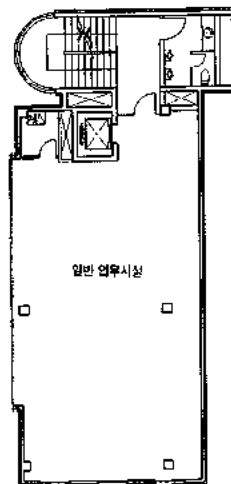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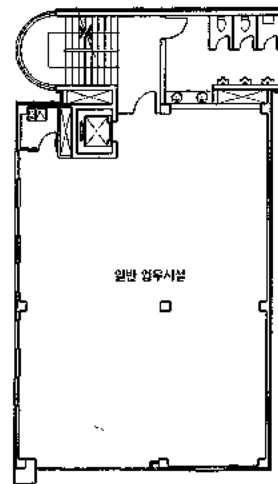
- ⑥ 원경
- ⑦ 우측면 외벽 디테일
- ⑧ 주출입구 및 저층부 상세
- ⑨ 주출입구 상세
- ⑩ 5층 평면도
- ⑪ 4층 평면도
- ⑫ 2층 평면도
- ⑬ 지하 1층 평면도
- ⑭ 올라다 본 우측면 전경
- ⑮ 1층 거피숍
- ⑯ 사장실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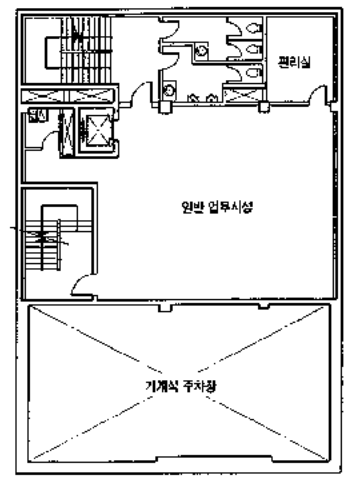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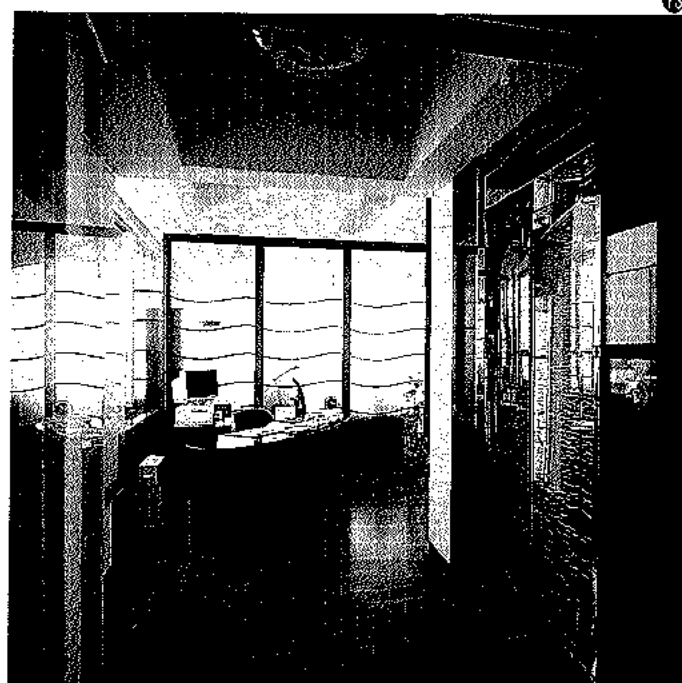
10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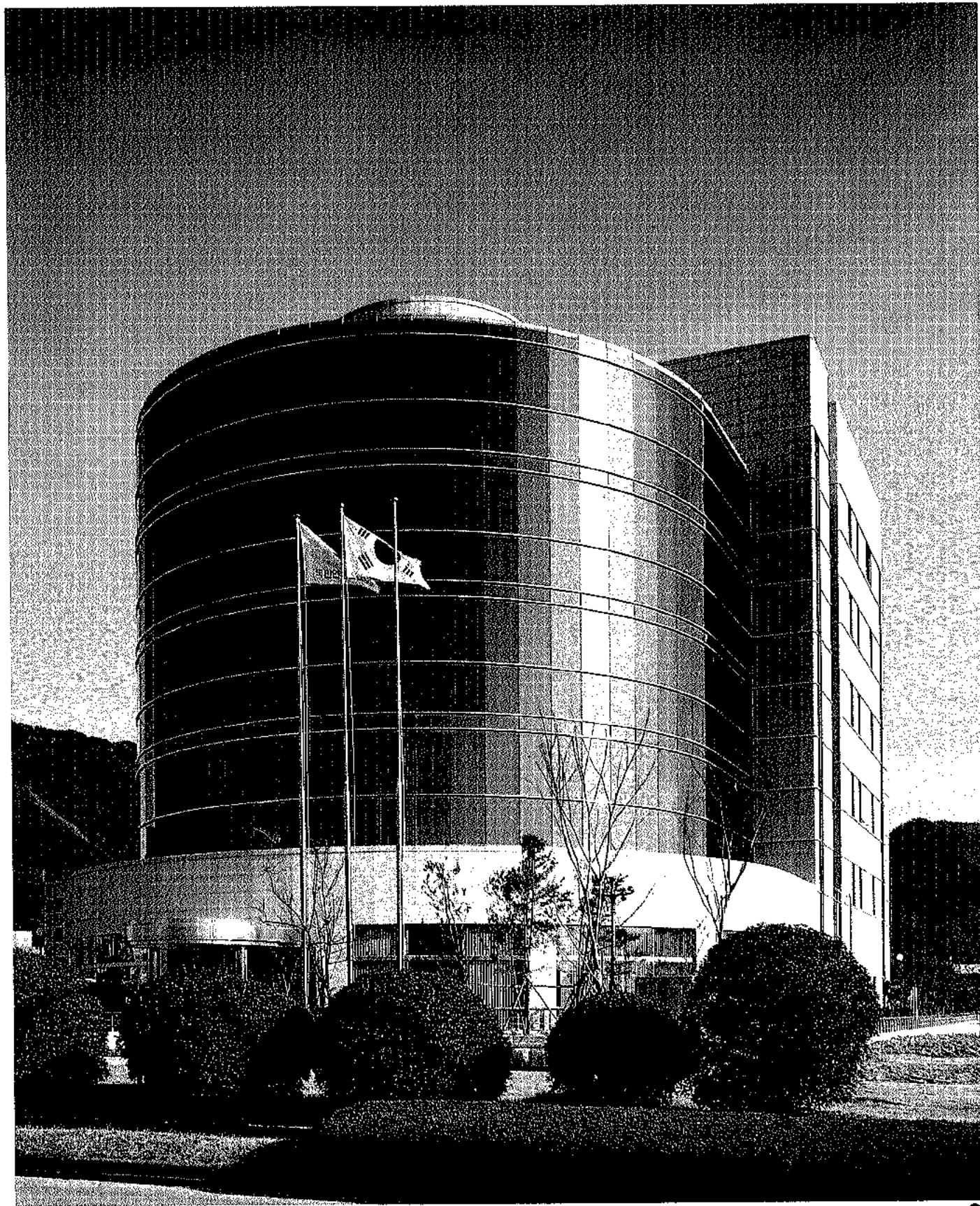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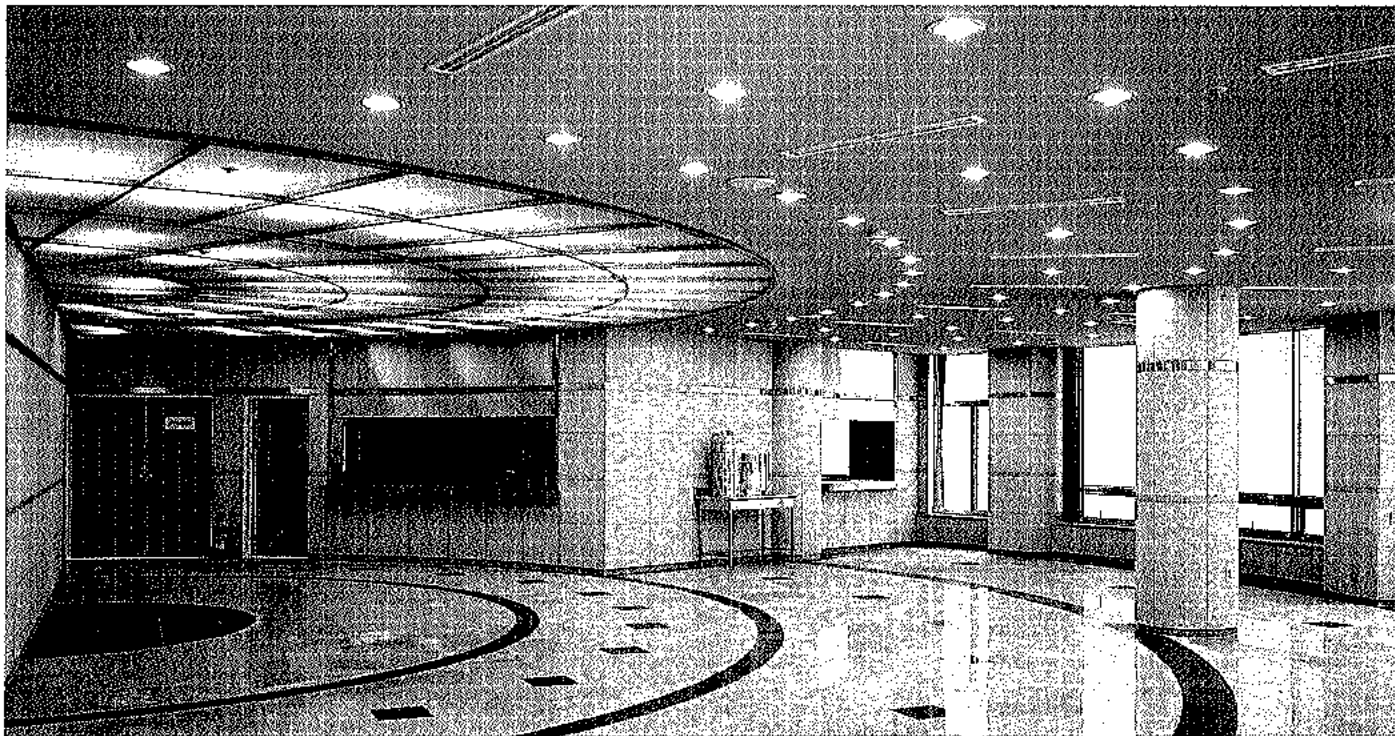
국민연금 관리공단 경남회관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Kyung Nam Branch.

趙大熙・李光仁/종합건축사사무소 인터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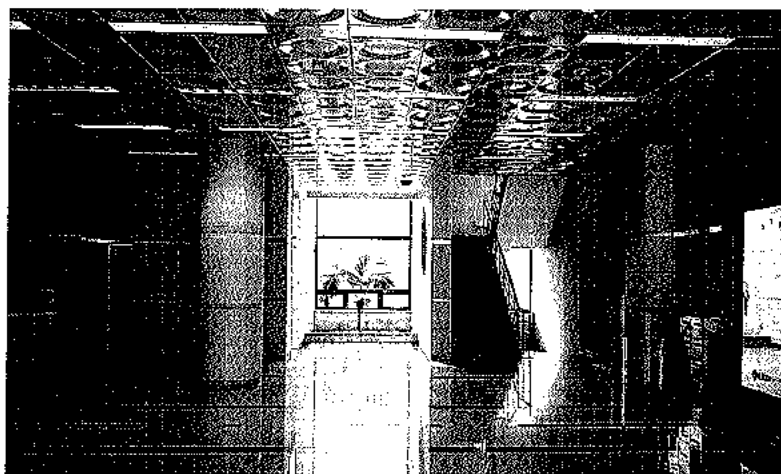
Designed by Interplan Architects & Associ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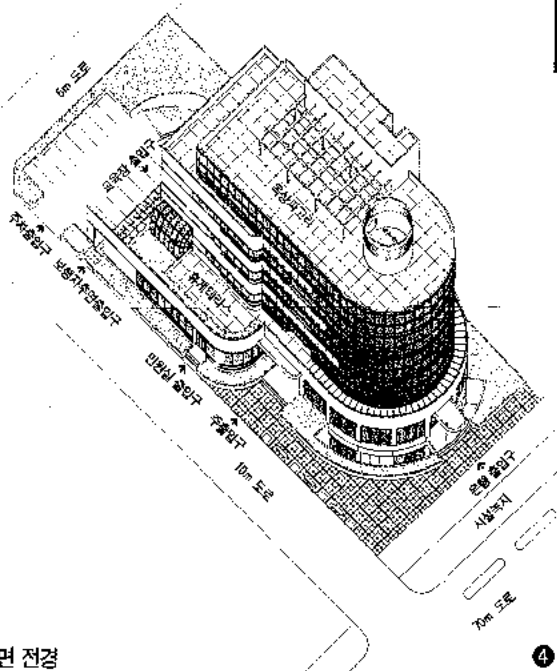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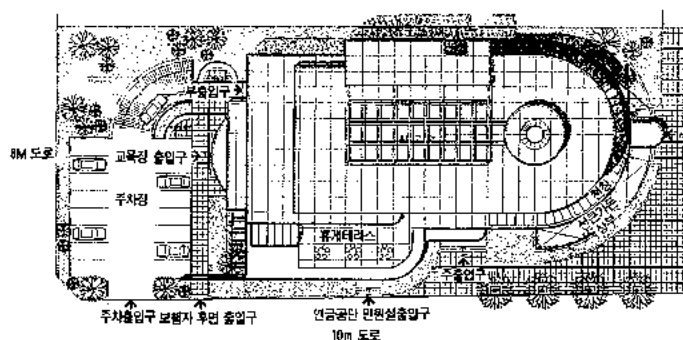
위치 / 경남 창원시 신원동 101-1번지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1종미관지구, 업무지구
 대지면적 / 3,035.6㎡
 건축면적 / 1,406.2㎡
 건폐율 / 46.3%
 용적율 / 176.1%
 규모 / 지하 2층, 지상 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 70대
 주요 마감 / 화강석, 불소수지 알루미늄 커튼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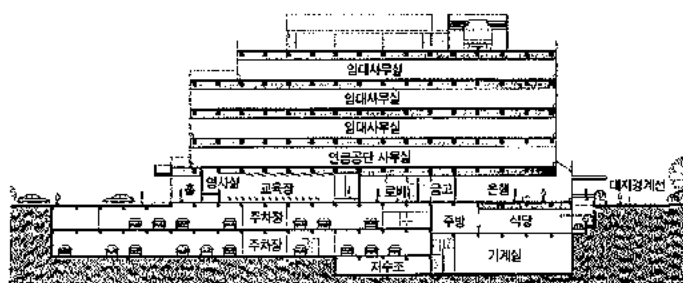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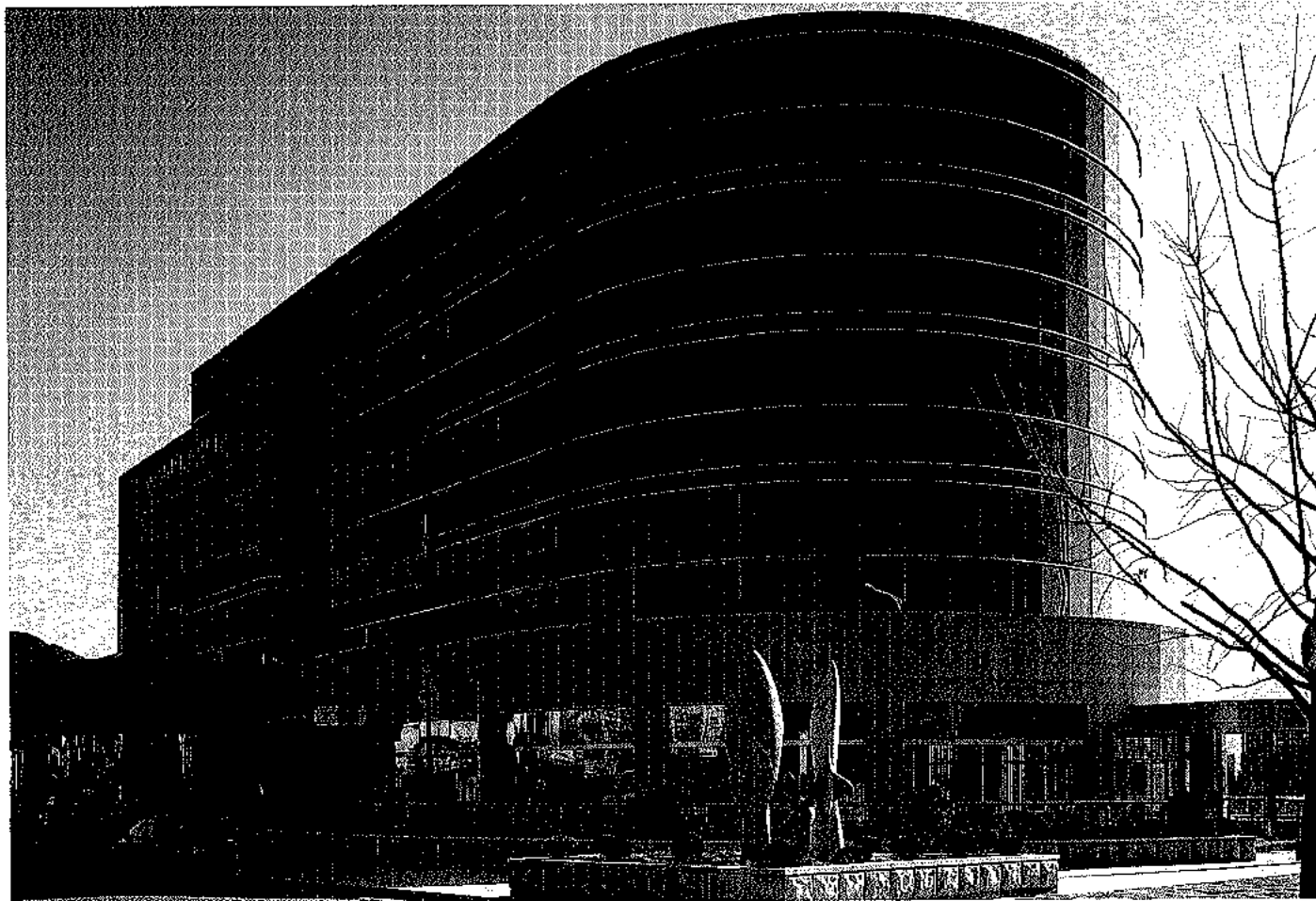


5



6

- ① 정면 전경
- ② 지하 식당
- ③ 1층 로비
- ④ 등각 투상도
- ⑤ 배치도
- ⑥ 단면도



7

설계소요

현장답사차 창원에 내려가서의 첫 느낌은 여기가 평양 어디쯤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었다. 지나칠만큼 시원한 도로폭, 한산한 도로, 드물게 보이는 보행자, 비어있는 주변 필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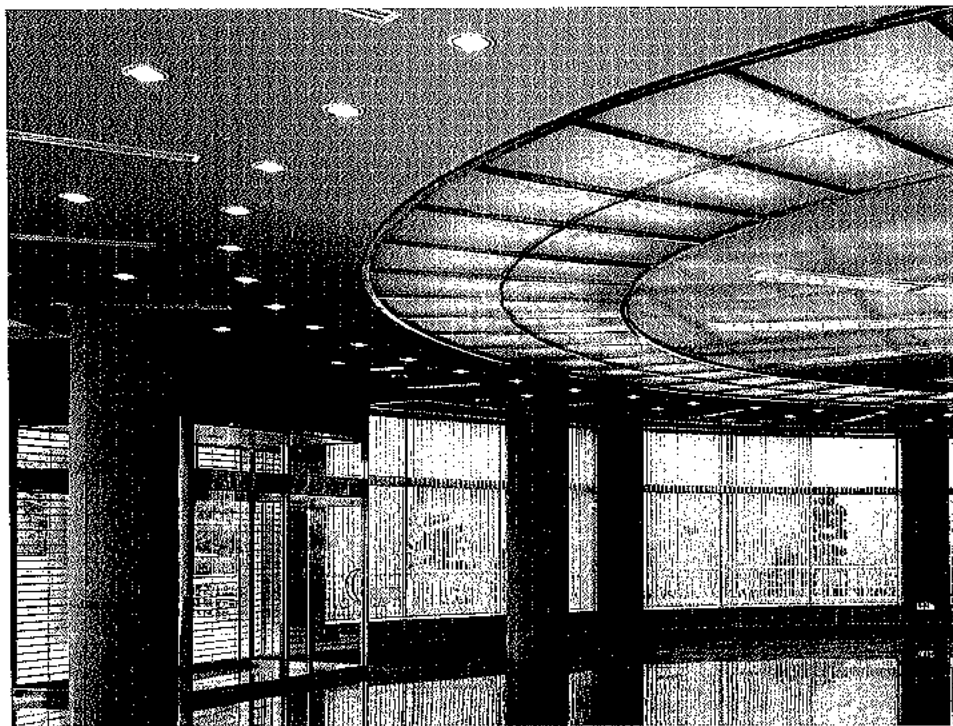
블럭 모서리 땅으로 3면이 도로에 접할뿐 아니라 주변 건물마저 드물어 어느 방향에서도 눈에 잘 띄는 땅으로 비교적 좋은 조건이었다.

건물의 주요기능은 1층에 은행, 강당, 민원실 등 대민관련시설, 2~5층은 사무실로서 강당이라는 큰공간을 1층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약간 부담이 될 뿐 비교적 간단한 프로그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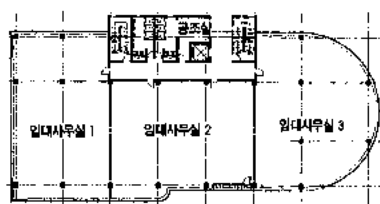
여기에 덧붙여진 건축주의 지침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안정과 발전이라는 이미지를 이용자인 국민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전체 매스는 비록 고층건물은 아니나 저층부 개념을 도입하고 그 부분에 대민 관련시설을 담음으로써 기능적 연관성과 함께 휴먼스케일을 부여하여 친근한 분위기를 가지도록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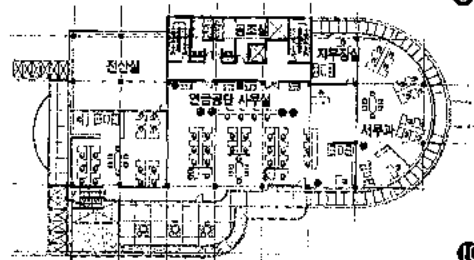
전면폭이 상대적으로 좁아 전면이 마구리 측면처럼 느껴질 우려가 있어, 전면과 측면을 부드럽게 연결함으로써 양면의 일체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이러한 곡선모티브를 건물전체에 적용하여 일관성있는 형태를 갖추도록 하였다. 곡선모티브의 자연스런 부산물로서 마련된 대지 모서리에 얼마간의 공지는 외부공간에 여유로움을 주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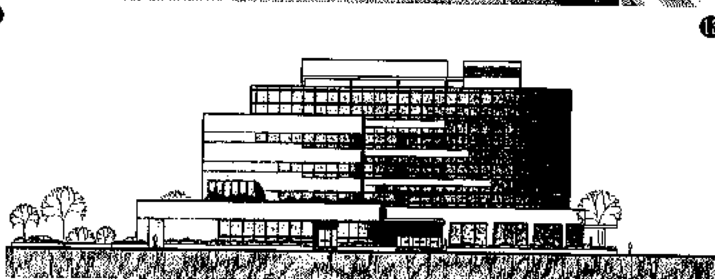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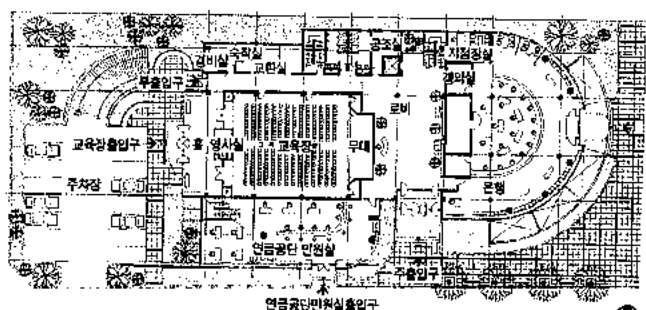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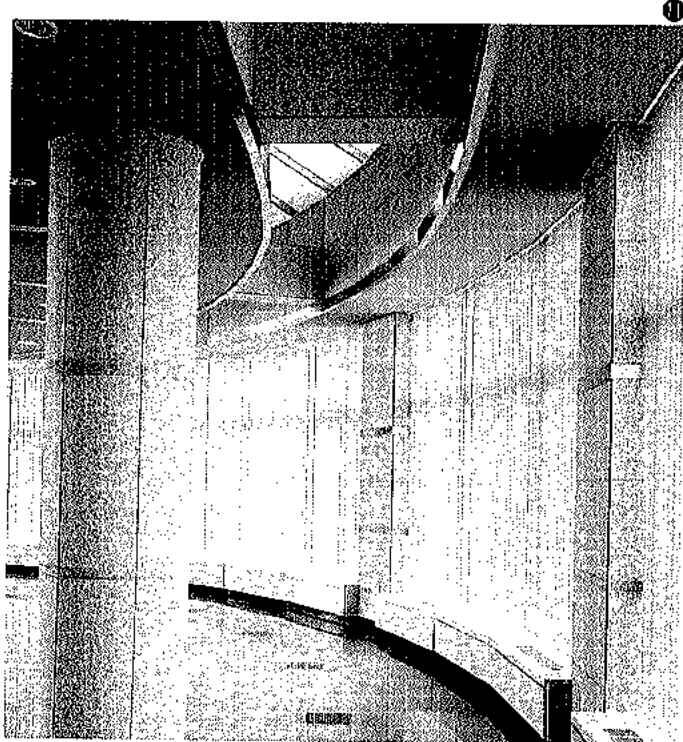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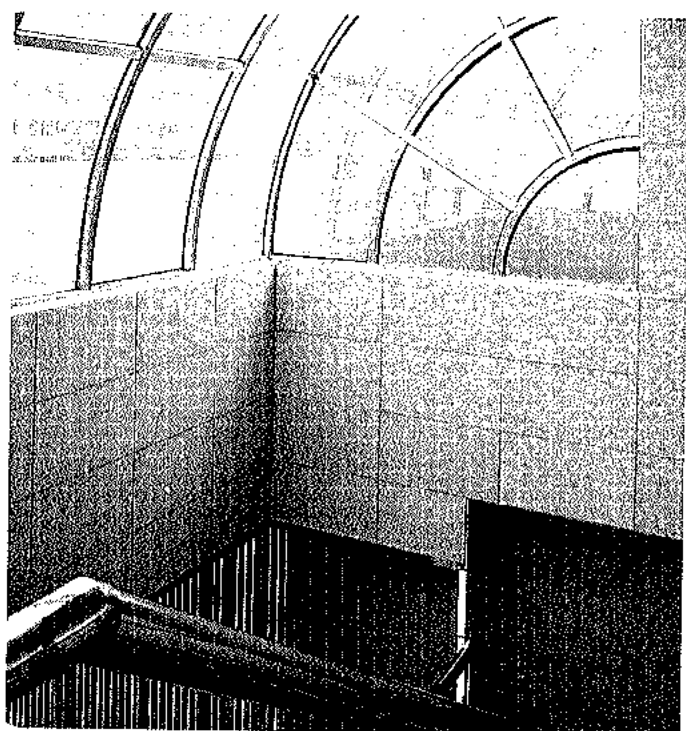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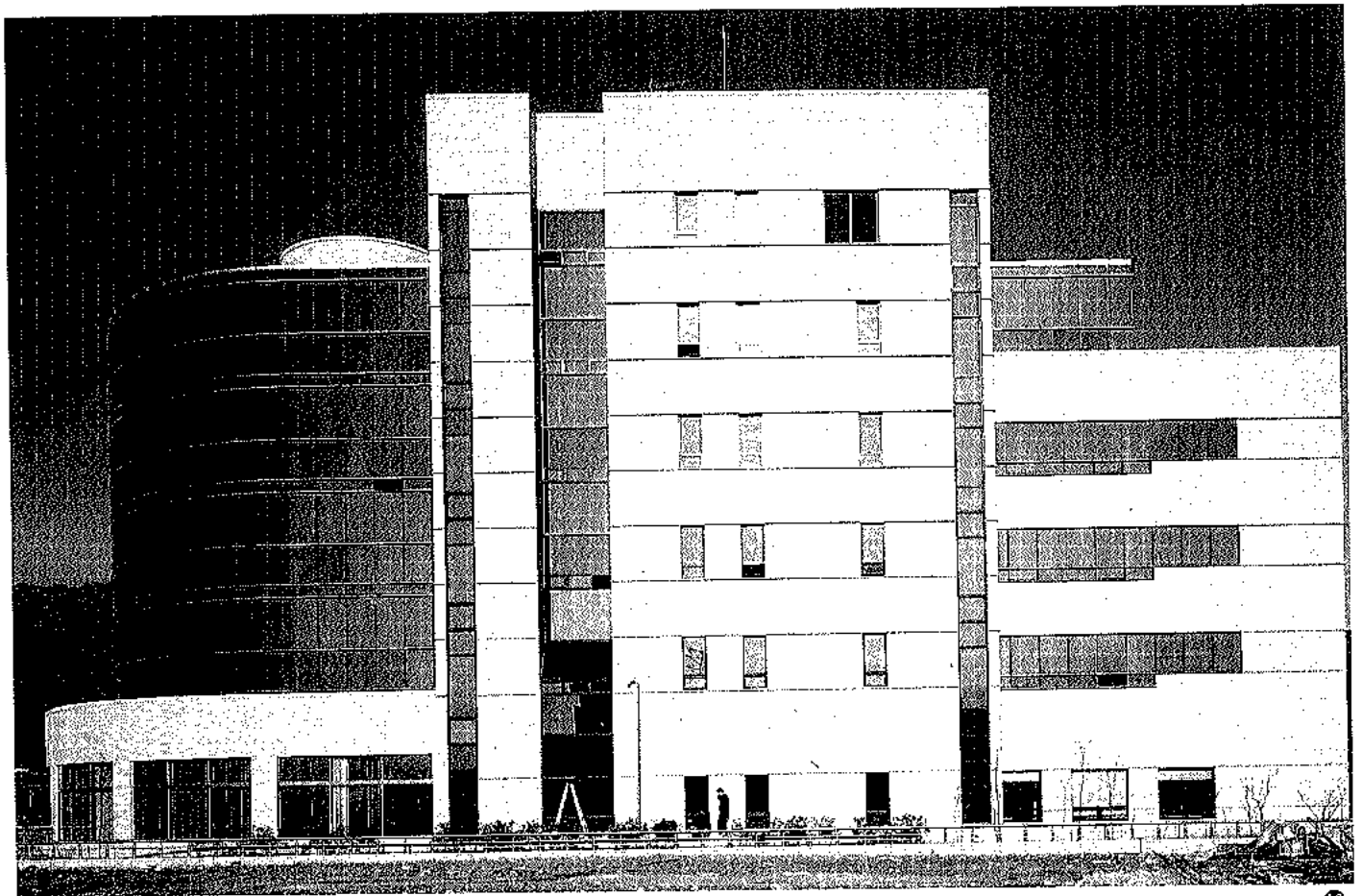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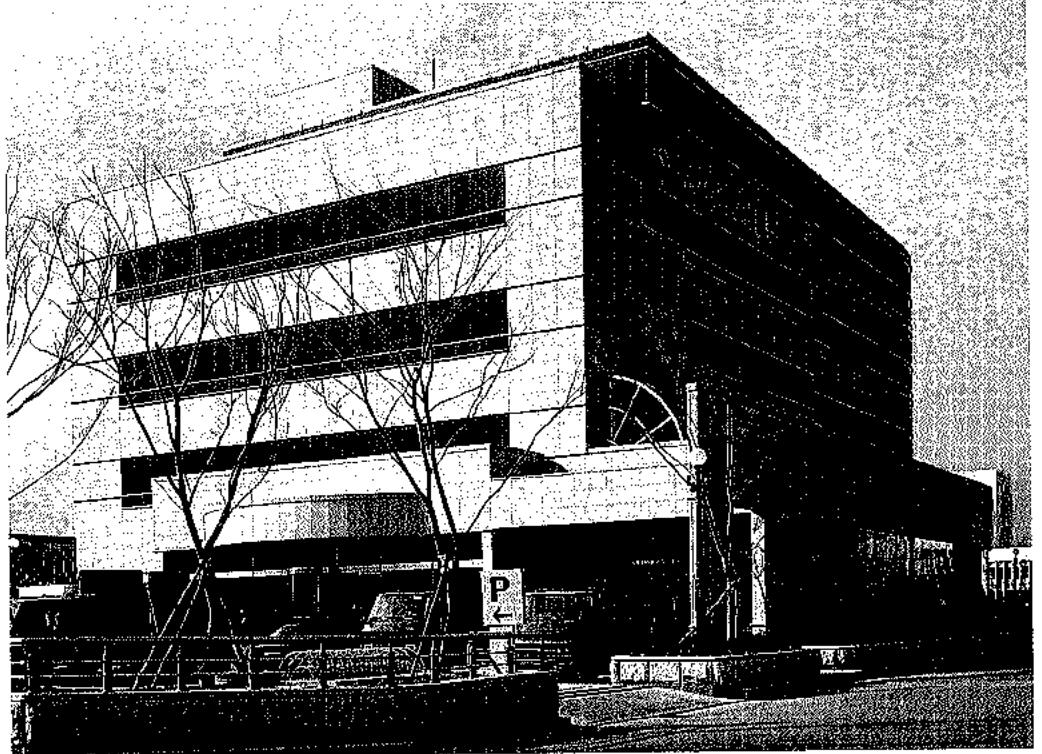
10





16

- 북측 전경
- 사무실 전경
- 3,4층 평면도
- 2층 평면도
- 민원실 전경
- 휴게실 천장
- 1층 북도 및 천장
- 1층 평면도
- 좌측면도
- 서측 전경
- 동남측 전경
- 측면에서 본 주출입구측 상세
- 1층에서 본 지하 선근
- 외부에서 본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홀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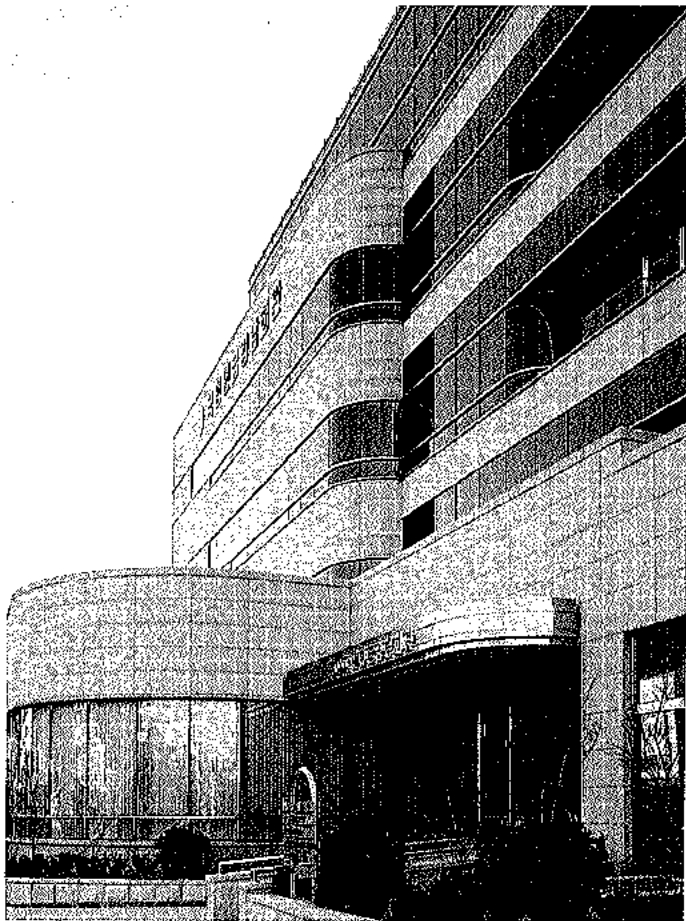
마감재료는 화강석과 커튼월을 사용하되 화강석은 견고한 표피로서, 커튼월은 투명한 속살로서 상호 대조되는 이미지를 갖게 되기를 기대해 보았다. 이때 커튼월의 수평 후레임에 스테인레스 스틸 Stripe를 변화있게 취부하여, Solid Wall에서 Transparent Glass로 점차적으로 전이되는 Gradation을 부여하여 전면방향으로의 동적인 방

향을 주고자 하였다. 기준층 사무공간은 Open Plan Office 경우와 평면분할 경우 모두 대응될 수 있도록 편측코어 형식에 13.5m Span의 기둥없는 융통성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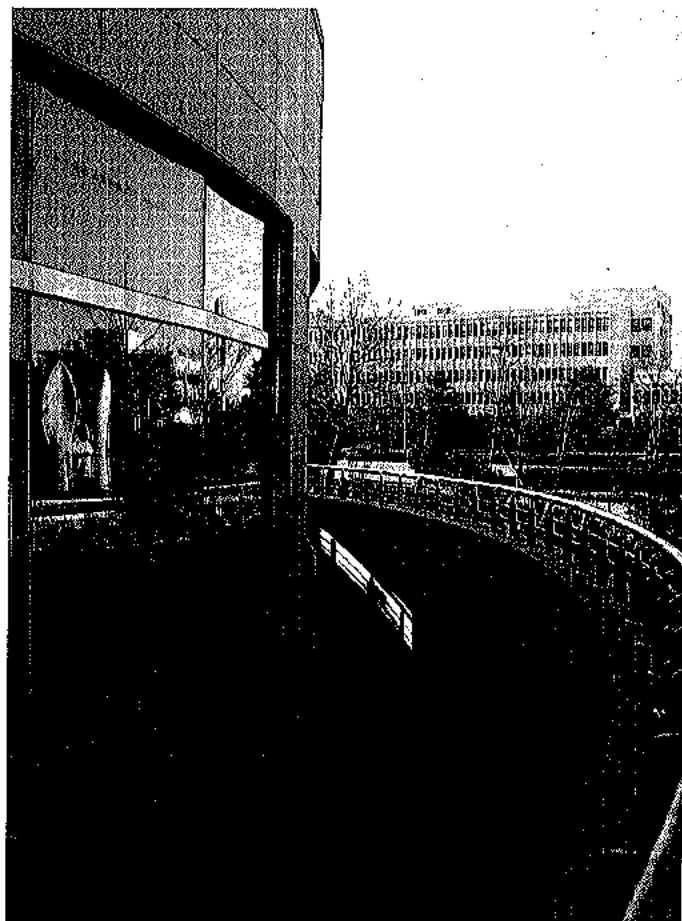
1층 대민관련시설은 모두 외부로부터의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용률이 낮은 강당의 경우 임대운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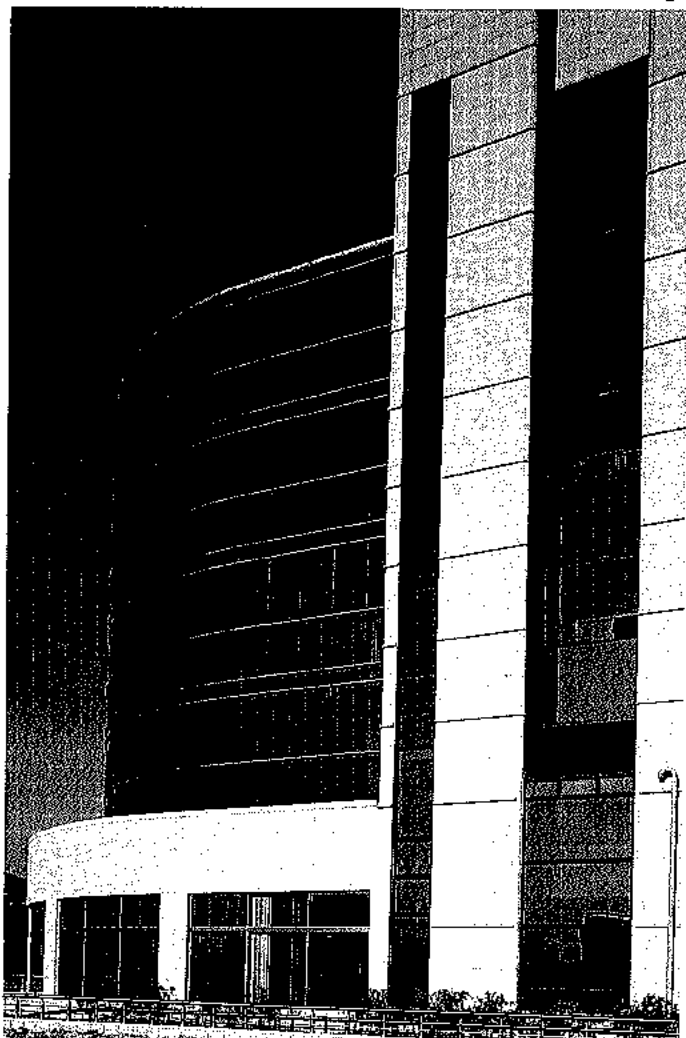
층별 Set-Back에 의해 자연스럽게 마련되는 테라스는 사무공간에 연결된 옥외휴게공간으로서 애용되길 바라며, 지하식당의 선근가든, 1층 은행객장 및 민원실의 천창처리(Top Light)등이 예기치 않은 건축적 즐거움으로 느껴지게 되길 기대 본다.



18



19



20



21

노보텔 앰버서더

Novotel Ambassador Seoul

金春雄/상지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Choon-Woong





2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03번지
지역·지구 / 주거지역, 노선상업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2중 미관지구

대지면적 / 6,228.9㎡

건축면적 / 2,372.34㎡

연면적 / 41,776.61㎡

건폐율 / 39.09%

용적률 / 298.44%

객실 UNIT / 338Unit's

규모 / 지상 16층, 지하 6층

구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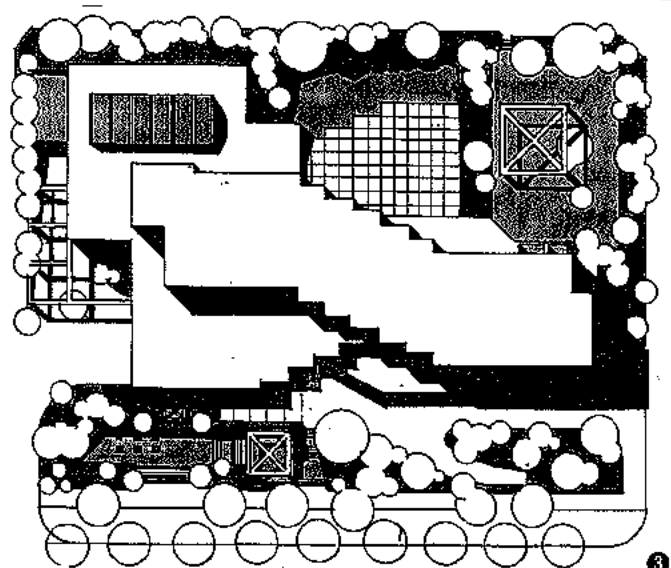
지하주차장-Flat Slab

중간층-Transper Gir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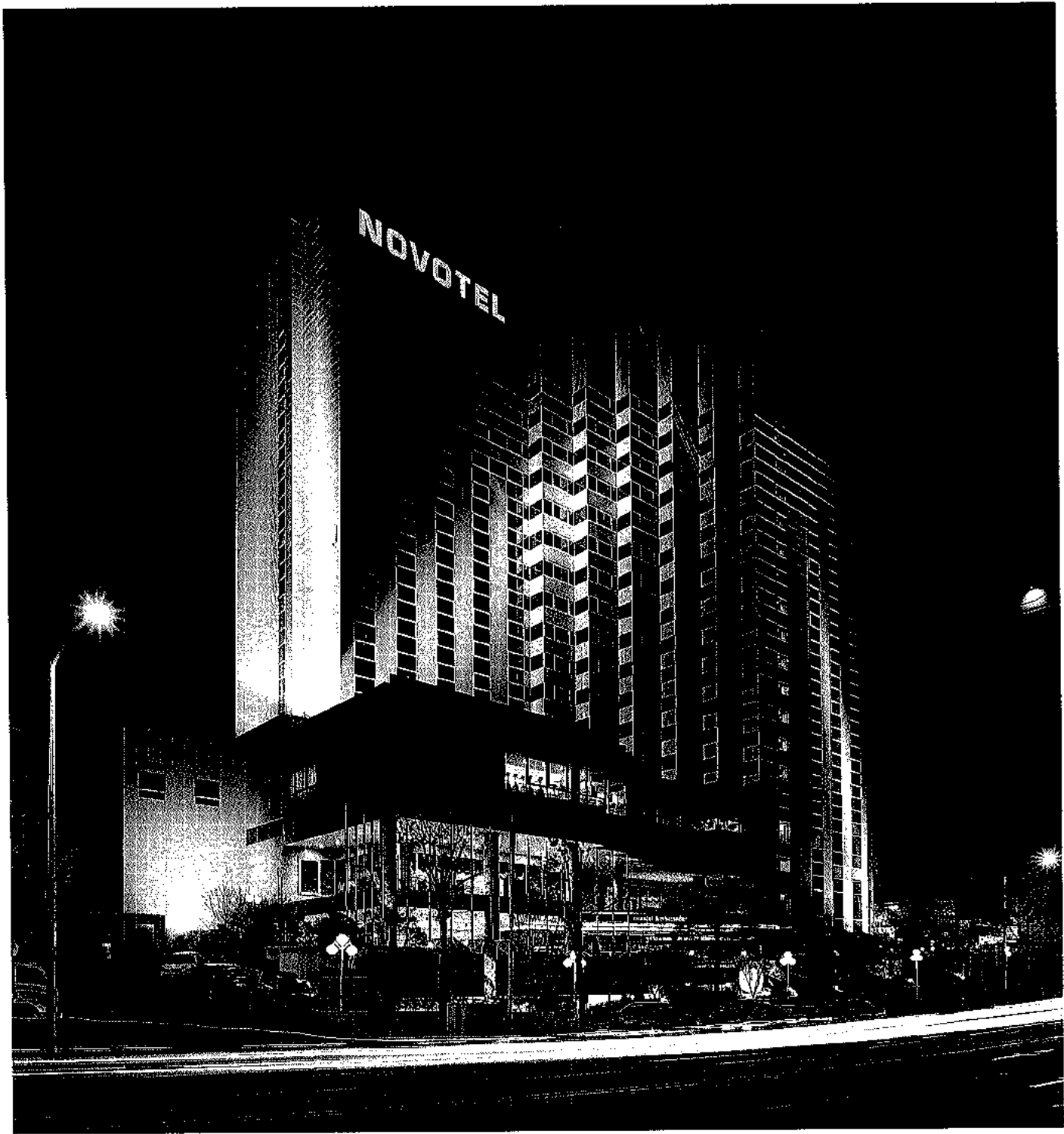
상부객실층-Wall System

외부마감 / 알루미늄 복합페널, 파스텔유리, 화
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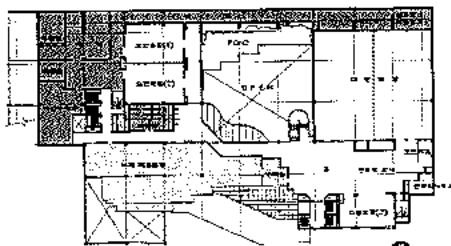
- ① 동북측 전경
- ② 로비 라운지 전경
- ③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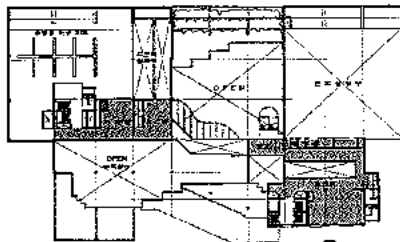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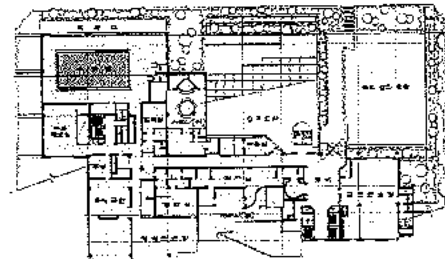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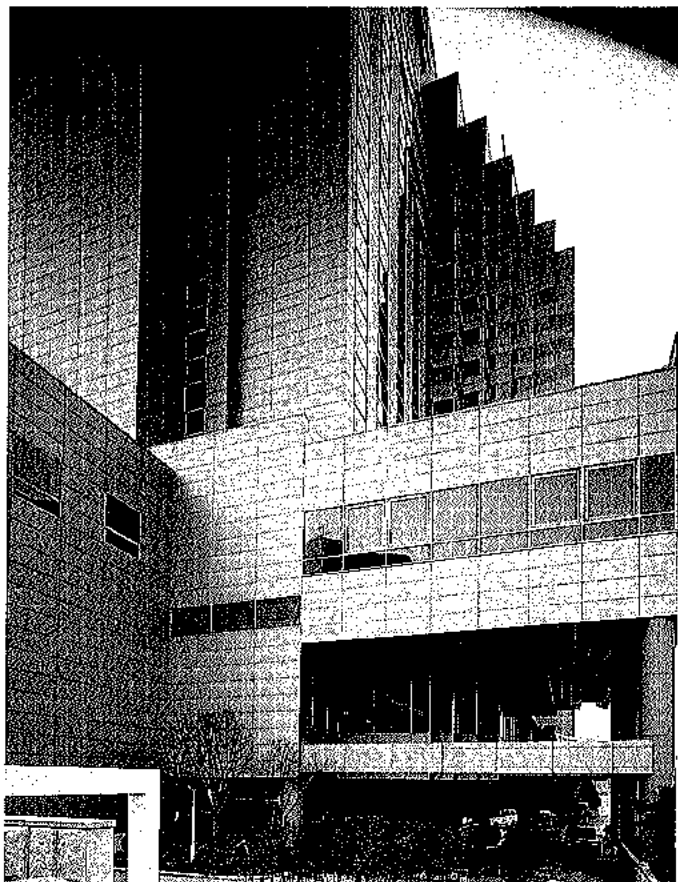


7

- ① 전면 야경
- ② 1층 평면도
- ③ 2층 평면도
- ④ 3층 평면도
- ⑤ 배면 외벽상세
- ⑥ 동측면 외부상세
- ⑦ 2층 계단에서 본 로비 라운지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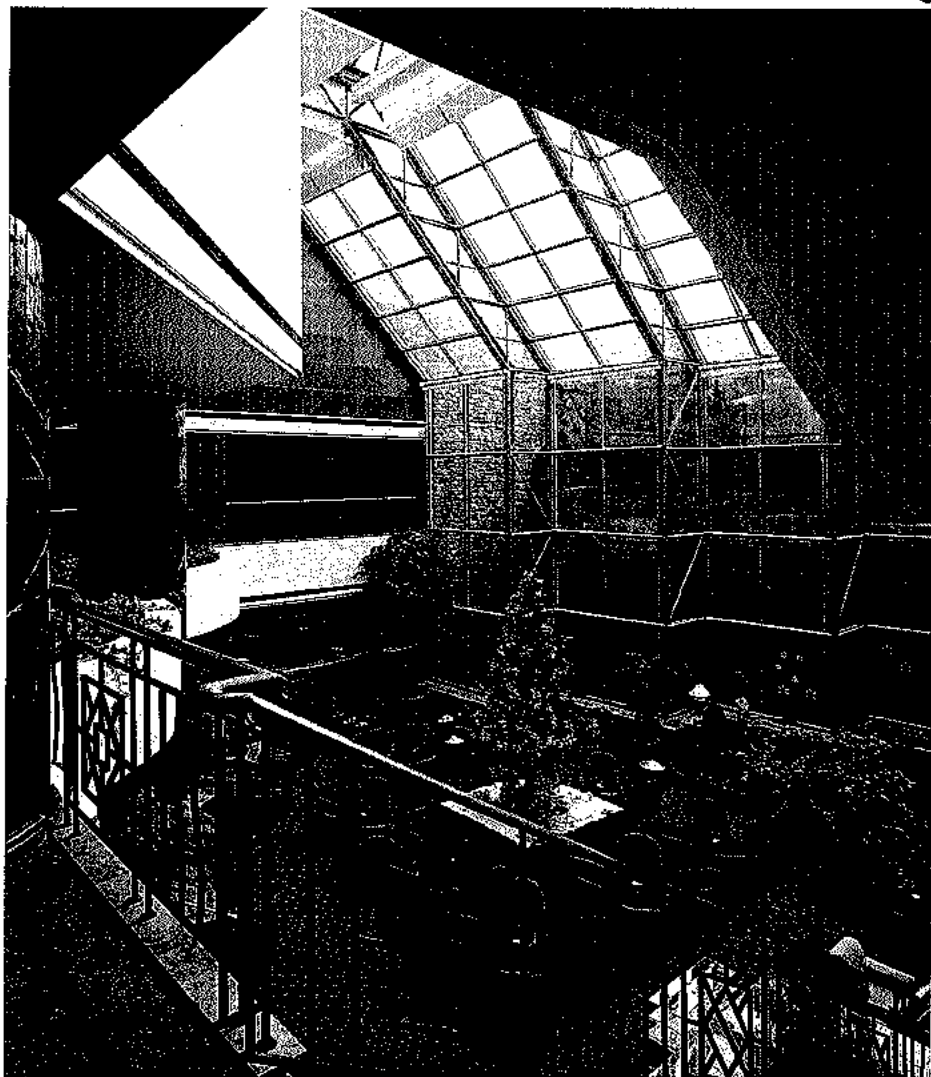


9

설계소요

강남대로와 봉은사로의 교차하는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계획대지는 주변에 남서울 호텔, 삼성 호텔 등 일단의 숙박 및 위락지구로 조성되어 있으며 대지전면 35m 도로와 후면 8m 도로의 10~12m 레벨 고저차이를 이용, 각각 다른층에서 접근하도록 유도하여 호텔의 다양한 기능을 분리하였으며, 지하층은 적극적인 선콘 설치로 Open된 지하 공간을 형성하여 외부와 상호 관입에 의한 자연적 연결이 가능케 하였고 내부 시설 및 규모의 연출도 기존 호텔의 웅장하고 화려한 스타일을 탈피한 아늑하고 섬세하며 치분한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장기적 안목의 수익성을 고려한 새로운 경제적 의미의 독창적인 호텔 개념을 도입하였다.

건물상부 객실층의 내부구조는 Wall시스템을, 지하주차장 부분은 플레이트 슬라브를 채택하여 내부공간 활용을 극대화 시켰으며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는 프랑스 Novotel의 이미지를 계획대지 및 주변상황에 맞게 수평하고 수직창으로 디자인 하였으며, 건축물의 고층부는 주변의 건물군들과의 Sky Line 연출 및 Land Mark 역할을 할 수 있게, 저층부는 건물진입 및 주변 도로에서의 Human Scale에 조화되는 Mass형태에 적절한 규모로 계획하여 하나의 단일건축물로서의 독립된 의미가 아니라 기존의 남서울, 삼성 호텔과 서로 융화, 조화되어 새로운 강남의 호텔군으로서의 신선한 이미지를 형성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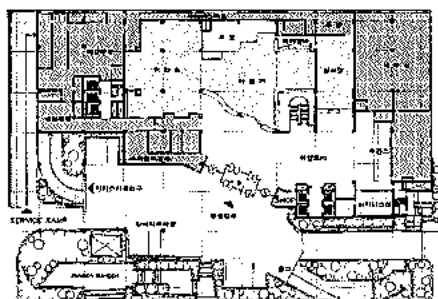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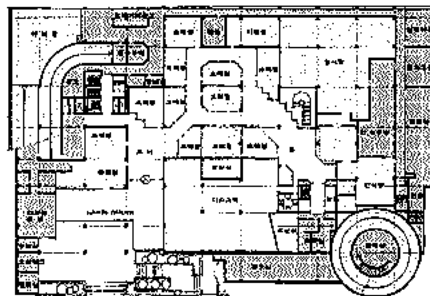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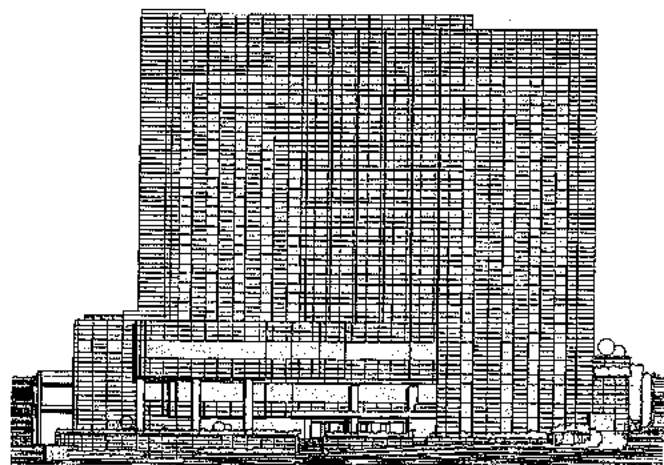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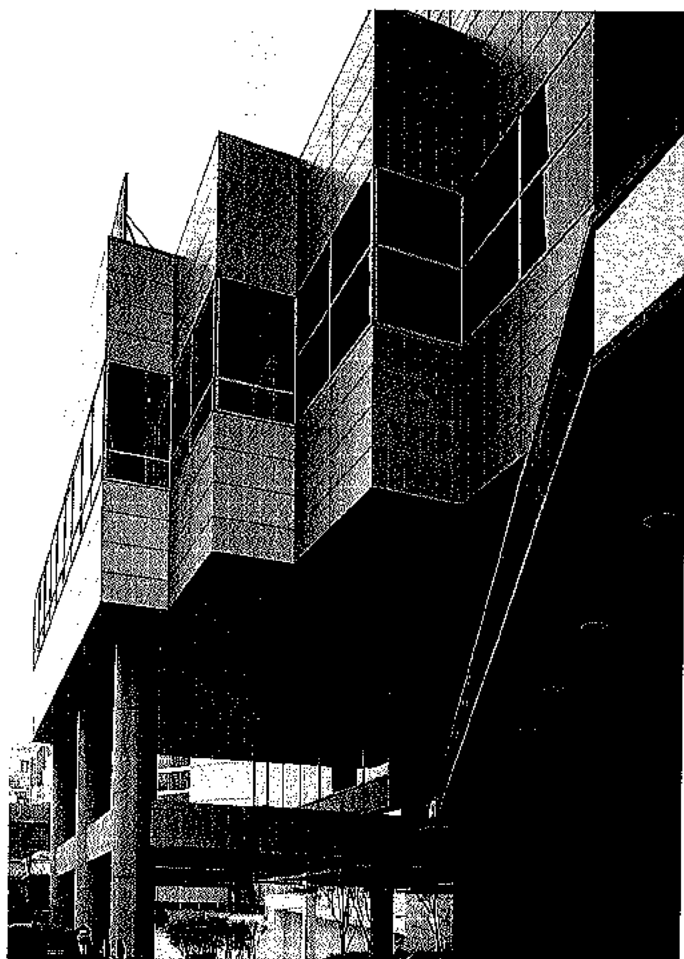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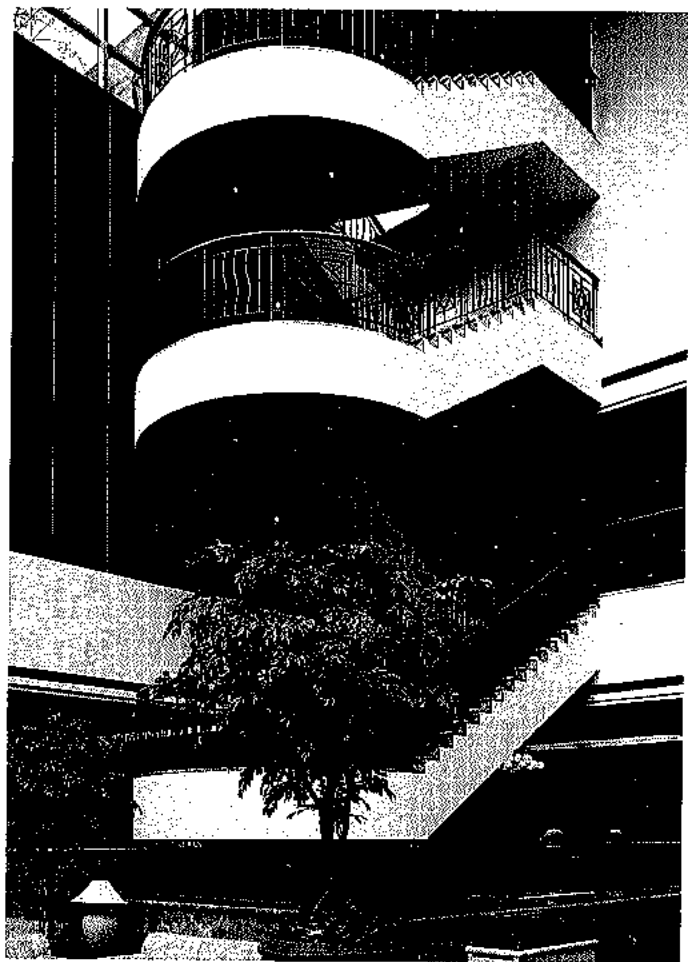
- ① 서북측 전경
- ② 지하 1층 평면도
- ③ 지하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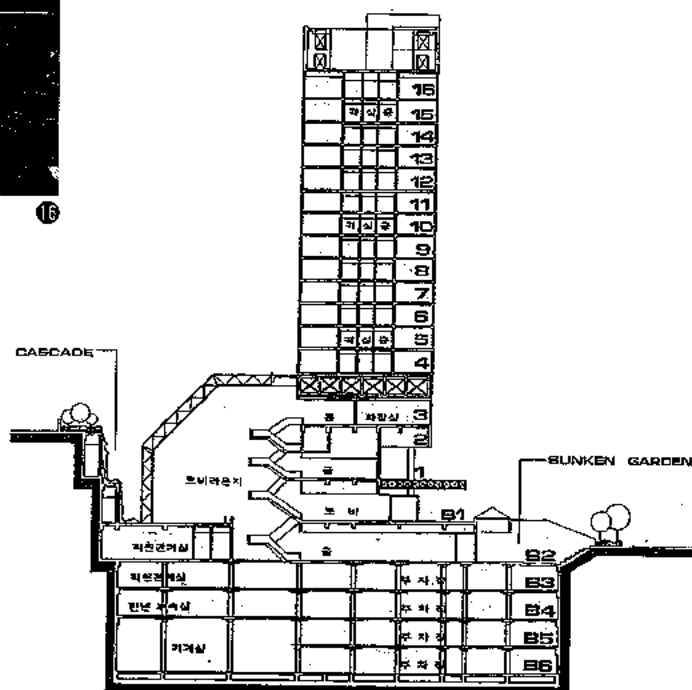
12



13



- ④ 로비 리운지에서 본 계단
- ⑤ 서쪽 출입구에서 본 주출입구측 외부상세
- ⑩ 로비 리운지 내부상세
- ⑪ 정면도
- ⑬ 일반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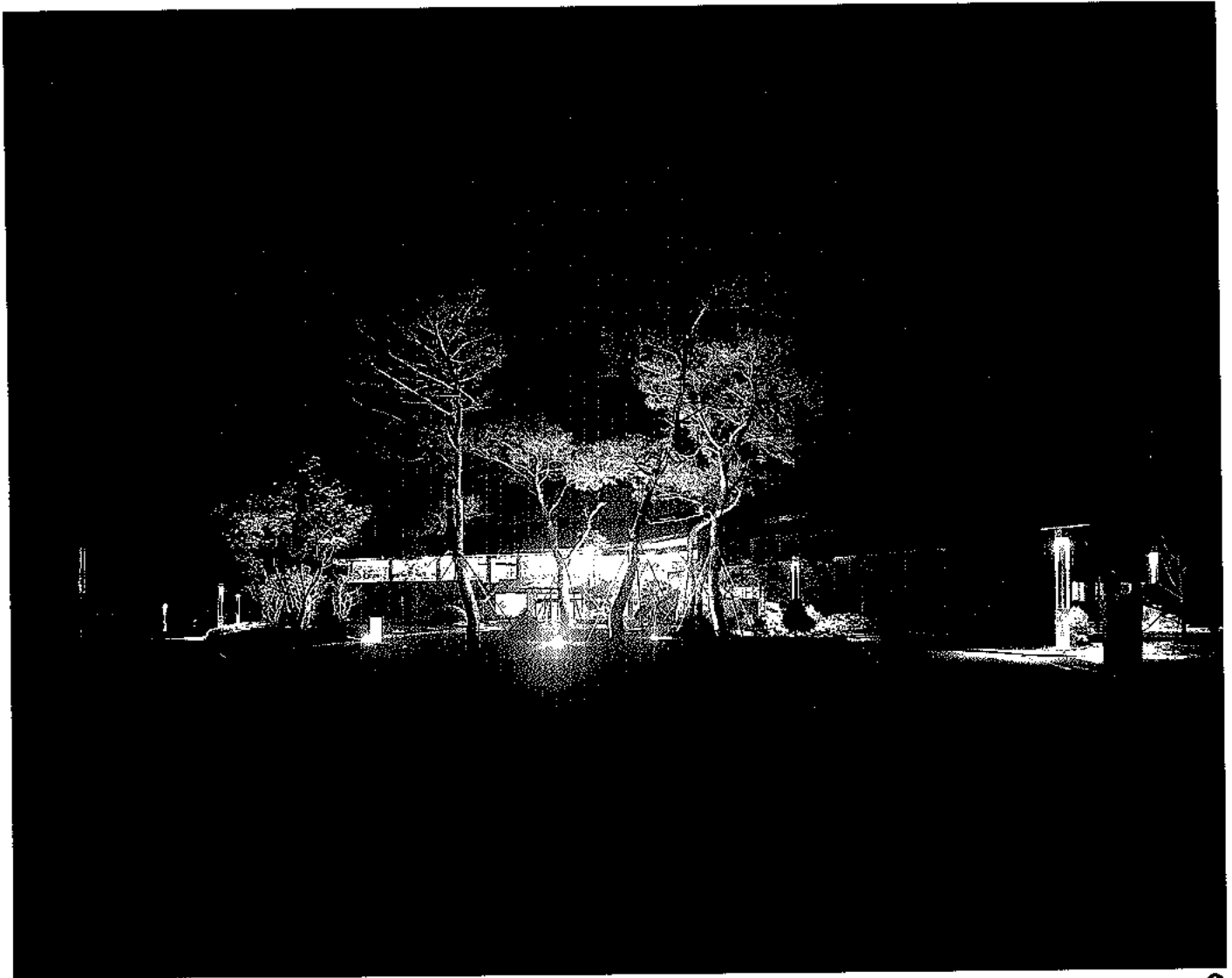


우정힐스 컨트리클럽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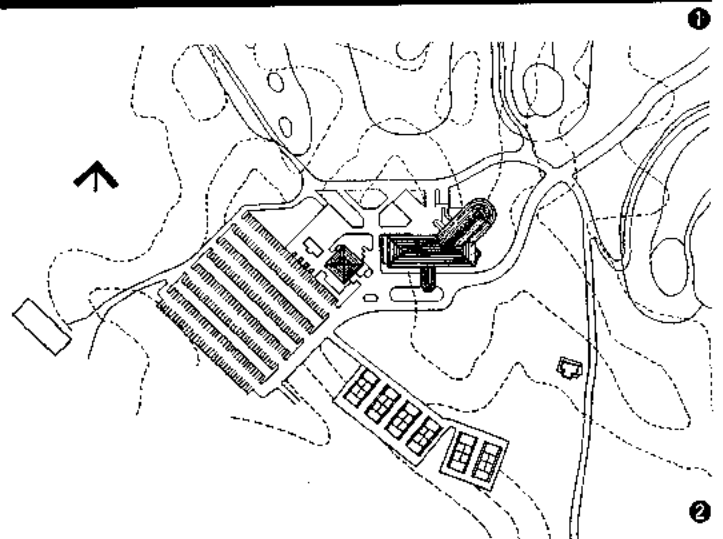
Woojeonghills Country Club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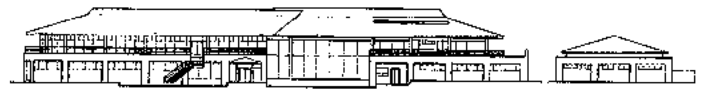
趙鐫植+郭成文+朴容秀/종합건축사사무소 두우

Designed by Cho, Yong-Shik • Kwak, Sung-Moon & Park, Yong-Soo



대지위치 / 충남 천원군 목천면 천정리
 대지면적 / 80,729m²
 연 면 적 / 6,007m²
 건축면적 / 3,137m²
 외부마감 / 샌드스톤+스타코+아스팔트 싱글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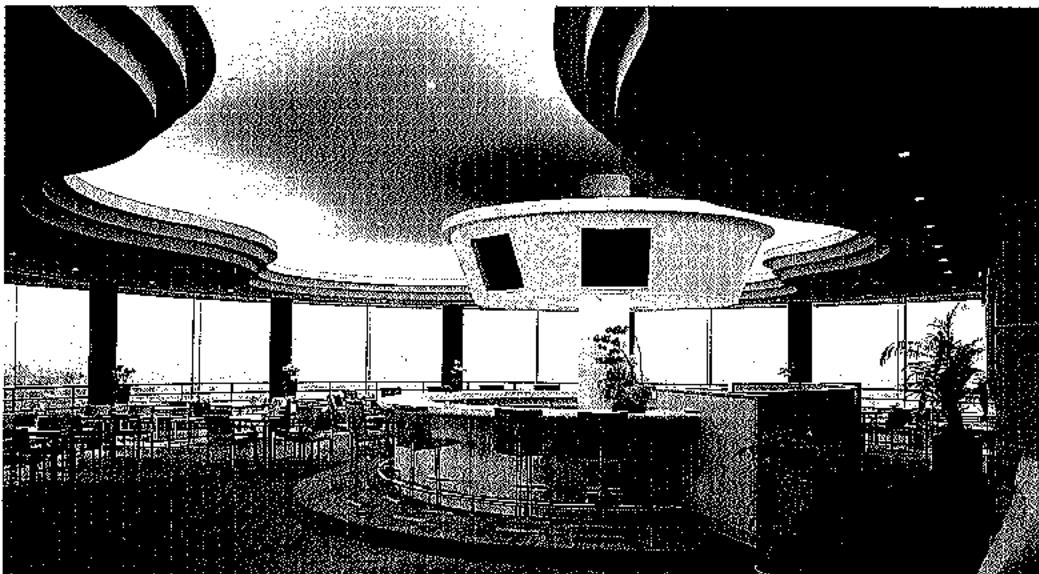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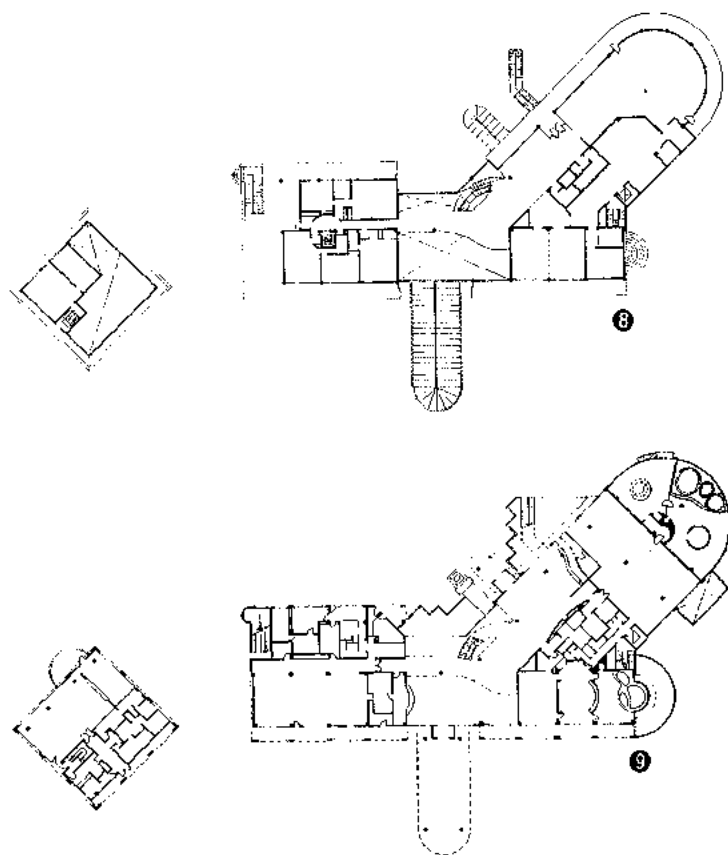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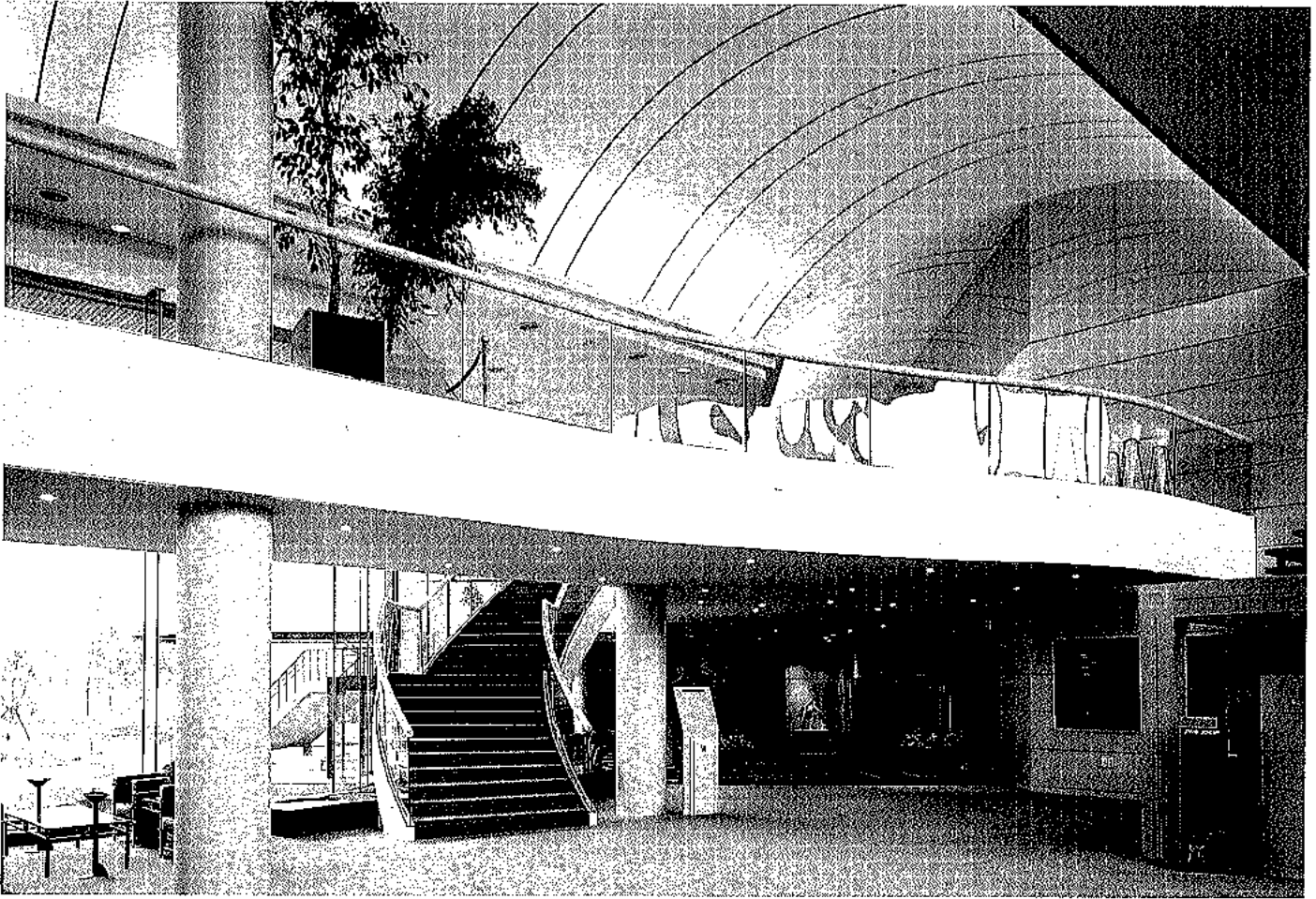
- ① 클럽하우스 전경 야경
- ② 배치도
- ③ 배면도
- ④ 정면도
- ⑤ 스타트 홀 상부
- ⑥ 2층 라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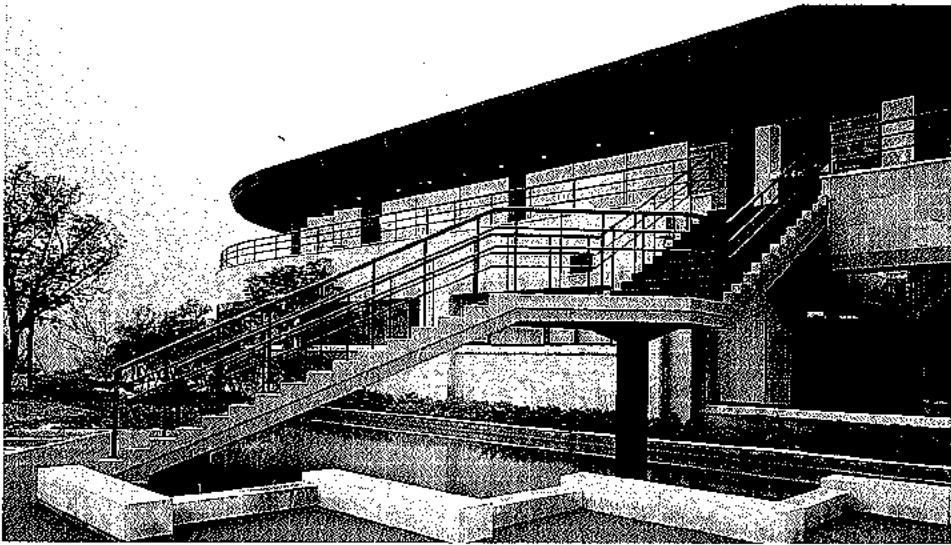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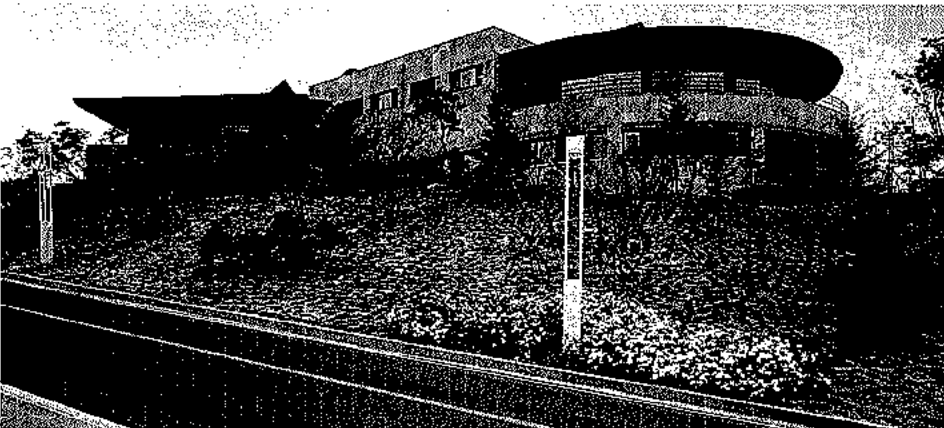
10



11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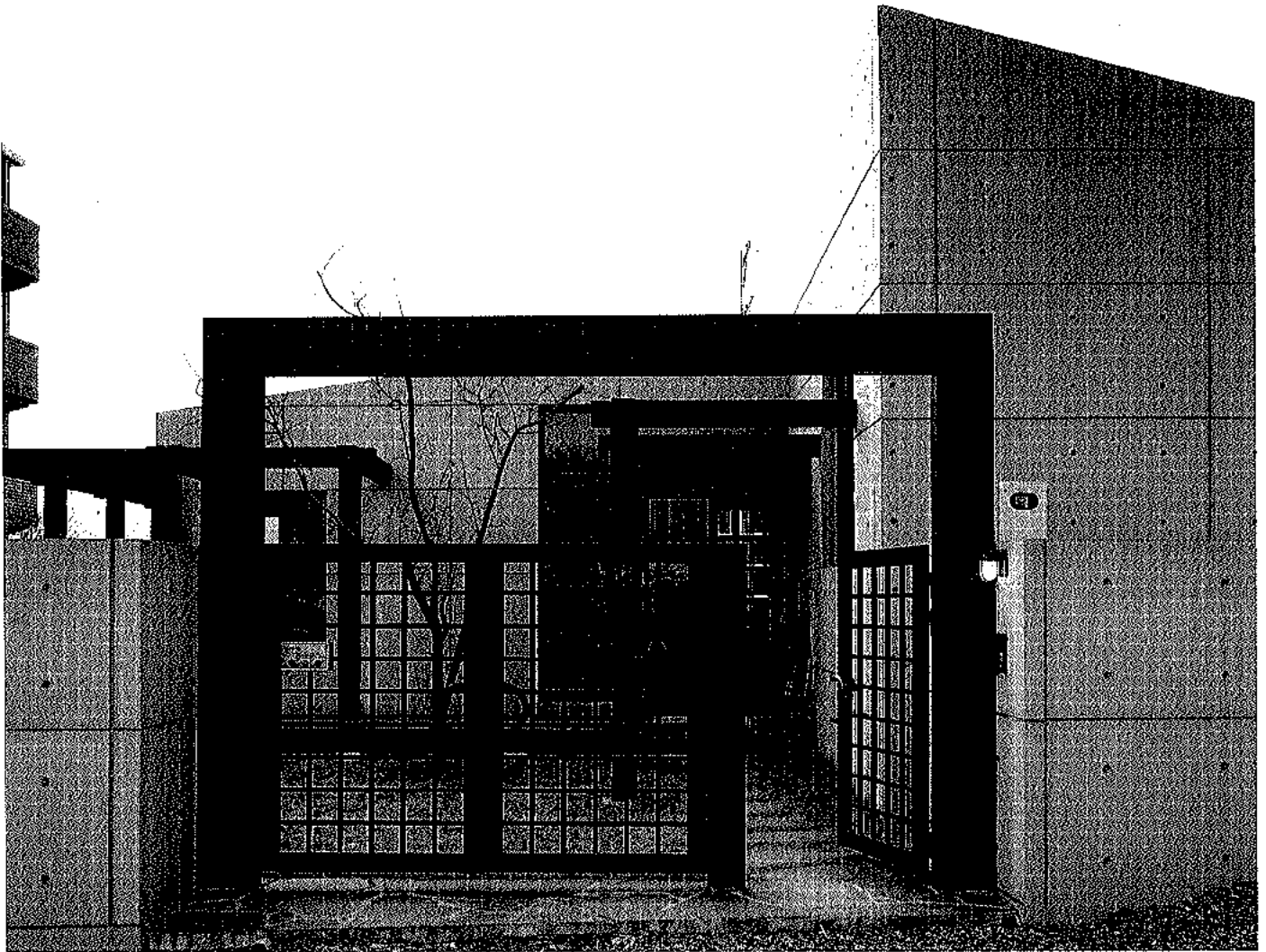
- ⑦ 클럽하우스 진입부 야경
- ⑧ 2층 평면도
- ⑨ 1층 평면도
- ⑩ 배면 상세
- ⑪ 로비에서 본 스타트 홀
- ⑫ 배면 전경
- ⑬ 진입로에서 본 전경

避靜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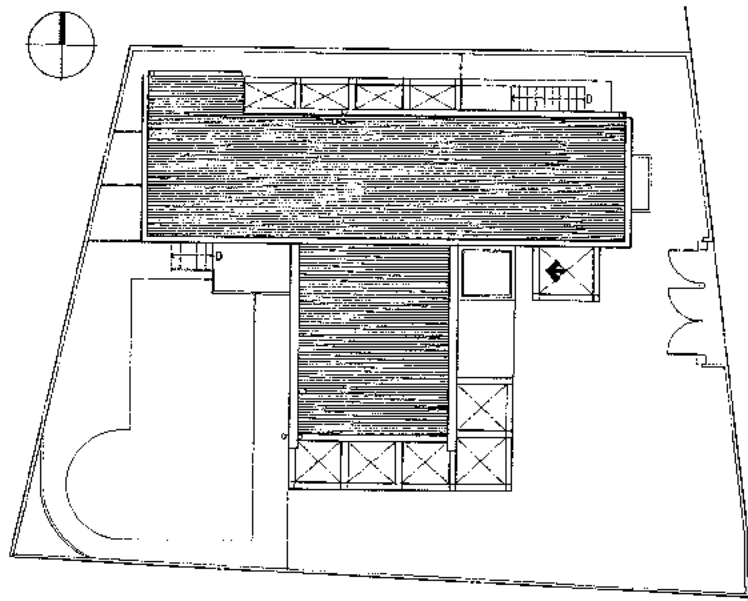
Retreat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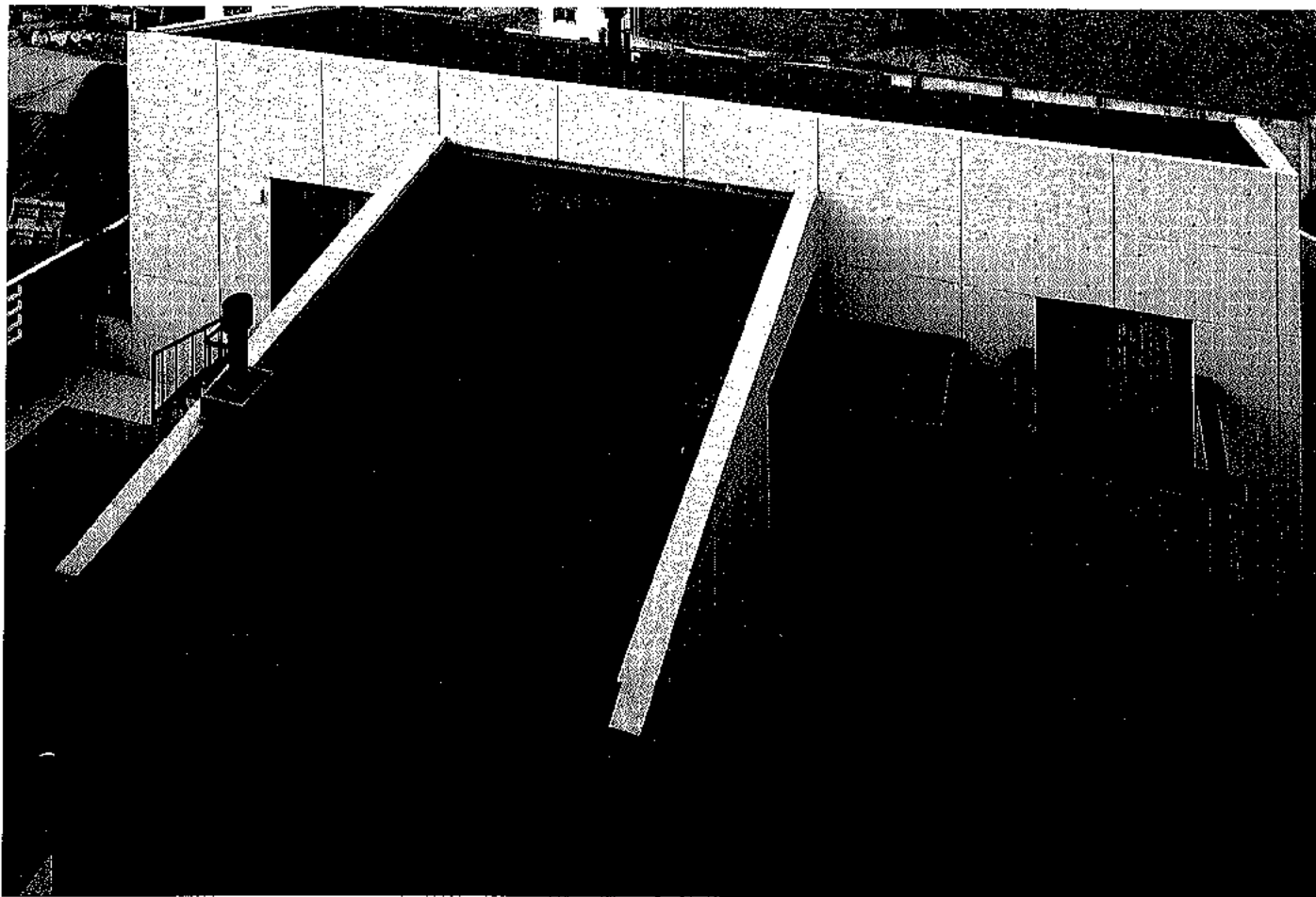
金東暉/중합건축사사무소 진우

Designed by Kim, Dong-Hwi



위치 /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지역 / 일반 주거지역
대지면적 / 390㎡
건축면적 / 110.63㎡
연면적 / 154.35㎡
간폐율 / 28.37%
용적률 / 27.79%
규모 / 지하 1층, 지상 1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벽-노출 콘크리트
지붕-아스팔트 싱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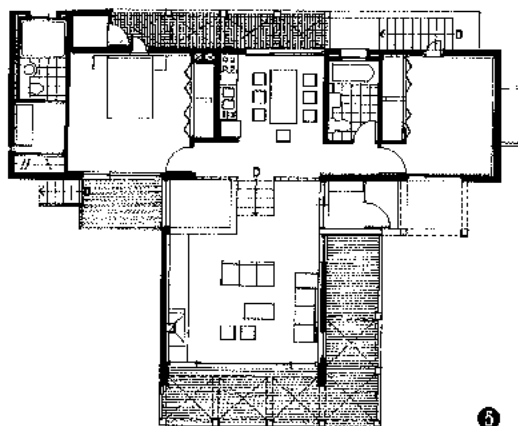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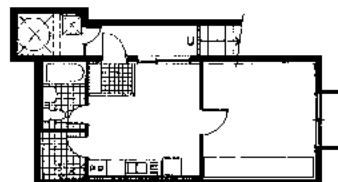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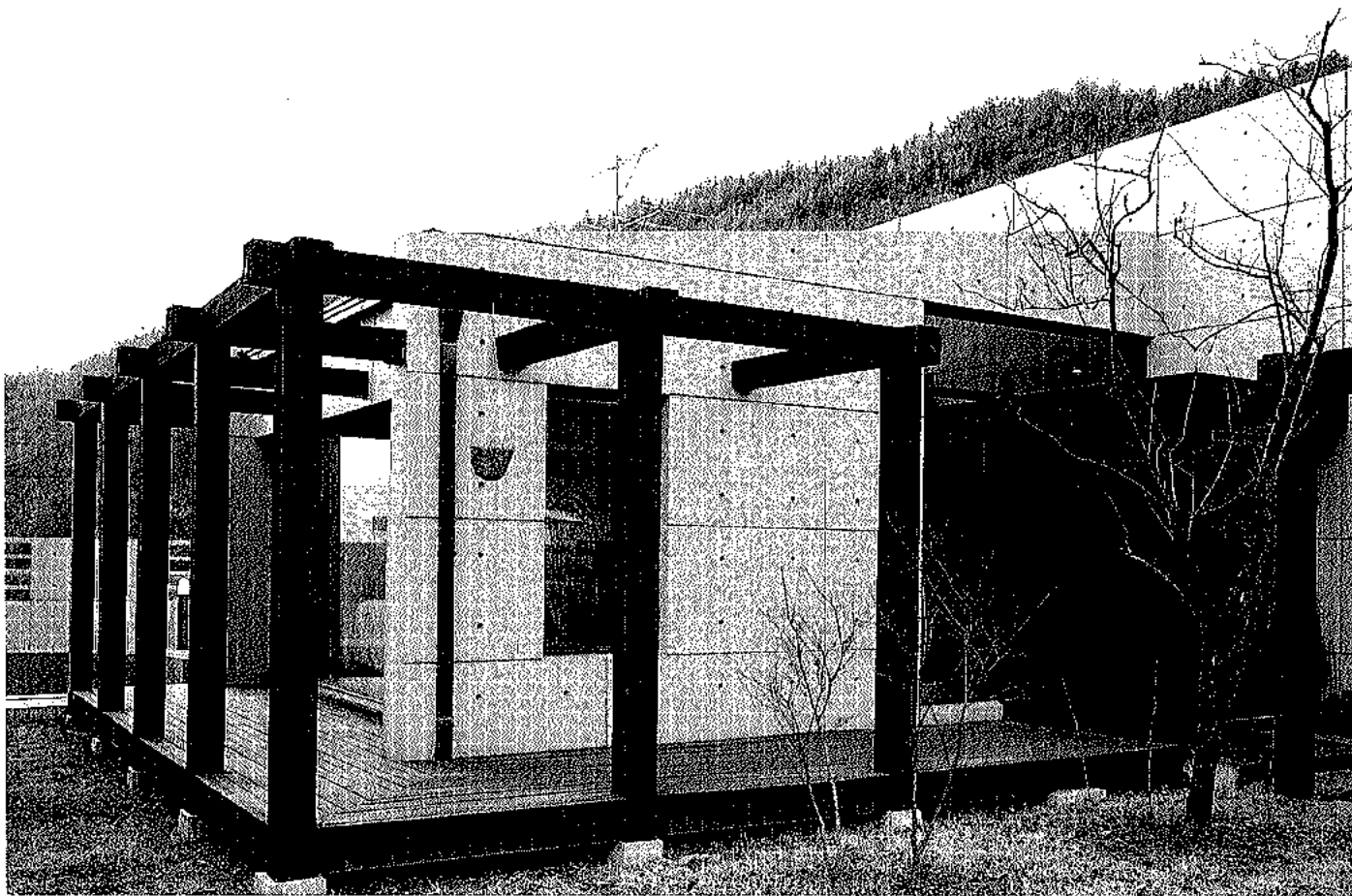


⑤



⑥

- ① 주 출입구측 전경
- ② 배치도
- ③ 전면 전경
- ④ 연못에서 올라가는 계단과 창문 디테일
- ⑤ 1층 평면도
- ⑥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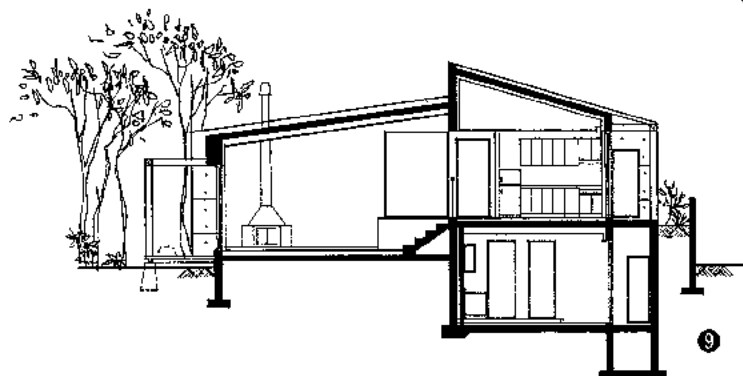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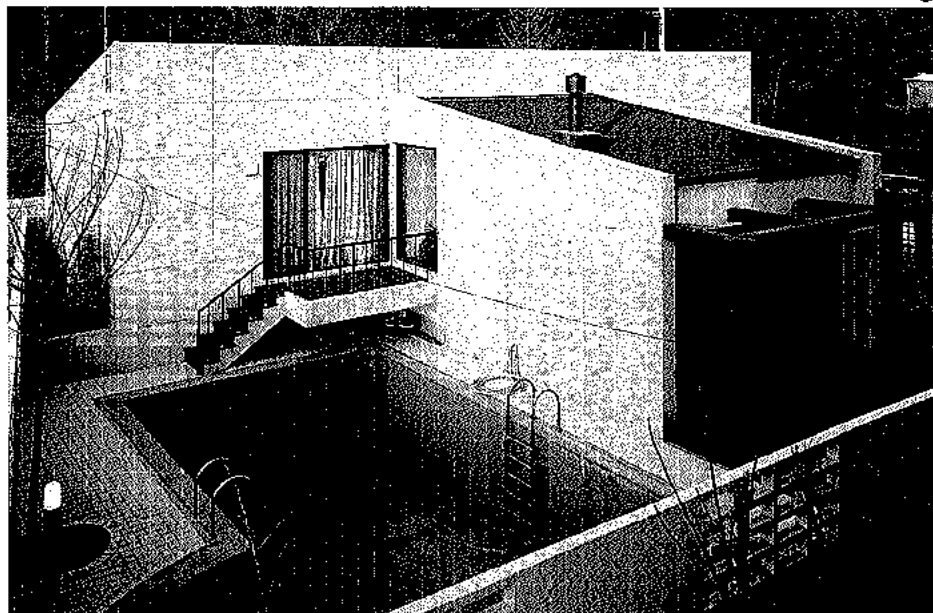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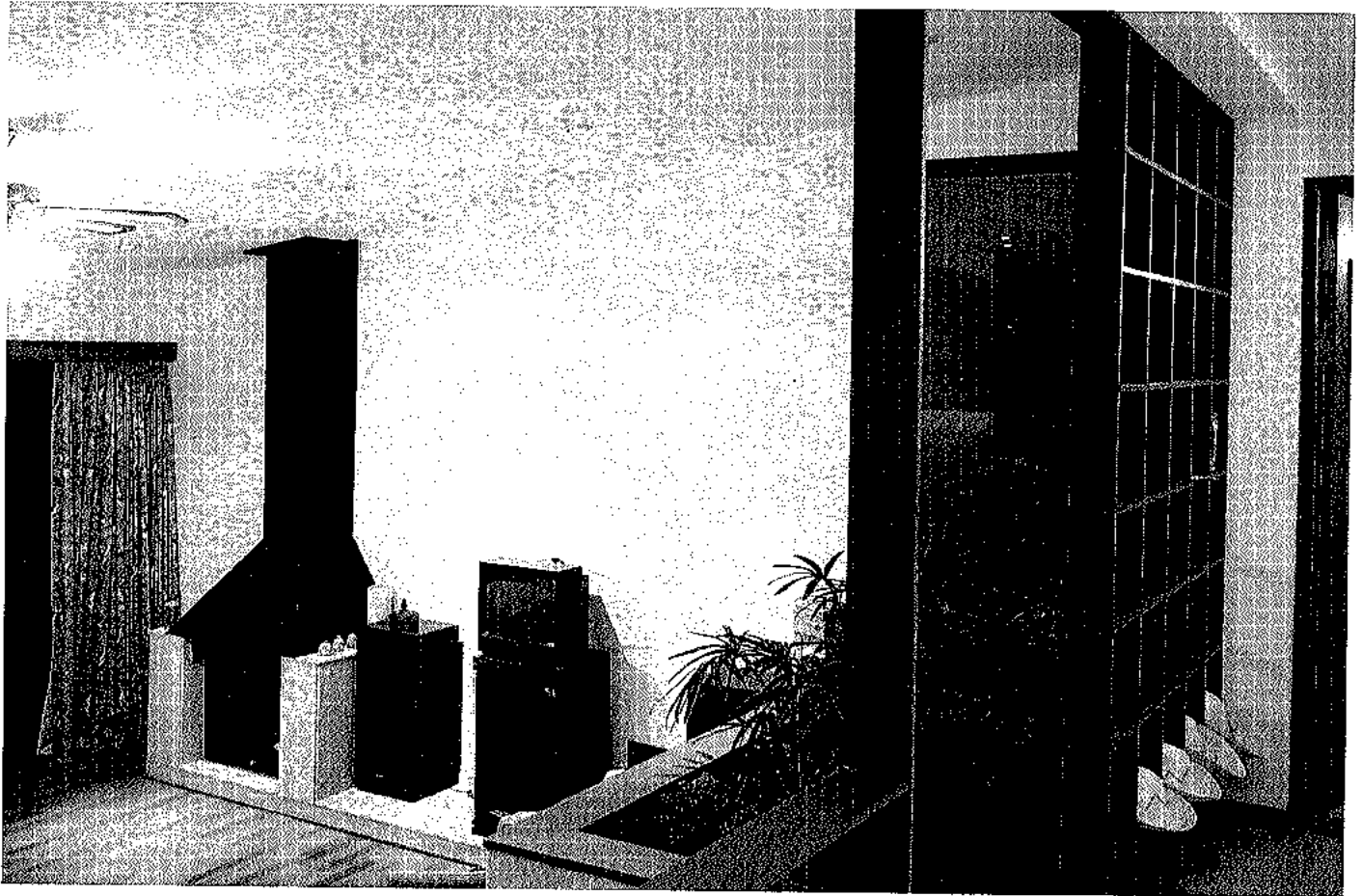
점점 이런 徵兆가 보여진다. —몸과 마음이 유리된 脫都市.

물론 이 時代가 요구하는 物性的의 승부에서 이긴 者에게만 돌아가는 것이지만... 비록 비정한 도시이지만 충분히 각자의 개성·영역·장소성·아름다움 등을 나타내며 어우러질 수 있는 삶의 배경을 만들수 있는데도 우리 시대의 일상적 무대를 떠나 自然으로 限時的의 僻境을 떠난다.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경기도 퇴촌은 우리들 눈에 너무익은 배경을 갖고 있는 곳이다. 나즈막한 야산과 고만고만한 이랑을 끼고 있는 논 그리고 그 사이사이 점점이 촌락들이 뿌려져 있다. 여기 통념적 발상이라면 내가티비즘의 구성 원리가 적용된 건축이 들어서야 됴에 불구하고 환경의 오브제로서 콘크리트, 덩어리를 박아 놓았다. 그 가소성을 살리고 자연과의 교감을 확대키 위해 콘크리트를 조각조각 떨어내듯 칼을 그어놓고, 흠을 파고, 못질을 하고 빛을 끌어들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 오브제로, 외부공간에서 내부공간으로, 내부공간의 각 節點마다 평면적이든 혹은 수직적이든 시퀀스의 극적 변환이 콘크리트·유리·철재·목재란 현대적 매개로써 되새겨져 표현됐다.

그리고 잊혀졌던 기억의 편린들—이승과 저승의 경계였던 지붕·天心의 무게를 이고 있던 기둥과 그 배열의 율조성·외부를 내부로, 내부를 외부로 이어주던 툇마루·井宇살 窓의 절제된 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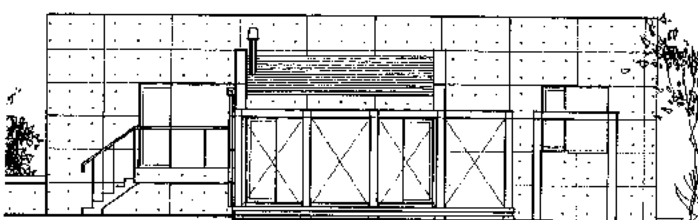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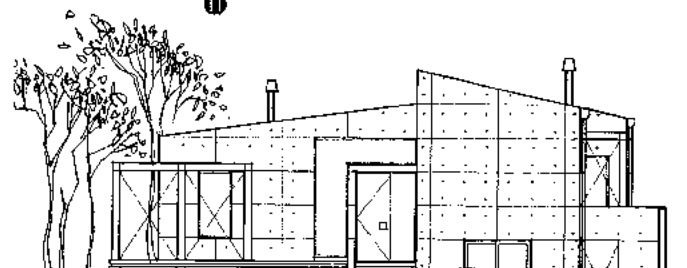
⑩
-이 풀라주되어 장식없이 一意的 모습을 드러낸다. 거실과 식당의 스포트 레벨차로 인한 공간의 확산과 수축, 시야의 침투에 의한 내부공간의 변화, 고전적 규범보다 파조성이 돋보이는 창호와 그 빛의 받아들임. 거실 내부까지 끌어들이는 실내 조경물들이 연출하는 분위기는 문주·대문·담장·벽면의 줄눈·현관의 박스·창호·내부공간의 스크린과 같은 끊임없는 격자 후레이를 통해 시시각각 그 분위기를 달리 연출할 것이다.

여기서 生活의 리얼리티와 교감되는 환경과의 컨텍스트·기하학적 구성 원리로 투시되는 환경적 연속성·무기질 재료인 콘크리트가 석회석이라는 구조체로 역삼투되어 유기화되는 일련의 조정작용에의 의도가 어디까지 해답을 구하며 혹은 자폐증적 표현으로 그 의도를 상실하게 되는가를 전적으로 설계자의 책임일 것이다.

⑪



⑫



⑬

- ⑦ 동측 마당에서 본 거실 외관
- ⑧ 동서측 전경
- ⑨ 단면도

- ⑩ 건너방에서 본 안방 복도와 거실
- ⑪ 거실에서 본 격자창과 주방
- ⑫ 남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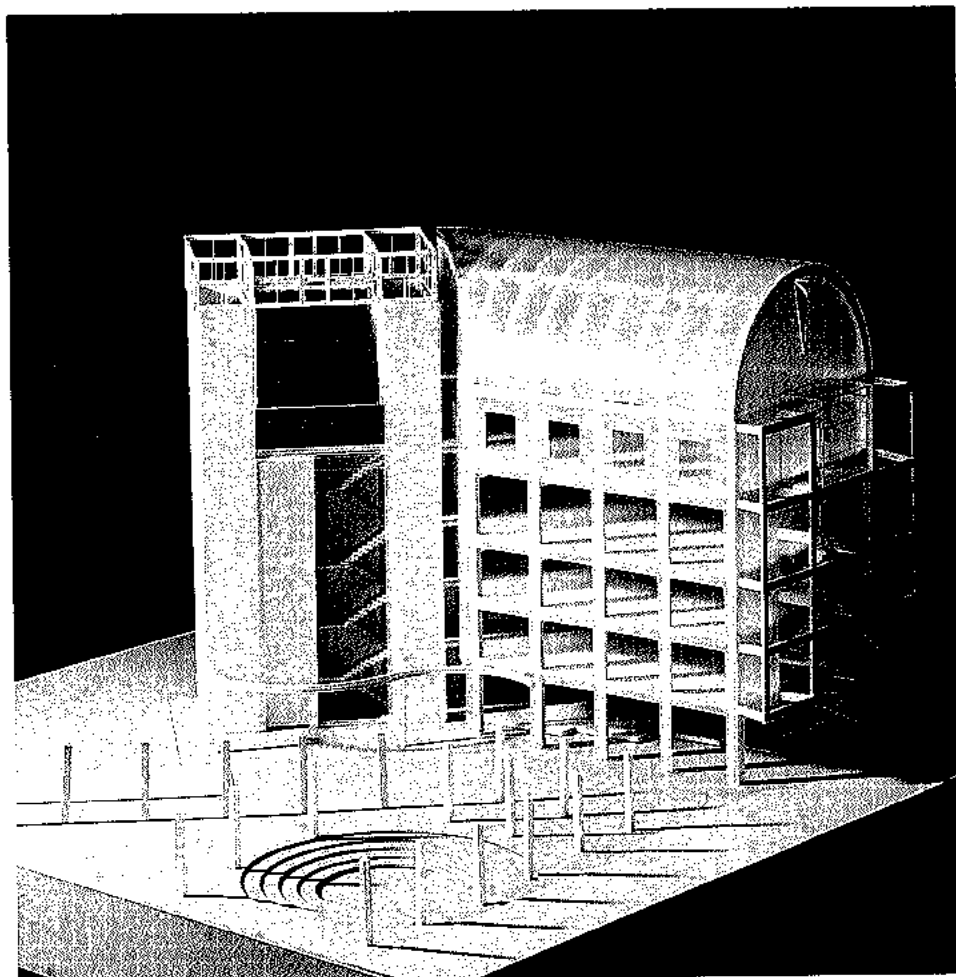
- ⑬ 동측 입면도

방이 4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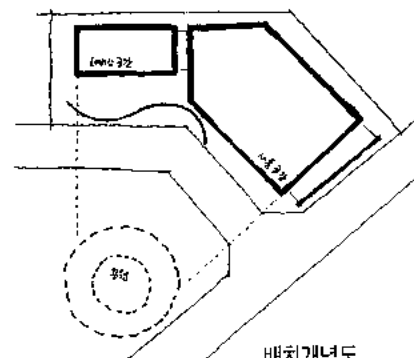
Pang-i-dong 4103

全恩培/종합건축사사무소 우원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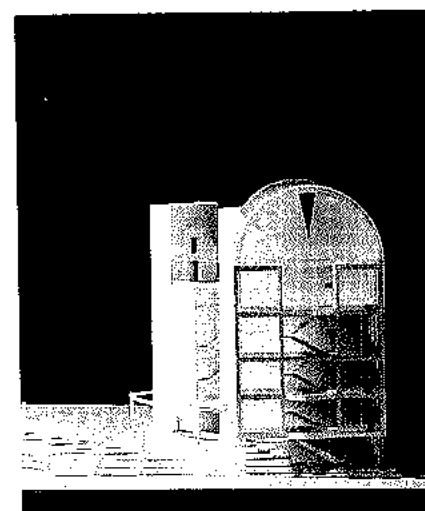
Designed by Chun, Eun-B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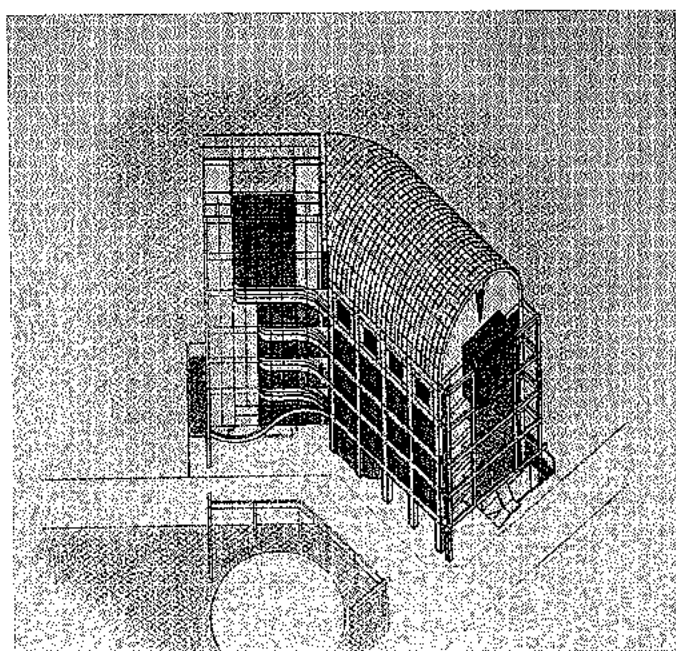
계획모형도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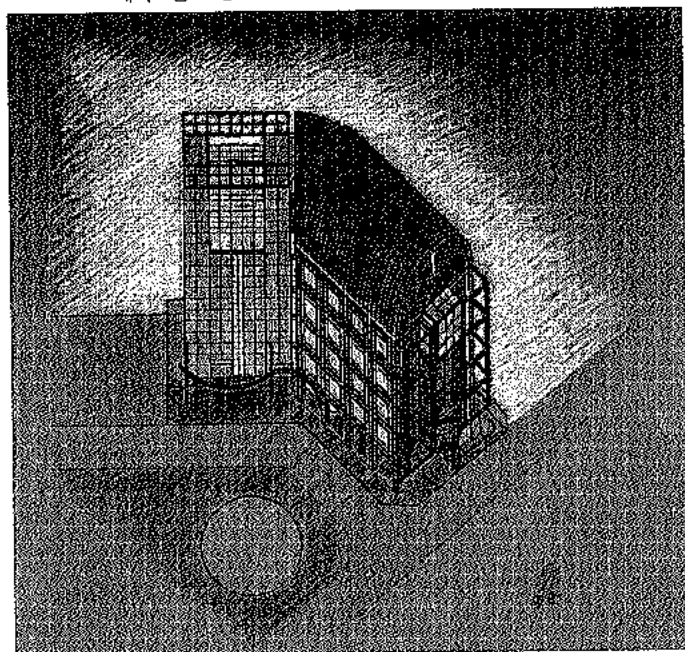
배치개념도



계획모형도 II



투상도 I



투상도 II

위치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도시설계구역
 대지면적 / 755.5m²
 건축면적 / 450.32m²
 연면적 / 3,302.19m²
 건폐율 / 59.61%
 용적률 / 261.76%
 규모 / 지하 2층, 지상 5층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주요용도 / 관람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서울의 부도심 상업지역이지만 아직 안정되지 못한 상태의 여러
 기능들이 복합된 동네에, 문화적인 성격의 소극장과 관련시설을
 배치시켜 보려는 시도는 몇번 밖에 부딪혔지만 결정적으로 대지 전
 면에 있는 소공원이 숨통을 틔어준 때문에 작은 연결고리를 발견하
 여 실마리를 풀 수 있었다. 이 공원이 없었다면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은 보잘것 없이 거의 버려진 채로 주변의 건물들과는 유리되
 어 있지만 앞으로 활기를 되찾아야 할 좋은 빈터임에 틀림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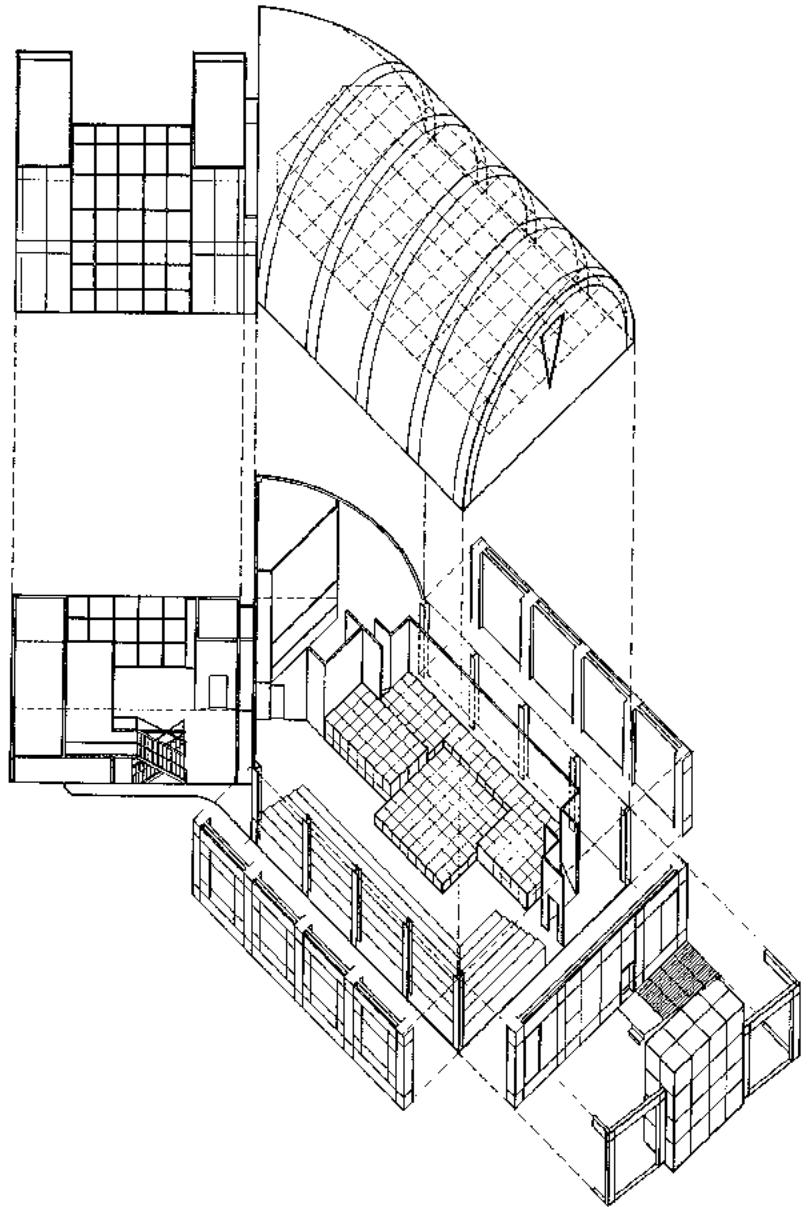
대지의 후면은 장차 다른 건물이 채워질 예정이지만 현재로는 대
 로변에서 Target View로 보이는 테이라 도시 가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기보다는 골목길속에서 그림자처럼 Set의 배경처
 량 존재하도록 하였다.

일부 기능은 실험적인 성격의 소극장 형식으로 해석하였고, 무
 대의 장치와 좌석은 가변적인 요소로 보아 전 공간을 기술공간으로
 활용하는 Multiple Stage 개념으로 계획하였다. 외부로 돌출된
 Frame과 Glass Box는 Set의 외연적인 성격을 부분적으로나마 예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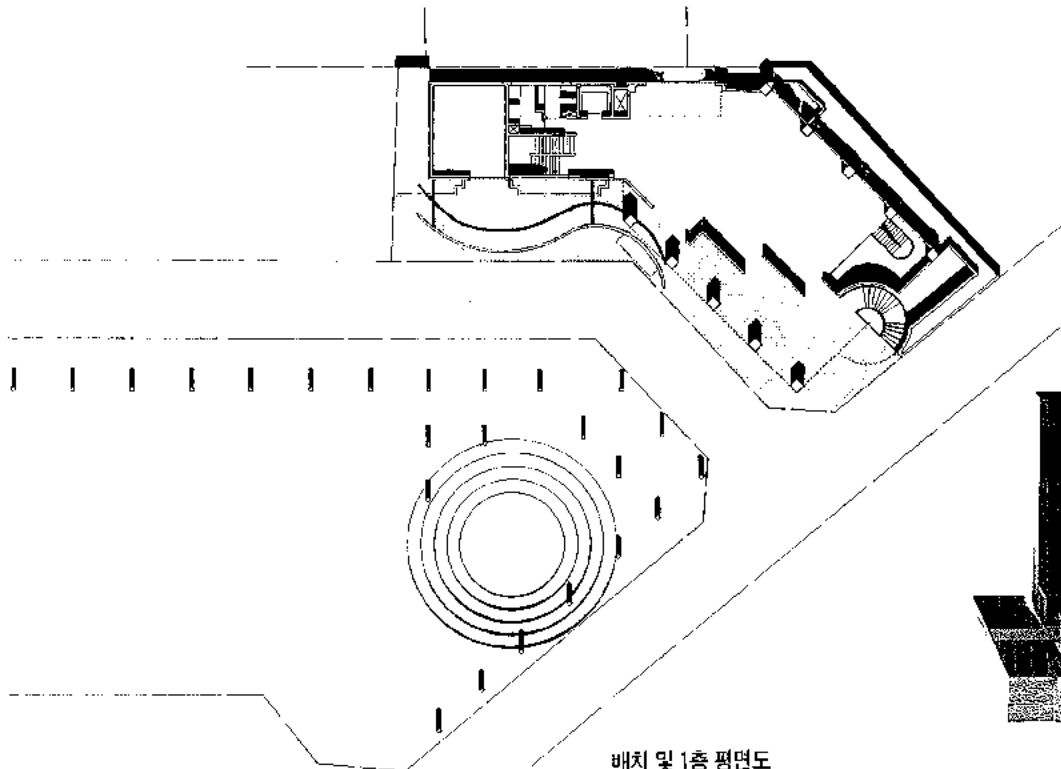
내부의 평면은 서비스 공간과 제공받는 공간의 분절과 접합으로
 양분시켰다. (Served Space vs Servant Space)

제공받는 공간 즉 순수한 사용공간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활
 용 가능성을 위해 띄어 놓았으며, 이러한 융통성은 모든 층에 공통
 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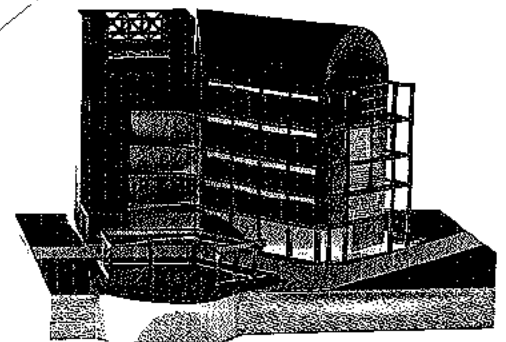
1층 공간과 공원은 기둥과 바닥과 조경요소를 통해 서로 연계
 되도록 시도하였다.



5층 해체 추상도



배치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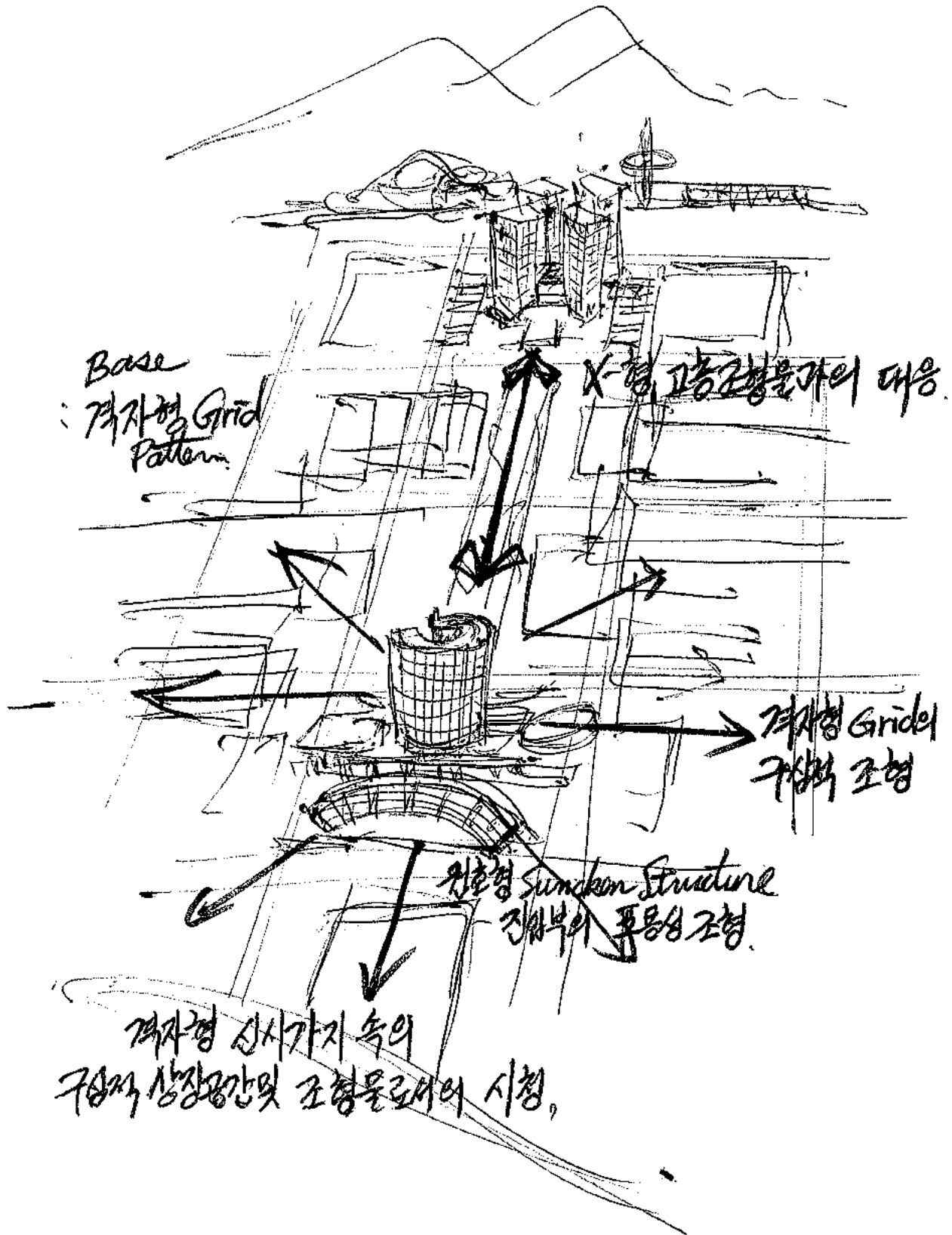
계획모형도Ⅲ

대전시청사 계획(안)

Taejeon City Hall Project

柳翼顯/(주)종합건축사 사무소 그룹원

Designed by Ryu, Ik-Hy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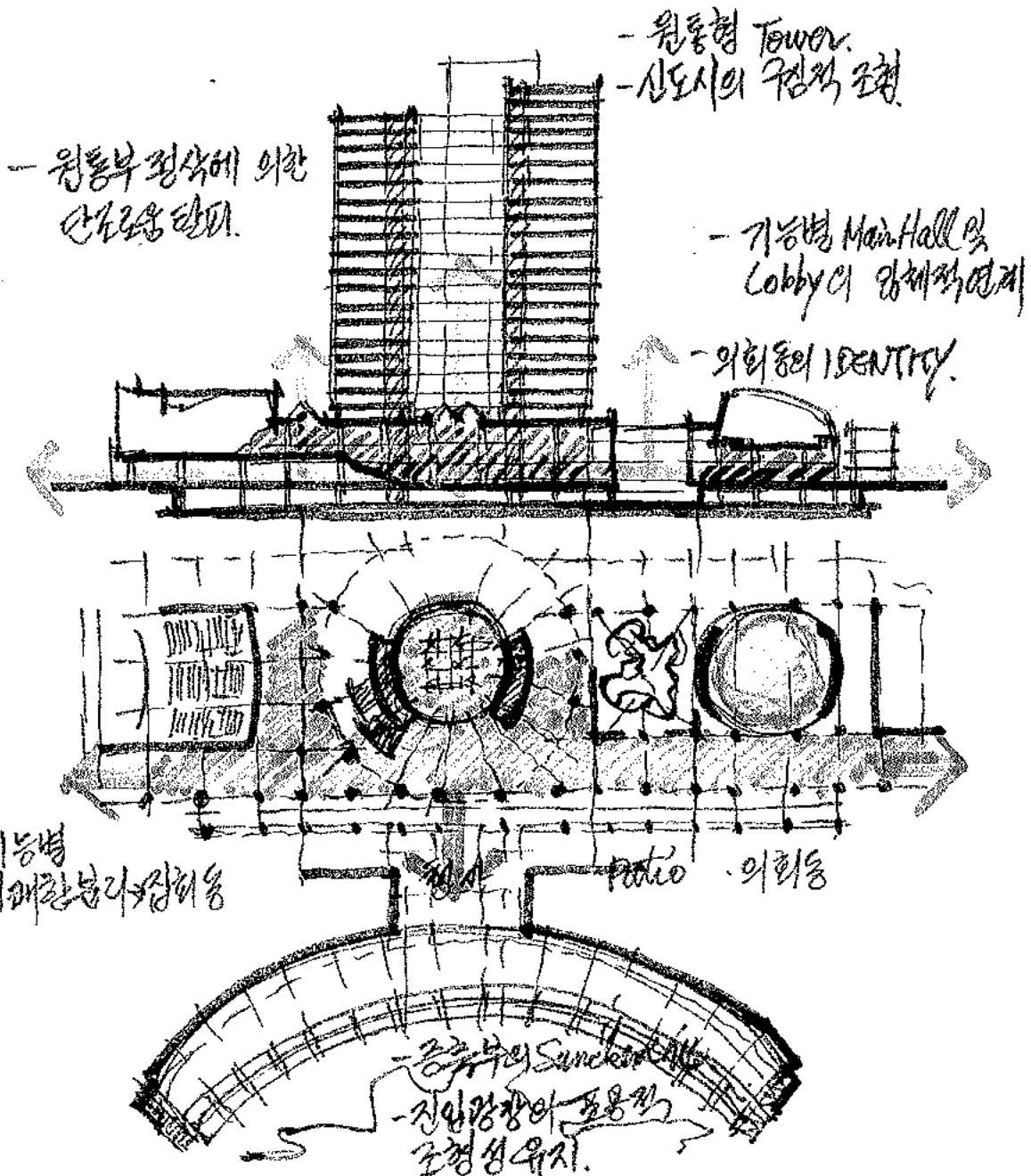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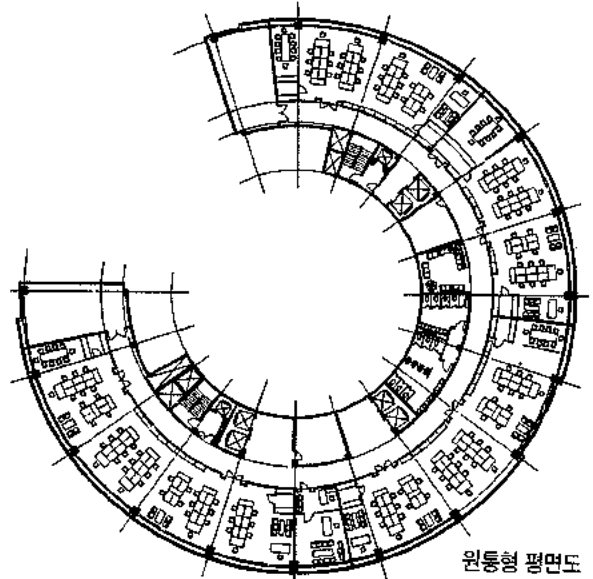
모처럼 조성되는 신도시의 시청사 건물을 계획하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던 Project였다.

격자형으로 조성된 신시가지의 중앙부에 입지하는 입지적 특성으로 인하여 불규칙한 대지에 계획된 여타도시의 청사들과는 다른 구심적 조형성이 특히 필요하고 또한 어울리리라 확신했다.

다구나 북단부에 이미 계획된 X자형의 제3청사와 함께 남단부에 과감한 원통형 Tower가 대응함으로써 신도시의 조형적 축을 조성할 수 있음으로써 별다른 작위없이도 명쾌한 解가 이루어지리라 보았다.

원통형 Tower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Dramatic한 Hall 및 Lobby 등 내부공간 구성도 훌륭했으며, 방형 Space로 일관된 Office Layout도 큰 손실없이 이루어진 것 같다.

다만 Main Concept에 탐닉함으로써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으나 기본적으로는 도시적 상황과 시기적 상황에 비추어 과감한 상징성이 추구되었어야 했던 Project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에 견줄 바는 아닌 듯하다.



신년특집/여성회원이 보는 건축계 개혁방향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Why Architect?

趙仁淑/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by Cho, In-Souk

누구나 다 알면서도 꿈 같은 얘기지만 좋은 일과 그 일을 해내기에 적합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일을 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장소를 갖추고 적당한 시간과 돈을 써야 제대로 건축설계를 해낼 수 있다.

건축계에서 빈번한 움직임중의 하나는 기존 단체를 부정하고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일이다. 결국은 이런 움직임이 '일'때문인가 아닌가 한다. 몹의 배분이 고르게 되면 차분히 앉아 일하기에 바쁠 것인데 편중돼 있고, 불합리하게 일이 형성되고, 역시 정당하지 않게 수행되니, 모두가 다 흥분되어 있는 상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의 종류를 보면 크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일,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일, 건설업자들이 발주하는 일 그리고 개인,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일들의 형성과정은 다양하다.

기업 내지는 개인들이 하는 일이야 개인 내지는 기업의 친분있는 자가 대개 하게 되지만, 첫번째의 경우 가장 많은 것은 형식적이긴 하지만 설계경기를 통해 설계자를 결정하게 된다. 설계경기를 하려면 누군가가 기초작업을 해야하고 그 기초작업을 토대로 설계경기에 입해, 역시 많은 부분이 다분히 형식적인 심사과정을 통해 설계자가 결정된다. 사실 그 프로젝트 자체는 대부분이 조작된 것이기도 하다.

국가돈으로 짓는 이유없는 어떤 건물들은 내제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말인즉 안(案)이 좋으면 당선이 된다고는 하지만 계획안의 우열이란 근소한 차이이고, 일의 수행의 능력도 그 정도 수준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다.

그보다도 앞서 그런 건물이 이 시점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작업 또한 학회, 가협회, 사협회 등의 공식적인 창구를 통한 누군가에게 의뢰되나 대부분은 그 일을 만드는 사람, 본인 내지는 측근이 하게 된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일반설계자가 대부분이다.

공부를 많이한 사람들의 머리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나오는 일들이란 대체로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 사실상 설계경기나 학술용역이니 하는 명분있는 행위란 대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목하에 일을 만든 사람들의 작업을 합리화, 합법화시키기 위한 것이진 진실된 것이 아니다.

다 좋다.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일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이지, 형성과정이야 다 능력껏 하는 것이니까, 그런 능력 없으면 좋은 일 못 만들고 못 해 보는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일을 해 내기에 적합한 사람이나 장소란 건축사업무 내지는 각종 설계활동을 하는 설계사무소라는 조직을 말하게 된다. 좋은 일을 능력껏 따 냈을 때 어떻게 수행하느냐는 그야말로 생각해 볼 문제다.

건축사법에 정한 등록여건을 갖추고 있건 아니건 설계행위를 하는 사무소를 몇가지 형태로 나누어 보면, 대기업이 직접 운영 내지는 스폰서하는 대형 사무소, 설계사무소로 출발하여 커 온 대형사무소, 중·소 규모의 개인내지는 종합사무소, 각종 인테리어 및 CAD 등등의 전문화 사무소, 대학에 재직중인 사람들이 운영하는 연구소 등이 있다.

앞으로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대형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되나 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소규모 사무소가 할 일과 적당히 구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대형 사무소의 경우 프로젝트 하나 수주하면 실제 설계에 들어가는 비용이 45~50% 이하로 떨어져야 합리적인 운영이 되므로 소규모 사무소들이 그 곳에 등록(?)을 하고 소위 협력설계를 하게 된다. 물론 다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설계경기도 협력업체에게 주고, 기본설계도 협력업체 그리고 실시설계도 협력업체가 작업을 한다. 잠만 운영되면 괜찮은 방법이다. 큰 사무소는 경비줄여 좋고 관리만 잘하면 되니까, 동시에 백여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이다.

또한 소규모 사무소는 그 일들만 중점으로 하면서

사무실을 운영해도 금액은 적지만 건축주와 직접 대면할 필요가 없고, 기술료가 나가는 것이 없으며, 일의 수주의 성사율을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피차간에 좋은 일이라 생각된다.

나만 실제 작업한 사람이 누구라는 것은 밝히는 것이 옳다. 지금처럼 한다면 먼 훗날 후손들이 그 작품 누가 설계했나 자료를 찾을 때 실제 작업한 사람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계약 대표자가 설계자가 되려면 본인이 적어도 스케치라도 하고 했을 때 인정할 수 있지만 단지 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영원히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면 본인은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는가!

어쩌면 우리가 배워온 역사 자체가 이처럼 날조될 것인지 모른다. 기록이란 다분히 힘의 논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협력설계가 설계 사무소 형식을 제대로 갖추고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무소로 가세되면 비용이 올라가므로 가급적이면 그렇지 않은 좋은 여건을 찾게 된다. 그 중 산학협동이 한 예다. 즉 학교연구소에 설계를 맡기는 것이다.

産學협동이란 참 좋은 일이다. 어떻게든지 학교와 관련지을 수만 있다면 득이 되면 되었지 손해가 날리 없다.

학교로 볼 때 졸업생들 취직시켜 좋고 교수께서 간혹 설계수업에 빠지기는 하지만 일선에서 실무할 수 있으니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기업체에서 학교로 연구 용역 의뢰하며 나중에 설계경기에 심사위원이라도 위촉될 가망성이 있는 각 학교 교수님 열 분 정도 평상시에 대접하고 있으면 학교는 연구비 실적 올라가서 좋고 피차간에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그래도 이렇게 수행되는 일은 일 자체의 질(質)을 한편으로는 높이기도 하니까 다행이다.

우리 건축계에는 많은 부분이 악순환 되고 있다.

임금이 현실화 되어 있지 않고 설계비도 적게 받는 실정이다. 설계비가 적으니 시간을 단축해야 하고, 인건비를 줄여야 하고, 기술료는 뒷전이 된다. 적은 인건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다보니 소규모 사무소들은

좋은 사람 채용하기가 쉽지 않고, 어느정도 일에 눈이 뜬 젊은이들은 여건이 좋은 대형사무소로 이동을 하게 된다. 결혼도 해야하고 처자도 먹여 살려야 하니 의리도 꿈도 다 소용이 없다. 어차피 근린생활시설이나 설계할 바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는 큰 사무소로 가야하지 않겠는가?

설계비가 적으니 시간과 머리를 자꾸 쓰면 비용이 나가므로 어떻게든지 있는 디테일 활용하고 같은 평면 사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이나 성장은 멈추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똑같은 지하철 역사에 똑같은 아파트에 복제품이 난무하게 된다. 설계행위가 창작행위라는 등, 건축이 동결된 음악이라는 등 하는 얘기는 고전이나 나옴직한 얘기다. 과연 우리는 무엇때문에 건축을 하는가?

우선 한 가지 굳이 제안을 한다면 무엇보다도 건축계의 기본급여가 올라가야 한다. 대학원 정도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한 달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임금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일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할 것이고, 학교에서 엉터리로 졸업을 해서는 안될 일이다. 그리고 경력이 많아진다고 갑자기 급여가 오를게 아니라 기본급여와 근소한 차이로 성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직장의 이동도 줄어들고 기술력도 향상될 것이다. 기본급여를 제대로 주려면 설계비를 제대로 받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이 잘 살 수 있다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겸손하고 성실한 건축사가 되자

Modest & Industrious Architect

金花子/종합건축사사무소 세명건축

by Kim, Hwa-Ja

좀 더 겸손하고 성실한 설계자가 되자.

돌이켜 보면 건축사 사무소를 개업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4만세기 조금 못 미치는 23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처음 개업할 당시는 그냥 몇 모르고 희망과 꿈에 부풀어 고된 줄도 모른 채 설계비에 관계없이 일의 크고 작고를 가리지 않고 무죄라도 금방 녹일 것 같은 자신과 패기를 가지고 설계실과 감리현장을 부지런히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한해 두해 아니 23년이란 세월을 보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편한대로 타성에 젖어 버렸다고나 할까 복잡하고 머리 아픈일은 애시당초 손대고 싶지도 않고 좋은 조건하에서 말썽없이 편한 일만 가려서 하고 싶으니 세상이 변한 탓일까, 아니면 나 자신이 변한 탓일까 자신마저 만족할 수 없는 설계도면을 대하면 왠지 서글프다 못해 차라리 부감각해지고 싶은건 어인 까닭일까.

그 동안 내가 계획하고 설계한대로 아무런 불평불만없이 만족해 했던 건축주는 과연 몇이나 될까? 설계비 감리비는 청구한대로 한 푼 안깎고 다주면서도 아는 안면에 까다롭고 복잡한 일하느라 고생만 실컷 시켰는데, 설계비는 예상보다 너무 싸게 받는 건 아닐까 하며 조심스레 내 눈치 봐가며 직원 회식비 얼마라도 더 주고 싶어하는 건축주는 과연 또 몇이나 있었을까?

납품시간에 쫓기어 평면도 따로 단면도 따로 앞뒤 치수 안맞는 설계도면 작성해 놓고도 현장에서 공사 매끄럽게 하지 못한다고 도리어 큰소리로 호통치다 몇 마디 불평소리라도 들리면 공사 책임자 불러놓고는 바쁘게 일하느라 보면 그럴수도 있는데, 설령 도면 앞뒤 안맞더라도 현장에서 공사하는 사람이 알아서 사전에 설계 감리자에게 상의해서 공사할 것이지 널푼수 없이 끝이 끝대로 그것도 집이라고 짓고 있었냐며 당장 뜯어 고치라고 점잖게 나무래 놓고나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 앞으로는 도면 좀 잘 그려주고 검토 잘해야겠구나고 반성해 보면서 내심 부끄럽고 민망해 본적이 과연 나만의 일이었을까?

허가 요건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면 몇 장 그려서 허가될하고 나면 시공할 수 있는 상세도면을 추가로 작성해서 현장에 보내야 하는게 당연한데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실시도면 추가 작성하기가 생각대로 용의치 못해 공사 한 두번 하는 것도 아닌데 다들 알아서 잘 하겠지 하며 앞뒤 안맞는 설계도면 몇 장 달랑 현장에 보내놓고도 설계 잘했다고 큰소리 치겠지. 소위 임자 잘 만나서 이웃이나 주변에서 그 혼한 진정 한번없이 아무런 하자없이 잘 마무리되어 준공이 되고 난 후 오가는 사람 한 둘 그런대로 집 잘지었다고 하면 푼수없는 설계자 마치 자기가 설계 잘 해서 좋은 작품이나 된줄 착각하고 하루 아침에 무슨 대가가 된듯 목에 힘주며 점잖게 폼 재며 거들먹 거린적은 없었는지 돌이켜 보고 싶다.

새해에는 좀 더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설계도면을 작성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간단하고 적은 일이라도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부분단면 한 장이라도 더 상세하게 그려 줄 수 있는 성의있는 설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행정처분 기준 더이상 얹매이지 말자

협소한 대지위에 일조권이다, 대지안의 공지다, 건폐율이다 하며 법조항을 요리조리 꿰 맞추어 계획하고 설계해서 대지 한복판에 행당그러니 소위 그림같은 집 한채 멋지게 지어놓고, 보기좋은 장식장이다, 옷장이다, 식탁이다 하며 무슨 외국 잡지 카타로그처럼 눈에 띄이는 것만 번지르르하게 치장하고 진열한뒤 식구수대로 각자 자기 방으로 몸만 달랑 들어가서 손하나 까딱않고 생활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직은 우리네 살림살이가 그렇지 못해 먹고 살고하는데 뭐가 그러도 구질구질 많은지 눈에 안 뜨이는 살림살이가 눈에 뜨이는 것보다 열 보따리도 더 많으니 그림같은 멋진 집 준공검사 나기 무섭게 가레기다, 새시다 하며 온 사방을 불법무단 건축물로 뒤집어 씌우니 이상적인 설계나 작품은 간 곳이 없고 위법 건축물만 덩그러니 남았다고 할까.

준공검사후는 또 무슨 감사는 그렇게도 많은지 자체감사다, 구청감사다, 시청감사, 내무부감사, 건설부감사, 감사원감사 등등 일년 내내 감사 소리들으면 그 많은 건물들 중에 행여 내가 설계 감리한

것이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어 서슬 퍼런 감사관앞에서 난도질 당하고 있거나 않은지 마냥 초조하고 조바심 내야하는 현실에서 탈퇴하고 싶은 건 나만의 심정일까?

사람이 살다보면 영감이라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이 감사대상의 원인을 제공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상하게도 설계에서부터 허가 과정들을 거치면서 처음부터 뭔가 찝찝하고 매끄럽지 못한 일은 준공검사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말썽의 소지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래도 철저하게 완벽하게 감리한다고 신경써서 다른 현장보다 더 자주 가보고 앞뒤 자로 열 번도 더 재보고 검토하고 또 개운치 못해 망설이다 설마 요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준공검사 도장 딱 찍어 주고나면 그날부터 무슨 감사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내려 앉으며 죄지은 학생마냥 금방이라도 불려가 꾸중 들을 것만 같아 조바심 내며 불안한건 또 어인 까닭일까? 허구많은 여러 수백건수 중에 잘된 것은 한건도 안 걸리고 하필이면 처음부터 찝찝하던 건수는 정말 쪽집게 도사같이 위반부분을 잘도 찾아내서는 구구절절한 참으로 인간적인 어쩔 수 없는 전후 사정일랑 알 바 없고 순전히 감리 잘못된 불성실한 자로 낙인 찍혀 결국은 자인서를 쓴다.

무슨 청문을 한다는 등 법석을 떨다 몇 개월 행정처분이라도 받고 나면 자기 잘못은 고사하고 엔지니어나 운수사납게 속죄양이된 기분이 되어 속상하고 자존심 상해 설계고 감리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누적된다고나 할까? 재판서류 미비하게 만들었다고, 변론 잘못해서 재판에 졌다고 행정처분 받은 변호사를 본적이 없고, 몸살 감기약 몇 일본 지어주고 제때 만나았다고 영업정지 당한 의사, 약사였는데 우린 왜 걸렸하면 내집 짓는 정성으로 남의 집 설계해주고 이왕이면 멋지게 잘짓고 편리하게 잘살아라고 부지런히 감리하며, 조언하고 충고하고 지도편달했건만 무슨 팔자 소관인지 감사하면 건축을 빼 놓을 수 없고 준공했다하면 설계도대로 원형보존이 불가능한 위반 건축물만 도사리고 있으니 설계 감리자의 입장에선 그저 가슴만 답답할뿐 더 이상 할말이 없다.

과연 건축법이란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건축사법 또한

누구를 위해 만들어져 있는 것일까? 보다 좋은 환경속에 보다 우수한 건물을 짓고 선의의 건축주를 보호하며 건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정해 놓은 기준법이 자칫 잘못하여 소위 제수(?)없이 걸리면 영락없이 설계감리자에게 올라미를 씌우는 욕모 방망이로 변하니 그 두꺼운 법규책에다 보통때는 대수롭잖게 여겨 눈길 한번 쬔 본적이 없는, 눈에 띄지도 않는 깨알같은 몇 줄 아니 몇 자 위반하였다 해서 우리는 언제까지 행정처분 기준에 얽매어 안절부절 해야하는 것일까?

기억력은 자꾸만 희미해져가는데 법규책은 옛날 목침보다 더 두꺼워져서 한 손으로는 펴보기조차 힘든 지경이니 왜 우린 이렇게 많은 규범에 매달려 살아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건축법 과연 이대로 좋은가

우리는 흔히 신랄하고 착한 사람, 예의 범절있는 사람을 가리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하지만 하루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복잡한 사회생활 속에서 빈틈없이 완벽하게 살기 위해서 그 많은 육법전서 다 외우고 털끝만큼도 위법을 안하고 사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 꼭 우리 건축만 유독 법의 테두리 속에 얽매어 움추려 들대로 들어있는건 아닌지, 그 두꺼운 법규책 들여다 보며 깨알같은 많은 규범과 기준에 맞추어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계획하고 설계해서 보다 좋은 작품다운 작품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생활 환경이 변하고, 문화가, 시대가 변하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세대차를 느낀다고나 할까?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된 우리의 주거 생활속에서 그래도 아직은 익숙지 못해 불편하고 아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주택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 수납 창고나 계절에 따라 교체해야 할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으면 좋으련만 우리네 주택 문화는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는지 큰방, 거실, 방 등은 한 자라도 더 크게 하고 싶으면서 주방이나 다용도실 등은 채광도 통풍도 안 되는 한 쪽 귀퉁이에 한 치의 여유도 없어 찻자루, 양파자루 들고 뱅뱅 돌아야 하고 라면박스, 사과케잌 하나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은 없으면서 무슨

안방이다, 침실이다, 거실이다 하며 장식장에 주렁주렁 치장하는 것이 과연 잘 된 설계일까?

그래도 옛날에는(아니 종전법) 멋은 없지만, 앞뒤 발코니 최대한 빼내서는 준공검사 받기 무섭게 보란듯이 사방 가테기나 알루미늄 새시로 근사하게 메우고 나면 전폐율 59.99%의 집이 토지 이용을 최대한 살린 80~90%이상의 멋진 집이 되고, 그 가테기 속에 보일러실, 창고, 세탁실 심하면 싱크대 갖춘 주방까지... 모든 부대시설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니 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설계일까? 그런데 또 그게 못 마땅해 하루 아침에 건축법을 짝 바꿔서 치마다, 통로다, 발코니다 구분하니 처음에는 좁은 대지에 집 안된다고 야단이더니 이젠 한 술 더 떠서 설계도면에는 쳐마랍시고 그럴 듯하게 기와 잇고, 아스팔트 싱글 입히고, 해놓고는 시공 할때는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손가락 같은 각목 열기설기 엮어서 기와장 대충 이어놓고, 출입문을 합판으로 페인트 칠해 봉해 놓고, 절대로 통로나 발코니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시침 뚫 때놓고는 준공검사 나기 무섭게 짝 걷어 치우고는 한 술 더 떠 대리석 난간에 알루미늄 새시에 페어그라스까지 끼우고 나서 는 감고 아웅하면 멋지게 처리하니 뭔가 제재하기 위해 고치고 또 고쳐진 법을 요리조리 잘도 피해가며 새로운 공법(?)을 연구노력 하겠지.

언제부터인가 기와장 대여 전문 기술자까지 등장하여 오늘은 이 집 준공 검사용 기와장 이어놓고 감리자에게 준공검사 빨리 해 달라고 졸라대면 그래도 감리 잘못된 책임일랑 면해 보자고 카메라 척 메고나가 이리 찍고 저리 찍고 증거 확보한 후 되돌아 서기가 무섭게 기와 전문업자 처마에 설치된 기와장 달랑 걸어내어 다음집 그 다음집에 똑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고 준공검사 하고 또 걷어 치우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불법, 위법 건축물을 태연스럽게 양산하고 있으니, 이런 법이 과연 잘된 법일까? 어떨 때는 열기설기 이은 기와장이 금방이라도 으스러질 것 같아 건축주, 시공자에게 기와 몇 장 가지고 사업 한 번 잘 한다고 했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 그까짓 기와 몇 장 몇 톤합니까, 인건비가 비싸 그래도 남는 것 없나.

언젠가 단독 주택 내부에 반드시 실내 계단이 있어야 한다고 45도 경사진 사다리 같은 계단 만들어 이 집 저

집 아무 곳에나 걸쳐두고 준공검사하던 때가 생각나니 우리네 건축법은 왜 이래야만 되는 것일까, 실내계단 대여업자나 기와장 대여업자, 건축주, 시공자에게 더 이상 우롱당하는 설계 감리를 언제까지 해야만 하는 걸까?

진정없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자.

건축상담 방송을 한 지가 10여년 가까이 되다보니 건축관계 상담을 방송국 아닌 사무실로 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건축상담이라는 것이 새 집 짓기 위한 상담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진정서 비슷한 내용이라 조금만 이해하고 참아주면 별 일 아녜데 자기 앞집에 새 집을 지으면 당장이라도 무슨 큰 일이나 날 것 같아 그저 무슨 약점이 없나하고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룰때까지 끈덕지게 주시하다 순전히 자기만의 판단으로 큰 위반 건수하나 발견한 것처럼 착각하고는 그 날부터 건축상담이랍시고 전화통에 대고 자기만의 피해자인양 앞집, 뒷집 온갖 스트레스 다 풀려고하니 성질대로라면 당장 호통쳐서 전화를 끊고 싶지만 그래도 꼭 참고 나긋나긋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꾸하다 보면 끝이 없다. 자기가 집지으면 이웃에서 그 만한일 못참고 별나게 야단이라고 하면서 옛날에는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더니...

요즘은 이웃에 새 집 지으면 배만 아픈게 아니고 오장육부 다 뒤틀려 아픈 모양이니 우리네 주거 문화가 왜 이렇게 꺼꾸로만 가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조금만 참아주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설령 실수나 잘못을 할 수도 있는데 같이 걱정해 주고 양보하고 또 의논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전수만 생기면 대번에 청와대부터 운운하며 온 사방 여러 수십 군데 진정서를 내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유리한 좋은 조건으로 협상이라도 했으면 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태에서 팔고 할 수는 없을까?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 하면서 내 집 짓는 정성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해서 정말 멋진 작품다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특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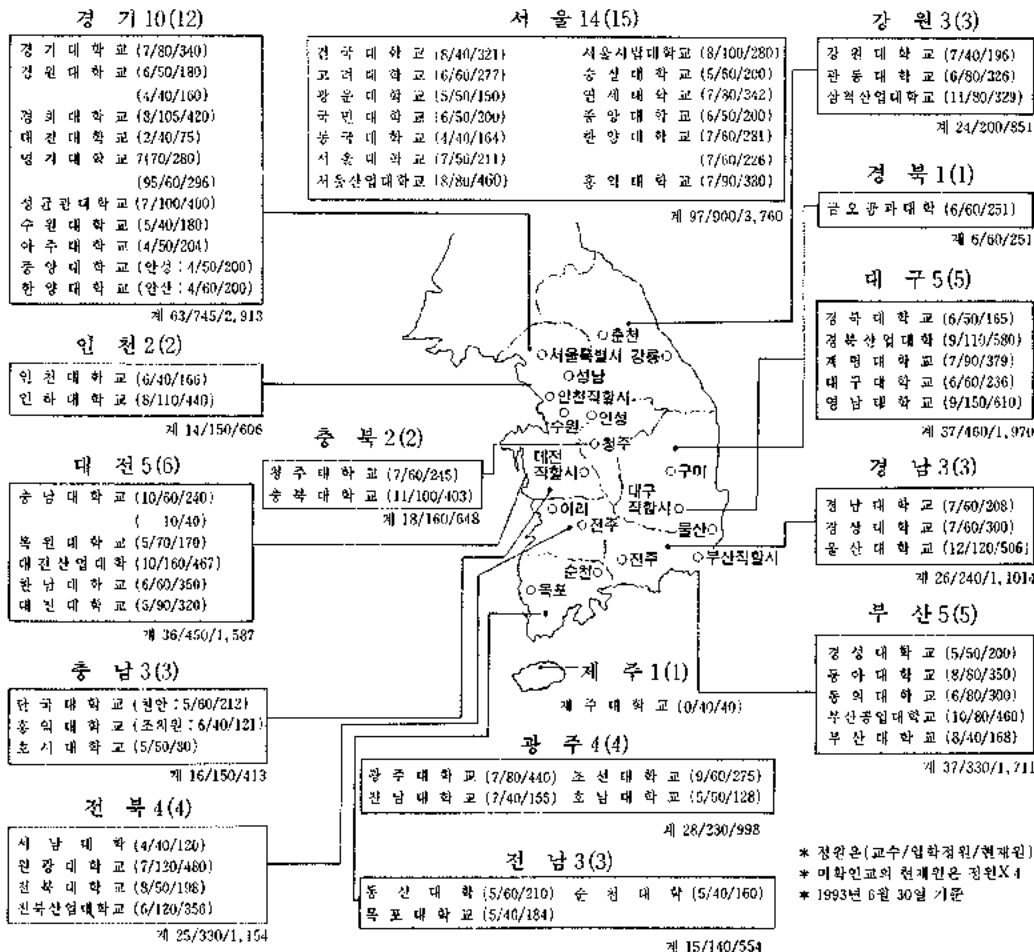
우리 건축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금 각 산업분야에서는 21세기의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위상과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한 관련분야의 체질개선과 제도적 정비에 분주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같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본지에서는 우리 건축의 밑거름인 현행 우리 건축교육제도를 점검하며, 다음세기를 이끌어갈 건축교육의 좌표를 모색코자 『우리 건축교육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특집을 다루고자 한다.

- 전국대학 건축(공)학과 교육현황과 분석 金正新
- 건축설계교육의 내실을 위한 제언 金炯宇
- 건축대학을 위한 제언 李好璉
- 건축교육의 개선을 위한 제언 李範宰
- 건축교육—무엇을 기대하는가! 崔英集
- 누가 우리의 교육을 열악하다 하는가! 承孝相
- 내가 받은 한국 건축 교육의 현실과 지금 생각 朴敏澈

전국 대학별 건축과 분포 및 정원

61(65)개대학 69개학과 442/4,585/18,470



1

전국대학 건축(공)학과
교육현황과 분석The Present Condition and Analysis of
Architectural Education in Korea金正新/단국대 교수
by Kim, Jung-Shin

1. 글 머리에

우리나라 대학 건축교육은 해방이후 이미 4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건축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정치,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논의·추진되고 있는 개혁과 엄청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건축계 특히 교육분야는 미동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는 일제 식민지시대를 통해 도구화된 기술의 제한적인 측면에서 건축교육이 시작되었고, 지역적으로 구미의 교육방식이 일부 도입되기도 하였지만, 학제, 교과과정, 교과내용 등 그 근간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해 오면서 획기적인 쇄신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결과이다.

그래도 19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선진 외국과 같이 건축예술을 창조하기 보다는 유용한 건축 기술자를 더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건축가, 건축기술자, 건축학자 등 건축관련 전문인력을 포괄적으로 양성하는 종래의 대학 건축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서는 팽목할만한 경제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으로 더욱 전문화되고 창의적인 건축인력이 요구되었으며, 90년대의 급속한 개방화, 국제화의 시대적 상황은 그에 걸맞은 건축교육의 혁신이 없이는 우리의 독자적인 건축문화의 창달은 물론 대학건축교육의 불신마저 예견되는 절박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 건축교육의 쇄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노력과 성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주된 원인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 하나는 교육부(문교부)의 대학통제, 획일적인 입시제도, 실험대학안과 열악한 교육재정, 각종 자격시험제도, 타율적인 학사운영 등 외적환경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의 주체인 대학교수들의 전공 영역간의 이해부족과 이기적인 접근 및 보수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간 건축학회를 중심으로 70년대부터 건축교육 쇄신을 위한 각종 현황조사와 세미나가 이어져 왔고, 몇몇 학교에서의 실천적인 노력과 성과도 없지 않았다. 현황과 문제점은 이미 드러나 있고, 그 개선책에 대해서도 어느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은 건축교육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제도의 개혁과 건축교육과 직결되는 각종 자격시험제도의 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2. 건축교육의 현황분석

1) 전국 4년제 대학 건축(공)학과와의 개괄적인 현황

1946년 서울대학교에 건축공학과가 개설된 이후 1950년대까지 10개 대학이 개설되었으며, 60년대의 7개 대학 그리고 70년대에 들어와서는 19개 대학, 80년대는 20개 대학, 90년대 초에도 5개 대학이 개설되는 급성장을 보이게 되며, 서울소재 대학중 지방분교에 4개과가 신설되고, 4개 대학의 건축과가 서울근교의 지방 캠퍼스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4개대학은 건축공학과와 건축학과(건축설비과, 건축교육과) 등으로 동일 캠퍼스에 2개의 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93년 6월 기준, 건축(공)학과와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14개 대학(15개과), 지방이 47개 대학(54개과)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균형은 73년도까지 총 20개 대학 중 약 50%에 달하는 대학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가 그 후 수도권 대학 정원동결과 지방대학 육성정책이 양적 균형을 유도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학생수로는 전국의 20%가 서울에 그리고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42%가 분포되어 있다.

표 1) 지역별 건축(공)학과 현황

구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강원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계
대 학 수	14	5	5	2	5	4	3	10	3	2	3	1	4	3	61(65)
학 과 수	15	5	5	2	6	4	3	12	3	2	3	1	4	3	69
입 학 정 원	900	330	460	150	450	230	200	745	150	160	240	60	330	140	4,585
현 재 원	3,700	1,711	1,900	606	1,537	998	851	2,913	413	648	1,010	251	1,154	554	18,470
교 수 수	97	37	37	14	36	28	24	63	16	18	26	6	25	15	442
학생수/교수수	38.8	46.2	51.3	43.3	42.4	35.6	35.5	46.2	25.8	36.0	39.0	41.8	46.2	37.0	41.7

현재 전국 4년제대학 건축(공)학과는 61개 대학 69개 학과로서 입학정원 총 4,585명이며, 현재 재학생수는 18,470명으로 추산된다. 전임교수는 442명으로서 교수 1인당 학생수는 41.8명에 이른다.

표 2) 연도별 건축(공)학과 입학정원 추이

연 도	1986	1988	1993
대 학 수	50	54	61
학 과 수	55	59	69
입 학 정 원	3,985	4,688	4,585
입학정원평균 (87년도 조사)	72 (64)	79 (56)	66

전국의 건축(공)학과와의 신입생 규모는 최저 40명에서 최고 160명에 달하여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야간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대학(7개 대학)과 산업대학(4개 대학)을 제외하면 평균 57명 수준이다.

2) 교육의 체제와 교수진

전국 4년제 대학 건축(공)학과는 일반대학 56개 대학에 63개 학과, 산업대학은 6개 대학에 6개학과가 개설되어 총 61개 대학에 69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이중 건축공학과가 54개(78%), 건축학과가 13개(19%), 건축설비과 1개(1.5%), 건축공학교육과 1개(1.5%)이며, 건축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13개학과는 5개대학이 건축공학과와 함께 개설되어 있고, 나머지 8개 대학은 건축학과 만이 개설되어 있다.

68개학과(98.5%)가 건설대학, 산업대학, 이공대학 등

공학계열 소속이고 1개 학과(1.5%)만이 조형계열 소속이다.

전임교수는 전국 442명으로 1개학과당 평균 전임교수의 수는 6.4명이며 학생 41.8명당 전임교수 1인의 비율이 된다. 86년도의 조사(5명/50명)에 비해 학생수 : 교수의 비율은 상당수준 나아진 셈이다.

확인된 자료만을 분석한 결과 평균 설계 및 의장전공 2.4명(38%), 역사 및 건축론 전공 0.6명(9%), 환경·설비전공 0.6명(9%), 시공·재료전공 0.8명(12%) 구조·역학전공 1.6명(25%), 도시·단지계획·조경전공이 0.4명(6%)으로서 전공과목 개설학점수의 분포와 비교할때 약간의 차이가 난다.

표 3) 전국 평균 전공분야별 개설학점수와 전임교수 분포현황

구분	설계·의장	역사·건축론	환경·설비	시공·재료	구조·역학	도시·단지	계
학점수	40(40%)	10(10%)	9(9%)	14(14%)	19(19%)	8(8%)	100
전임교수	2.4(38%)	0.6(9%)	0.6(9%)	0.8(12%)	1.6(25%)	0.4(6%)	6.4

3) 교과과정

현재 전국대학 건축(공)학과의 교과과정은 그 질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날지 모르나 교과목의 구성 및 편제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여 학교별(학과별)이나 지역에 따른 개성화, 특성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1981년부터 모든 대학에 적용된 실험대학(140학점)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국책교양과목의 폐지로 1학년 과정에 학과기초과목이 들어감으로써 다소 전공과목의 개설이 늘어났다. 전공과목 개설학점수는 평균 100학점으로서 설계 및 의장 40%, 역사 및 건축론 10%, 환경·설비 9%, 시공·재료 14%, 구조·역학 19%, 도시·단지계획·조경 8% 등이다. 전국 61개 대학중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은 40개교(66%), 박사과정은 30개교(49%), 특수대학원은 27개교(44%)에 개설되어 있으며, 학부과정에 2개이상의 학과가 개설된 학교는 모두 대학원을 통합운영하고 있다. 부족한 교육여건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공동되게 건축인력의 고학력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4) 교육환경과 외곽시설

정확한 통계와 분석은 아니지만 건축(공)학과의 평균 전용 총면적은 406평으로 그중 설계실이 35.7%, 실험실이 18.3%, 교수연구실이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약 1.2평에 해당한다. 제도실의 경우 1인당(1학년 제외) 평균 0.73평으로 개인별 전용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대학이 많으며, 1학년부터 제도 내지는 도학과목의 개설이 늘어나는 추세에 비추어 제도실 공간의 확보는 시급한 실정이다.

대학원 전용공간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약 50%이나 평균 면적은 25평에 불과하다.

3. 건축교육의 문제점

1) 편제

우리나라는 현재 60개 건축(공)학과 중 68개 학과가 공과대학, 건설대학, 이공대학, 산업대학 등 공학계열에 소속되어 있다. 따라서 이공계 공통필수과목의 이수문제, 실험실습비의 사용문제, 스튜디오 설치운영 등 건축학과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과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조래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건축대학으로 독립되거나 건축과 관련된 도시계획, 환경디자인 등과 함께 독립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해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우리의 경우는 공학·예술적인 측면과 인문·사회과학적인 측면의 종합교육이 불가능하다.

2) 교육기간

우리나라 대학의 교과과정은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학년은 교양과목으로 2학년과 3학년, 4학년 1학기(2학기는 취업준비, 자격시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 불가능) 정도가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어 5개 학기 정도에 불과하다. 서구의 많은 나라(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가 5~6년의 수학연한을 설정하고 있는데 비해 1/2정도밖에 되지 않는 교육기간으로서의 고도의 전문교육은 물론이고 공학, 인문사회, 예술의 기본교육도 어려운 실정이다.

3) 교육목적 및 이념

공과대학에 속한 우리의 상황에서 건축교육의 목표는 건축기술자의 양성에 있어 왔다. 그러나 경제·사회의 발전으로 건축가, 도시계획가, 환경계획가 등의 전문가의 양성이 요구되자 이를 동시에 수용함으로써 교육목표가 분명하지 못한채, 각 전문분야별로 분할된 지식만을 가르치고 있다. 대학마다 교육의 특성을 찾아보기 힘들며, 취업과 자격시험 준비로 교육목표와 부합되지 않는 교과과정 운영 등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이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사회변동이나 학문의 새로운 발전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이념과 목표의 정립이 시급하다.

4) 이수학점

우리나라 대학의 학점기준은 1945~1954년 간에는 180학점, 1955~1973년에는 160학점, 1973년 이후 실험대학과 1981년 이후 모든 대학이 140학점제로 전환되었다. 건축설계와 같이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교육내용을 망라하기에는 난점이 있다. 양적인 축소를 극복할 수 있는 질적인 향상이 수반되지 못했던 학점 축소는 그 본래의 의의가 의문시되고 있다.

5) 신입생 선발

현재 자연계로 통일되어 있는 입시전형 형식으로는 신입생의 자필평가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상적으로는 독자적인 계열로서 전형함이 바람직하나 잠정적으로 적성과 소질을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과목이 추가되어야 하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

6) 기사시험제도

4학년1학기부터 응시가 가능한 현행 기사시험제도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이 저해되고 있으며(선택교과목 기피, 커리큘럼 체계의 와해), 수험과목과 비율, 합격율, 출제방식(난이도, 시험문제) 등에도 문제가 많다. 또한 대학원생들의 기사자격증 대여행위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7) 건축 제분야간의 유리현상

건축은 종합적인 학문인데도 불구하고 '계획, 설계', '구조, 시공', '설비, 환경', '도시, 조경' 분야 등으로 교수들이 갈라져 제각기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 제 분야의 교수들은 보통의 경우 정상적 학사운영보다는 '영역보호' 의식을 앞세워 건축교육의 쇠퇴에 소극적 자세를 취한다. 예를들면 전공과목을 조정하려고 할때 분야아닌 분야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 때문에 결국 주저앉고 마는 일이 허다하다. 특히 건축설계교육은 제 분야 교수들의 협력하에 공동지도로 실시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경우 고유 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가능성조차 검토될 기회가 없다.

8) 설계교육의 문제점

건축은 고대로부터 공학적 측면과 예술적 측면, 인문사회과학적인 측면을 함께 지닌 다학문적(multi-studies)인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특히 오늘날 복잡한 인간사회와 생활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건축은 일반적으로 개설된 교과목 외에도 건축계획분야에서만 예를 들면, 심리학, 조경학, 미학, 통계학, 사회학, 환경학 등에서 다루어지는 연계학문의 복합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학의 건축교육 과정에서 그 많은 분야를 완전히 다 다룰 수는 없을지라도 현 사회에서 건축의 발전이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기초적인 지식과 다학문성을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분적인 지식습득의 과정이 아니라 종합적인 교육체제가 절실히 요청되며, 이런 점에서 설계교육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된다. 왜냐하면 현대의 대량교육체제 하에서는 설계과목만이 전문과목과 연계학문을 실지로 응용하는 종합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설계교육의 내실화를 어렵게 하는 교육 외적인 문제
현재 설계교육의 내실화를 어렵게 하는 교육외적인 문제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획일적인 입시제도, 짧은 교육년한, 신학협동의 제한, 학사운영의 자율성 부족, 설계교수 임용 자격제한 등 대학 교육체제의 문제이고, 둘째는 4학년에서의 정상적인 설계교육을 불가능하게 하는 기사시험 제도이다.

2) 설계교육의 내실화를 어렵게 하는 교육 내적인 문제
교수부족과 학생수 과다로 인해 건축교육의 전통인 개인적 접촉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학점·시간수와 시설·공간의 부족, 그리고 교수방식의 문제, 설계과목과 이론과목의 연계성 부족, 실무교육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9) 사회·경제적인 문제

첫째, 오늘날 대학교육이 보편화되자 밀도있는 전문교육은 대학원으로 옮겨가는 경향이이며, 대학의 평가는 학부교육의 우수성보다 교수진의 성망이라든가 대학원 교육의 질에 의해서 측정됨으로써 학부교육은 더욱 저하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처럼 건축학과와 건축 실무계가 유리되어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설계담당교수의 실무참여의 길이 막혀 있고, 실무자들의 건축교육 참여의 기회가 줄어들므로써 설계교육이 실제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다.

셋째, 학생들이 개학중 설계사무실 등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이는 설계사무소의 영생성, 산학협동에 대한 인식부족이 그 원인이다.

2 건축 설계교육의 내실을 위한 제언

A Proposition for Architectural Design Education

金炯宇/홍익대 교수

by Kim, Hyung-Woo

1. 글머리에

최근의 건축학회에서 주관하였던 「건축설계교육 내실을 위한 대안연구」(1993. 11. 20)와 숭실대학교 건축학과에서 있었던 「건축교육의 새방향」(1993. 11. 18)에서 주제발표 및 토론자의 한사람으로 참석한 바 있다. 건축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으면서도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은, 이것이 대학자체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교육외적인 건축계의 상황과 사회적인 구조와 관념들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사」지의 특징에 일련의 관심을 표명할 기회를 갖게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 동안 건축교육에 대한 문제점은 건축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학계,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등에서도 오랫동안 걸쳐, 지적된 바 있고 그 개선의 방향도 모색되어 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과 그것의 본격적인 시작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무척 그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고, 건축교육에 대한 위기의식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에 들어서서 건미준(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10월 9일의 「건축설계 교육개선 방향」에 대한 협의에 이어 금년안으로 건축교육 제도 개선안 시안을 만들고자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내년 1월에 정부산하 교육제도 개선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의 정부측에 제안할 대학교육제도 시안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이 소장건축가내지는 설계중심교수들의 의견 집약으로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교육제도 개선의 단계별 실천계획이나, 건축대학의 설립타당성과 전공별 특수성을 감안한 설득력을 갖는 대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축학회의 회장단이나 건축교육위원회에서도 좀더 신중한 건축교육의 개선을 위한 「건축대학」의 설립추진을 심도있게 연구하고자, 외국대학의 사례들과 국내 현실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안연구에 착수하였다.

건축 3단계의 성격이나 입장에 따라서 시안들에 대한 견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중복적인 논의를 피하고 집약된 안을 합의에 의해 도출하고자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안의 중요성에 미루어 건축3단계가 참여한 「건축대학 설립추진 위원회」와 같은 상설기구를 두고 교육목표와 내용, 학제, 전공 또는 과의 설치, 시설기준, 학위수여, 졸업후의 자격인정과 같은 내용 등을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제도안에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천을 시작하여야만 건축대학으로 진입할 수 있는

준비단계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 건축교육의 현실

우리나라의 건축교육은 일제강점기의 경성고등공업학교의 설립(1916년)에서부터 70년이 지났고, 해방후 본격적인 대학교육이 실시된 지도 48여년에 이르고 있다. 현재 설치된 4년제 대학의 건축(공)학과가 61개교의 69개 학과에 이르고 매년 졸업하는 학생수가 4천6백여명에 이르고 있다. 전문대학에서도 약 4천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

국내 대학 건축(공)학과와 교과목 편성이나, 졸업생의 진로는 건축가(설계전문가), 기술자(구조, 시공, 설비 등의 전문가), 학자(연구원, 교수), 행정관리(건축공무원 및 영선관리직) 등의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건축공학이든 건축학이든 뚜렷한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아닌, 상당히 포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학마다의 특성을 지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건축(공)학과와 졸업생들은 각각 자기의 개성에 따라, 건축설계사무소, 건설회사, 건축자재 생산업체 및 관공서 등의 분야에서 취업을 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해외 및 국내의 건설수요의 급증으로 이에 필요한 건축가 및 건축기술자를 양성 배출한 것도 건축교육의 성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건축기술과 설계의 고도화와 선진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평이한 교육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보다 전문화된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필요하다.

1981년의 실험대학 운영이후 선도대학의 사례들을 후발대학이 문교부의 쉬운 인가를 위해 교과목 편성을 그대로 답습하였기 때문에 이후 획일적인 교육이 만연되고, 학교에 따른 특징과 특색이 미미하게 이루어져 있다. 고르지 않은 경기속에서 졸업생의 취업난은 대단하여 자격증이 우선하게 되었다. 졸업의 보증으로서 자격증의 취득에만 매달려있는 대학 3·4학년들이 과연 건축설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대부분의 대학에서 설계교육은 주당 6시간으로 학기당 3학점을 할당하고 있으며, 대부분 2학년 1학기에서부터 4학년 1학기까지 필수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1학년 2학기는 취업 및 기사수험으로 인해 선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1989년부터 교련 및 국민윤리 등의 국책 교양과목이 삭제되면서 제도 및 건축개론 등의 교과목이 이를 차지하여 설계관련 전공학점이 늘어났으나, 외국에 비교하면 건축가의 양성에 필요한 설계수업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에 있다.

현재 건축(공)학과 졸업생의 15%정도가 건축설계 직종을 지망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때, 교육의 목표를 건축가의 양성에만 둘 수도 없다. 그동안 심화되어온 실무업계와 대학간의 괴리를 의미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대학은 큰 시설투자 없이 졸업생만 배출하는 학과로서, 실무업계는 필요한 교육투자에 대한 의무와 협력을 망치한채, 인재만 선별하여 채용하면 된다는 안일한 대응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무조건 건축설계 교육이 잘못되고 있거나, 대학교육이 교수만의 책임만으로 돌려진다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한다. 건축사협회에서 필요로 하는 설계교육 내지는 건축가의 소양에 필요한 기준과 교육내용을 요구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막대한 예치금에 따른 예산으로서 건축의 교육을 위해 투자한 것이 무엇인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GNP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부문을 맡고 있는 건설회사에서도 대학 건축(공)학과를 위해 시설투자나 연구비를 과감하게 제공하여, 새로운 기술개발과 공법에 대한 연구가 촉진될 수 있도록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각 대학의 건축(공)학과는 공과대학의 다른 학과에 비하여 첨단공학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설기자재 지원금이 배정되지 않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하여 있다.

다른 학과에서는 최근 학과의 신설에서부터 수십억씩을 매년 지원받고 있음을 생각할때, 우리 건축계에서도 「산학협동」이라고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연구의 교류와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류속에서 새로이 요구되는 기술, 공법, 건축계획, 설계·설비, 구조부분에 대한 연구가 촉진되고 사회와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현재 건축(공)학과와 교과목 편성은 대부분 졸업학점 140학점의 체제안에서 150여학점을 개설하고, 50학점의 교양과 100학점의 전공교과목으로 160여시간(11대경우)정도가 할애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정적인 학점(대부분이 사립대학 이므로)과 시수에서 기존의 교과목을 없애지 않고는 새로운 교과목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탄력적인 학점의 운용과 교양과목의 전공 기초과목으로의 대체는 「공과대학」의 1개 학과로서는 주장하기가 역부족이다. 그러므로, 전임교수 위주의 굳어진 교과목체제에서 새로운 교과목을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30명 단위로 분반(전공별), 분과가 가능한 대학들은 3·4학년 시에 전공별로 교과목을 편성하면, 기존의 체제안에서도 새로운 교과목으로 개편된 전문화된 교육의 실시가 가능해 질 것이다.

최근 국민대학, 경성대학, 울산대학, 한양대학 등에서 건축계획설계, 건축·재료시공·건축·환경설비, 건축구조, 또는 건축계획설계, 건축실내환경이나 건축학(설계), 건축공학(구조·시공) 등으로 전공을 세분하여 실시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음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과대학내에서도 건축학과·건축공학과 도시공학과, 조경학과, 건축설비학과, 실내건축학과, 건축설계학과가 있는 대학들은 벌써 건축관련 3~4개 학과가 있으므로 이것을 잘 운용하고 독립시키면 건축대학의 설립은 가능하기도 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직된 교육정책을 감안할때, 국립대학인 서울대학이 먼저 건축대학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자연 다른 대학은 그것의 설립이 주춤거리거나,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건축가의 교육과 양성을 목표로 하는 건축대학의 설립은 몇몇 대학만이라도 선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다른 대학들도 학과의 특성에 맞추어 공과대학 내에 존속하여 전공별로 세분하든가, 미술대학내에 존속하든가, 뚜렷한 교육목표아래에서 개편되어 질 것이다.

3. 건축설계 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 건축(공)학과는 공과대학내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교과목의 대략적인 구성도 공과대학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 및 공학중심의 교육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건축설계의 경우 「설기」아닌 「실험실습」으로 시수의 1/2만 인정받는 학교가 많으므로

근본적으로 100%인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공)학과와 1학년 학생수는 최저 40명에서 최고 160명에 달하여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대학(7개 대학)과 산업대학(4개 대학)을 제외하면 평균 57명 수준이다. 대략 30명 정도에서 분반이 허용되고 있으나 40명, 50명이 될 경우에는 과중한 지도학생수로서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기가 곤란하다.

설계수업을 진행하는 제도실의 경우 1인당(1학년 제외) 평균 0.73평으로 개인별 전용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대학이 많으며, 점차 1학년에서의 제도 및 도학과목이 늘어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한다. 전용제도실을 확보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부 실험실습 기준량이 비현실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제도책상 120개, Locker 120개가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각 대학에서 건축설계 교과목은 3학점제이므로 많은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교과목과 동등하게 되어 있으므로 점차 기피하는 경향이고 그 중요성을 가시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 건축설계 담당교수의 현실참여와 실무경험이 없으므로 실무 건축계와 유리되어 있는 과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무계에서 요구하는 건축교육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설계교수의 프로젝트 참여와 실무 건축가의 교육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설계교수 임용시의 박사학위 소지자 보다 실무경력이 많은 건축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용이나 승진시의 연구실적의 환산도 연구논문만이 아닌 건축설계 실적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설계와 관련되는 이론 교과목의 상호관련이나 연계가 되지 않아 건축설계 교육에 종합화되지도 않으며, 각 교과목 간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건축이론 교과목이나 공학, 기술계 교과목 담당교수들이 설계지도에 참여하는 대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교과목에 따라서는 세분된 전공에 따라 여러 교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1과목을 1인 교수가 진행하기보다는 여러명의 교수도 참여할 수 있는 Syllabus의 정확한 작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현실에서 건축설계교육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구의 선진 건축교육과의 격차를 단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축설계 교과목의 학점 배정을 늘이고 관련 이론 교과목의 통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설계와의 관련성을 높이는데 있을 것이다.

현재의 실습교과목 2시간당 1학점, 이론교과목 1시간당 1학점의 체제 아래서는 이론교과목만을 중시하는 폐단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설계를 중심으로 한 관련 이론 교과목을 그룹화하여 학점을 부과하는 단계적 개선이 요긴하다.

설계교육의 문제는 「건축가 교육」이라는 목표아래에서 전환되어야 한다. 건축가와 건축기술자를 양립하는 설계교육의 체제 아래서는 중간정도에 걸치는(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반적인 설계로 진행할 때 사고의 발상에서 양극화되지도 않고 통합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계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설계교육이 진행되고, 외장계 교수, 기술계 교수가 설계 스튜디오에 참여해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것은 교과목별 교수의 분담시수와 지도학생을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교수층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건축설계 교육은 건물유형별

설계과제를 중심으로 행해졌다. 즉 설계제도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스케일을 높이거나 다른 유형(용도)의 복합적인 건축물로 과제를 부과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것은 건축계획학 또는 각론에 의거하여 내려오던 설계진행의 폐단일 수 있으며, 어떠한 건축공간의 창조를 위한 기본적인 건축술의 터득이 아니고, 다양한 기능의 이해와 문제해결에만 급급하였던 과거 설계교육의 잔재일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설계 스튜디오의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종래의 과제 중심의 설계교육을 지양하고 왜 어떻게 건축을 이루는 것인가를 체험을 통해 가르치고, 학생들도 그러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4. 건축설계교육의 내실화 제언

1) 관련교과목의 통합

건축설계 및 외장계 교수의 범역안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과 기술·공학계 교수의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 앞으로 있을 「건축대학」에로의 개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빠른 실험과 변혁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 건축설계(3학점)+건축계획각론(1학점)+건축외장조형(1학점)등으로 통합하여 5학점 정도의 학점을 부과하고 각과목의 비중(%)을 결정하여 종합화하거나, 설계프로젝트에 프로그래밍과 기초계획과정의 정리나 부분의 외장요소 디자인의 과제를 부여하여 프로젝트에 종합화하는 방법이 있다. 건축계획각론의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서, 건축외장조형은 부분 부분이나, 종결단계에서 건축의 완성도를 높게 한다. 건축외장 및 조형계 교과목은 2학년 정도에서 설계교과목과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 건축설계의 주제에 따라 통합화하는 방향으로 건축설계에 관련되는 건축환경, 구조, 설비, 단지계획, 도시계획, 조경 등의 교과목중 일부를 뽑아(3학점 3시간에서 2학점 2시간은 이론강의를 하고 1학점 1~2시간은 프로젝트에 참여)실제적인 설계에 반영하고 담당교수가 참여해 하는 방법으로 3,4학년 등에서 실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건축설계(3학점)+건축계획·각론(1학점)+단지계획, 도시계획, 조경학(2~3학점)+구조설계, 구조실험, (1~2학점)+건축환경, 건축설비(1~2학점) 등으로 건축설계에 관련된 학점이 5~7학점으로 높일 수 있고 학생들의 관심과 주제에 따른 교육내용의 충실을 기할 수 있다.

프랑스 건축대학(파리-벨빌건축대학)의 경우 대학가 2개의 Certificat(학점)가 주어지고 1학점은 설계나 관련주제에 따라 이론 30%, 실기 70%정도로 통합되어 운영된다.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C9, C11 : 건축과 조형(Architecture - Expression plastique)

C9 : 건축설계 스튜디오 4개중 1선택(70%)

—조형 표현 스튜디오 4개중 1선택(30%)

C11 : 건축설계 스튜디오 4개중 1선택(70%)

—조형표현 스튜디오 5개중 1선택(30%)

조형표현 스튜디오는 유화, 재료와 이미지, 데생과 재질감, 판화, 모뉴먼트와 조경 등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다.

C13 : 건축과 구조(Architecture - Construction)

—건축설계 스튜디오 4개중 1선택(70%)

—건축구조 강의 2개중 1선택(30%)

건축구조 강의에는 20세기 초의 파리를 중심으로 한

〈표 1〉 파리-빌레트(UPA6) 건축대학 전공필수 교과목

번호	교과목	년간 전체 시수	항목	시수	교육내용
1	건축과 디테일 (AD)	238H	1	20	건축-이론
			2~18	128	건축설계
			13~14	30	건축/인문과학
			15	60	시공
2	시공 (ST)	208H	16	100	재료·기술의 개념
			17	60	구조
			18	48	주변환경의 취급
3	건축과 사회 (AS)	248H	2	128	건축
			1	20	건축이론
			14	15	인문과학/계획/건축
			13~6	65	인문과학
4	건축과 도시 (AV)	235H	7	20	도시사
			2	100	건축
			3	65	건축(개수)
			7	20	도시사
5	공간조성을 위한 조형분야 (DP)	235H	9	50	도시경제
			4	150	조형
			5	25	미술사
6	건축과 환경 (AE)	195H	SH	60	인문과학
			2	100	건축
			10	30	생태학과 조경
			5	25	건축사
7	전문가적 실습 (PP)	207H	8	40	이론/실습·도시·건축
			11	70	시공과 건물의 경제
			12	50	법규
			20	25	언어
			19	60	컴퓨터

프로젝트에 주안된 설계과목이더라도 이론 및 관련 교과목에 따라 통합되어 진다.

주거건축의 기초 및 벽체, 목구조, 철구조판과 마루판, 철관, 계단 등의 구조의 그리드를 실측하여 파악한다.

또 다른 하나는 70년대의 도시현상으로서 개선에 착안한 근대와 유럽도시교외지의 정책과 건축물의 구조를 살리고 건축적 공간을 개수하는 것, 60년대에 건축된 건축물을 개수에 관련하여 병리학(Pathologie)의 관점에서 근대건축의 5원칙을 지적하여 밝혀내는 등이다. 이 같이 선택에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밖에도 건축설계가 강의와 세미나와 관련하여, 근대건축의 근대성이나 Le Corbusier의 4Villas들을 비교분석하는 등의 강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프랑스 건축대학에서와 같이 설계프로젝트와 이론교과목이 통합되어 지면, 이론 교과목이 겹돌지 않고 설계에 통합화 될 수 있을 것이다.

2) 건축 스튜디오의 운영

학생수가 많은 분반이 가능한 대학의 경우 설계교육의 건축이념과 성향에 따라서 스튜디오를 개설한다. 이 경우 건축설계교수+건축이론교수 등으로 구조, 환경·설비, 도시관련, 건축사 이론 등의 다양한 스튜디오로서 전공간의 벽을 허물고 가능한 설계교육의 통합을 모색한다. 1학년의 제도 등은 공통으로 하고, 2학년에서 시행하며 2,3,4학년의 통합교육 내지는 도제식의 가능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스튜디오에 석사, 박사 과정도 참여케 한다.

건축설계 교육의 다양한 기회제공 21세기를 앞두고 우리는 자못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도 건축계의 문호를 개방하고, 국제화를 향해 질적 향상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표 2〉 파리-빌레트(UPA6) 건축대학 교과목 편성과 내용

구분	코드	이수학년	교과목 명칭과 학습번호	연간시수
필수 공과 목	1	AD	3 건축과 디테일 AD 001 또는 AD 002, AD 003, AD 004, AD 005, AD 006, AD 007, AD 008	238H
	2	ST	3 시공 ST 001	208H
	3	AS	4.5 건축과 사회 AS 001 또는 AS 002, AS 003, AS 005, AS 006	248H
	4	AV	3.4.5 건축과 도시 AV 001 또는 AV 002, AV 003, AV 004, AV 005, AV 006, AV 007	235H
	5	DP	3.4 공간 조성을 위한 조형분야 DP 001 또는 DP 002, DP 003, DP 004, DP 005, DP 006, DP 007	235H
	6	AE	3.4.5 건축과 환경 AE 001, 또는 AE 002, AE 003, AE 004	195H
	7	PP	4.5 전문가적인 실무 PP 001	205H
자유 선택 과목	8	OPA	3.4.5 건축(학교에서의 특별한 교과목) OPA 01에서 OPA 15까지	170H~ 224H
	9	OPT	3.4.5 4교과목을 다음 중에 선택	170H~ 208H
	10	OPT	3.4.5 OPA 01에서 OPA 15까지	
	11	OPT	3.4.5 OPT 01에서 OPT 20까지	
	12	OPT	3.4.5	

동일 교과목에서도 스튜디오나 강의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다.

우루파이 라운드는 건설 및 건축설계 뿐만 아니라 교육분야에서도 실감있게 다가서고, 외국의 건축대학 분교가 설치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공간의 벽과 건축계 각 분야에서 문호를 열고 건축교육을 선진화하고 정보화 사회에서 문화의 창조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교육도 선진국의 체제와 맞추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국내적인 상황에 급급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때, 외국의 전문 기술자와 건축가들이 밀어닥칠 수밖에 없다.

건축사 시험, 건축기사 수험 등도 건축교육에 관련되어 이루어져야만 하고, 5~6년제의 건축대학이 되었을때, 라이선스를 수여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당연히 건축교육은 직업교육으로서 관련협회가 필요한 교육의 내용을 규정하고 건축학회와 대학들에 요구하여야 한다. 참고로 프랑스의 경우는 건축대학의 졸업장이 건축사 자격증(DPLG)이므로 학점의 이수나 졸업논문 및 작품이 개별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 건축교육은 건설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만큼, 교수와 실무건축가, 시공업체 등의 대표로서 구성된 고등교육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Enseignement de l'Architecture)가 정기적으로 변모해 갈 건축의 방향에 따라서 건축의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변경하고 새로운 건축교육을 숙고하여 끌어나가고 있다.

프랑스 건축대학은 예과과정(Cycle d'Orientation)의 건축기초연구학회(DEFI : Diplôme d'Etudes Fondamentales en Architecture)의 2년과정과 2기과정(2eme cycle)의 공인 건축가과정(DPLG : Diplôme par Le Gouvernement)의 3년 과정으로서 각각 8학점과 12학점을 취득하는 것으로 시행되나, 실제로 졸업에는 졸업논문과 작품,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1~2년이 더 소요된다. 프랑스 건축대학은 건설부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내용과 시수가 DEFA과정과 DPLG과정에서 각각 1200시간과 1400시간이 주어지지만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교과목의 편성은 각기 다를 수 있다.

예로서 건축1대학(파리-빌뱅)은 1628시간, 1763시간, 건축3대학(베르사이유)은 1731시간, 1640~3955시간, 건축6대학(파리-빌레트)은 (미상), 1564시간, 건축8대학(파리-벨빌)은 1600시간, 2400시간 등으로 각기 달라진다. 그러나, 한 교과목에 참여하는 교수수나 다양한 교과목의 편성수와 스튜디오 수에 따라서 그 총체적인 시수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국립체제의 건축교육이므로 가능하고, 우리나라의 사립대학 체제에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나 건축업계에서의 교육제정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프랑스의 건축설계 스튜디오는 당연히 실무건축가가 교수로서 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대표적인 건축들을 설계하여 실무에 더하여진 이론의 단단한 기반위에서 설계교육을 펼칠 수 있다. 대학과 실무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능한 건축가를 설계적인 건축강의를 할 수 있도록 산업체 교수나 객원교수로 초빙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교육 뿐만아니라, 건축가의 세미나와 건축설계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워크샵이나 특별강좌 등을 확충하여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실무인력들에 대한 재교육도 대학에서 점차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3) 건축기사 수험제도의 개선

건축기사 수험은 건축교육의 암적인 존재라는 이상한 논리가 성립된다. 4학년에 수험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학생들은 학원으로 몰리기 마련이다. 3월

(표 3) 파리-빌뱅 건축대학 예과과정(DEF A), 교과목 편성비교표

공통적인 교육의 내용 (DEFA 과정)	건설부 규정 시수	학교 추가 시수	교 과 목								시간 계
			C1	C2	C3	C4	C5	C6	C7	C8	
건축의 지적 도구	154	94	145				145				384
형태조성의 입문 프로젝트	140										
건축가의 강령과 이론	50		50								50
형태의 표현과 이해	125	3				90				35	128
색채와 볼륨에 대한 입 문	80									80	80
도학과 투시도	100	39.5		100							139.5
미 술 사	50					50					50
사 회 학	80	4						30			84
건 축 사	50	46				25		25			96
건축가의 실제적 기능 에 대한 법률적인 접근	25							25			25
환경과 정비	80									80	80
수 학	50	36.5		26	24						86.5
사공과 마감에 대한 이론적 요소	50	68			25				25		118
구조와 재료의 내력·균 형	70	26			24					46	96
물리의 기초지식	50								50		50
컴퓨터 입문	25	15							25		40
외 국 어	25								25		25
계	1200		195	126	73	165	145	155	146	195	
건축1대학에서 제안한 교육											
형 태 학		66									
건축개념 2		30									
합 계	1200	428									1628

(표 4) 파리-빌레트 건축대학 교과목 편성 비교표

건설부에서 규정된 필수 교과목 리스트(DPLG과정)	건설부 규정시수 1400H	학교 추가 시수 164H	AD	ST	AS	AV	DP	AE	PP	OPA	OPT	OPT	OPT	OPT
1 건축의 강령과 이론	40		20		20									
2 모든 형태 교육에 근거 한 설계	400	34	116		128	100		100						
3 기존 건물의 개신·개수· 변형	65					65								
4 조형 표현과 재료의 테 크닉	100	50					150							
5 미술사 건축사	25/25						25	25						
6 도시 사학과	50				50									
7 도시사	40				20	20								
8 도시계획의 설계와 이론	40							40						
9 도시경제	50					50								
10 생태학과 조경	30							30						
11 시공경제와 건축경제	70								70					
12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50								50					
13 전문직업인 사회의 교육, 법 률, 기술, 관리, 예산	30		15		15									
14 건축작품에 연관된 계획 (사적·공적·외국)	30		15		15									
15 생산기술의 지식	60		60											
16 재료기술의 개념	100			100										
17 구조	60			60										
18 주위환경의 취급	60		12	48										
19 컴퓨터	50	10						60						
20 언어	25							25						
21 인문과학(철학·미학 등)		60					60							

부터 1차, 2차로 시행되는 수험은 년중 각각 3회 정도로 정신을 못차리게 한다. 4학년의 설계수업은 신경쓸 겨를이 없게 되고, 차분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이러한 과도한 경쟁의 배경에는 일반대학의 다른 학과 출신이라도 기사 수험의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이 매우 부족하고, 4학년에 몰려있는 기사 수험과목의 진도도 끝내기 전에 시험이 시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축(공)학과 학생들이 불리하기만 하다.

학교건축교육은 건축기사 수험때문에 학생들에게는 귀찮은 존재이고, 고매한 비현실적인 공론의 교수로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파행적인 건축교육 내지는 건축설계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사시험의 수험시기를 졸업후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는 1차 시험은 재학중에 보더라도 2차 시험만은 졸업후로 하여야 할 것이다. 졸업후 소정 기간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과감하게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기사는 시공현장 뿐만 아니라, 설계감리를 위해 설계사무소에서 필요한 만큼 2차시험에서 시공·적산 뿐만 아니라 계획·설계로 이원화 하여 선택하게 하면 건축설계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피해의식을 줄이고, 안정되게 건축설계 교육에 임하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건축사 시험의 1차 시험과도 연계하여 건축사 시험의 개선책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사시험의 2차시험에 계획·설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각종 건축공모전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을 경우, 이것을 인정하면 건축대전, 건축사 협회전(한국건축전), 건축학회 학생 작품전이 보다 알차게 발전되고 실효성을 거둘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4) 건축대학 설립에 앞선 건축교육의 내실화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건축대학의 설립추진은 국제화에 발맞추어 국민에게 건축의 중요성과 예술·문화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는 면에서 필연적이다. 건축(공)학과가 포괄적인

건축교육을 망라하고 있어서 프랑스 건축대학이나 미국의 건축대학에서 취약한 기술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은 상당한 이점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건축대학을 모두 5~6년으로 하는 것은 학위(석사)의 수여가 다른 분야보다 늦어지고, 이에 따른 인정과 경제적 손실이 뒤따르므로 현행의 4년제 대학내에서 전공교과목을 1학년부터 확충하고 3,4학년 시에 건축계획·설계 전공과 건축구조·시공 전공 등으로 분리하여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학업이 요하는 건축계획·설계 전공은 대학원의 2년을 포함하여 6년으로 하면 될 것 같다. 현재의 현실적인 설계부문의 인력수요를 감안할때 정원의 15%정도가 계획·설계전공의 대학원 정원으로 하면, 이를 수료한 전공자가 실무를 거쳐 인정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면 될 것이다. 올해 765명에 이르는 건축사 합격자를 감안할때 건축설계 전공자 840명선(건축(공)학과 정원의 15%선)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건축대학 내지는 건축설계전공의 T.O를 조정한다.

이상과 같은 생각들은 필자의 가상적인 시나리오이다. 물론 건축교육위원회의 교과목과 교육내용에 인정범위 등의 자세한 연구가 건축사협회 및 건축학회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설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1학년에서부터 4학년 2학기까지 연계되어진 설계교육이 필요하고, 졸업설계는 1인1작품의 원칙을 고수하여 졸업설계에 졸업까지의 모든 건축적 지식이 종합화 될 수 있도록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졸업설계의 평가에는 학교의 교수 뿐만 아니라 외부 교수와 건축가를 심사위원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엄격한 판정이 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글을 맺으며

건축설계교육의 내실화와 현재의 교육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내의 교수와 학생들의 반성이 필요하다. 또한 제반 제도상의 제약과 장애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부, 건축3단체가 건축교육에 대한 상설기구를 추진하여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내용의 개선을 추진하고 이것이 대학교육에 반영될 수 있게 교육부와외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건축기사 시험, 건축사 시험 제도의 개선 등도 이러한 과정에서 건축교육과 건축설계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대학이 추진된다고 하여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건축교육의 경험과 제도위에서 개선과 변혁을 시도하여야 하고, 지금부터라도 당면한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가능한 제안을 실행에 옮겨 나가야 할 것이다. 전공별 영역의 상벽들도 과감하게 허물고 양보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환경의 개선과 연구의 촉진을 위한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실무업체, 건축사협회 등이 건축설계 교육에 노력하고 있는 대학에 연구비와 교육재정 지원을 하고 필요한 건축가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야만 실질적인 개선의 효과를 거둘 것이다.

국제화를 앞두고 국내의 지엽적인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세계적인 건축대학을 하나라도 만들겠다는 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만 21세기의 건축의 인재와 세계적인 한국의

건축가와 한국의 건축을 남길 수 있다. 건축교육은 건축계의 비전이며, 대학만이 아닌 건축계의 공동의 결실이어야만 한다.



3 건축대학을 위한 제언

A Proposal for Architecture College Education

李好璣/전국대 교수

by Lee, Ho-Jin

1. 글 머리에

건축공간의 대형화, 다원화, 첨단기술의 고도화, 사용인들의 지적, 미적, 심리적 감응의 발전 등이 고도의 건축문화와 진인적 건축인을 요구하여 왔으나, 그간의 건축은 영세적이고 임시용변적이고 감각적인 상황해결에 급급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건축이 이뤄지지 못한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현대의 건축인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이에 따른 건축윤리의 존재가 필요한 때이며 이를 위해서 몇가지 부분에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다. 그 하나는 기성 건축인의 전인적 교육과 수련의 노력이 필요하고, 둘째는 건축의 위상정립이 필요하고, 셋째는 이를 뒷받침하는 대학에서의 건축교육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학교육의 방향성에 대하여 그간 연구하고 조사분석사항을 정리하여 피력하므로 건축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2. 무엇이 현재 대학교육의 문제인가

사회의 팽창과 요구가 건축인의 수를 자연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에 부응하여 한국의 사학들은 아무런 준비와 대책이 없이 교세 확장의 수단으로만 이를 이용하여 전국 60여개 대학에 건축(공)학과가 있고 여기서 배출되는 인원도 일년에 4,000명 이상이나 되고 있다.

한 대학의 평균 250여명 이상의 많은 학생에 비해 교수는 7명 내외이고 교수 1인당 학생 30~40명을 담당해야 하며 교육시설환경도 설계를 위한 제도판도 하나씩 갖춰지지 못하고 전용강의실도 과전체 2개가 안되는 아주 열악한 상태이다. 실험실도 한학교에 1개의(30~40 명수용)실도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전공과목학점은 70~80학점정도가 4년간 이수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나머지 70학점은 교양과목임) 이를 가지고 대학에서의 건축전문교육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문제가 많다.

건축을 분야별로 크게 분류를 한다면 5개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즉, 건축계획, 설계분야, 구조분야, 재료·시공분야, 환경·시설분야, 도시·조경분야 등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우선 졸업생들이 이와 같은 5개분야로 나가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 5개분야의 각 기초적인 학문을 학부에서 골고루 배울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이를 현재 교과과정으로 배분해 본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다. 물론 대학에서의 건축공부는 학문을 전반적인 기초적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이 5개분야의 전문성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자의 전공서에 맞춘 전문적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의 전공별 교과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와 운영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때라 할 수 있다.

〈표 1〉 전국 대학의 시설현황

			갯 수 (개)	수용인원(명)	규 모 (평)
전 용 강 의 설 세 미 나 실			1.9	102.47	51.8
			0.7	33.75	23.3
실 계 실	1	학 년	0.7	49.0	51.1
	2	학 년	1.6	48.8	57.2
	3	학 년	1.6	52.9	52.2
	4	학 년	1.5	58.8	59.3
	대 학	위	0.1	--	--
구 조 실 험 실 CONC. 실험실(재료)			0.65	34.3	52.5
			0.5	40.0	48.5
환 경 실 험 실			0.5	33.3	26.8
			0.5	18.3	39.0
전 시 실			0.1	--	--
			0.8	10.1	8.6
COMPUTER실			0.7	11.3	11.3
			0.7	15.6	14.4

* 갯수는 전체 설문대상 학교의 평균값.
* 수용인원과 규모는 실수의 평균이 0.1이하인 경우는 제외하였음.

〈표 2〉 인적조사 (조사대상대학 평균수치)

학 생 교 수	조교(유급)	석사과정	박사과정	시간강사
284명(219명)	7.4명	1.83명	13.89명	6.17명

* 학생수의 ()안은 1학년을 제외한 2,3,4학년 학생수.
* 박사과정의 학생수는 학위과정이 있는 학교의 평균치임.

이와 같이 대학의 시설환경의 열악성, 교수수의 부족, 교과과정의 문제 등이 심각한 상태이고,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건축에 대한 소질과 적응성, 선호성에 더 큰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비단 건축분야 뿐이 아닌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현 사회성에서 가인되는 일이지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그 학문에 맞는 사람이 배우고 종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의 성적과 그 지방학과의 성적분포에 의한 지원에 따라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건축(공)학과에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이 맞지 않음에도 그대로의 현실적인 운명이라고 생각하여 공부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도 깊은 전문성 정착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적구성도 건축교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라고 본다.

3. 대학에서의 건축교육의 방향

지금까지의 3가지 영역에 관한 문제점을 알아 보았다. 즉, 교육시설 환경문제, 교과과정과 전공분야 문제,

〈표 3〉 각 과목별 학점수, 시간수, 개설학년, 전필선택, 수강학생수 현황

분 야	주요과목	학점분포(%)				학 점 간	개설학년(%)				전 필 (%)	선택 (%)	학 생 수
		1	2	3	4		1	2	3	4			
구 조 분 야	구조 역학	3	26	71	0	2.7	2.9	6	58	33	3	58	42
	R/C 구조	0	9	91	0	2.9	3.1	0	0	82	8	22	78
	구조 설계	11	11	78	0	2.7	3.0	0	0	100	11	89	65.0
	구조 해석	0	18	82	0	2.8	2.9	0	20	30	50	27	73
	철골 구조	0	7	93	0	2.9	3.1	0	0	15	85	7	93
도시 조 경 분 야	도시 계획	0	50	50	0	2.5	2.5	0	0	25	75	0	100
	도시 계획	0	30	70	0	2.7	2.7	0	0	20	80	0	100
	단지 계획	0	18	82	0	2.8	2.9	0	10	50	40	20	80
	도시 설계	0	99	0	0	2.0	2.0	0	0	100	0	100	30.0
	건축 설비	0	18	82	0	2.8	2.8	0	5	40	55	14	82
환경 공학 분 야	건축 환경	5	30	65	0	2.6	3.0	0	66	17	17	19	81
	사공 적산	4	26	70	0	2.7	2.9	0	0	31	69	19	81
제 조 시 공 분 야	건축 재료	11	33	60	0	2.5	3.3	7	29	50	14	13	83
	건축 설계	0	7	88	5	3.0	5.8	0	27	36	37	77	23
	의상 조형	4	32	64	0	2.6	3.1	5	50	36	9	12	88
	건축 계획	0	42	58	0	2.6	2.7	0	42	39	19	47	53
	건축 사	0	10	90	0	2.9	2.9	3	22	56	19	12	88
설 계 분 야	도화 표현	0	60	30	0	2.2	2.6	80	20	0	0	100	0
	건축 법규	0	8	92	0	2.9	2.9	0	0	45	55	17	83
	일반 구조	0	30	70	0	2.7	2.8	0	75	25	0	58	42
	건축 총론	0	33	67	0	2.7	3.0	0	100	0	0	33	67
	주 거 론	0	25	75	0	2.8	2.8	25	75	0	0	25	75
전 공 분 야	건축 제도	0	33	67	0	2.7	5.0	33	67	0	0	100	0

인적구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것들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향을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 인적구성

대학의 학과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구성은 교수 학생이 그 주체이다. 그런데 이들이 적정한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수의 수(학생대비)와 전공별 분포가 적절한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한 학교 당 학생수 평균치가 284명 인데 비해 장차 건축과 한 학교당 170인이 적합하다고 본다면 현재와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 여기서 시간강사는 특수과목에 대한 것과 설계를 많이 분반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교수의 주당담당적정 시간을 6시간 내외로 하여야 학생과의 면담시간이 적정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교수수도 그만큼 높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6~7명 내외에서 (이는 284명을 담당하는 수임) 10명(학생 170인 담당기준)으로 할때 그 전문적 지식전달과 어수가 잘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교수의 전공성에 대한 시비가 자주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건축시공 분야와 건축구조, 건축설계 분야에서 더욱 그러하다. 교수수의 자격기준에서 박사학위를 요구하는 대학본부에 비하여 건축학계의 주장은 그분야의 실제 경험성을 더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구성은 참으로 건축분야에 종사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이들로 구성되어야 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기 위해서 학생선발방법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지식능력의 잠재성보다, 藝와 機의 복합적 능력의 가능성을 지니고 창의성 유추를 위한 지구력의 소지자를 가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학생선발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표 4〉 건축과 교수, 학생수의 적정인원

	학부	석사	박사	비고
건축과 학생수	43.3	19.7	9.2	전체 응답교수의 평균값
교수수	9.5	5.0	4.7	
시간강사수	6.0	3.5	2.6	
교수의 주당시간	6.8	3.0	2.6	
분야별 계획설계	27.0	13.8	3.5	각 분야별 담당교수
구조	20.0	4.6	2.0	응답의 평균값
전공	25.0	6.5	3.8	
환경공학	10.8	4.4	2.2	
학생수	도	시	조	성
	9.2	4.2	2.6	

(이상적인 인적구성이 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임)

실현키 위해서는 이질성이 높은 타 학문분야와 한 범주속에서 그 운영체제를 맞출 수는 없는 것이다.

2) 교과과정 편성과 운영

전술한 바와 같이 적은수의 틀에 박힌 교과목으로는 전문적인 각 분야의 건축을 이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건축분야를 각 전공의 특성에 따라 교과목이 설정되어 전문성 있는 교과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학문의 분야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건축의 틀을 잡아나가는 건축계획과 설계분야인데 계획분야는 설계를 위한 기준 정책을 설정하는 단계이며 이것이 설계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설계로의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 학문적 역할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계획과 설계의 연계성이 없는 전혀 별도의 학문 영역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건축계획 분야에서는 각본적 DATA위주의 강의에서 계획론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이며 건축사의 교육도 과거의 史的상황을 현재와 미래의 史論의 접근성이 있어서 이것이 건축설계의 의미론적 해석과 기본 원칙에 그 역할을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축의장학의 기능적 능력 배양위주에서 미학적 이론에 바탕을 둔 미의 구성의 해석과 전개와 실제바탕을 둔 연단과 연습에 그 방향을 둔 교과과정이 되어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교과목에서 건축 디자인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옮겨질 수 있는 계획분야와 설계분야가 한개의 목적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계획이론과 설계가 연결되어 결과(디자인)되어지는 계획설계방법론적 진행이 될 수 있는 교과목과 교과과정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건축구조 분야도 구조이론에서 구조설계로 이어지는 학문적 연계성이 충분히 이룩될 수 있는 교과과정이 짜여져야 할 것이다. 이것도 건축설계와 연결된 구조의 설계와 계획에서 디자인의 감각이 표출될 수 있을 정도의 능력배양에 목적을 둘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건축재료시공분야인데, 건축재료는 자체의 개발, 특성이 잘 파악된 공학적 기본학문이 잘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재료분야는 시공성을 가미한 해석과 디자인과 연결된 미적·기능적 접합성이 타진될 수 있는 교과목의 특성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시공분야는 현장 경험과 환경여건이 충분히 파악된 해석이 효과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공사관리와 경영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다룰 수 있는 분야의 교과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로 건축환경공학분야는 현대화, 첨단화되어 가는 각 분야에 부응하는 건축환경의 학문적 영역은 세분화, 전문화의 교과과정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간의 생리적 쾌적성 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에 대한 심리적 만족상태나 인간의 욕구를 만족케하는 심리적 분야도 이에 포함되며, 상호 물리성과 심리성이 상호 연계되어지는 교과과정의 체계가 필요케 된다.

다섯째는 도시의 형성도 인간이 거주하는 건축의 집합으로 이루어질진데 건축의 구성체제에서 출발하고 발전되어야 하며 조경도 조경공간적 영역성도 건축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단지, 도시, 국토 그리고 자연까지 포함하여 이를 생태적 측면, 사회적 측면, 형태적 측면까지 나뉘지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므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과과정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5개 분야별로 학문적 특성을 살펴보면 상호연관성이 크지만 각각의 독립적 특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의미는 사회가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전문화 교육의 원칙에서 본다면 세분화된 건축교육이 독립성과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건축교육 운영체제가 필요하게 된다.

3) 시설환경

전술한 것과 같이 현재 건축공(학)과의 시설환경은 전문인을 위한 건축교육을 하기에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시설환경이 교수-학습형태에 맞아야만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 각 실별 소요면적표(한학년 학생수 60기준, M²)

실명	실수	면적/총면적	실명	실수	면적/총면적
일반강의실	1	96	모형제작실	1	80
세미나실	2	160	전시실	1	160
설계실	6	120	사진실	1	60
건축의장형태실	1	120	컴퓨터실	1	60
사공재료실험실	1	180	자료도서실	1	60
설비환경실	1	180	교수연구실	10	30
구조실험실	1	180	대학원실	5	30
도시조경설계실	1	80	행정조교실	2	30

그래서 3-1, 3-2항에서의 사람(사용인)과 교육을 위한 환경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시설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이호진 외 2인 한국대학 교육협회의 건축공학과 교육 프로그램연구분부에 의한 것임)

4. 건축대학을 위한 단계별 모델

3장에서 제시한 건축교육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운영체제는 건축이 독립된 교육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이 유사하고 학문의 교육적 목적이 동일한 분야가 한개의 운영체제속에 있어야지 서로 이질적인 분야가 한개의 통일된 운영방법속에 있는 것이 그 분야의 발전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전술한 5개 분야는 한개의 단위 대학으로 독립된이 궁극적 건축교육의 이상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각 대학의 여러가지 실정으로 미루어 볼때 한시에 이

이상의 모형은 어려운 실정이고, 이를 위한 단계적 개발계획이 더 필요한 것 같다.

그 모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M-1: 현재의 각 대학교의 사정을 감안하여 현재의 교육체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건축 학문에서 크게 두개의 분야로 대별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즉, 건축계획설계분야와 엔지니어분야로 나누어 전공화시켜 교과과정을 짜는데 건축계획·설계전공은 주요과목을 건축계획, 건축설계(I, II), 건축의장, 건축사, 구조역학(I, II), 건축일반구조학으로 하고, 건축공학분야의 주요과목은 건축일반구조학, 건축구조역학(I, II), 철근콘크리트, 건축재료·시공학, 건축환경공학, 건축설계(I)를 주로하고 선택과목은 상호 주된 과목으로 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여기에서는 충분한 과목

〈표 7〉 단계적 발전 모델

	형태	교 과 과 정		운 영
		전공 필수	전공 선택	
M-1	건축설계전공	건축계획(I, II) 건축설계(I, II) 건축의장(I, II) 건축사 건축일반구조학 구조역학(I)	건축공학전공의 필수과목	동일과에 전공만 분리 (3~4학년)
	건축학전공	구조역학(I, II) 철근철골콘크리트 건축환경공학 건축시공 재료학 건축설계(I) 건축의장(I)	건축설계전공의 필수과목	
M-2	건축설계과	M-1필수를 더 세 분화한 전문성 편성 (별도 참조)	M-1과 동일	독립과로 완전 분리
	건축공학과	M-1 필수를 더 세 분화한 전문성 편성 (별도 참조)	M-1과 동일	
M-3	5개 분야 로 나 눈	건축 설계학과 건축 구조학 건축 환경공학 건축 시공재료 도시조경학과	M-2와 동일 (별도 참조) M-2 공학에서 더 세분화 한 전문성 편성(별도참조) 건축설계과와 건 축공학과이 필수 과목을 선택으로 함(별도참조)	각과로 분 리하여 단 일건축대학 으로 독립

설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방안은 학교당국에서 조금만 배려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안이라 할 수 있다. 단지 선택과목설장이 많이 되어야 하므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M-2: M-1을 전공으로 동일 학과내에 두는 것이 아니고, 독립된 과로서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의 교과과정은 M-1과는 달리 그 학과의 특성에 따른 기초 과목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M-3: 이 모델은 건축의 세부적인 전문 교육분야를 다섯개로 분과하고 이를 하나의 단과 대학으로 종합하여 상호 연관된 부분들을 관계시켜 전문적 학문과 부 전문적인 학문영역을 상호 연계하여 교과과정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5. 글을 맺으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학에서의 건축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열악한 교육환경과 제한된 학점수에 명목상의 필수 전공과목의 설정에서 제한된 이수학점(70~80학점)에 따른 단일화된 학습으로 인한 건축일반 교육으로 이뤄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전문인을 요구하는 현사회에 부응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UR에 따른 대학의 개방, 건축분야의 개방에 대응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 이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축교육을 위한 인적구성에서의 개선점과 (한학과 학생수 160명, 교수수 10~18명(대학원포함)) 교과과정과 운영체제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며,

3. 이를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건축관련분야를 5개 분야로 나눠 교과과정을 특성에 맞게 구성하여 한 단위대학에서 유관된 연계성과 운영체제로써 전문화의 프로그램으로 대학에서 건축교육을 이룩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대학마다 획일적으로 적용되지 말고 지역의 특성이나 대학의 특성에 따라 특수한 분야의 중점적인 교육과 운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개선이 왜 필요한가 하는 토론은 많이 이뤄졌고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단지 이를 어떻게 실현하는 가만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우리 모두가 이에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4 건축교육의 개선을 위한 제안

Proposition for a Better Architecture Education Conditions

李範宰/단국대 교수
by Lee Beom-Jae

1. 건축교육의 위기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교육은 바야흐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95년부터 건축설계 및 건설시장이 개방되는 시점에서 우리의 현상은 아래와 같다.

1) 낡은 교육 체계

1945년 해방이후 우리의 건축교육은 50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으나, 출발에서부터 공학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독일의 체제를 그대로 모방한 일본식 건축교육 방식과 체제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21세기를 앞둔 현 시점에서 볼때 세계에서 가장 구태의연하고, 낡은 교육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2) '건축' 아닌 '건설'로서 인식

1950년 6·25 동란의 혼돈과 60년의 4·19 혁명, 61년 5·16 군사혁명 등의 와중을 거쳐, 건축교육의 변화를 맞이할 기회가 상실되었으며, 특히 70년대, 중동건설 붐에 의해, 건축은 '건설'이라는 협의의 의미로 교착되어 버렸다. 중동의 해외건설 등으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기술로서만 건축이 인식되어 버리고 말았고, 건축 교육의 목적이 바로 기술자를 키우는 것으로만 취급되어 버렸으며, 국가직으로 한차원 높은 '문화적 창의성'을 가진 '전문인'들을 양성하는 데에 실패하여 버렸다.

세계의 오랜 역사 전통을 가진 민족과 국가를 볼때 항상 고유의 건축물이 그 문화의 척도가 되어 왔으며, 건축은 '기술'로서만이 아닌 '문화적 유산과 자산'으로서 이해되어 왔던 것을 볼 수 있다. 인류가 가진 전 문화유산의 대부분은 바로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3) 개방화 추세에 따르지 못하는 교육

이제 21세기를 몇년 앞으로 맞이하게 될 우리나라로서는 사회 각 부문의 제도와 개선이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세계는 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개방사회를 이루어 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이 아직도 현장에서 '땅파고 벽돌 쌓는 것' 정도로 인식되고 있고, 건축교육은 제도권위에서 '선 굵은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교수는 권위속에서 안주하고, 학생은 학점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교과목은 제한되고, 새로운 창의성은 싹을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는 각국이 경제를 넘어서서 '문화'를 창달시키고 이를 앞장세워, 다른나라를 경제적으로만이 아닌 '문화적'으로 감식하려는 추세임에 비추어 볼때, 우리의 건축교육은 참으로 "위기"에 처해있다 할 것이다.

4) 개혁의 필요성

이런 의미에서 건축교육은 새롭게 개혁되고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다. 교육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고쳐야 21세기 초에 겨우 새로운 건축교육을 받은 인제가 졸업하게 된다. 지금 새로운 출발을 해도 늦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점이다. 현재의 건축교육의 1) 교육 외적인 문제는 원천적으로 건축을 공학으로 보는 입시제도, 획일적 교육연한(4년), 학사운영의 자율성 부족, 교수 임용자격에 대한 여러가지 제한, 실제 교수가 작업(실무)을 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는 산학협동의 제한 등이며, 2) 교육 내적인 문제로는 교수 부족과 학생수 과다, 시설 공간의 부족, 교수 방식의 진 근대화, 설계와 이론 과목의 부족한 연계성, 실무교육의 부족 등이라 할 것이다.

5) 외국건축교육의 현상

- 1) 건축교육의 기간이 우리나라에 비해 길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외국 건축교육기관은 6년의 수업연한을 가질뿐 아니라, 졸업후 재교육까지를 포함하여 7~8년의 교육 과정을 갖는 경우가 많다.
- 2) 건축교육의 중심이 설계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설계에

관련된 학점이 우리나라의 3학점(6시간)의 4~5배이며, 일본, 미국 등은 20시간 등으로 되어 있어 창의성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어 있다.

- 3) 건축교육이 환경과 디자인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도시, 조경, 시각디자인, 사회, 문화적인 여러과목과 학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외국에서는 건축대학의 형태로 나타나있다.
- 4) 실무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전담 교수제가 있어서, 실무현장과 학교간의 완벽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부 유명한 건축가들이 수시로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으며, 교수들이 외부의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 해서(학교내의 설계연구소, 스튜디오 등을 갖는다는지) 생명력있고 현실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
- 5) 각 대학들이 서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마다의 특색을 갖추고 있다. 학점의 선정도 다양하며, 졸업의 여건도 다양할 것이다.

6) 건축교육의 위기

상기한 상황으로 볼때 우리의 건축교육은 '총체적 위기'에 도달해 있다. 국제적인 개방 추이를 볼때, 세계속에서 우리의 건축이 소멸될 위기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보다 더 국제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국적있는 교육체제가 필요하다. 국제적인 교육체제로서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는 '건축대학'의 체제를 시급히 수립하는 길이며, 우리의 국적있는 교육체제로는 우리의 공학적 토대를 중심으로 한 공학적 교육과, 디자인 설계교육의 이원적 교육체제를 가져야 한다.

2. 건축의 배경

우리 건축교육은 우리사내의 건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우리 현재의 건축이 어떻게 인식되는 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 1) 우리나라 전체 GNP에서 건축이 차지하는 비율 약 2.7%(토목제외)로서 전체 국민의 생활에 건축이 전하는 의미는 대단한 것이다.
- 2) 우리나라 주요 건물들이 외국 설계자들에 의해서 설계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 우리나라 주요 건축물의 설계자의 예
대한교육보험(시자. 펠리/미국)
여의도 쌍둥이빌딩(SOM/미국)
롯데월드(구로가와/일본)
무역센터(닛켄세케이/일본)
63빌딩(SOM/미국)
등과 수많은 호텔(에/스위스 그랜드, 신라 등)이 외국 건축가들에 의함
- 3) 건축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기하고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많은 우수한 건축설계자의 양성이 급박한 과제임
- 4) 건축에 대한 인식부족과 건축교육의 본질 파악이 결여됨
건축은 그 주관적 종합을 예술로서, 객관적 종합을 기술로서, 주관적 분석은 철학, 심리학, 행동과학 등의 인간학으로서 그리고 객관적 분석은 과학으로서 분류하여 종합이라고 하는 건축목적은 분석이라고 하는 기술수단으로 보완해 주는 학문인 것이다.

건축을 기술로만 파악되는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그 문화적 의미를 상승시키는 건축교육이 필요하다.

3. 건축교육의 현황

1) 전국 4년제 대학 건축(공)학과 개설현황

1946년 서울대학교에 건축공학과가 개설된 이후 1950년대까지 10개대학이 개설되었으며, 60년대의 7개 대학, 그리고 70년대에 들어와서는 19개 대학, 80년대는 20개 대학, 90년대 초에도 5개대학이 개설되는 급성장을 보이게 되며, 서울소재 대학중 지방 본교에 4개과가 신설되, 4개 대학의 건축과가 서울근교의 지방 캠퍼스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4개대학은 건축공학과와 건축학과(건축설비과, 건축교육과) 등으로 동일 캠퍼스에 2개의 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93년 6월 기준, 건축(공)학과와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14개 대학(15개과), 지방이 47개 대학(54개과)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균형은 73년도까지 총 20개 대학 중 약 50%에 달하는 대학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가 그 후 수도권 대학 정원동결과 지방대학 육성정책이 양적 균형을 유도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표 1〉 지역별 건축(공)학과 현황

(자료 : 건축교육대실을 위한 방안모색, 93.11.20. 건축학회)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강원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계		
대	학	수	38.8	5	5	2	5	4	3	10	3	2	3	1	4	3	1	61(65)	
학	과	수	97	5	5	2	6	4	3	12	3	2	3	1	4	3	1	69	
입	학	정원	3,760	330	460	150	450	230	200	745	150	160	240	60	330	140	40	4,583	
현	재	원	900	1,711	1,970	606	1,387	938	891	2,913	413	648	1,094	251	1,154	554	40	18,470	
교	수	수	97	37	37	14	36	28	24	63	16	18	26	6	25	15	9	442	
학	생	수/교수수	38.8	46.2	53.2	47.3	43.4	1	35.6	35.5	46.2	25.8	36.0	39.0	44.8	46.2	37.0	0	41.8

* 현재 전국 4년제 대학 건축(공)학과는 61개 대학, 69개 학과로서 입학정원 총 4,585명이며, 재학생수는 18,470명이다.

2) 교육의 체제

전국 4년제 대학 건축(공)학과는 일반대학 55개 대학에 63개 학과, 산업대학은 6개 대학에 6개학과가 개설되어 총 61개 대학에 69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이중 건축공학과가 54개(78%), 건축학과가 13개(19%), 건축설비과 1개(1.5%), 건축공학교육과 1개(1.5%)이며, 건축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13개 학과는 5개 대학이 건축공학과와 함께 개설되어 있고, 나머지 8개 대학은 건축학과만이 개설되어 있다. 68개학과(98.5%)가 건설대학, 산업대학, 이공대학 등 공학계열 소속이고 1개 학과(1.5%)만이 조형계열 소속이다.

3) 교육담당자(교수진)의 현황

전임교수는 전국 442명으로 1개 학과당 평균 전임교수의 수는 6.4명이며 학생 41.8명당 전임교수 1인의 비율이 된다. 86년도의 조사(5명/50명)에 비해 학생수 : 교수의 비율은 상당수준 나아진 셈이다.

확인된 자료만을 분석한 결과 평균 설계 및 의장전공 2.4명(38%), 역사 및 건축론 전공 0.6(9%), 환경·설비전공 0.6(9%), 시공·재료전공 0.8(12%), 구조·역학전공 1.6(25%), 도시·단지계획·조경 전공이 0.4(6%)으로서 전공과목 개설학점수의 분포와 비교할때 약간의 차이가 난다.

〈표 2〉 전국 평균 전공분야별 개설학점수와 전임교수 분포 현황

구	분	설계·의장	역사·건축론	환경·설비	시공·재료	구조·역학	도시·단지	계		
학	점	수	40(40%)	10(10%)	9(9%)	14(14%)	19(19%)	8(8%)	100	
전	임	교	수	52.4(38%)	0.6(9%)	0.6(9%)	0.4(12%)	1.6(25%)	0.4(6%)	6.4

4) 교과과정

현재 전국대학 건축(공)학과와의 교과과정은 그 질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날지 모르나 교과목의 구성 및 편제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여 학교별(학과별)이나 지역에 따른 개성화, 특성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1981년부터 모든 대학에 적용된 실험대학(140학점)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전공과목 개설학점수는 평균 100학점으로서 설계 및 의장 40%, 역사 및 건축론 10%, 환경·설비 9%, 시공·재료 14%, 구조·역학 19%, 도시·단지계획·조경 8% 등이다.

전국 81개 대학중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은 40개교(66%), 박사과정은 30개교(49%), 특수대학원은 27개교(44%)에 개설되어 있으며, 학부과정에 2개이상의 학과가 개설된 학교는 모두 대학원을 통합운영하고 있다.

5) 교육환경

건축(공)학과와의 평균 전용 총면적이 406평으로 그중 설계실이 35.7%, 실험실이 18.3%, 교수연구실이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약 1.2평에 해당된다. 제도실의 경우 1인당(1학년 제외) 평균 0.73평으로 개인별 전용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대학이 많으며, 1학년부터 제도 내지는 도학과목의 개설이 늘어나는 추세에 비추어 제도실 공간의 확보는 시급한 실정이다.

대학원 전용공간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약 50%이나 평균면적은 25평에 불과하다.

4. 건축교육의 문제점

1) 건축가 양성교육의 부재—교육구성체제의 불합리

우리나라는 거의 전부가 건축공학과가 공과대학내에 속하여 있으므로해서, 대부분이 공학기술의 전수가 교육의 주가되고 이로 인하여 건축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로 대학졸업자의 진출현황을 보면

- 설계 : 15%
- 시공 : 30%
- 기타/군입대 : 56% 등으로 나타나 있고

이러한 비율은 감안하면 4,585명·680여명—(약 700명)만이 설계를 전공하는 바이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설계전공자는 70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60,000명당 1인의 건축가가 배양되는 바이다. 이에 비해서

일본의 경우 건축과가 미술학부, 생활학부, 예술학부, 조형학부 등에 설치되어(25개교), 실질적으로 설계디자인 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있으며, 공학부에 설치되어 있어도 다른 기술계열과 달리 독자적인 교과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대비/11,000명당 1인),

미국의 경우 건축대학 또는 건축학교로서 건립되어 있어서 건축가(건축설계전공자)를 양성하고 있다.

(미국은 125개 대학중 건축공학과가 공과대학에 있는 대학은 8개대학뿐임)

2) 교육의 목표 상실—교육구성 체제의 전근대성

1) 종합학문으로서의 건축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건축은 응용과학이요, 실천과학으로서 모든 기술학문이 그러하듯이 학문성과 전문성의 두가지를 내포하며, 이른바 실체가 부합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건축은 분석학문(Analytical Science)이 아니고 종합학문(Synthetic Science)이라는 사실이다.

건축은 인간생활의 3대 기본 요소인 의·식·주 가운데서 그 한가지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필수 요소로서 기술과 예술의 종합이요, 자연과학, 인문과학 그리고 사회과학의 종합이며, 기능과 구조의 미의 종합이다.

2) 예술과 과학의 종합이라는 차원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건축의 교육목표도 창의력을 개발하고 종합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건축교육도 선진제국에서는 그 교육구성체제에 있어서 공과대학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학문집단 속에 두지 않고 건축대학을 비롯해서 건축학부, 미술대학, 설계대학, 건축도시계획학부, 건축조경학부, 그리고 최근에 신설되는 환경설계대학 등에서 수행되어 오고 있으며, 그 학제에 있어서도 5~6년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영국의 일부에서는 7년제도 있다. 학습내용에 있어서도 주로 건축설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위 명칭도 건축학사, 건축학 석사, 건축학 박사 등으로 주어진다. 학과 명칭도 건축공학파가 아니고 건축학과 인 것이다.

3) 공대체제 밖의 건축학과

세계적으로는 건축, 조경, 도시계획, 환경 등 건축학 계열을 포함하고 있는 총3천6백여개의 대학들 가운데에서 건축을 공과대학에 포함시켜 놓고 그 학제에 있어서는 4년제에다 건축설계 중심 과목 외에 기술공학분야의 학습까지 동시에 수행해야 하며, 학위명칭도 공학사, 공학 석사, 공학 박사 등으로 쓰고, 또 학과 명칭도 건축공학과로 되어있는 대학은 일본이 59개 대학, 한국이 51개 대학, 미국이 8개 대학(건축학과를 가지고 있는 125개 대학 중), 독일이 4개 대학, 스칸디나비아 2개 대학 그리고 덴마크 2개 대학 등 총 126개 대학 뿐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학문구성체제는 그대로 두더라도 학제 만큼은 4년제에서 5년제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교수들 사이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축의 모든 분야를 전부 가르치려고 하니 대학을 졸업한 학생의 건축 수준은 물어 볼 것이 없다. 대학의 건축교육 목표는 훌륭한 전문인 양성에 있는 것이지 기능인이나 비전문인 산출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건축학, 도시계획학, 조경학, 환경계획학 등을 포함한 건축 전문계열대학으로 독립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학과 구성체제를 보면 건축은 공과대학에, 조경은 농과대학에, 도시계획은 공과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에 분산되어 있으며, 환경분야는 아직 신설되지 않고 있다.

즉 공과대학내에 건축(공)학과를 설치하여 스스로 건축교육에 제약을 가져오며,

단기간의 수업연한(4년)으로 시간적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일률적인 교과과정(140학점에 묶여 있어서)이 건축에서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 있다.

3) 교과과정의 모호성

1) 우리나라 현행의 교육과정 구성으로는 700명의 설계전공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기술전공자도 제대로 된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 건축(공)학과 교과목 구성비

설계에 관련된 과목	: 48.1%
구조에 관련된 과목	: 26.8%
설비, 환경에 관련된 과목	: 10.2%
시공, 재료에 관련된 과목	: 5.6%
기타 기초 과목	: 9.3%
100%	42.6%

이와같은 교과목에 의해 전 건축과 학생이 교육을 받으므로 해서 어느 것하나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2) 또한 외국의 경우는 여러 기술과목이 반드시 설계와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으므로 해서 현장과 교육이 직접적으로 연속된다.

4) 교수의 부족

1) 우리나라에서의 설계교육에서 교수 1인당 학생수는 평균 78인, 외국의 경우 10~20인으로 외국의 4배 수준, 교수의 수는 1/4수준임

2) 주당 설계시간은 우리나라 6시간인데 비해/영국 20시간, 미국과 일본 12시간으로서 학생 1인당 설계과목 지도시간은 주당 3~5분에 불과함

전임교수는 442명으로서 교수 1인당 학생수는 41.8명에 이른다. 이는 구미제국의 교수 1인당 20인의 학생수와는 배의 차이가 나며 특히 설계의 경우는 앞서와 같은 수치로 더욱 열악하다.

5) 교육과 실무현장과 괴리가 극심

1) 실무 건축가가 대학에서 전임교수로 교육을 담당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

2) 산학협동의 실질적인 제약이 되어 인력의 낭비와 질높은 현장교육이 안됨.

3) 이론 중심의 강의가 되어 현장에서의 적응력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저하됨.

4) 세계에서 교수가 실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의 두나라 뿐임. 교수가 실무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단, 대만의 경우 국립대학교수만 건축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하고 사립학교 교수는 이에 대한 제약이 없음.

5) 화가가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하고, 연주가가 연주활동을 못하게 하고, 의사가 임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서 외국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제약이 없음.

(주요국가의 대학 겸직 교수(예) 참조)

〈표 3〉 연도별 건축(공)학과 입학정원 추이

년	도	1986	1988	1993
대	학	50	54	61
학	과	55	59	69
입	학	3,985	4,688	4,585
정	원	72	79	66
입	학	(87년도 조사)	(64)	(56)
정	원			66

6) 재학중 실시하는 시험제도(건축기사 수험제도)
4학년 1학기부터 응시가 가능한 현행 기사시험제도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이 저해되고 있으며(선택교과목 기피, 커리큘럼 체계의 와해), 수험과목과 비율, 합격율, 풀제방식(난이도, 시험문제) 등에 문제가 많다. 또한 대학생들의 기사자격증 대여행위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4학년 재학시에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건축기사 수험제도로 말미암아 4학년 건축설계 수업은 학생들의 갈등과 교수의 방관으로 일관되어 있다. 학교 건축교육은 건축기사 수험때문에 학생들에게는 귀찮은 존재이고, 고매한 비현실적인 공론의 교수로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파행적인 건축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기사시험의 수험시기를 졸업후로 하거나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과감하게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 시험제도는 과거 5공화국당시 학생들의 소위 면학열을 부추기고 시국에 대한 반정부운동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시된 졸업정원제와 더불어 생겨난 인어도단의 제도인 것이다. 실제 학교교육을 3년안에 끝마치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이러한 저질 막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며, 대학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인정받은 자에게는 소정의 자격(실속경력1~2)이 있으면 '건축기사'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5. 개선방향

1) 건축대학(독립단과대학)또는 대학내 건축대학 설립을 이루어야 한다

- 1) 기존 공과대학내 건축학과는 기술교육을, 건축대학은 디자인교육을 담당하는 2원적 교육제도가 요망되며,
- 2) 건축대학(독립단과대학)의 연한은 6년으로 하고, 4년수료시 학사(건축학사), 6년 졸업시(건축석사)학위를 주어, 다른 교육체계와 동일하게 한다.
- 3) 또한 건축대학은 객원교수제를 도입하여 실무 종사자가 가르칠수있게하고, 현장실습 학점을 인정하여 실무와의 연계를 꾀한다.

* 건축대학의 설립 관련 법규(참고)

- 법 109조 : 대학은 대학과 대학원의 2종으로 한다.
- 법 110조 : 대학의 수업 연한은 4년내지 6년으로 한다.
- 법 115조-6 : 학위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 영 123 : 학사, 석사, 박사학위의 종별에 관해서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교육부령 580조)
- 영 115조(의과대학등의 수업연한) :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되, 예과 2년, 의학과, 한의학과, 치의학과는 4년으로 구분.

2) 건축교육 담당교수(특히 설계담당교수)의 실무 참여를 개방하여, 자격을 갖춘 교수는 설계사무소나, 설계사무소의 파트너로, 또는 일본과 같이 학교내에서 연구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 1) 교수의 실무참여와 실무 건축가들의 교육참여 기회 확대하며,
- 2) 교수의 책임시간 하향조정하고,
- 3) 창의성 개발과 종합화 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실무훈련과 현장 학점을 인정하며,

- 4) 스튜디오식 교육의 도입을 통한 실제 프로젝트 해결교육을 하며,
- 5) Workshop, 설계캠프, 공개강좌의 활용하여 여러 대학간의 상호교환을 꾀하며,
- 6) 건축사 자격 소지자 또는 각종 공모전 입상자 우대하여 교수로서 채용하며,
- 7) 교수가 실무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을 제도화 하며,
- 8) 실무건축가를 축탁교수(객원교수)형식으로 초빙하여 교육을 담당하게 한다.

이는 현 상황에서는 교수의 확보가 어려운것으로서, 실무 건축가들에게 학교를 개방함으로써 실질적 산학연계가 이루어진다.

* 건축교육과 건축실무의 연계, 관련법규(교육법내)(참고)

- 법 75조2항 :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전강은 학생을 교수, 연구 지도하되, 연구 및 지도에만 종사할 수 있다.
- 사립학교법 25조(자격) :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 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교육공무원법 19조(겸직금지) : 각급학교 감독청에 재직하는 자는 총회장...등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
- 교육공무원법 33조(초빙교원) : 대학은 국가기관, 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에 근무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등을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3) 대학 재학시의 각종 자격시험의 철폐 - 대학의 학원화 방지

- 1) 소정의 교육을 받은 졸업생에게는 모두 기사자격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 2) 응시자격 부여는 졸업후로 만일 자격시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시행시기를 변경하고,
- 3) 1차 합격자의 2차 시험 응시자격 유효기간을 주도록 한다.
- 4) 실습과 현장경험을 중시하는 과목(시험문제)의 비중을 높인다.

(자료1) 주요국의 건축(학교)대학 설립현황

○미국 : 각대학에 건축대학이 설립되어 있거나, 독립된 건축학교로 운영 5~6년제(125개대학)
ex) 코넬대학(5년제)
예임대학(건축대학) / 건축석사,
환경디자인석사(5년제)
하바드대학(건축대학원) / 건축석사/박사
펜실베이니아대학(예술대학원)
프린스턴대학(건축대학)
콜롬비아대학(건축, 건축대학)
라이스대학(건축대학)
/ 건축학사(5년+연수1년)석사/박사
MIT (건축대학) / 시각예술, 건축설계, 공학,
건축사 4분야
IIT (건축, 계획, 디자인 대학) / 5년제 학부,
2년제 대학원

UCLA (건축 및 도시계획 대학원) / 3년제 대학원, 대학 등
UC 버클리 (환경디자인대학)

○영국 : 5년간의 전문교육과 2년간의 실무
ex) A.A.S쿨(건축학교) / 5년제
캠브리지대학(건축 예술학부) / 3년학부 · 2년 디프로마코스
RCA(왕립예술대학) / 대학원, 대학 : 석사 2년

○프랑스 : 1968년부터 독립학교로 설립
2개의 사립 건축학교
23개의 국립 건축학교(파리9개, 지방14개)
5년제 : 2년 수료후 DEFA 학위 (건축기초 DIPLOME)
3년 다하면 D.P.L.G 학위 (정부인정 DIPLOME)
ex) 라 팔레트 건축학교 등

○독일 : 대학내에서의 건축대학이 설립
ex) 슈트트가르트대학 / 학부와 대학원과정의 결합된 평균 6년이 이수과정

○이태리 : 국립대학에 건축대학으로 설립—5년제
ex) 토리노, 미라노, 베니스, 피렌체, 로마대학 등등

○호주 : 국립대학에 건축대학—4년제+2년제실습제=6년제
ex) 시드니 국립대학

○일본 : 114개 대학에 건축관련학과
그중 25개는 예술학부, 미술학부, 조형학부에 배치

○대만 : 문화대학 건축계, 담강대학 건축계 등으로
우리나라의 대학과 같은 독립된 영역으로 설립운영

학 교	창 립	교 수 / 건 축 가
RICE 텍사스 라이스대학 School of Arch.(미)	○1912년	○C.R.S.의 창립자 중 한사람인 코틸어 1961~10년간 교수로
MIT School of Arch of Planning	○1865년	○J. T. 카를로(이태리인)
IIT College of Arch. Planning & Design(미)	○1933년	○마스. 반. 데. 로에 ○폴드 스마스(SOM의 파트너)
UCLA Graduate School of School Arch & Urban Planning(미)	○1927년	○찰스부어
U.C. BERKELEY College of Environmental Design(미)	○1960년 ○건축학과 ○도시계획학과 ○조경학과	○리차드. 피터슨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RCA Royal College of Art	○1890년	○리차드. 로저스(상해은행)
A.A.SCHOOL school of ARCH.(영)	○1874 창립 ○1920년 이후 ○5년제	○피터. 스미슨 제임스. 고원 존 킬리크 버나드. 휴머(파리 라발레드)
LA VILLETTE	○1795년 미술학교 ○1868년 UPA ○제6 UPA	○앙리. 시리아니
STUTTGART fachbereich architektur(독) ROMA대학(이)	○1902년 ○1925년 도시계획 개설 ○1920년 ○왕립건축학교	○D 프라이. 오토 ○한스. 카마라 ○콘스탄티노. 타루타
FIRENZE 대학(이)	○1930년 scuola ○5개 학과 (도시계획,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사, 지역연구)	○G.K. 케닝 ○M. 파치오로
VENEZIA 대학 베니스건축 대학(이)	○1923, 미술학교 ○1970, 도시 지역 코스선설	○알도. 로시
WIEN 공과대학 동경대학(일)	○1815년 ○1879년	○로프. 크리에 ○후미이코. 마키(스파이럴빌딩) ○겐조. 단게(동경 시청사)

〈자료 2〉 주요국가 대학 겸직교수(예)

학 교	창 립	교 수 / 건 축 가
HARVARD Graduate School of Design (GSD)	○1874 창립 ○건축 ○조경 ○도시계획과	○학과장 : 헨리. N. 코프 1980 (L.M. Oat 사무소 디자인 담당 Partner) ○라파엘. 모네도 1985. 가을부터
YALE School of Architecture	○1832년 ○1953년 건축예술 ○건축학과(MA) ○환경 디자인과(MED)	○학장 : 폴. 로도프, 찰스무어 시저. 펠리(-교보빌딩 설계자) 토마스피터
PENNSYLVANIA Graduate School of Fine Arts Dept Of Arch	○건축박사 ○1740년 이후	○두이스. 칸 (-방글라데시 국회의사당) ○Ventury ○Joseph. Likewood
PRINCETON School of Architecture(미)	○1919년 ○건축박사	○피터. 아이젠만 ○마이클. 그레이브스
COLUMBIA Graduate School of Arch & Planning(미)	○1881년 ○1902년 독립된 건축대학	○케네스. 폴란프론 ○로버트. 스틱 ○스테픈. 피터슨 (파리 르. 아트 당선자)
CORNELL College of Arch. Arch. & Planning(미)	○1871년	○웅거스(독일의 유명건축가)



건축교육—무엇을 기대하는가!

Architecture Education—What do you expect?

崔英集/종합건축사사무소 탐
by Choi, Young-J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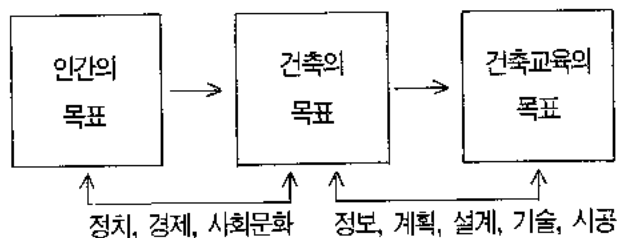
1. 글을 시작하며

언제부터인가 건축교육에 대해 회의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더니 90년대에 들어서서는 여러 건축단체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학 건축교육의 교과과정을 조사하고 외국 건축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기도 하면서 여러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 논의해 오고 있다. 도대체 건축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왜 스스로 건축의 위기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계의 현실을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으로 인식하면서 건축교육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사실 건축이라고 통칭되는 건축 그 자체의 구조적 모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아직도 우리는 지극히 애매하고 모호함에 건축을 얘기하고 있고, 건축을 이해하고 있으며, 건축을 교육시키고 있다. 건축학인지 건축공학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고, 건축학과인지 건축공학과인지 모르는 채 대중 넘어가고 있다. 매년 50여개 대학에서 건축학사인지 건축공학사인지 졸업생이 4천명이 넘게 쏟아져 나온다고 한다. 이렇게 건축학도가 늘은 것도 따지고 보면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거나 전문가의 높은 사회적 요구 때문이라기 보다는 개발도상국으로서 건축보다는 건설의 요구에 급급하였던 점과 70년대 중동건설 붐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건설인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고, 또 작은 이유는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학과인지라 신설대학에 건축과가 많이 생길 수 있었던 것도 원인이 될 것이다. 문제는 건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분석해 보거나 건축이라고 부르기 쉽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 속에 엄청난게 다른 속성들이 내재해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도매금으로 건축을 일괄처리해 버리는 무지한 태도에 있다. 건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역사와 사회 속에서 건축이 가져야 할 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건설의 일부분으로 치부해버리는 동태 속에서 어떻게 올바른 건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가야할 길을 제대로 모르는 데 가다보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목표가 뚜렷해야 길이 보이고 길을 찾아야 끝에 당도한다. 건축교육, 목표부터 찾아야 한다. 무엇이 목표인지 알아야 한다. 목표를 알고 떠나야 한다. 목표가 분명해야 올바른 교육이 있다. 건축의 목표가 확실해야 건축교육의 목표가 정해진다.

2. 무엇이 목표인가

그러면 건축의 목표는 무엇인가? 건축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건축환경과 건축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역사와 지역, 사회와 문화를 대변하는 총체적인 시대의 거울로 존재한다. 건축의 목표는 그러한 건축의 가치를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술적으로 창출하여 인간의 생활과 욕구를 충족시키며, 이상을 실현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건축교육의 목표는 건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효율적으로 인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의 제분야를 분석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조정통제하면서 각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킴과 아울러 건축의 새로운 가치 창출능력을 함양하는데 있다. 그것이 궁극적인 건축의 목표이며, 건축교육의 목표이다. 너무 막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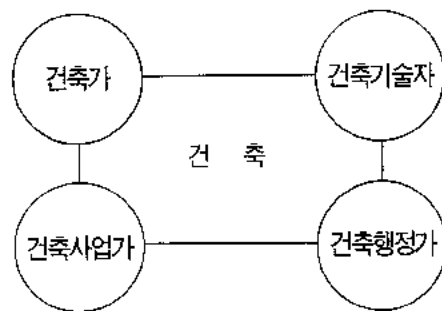
(그림 1) 목표의 체계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전제로 출발해야 한다.

건축교육이 꼭 건축가 교육이 되어야 하고 설계교육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건축교육에 건축가 교육이 큰 비중으로 차지하기는 하겠지만, 건축교육이 전부 건축가 교육이 될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혼동해서는 안된다. 건축교육문제를 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축가 교육에 격정을 하는 것은 건축가 교육의 중요성이 간과 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결국 건축의 가치창출을 실현시키는 것은 건축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한 풍토에서 건축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려하는 것이다.

3. 건축과를 나와서 무엇이 되나

건축교육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역으로 건축과를 나와서 무엇이 되고 있는가를 현실적으로 짚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건축과를 졸업하면 10년후 20년후 무엇이 되어 있는가. 생각나는대로 적어보면 건축가, 건축사업가, 건축기술자, 건축행정가로 대별할 수 있을 것 같다. 건축교육자는 별도로 분류할 성질이 아니고 위의 4가지 중 자기 전공에 따라 한가지 분야로 편입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가는 설계라는 과정을 통해서 건축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사람으로서 작가정신으로 건축을 종합하고 리드해 나가는 부류로 평할 수 있고, 건축사업가는 건축에 연관되는 모든 것을 사업화하여 건축에 기여하는 사람들이며, 건축기술자는 건축이 필요로 하는 모든 기술적인 분야를 연구, 발전시키거나 실현시키는 사람이고, 건축행정가는 건축의 제반사항을 기획, 통제하여 바른 길로 유도, 정리하는 부류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과를 나와서 여러 방면으로 진출하지만 크게 나누어 보면 결국 4가지중 하나이거나 그것의 복합된 상태일 것이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이나 면허는 건축기술자를 만들기 위함이고 건축사법에 의한 면허는 건축가, 건축기술자, 건축행정가를 적절히 믹스한 사회적 직분을 요구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현실이다. 이것이 건축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건축교육이 감당해야 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림 2) 건축이라는 차의 네바퀴

4.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실무를 하는 사람들로 부터 항상 나오는 소리가 왜 건축과는 대학을 졸업해도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생기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교육이 잘못되어 그렇다고 매도하지만 대학 커리큘럼을 보면 이것 저것 골고루 잘 짜여 있고 또 잘만 하면 바로 응용할 수도 있게 지도 교육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왜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바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실무를 접하며 익혀야

비로소 세 몫을 할 수 있는 것일까. 학교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럴까? 오래 생각해 본 바로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 궁극적인 문제도 역시 건축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건축이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을 배우기는 하지만 그 실체를 모르는 채 허상을 익히고 마는 것이다. 계획을 해도 설계를 해도 구조를 해도 무엇을 해도 몸에 배어 들어오기가 힘들다. 건축은 현실이기 때문에 조건과 상황과 스케일과 과정을 깨우쳐야 한다. 배우는 것과 깨우치는 것은 틀리다. 틀려도 한참 틀린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 엄청나게 다르다. 배우고 알기는 하지만 깨우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수술 방법을 외웠다고 해서 몸에 칼을 대고 수술을 해낼 수 있을까. 임상경험과 수술과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건축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알아야 할 모든 것은 건축에 있어서 상식이다. 배워할 모든 것은 건축에 있어서 기본에 지나지 않는다. 가르쳐야 할 것은 깨우침과 행함인데 그것은 가르칠 수가 없다. 단지 잘 깨우치고 잘 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것이 건축교육의 한계인 것이다. 더 욕심부릴 수는 없다. 조금 가까이 가게 하고 조금 더 빨리 깨우치며 좀 더 깊게 생각하게 하는 것 그리고 굶은 일에 몸 담글 수 있는 용기를 갖게하고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가르치는 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건축교육의 전부일지도 모른다. 건축과에서 배우는 모든 것을 기본으로 바르게 생각하며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 건축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것이 설계교육이고 나아가서 그것이 건축가 교육이며 건축교육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효율을 높이고자 고심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

5.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아직도 건축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건축의 상식은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 건축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다른 과목 다 줄이고 건축설계 시간만 잔뜩 늘어 놓으면 설계를 잘 할 수 있고 설계교육이 효율적일까? 4학년 학생 모두가 2학년 학생보다 설계를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 건축의 이해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을까? 첫번째, 최선의 교육은 최선의 선발에 있다. 마름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재목을 구하는 것에 있다. 가르치는 것 보다 백배 중요한 것은 숨어있는 자질을 찾아내고 개발하는 데 있다. 효율적인 교육개선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건축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재원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다. 남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라. 잘 가르쳐서 잘 하던가. 물론 지도야 하겠지만 잘 하니까 잘 하고 잘 깨우치니까 발전이 빠른 것이지 잘 가르쳐서 건축을 잘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지.

앞장에서 건축과의 진로 4바퀴를 언급하였지만 다시 더 줄여서 교육의 목표를 설정한다면 건축가 교육과 건축기술자 교육으로 대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최선의 건축교육효과를 도모코자 한다면 건축가교육과 건축기술자교육으로 특성과 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효과적인 재목을 선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마다 특성과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학교내에서 두 그룹으로 편성되어 각기 그 특성에 맞도록 선별권이 주어져야 한다. 지금같은 획일적인 입시체제에선 기대하기 어려우나 본고사가 대학에 부활되고 대학별 과별로 학생선발권이 자율화 된다면 건축가 재목에 가장 걸맞은 입시요강으로 또는 건축기술자 재목에 가장 합리적인 시험으로

특성있는 학생, 적성이 맞는 학생을 고르는 일이 위대한 교수 100명을 초빙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음악성이 없는 음대생과 미술성적이 나쁜 미대생을 상상할 수 있을까. 건축은 그보다 더 심오한 특성을 지닌 자라야 성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재발 잘 가르칠 것을 논하기 전에 잘 뽑을 대책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 길만이 건축교육을 개혁할 수 있는 길이다.

두번째, 건축교육은 분위기 교육이고 환경교육이고 체험교육이 되어야 한다. 건축과만은 24시간 교육으로 상주할 수 있는 분위기와 최고의 시설을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면 건축교육은 저절로 된다. 굳이 한가지를 덧붙이자면

세번째, 살아있는 교육, 산 교육을 시켜야 한다. 산학협동도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인턴과정을 활성화 시키거나 각종 공모전, 실무와의 연계 등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참가하는 것이다.

학교와 교수는 건축상식의 전수자임과 동시에 특성개발역할과 자율적 자질함양의 계도자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는 진정한 스승으로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그들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6. 글을 맺으며

학교보다 사회가 진정 자랑스러운 스승이 되어야 건전한 사회가 될 것이고, 건강한 사회 속에서 마음껏 제 능력을 펴서 뽐내다갈 수 있으며, 다시 사회로 환원되어 충분히 영양을 공급할 수 있어야 결과적으로 충분한 교육효과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은 학교로 끝나고 사회는 단절되어 있다면 학교교육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사회교육을 살리기 위한 전초교육으로 학교교육이 존재하고 학교교육의 연장이 사회교육이며, 산학협동일때 뿌리, 줄기, 가지, 잎, 열매 모두가 충실하게 성장할 것이며, 우리 건축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아주 쉽게 문제를 풀어나가자. 건축을 잘 할만한 사람에게 건축을 하게 하고 최선의 건축환경속에서 24시간 자유롭게 건축과 씨름하게 하며 건축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을 지도하게 하며, 죽은 교육이 아닌 산 교육으로 건축의 사명감과 윤리를 깨닫게 하는 것 그 길만이 건축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다.

건축과 학생선발의 자율권이 생기기 전까지는 각 학교별로 특성화시켜 그룹화하고 과정과 분위기의 변화를 도모하면 상당한 교육효과를 올릴 것으로 생각한다.

나아가서 건축계의 숙원인 건축대학을 시범적으로 신설하거나 공인된 건축아카데미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우리 건축의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산학협동 방법은 신중하게 그 효과를 생각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지만 예를 들어 설계의 경우 산학협동 지정사무실을 선별하고 대학이나 대학원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거나 면허시험의 설계 과목 같은 것을 일정기간 이상이면 면제해 줄 수 있게 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산학협동 지정사무실을 선별하는 것도 문제이지는 하겠지만 이제는 스스로 건축계의 권위를 지켜나가야 할 때도 되었으니까...

6 누가 우리의 교육을 열악하다 하는가!

Who do you think that Our's Architecture Education is Inferior?

承孝相/종합건축사사무소 TSC
by Seung, Hchih-Sang

요즘들어 부쩍 건축교육에 관한 문제가 여러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러가지 통계적 수치로 선진국의 건축교육기관의 시설과 내용을 비교해 볼 때에도 우리의 건축교육 환경의 낙후성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일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닐진대, 어떤 동기가 요즘에 심각한 문제 제기를 일으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를 계기로 우리네 학교 건축교육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간간히 학교 교육에도 직접 참가하는 나의 견지에서 학교 건축교육의 허구는 여러곳에서 지적할 수 있고 때로는 그 때문에 나 스스로도 좌절을 느끼기도 한다. 학교 건축교육을 논의하는 것은 보다 바람직한 건축환경을 조성하려 함이요 그 교육의 현실이 현재 나쁘다면 우리의 건축현실은 더욱 더 나빠져 있음이 자명할 터이고, 나빠져 있는 우리네 건축환경은 기성건축가들이 잘 교육 받지 못한 탓으로 돌릴 수도 있음이라. 하지만 과연, 보잘 것 없는 우리네 건축의 현실이 어찌 열악한 학교 교육환경 때문만인가!

나는 이러한 류의 접근 —내용보다 먼저 틀을 만드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음을 지적하고 싶다. 교육환경의 개선은 물론 해야 하며, 보다 적극적인 건축대학 등의 설립도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러나 본질적 문제에 대한 적시 없이, 그리고 여태껏 열악한 환경을 주도해온 이들의 철저한 자기 반성과 새로운 목표설정 및 거기에 대한 정진없이 그냥 형식과 틀을 바꾼다하여 그 내용과 정신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이 학교 교육환경을 지금까지 논의된 제도적, 물리적 개선을 한다하여 우리의 건축문화가 과연 창달될 것인가에는 어쩔 수 없이 의문부호를 찍는다.

세계의 유명 건축가를 양산해 내는 듯한 영국의 A·A School을 그대로 서울에 갖다 놓는다하여 그 건축교육이 목표표 하는 건축문화가 여기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A·A School은 바로 성숙한 문화를 가진 영국 사회의 산물인 것이며, 파행적이며 성숙되지 못한 문화사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러한 문화의 형식을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의 소위 열악하다는 환경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추구가 훨씬 더 설득력 있으며, 나는 그 가능성을 아직도 굳게 믿는 사람중의 하나다. 보다 나은 건축 교육환경을 위한 제도적 모색을 가치 없다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나는 두 가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

하나는 지금의 학교 건축교육이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느냐는 것이며, 또 하나는 거기에 합당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장래 한국건축을 주도적으로 이끌 놀라운 재능의 건축가를 학교교육의 결과로서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넌센스이며 환상이다. 그런 탁월한 건축가는 천부적 재능에 의해, 교육에 의하지 않고서는 인제든지 등장하게 마련이며, 몇 년의 교육으로 되는 일이라고 여긴다면 건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 몇 가지만이라도 —그리 좋은 시설과 제도가 아니더라도 이런 일들은 충분히 가능할 진대— 학교시설에 습득만 한다면 그 학생의 건축가적 미래는 낙관해도 좋을 일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오늘날의 건축교육이 열악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건축문화가 먼저 열악했던 연유이며, 이 시대 우리의 문화의식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는 건축교육의 제도적, 물리적 환경의 탓만 돌리기엔 교육에 직접 참가하는 교수뿐 아니라, 이 사회의 건축을 시어어나가는 일선 건축가들의 건축관과 우리의 건축이 더욱 열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교육환경을 고치고자 하는 이들은 우선 스스로의 건축 행태부터 고쳐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감복하지 않을 수 없는 K대의 J교수 같은 그러한 뚜렷한 건축교육관과 그의 실현을 위한 열정을 갖는 이들이 우리의 건축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는 한 지금의 교육환경조차 결단코 비판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건축대학도 만들어야 하며, 건축대학원도 설립해야 한다. 그러나 바로 이번 학기에 그라도 강의실로 들어오는 우리의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

누가 우리의 건축교육환경을 열악하다 하는가!
그리하여 교육의 의무를 왜 방기하는가.

우선 그 부터 그의 열악한 건축관을 고쳐야 한다.

오히려 다소 탁월하지는 않더라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건축가를 기르기를 원하고 유명한 건축을 만드는 방법을 교육하기보다는 좋은 건축을 만드는 법을 터득하게 해 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현실적이며, 더욱 적극적인 교육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선 건축총론 및 개론에 대한 집중적인 배려가 요망된다.

말하자면 건축의 정신을 교육하지는 않으며, 건축의 본질을 주시시키자는 말이다.

대학 4년 동안 한 학기 3시간으로는 이에 대한 터득이 턱도 없는 일이거니와, 좀 부풀려 얘기하면 전 학년의 시간을 여기에 쏟아 부어 목적하는 본질에 관해 접근만 할 수 있다면 그 학생으로 하여금 좋은 건축가의 길을 걷기 위한 첫 걸음으로는 매우 성공적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알아야 될 학문과 지식의 넓이와 깊이를 체득할 터이요, 만나야 할 사람과 사건의 윤곽을 파악할 것이며 지녀야 할 지성과 격어야 할 감성의 높이와 폭을 알 것이다.

내가 언급하고 있는 대상은 물론 건축가 교육에 대한 것이며, 건축엔지니어에 관한 것은 아니다. 건축엔지니어와 건축가에 관한 구분을 학교에서 초기에 명확히 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며, 어쩌면 학교의 가장 기초적인 의무이기도 하다.

요즘들어 학생들의 독서량이 많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국내의 건축 뿐 아니라 해외의 좋은 건축을 보기위하여 집을 꾸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의 교육에 이 학생들의 열망을 채워줄 프로그램이 없을 뿐이지 학생들의 외식과 욕구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단체에서 하는 내용있는 건축강좌마다 학생들로 입주의 여지가 없고 학교가 아닌 작업실의 열기가 학교보다 훨씬 뜨거운 까닭이 그 강좌는 시설이 좋아서이며, 그 작업실은 설비가 좋아서인가. 문제는 모티ベーション이며 지금의 학교 프로그램은 이 모티ベーション의 실패일 뿐이 아닐까.

예를 들어 학교 시절에 그런 몇 개의 설계교육이 설계 능력을 배양시키기는 무척 어렵다. 왜 학교에서, 남의 것을 베끼는 일에 대해 터부처럼 여기는지 모를 일이다. 학교에서만 가능한 일인것이요. 그러한 적극적으로 베끼고 흉내내는 작업을 통하지 않고 어느새 독창적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오히려 교육적이지 아닐 것이다.

미술사에 빛나는 유명한 작가들이 미술관에 걸려 있는 전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무수히 배진 작업 후에 벗어난 이름이라는 것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나는 학생들에게 좋은 건축가의 건축의 도면을 몇번이고 트레이싱 할 것을 부탁한다. 학생들에게 독창적 건축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리이며, 학교시절에서야 말로 때로는 포르뵈체 처럼, 때로는 두이스칸 처럼 되어 볼 수 있는 때가 언제있을 것인가. 수 없는 트레이싱 작업의 축적은, 그 저장 건축의 창작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할 것이며, 어느 틈엔가 그는 스스로의 놀라운 공간 추리력과 조직력을 체득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건축관이 정립될 수 없는 이들에게서 저장적 작품을 요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다.

그 보다는 기초적 지식의 체득이 훨씬 간요하다. 자기의 처지에서 의당 배워 알고 있어야 할 것을 배워 있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가르쳐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 다시말해 학식의 불균형성을 경계해야 한다.

이는 아마 오랫동안 교수들에게 실무건축을 못하게 한 결과로 건축을 다소 사변적으로 경도한 때문일 것이다.

7 내가 받은 한국 건축 교육의 현실과 지금생각

What am I doing here ?

朴敏澈/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by Park, Min-Cheol

이 땅에 한국근대건축이 19세기에 생성되어 현재의 다양한 건축적 문제상황 속에 직면하기까지 벌써 1세기가 흘렀다. 또한 2천년대라는 시대적 언덕배기에서 서 있는 지금의 우리 건축세대들은 특별한 문제의식 속에 있기는 커녕 시대적

상황과 경제침체와 더불어 그 자화상이 어떤 이슈도, 외침도 없는 얼굴없는 창백한 물결을 숨기고 있는 듯 한 정도이다.

얼마전 대전에서 세계박람회라는 건축인들에게 더 없이 좋은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한국건축의 미래를 제시하기는 커녕 주제에 얽매며 비전보다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정도로 기대에 못 미쳤고, 새로이 다가오는 서울 정도 600년 기념사업도 그해를 바로 며칠 앞둔 지금 시점에 건축적 자존심과 기대되는 다양하고 풍부한 건축이벤트 기획들이 어느것 하나 최소한의 깊이 있게 젊은 건축인 나의 눈에는 띄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 속에 발견되는 건축의 전반적 문제는 바로 어디에 있을까? 건축비평이나 철학, 이론이 성숙되지 않아서 일까, 아니면 건축단체, 언론이 없어서 일까, 건축의 교육이 없어서 일까. 아니다. 1세기가 넘는 우리의 건축역사는 엄연히 존재하고 그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풀만한 역량이 있다고 믿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현실문제의 원인이 「교육」에만 있다기보다 「교육」이라는 근본이 가장 문제해결에 기대가 되기 때문이라는 측면에서 끊임없이 꿈꾸는 젊은 30대 건축인의 한사람으로 교육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

1. 찾고 느끼는 교육

건축을 처음 시작한 곳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강의실이다. 교육되어지는 교과과목은 건축에 관계되는 모든 분야의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들임에 틀림없다. 그 내용이 오래된 것이든 미국, 영국, 일본의 것과 유사하는 간에 지금에서 그것이 중요하다기보다 그것을 왜 배워야 하는 문제의식이다.

어디에서 쓰이고 어디와 연관되어서 어떤 건축적 문제에 봉착할 때 필요한 내용인지에 대한 해답이 없었다는데 문제인 것이다. 교재에 내용을 다 읽고 외우기에도 방대한 양을 주입시키는 식의 교육은 현실성과 실제성의 접근을 무시한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강의실, 단과대학 건물 모두가 하나의 건축물이며, 건축교육의 샘플이 될 수 있다(잡되었건 그렇지 않건). 어떤 재료와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진 구조와 마감, 그리고 창호, 디테일, 어느것 하나 우리가 배운 건축과목에 안나오는 것이 없다.

2년전 영국의 AA 스쿨에 갔을때 1학년 학생들의 작업시간에 함께 한적이 있었다. 과제는 「문」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였는데 영국식 문양을 가진 문짝을 Full Scale로 바닥에 그려가며 못하나, 나사하나, 손잡이, 물당을 정성스레 완성하고 있었다. 한팀은 슬라이드를 준비하고 저쪽에서 각자의 큰 1:1 도면을 그리며 수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저 칠판에 쓰고 불러주는 듣는, 읽는 강의가 아닌 말하고 찾고 느끼는 진실한 교육의 모습이었다.

왜 우리에게서 그러한 교육이 특별한 경우로만 보일까. 3시간의 강의에서 이제서 1시간정도라도 이러한 건축의 현실성의 건축요소들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할 수만 있어도 우리의 교육은 숨겨진, 잠재하고 있는 모두의 건축의식이 스며나올 것이다.

2. 우리의 건축사는 언제 배우나!

건축의 모든 근원과 흐름은 역사 속의 이론과 인물, 그리고

건축 경향에 따른 분석을 통해서 시작되어진다. 물론 서양건축에 영향을 받은 한국건축의 근·현대시대는 당연히 이해되고 배워야 할 것이지만 한국건축의 고·중·근·현대사는 언제 배울 것인가!

어떤 학교는 교과과목에 조차 있지 않고 그들에게 전통건축의 실마리를 풀 것을 기대한다는 모습을 볼때 한심하기 짝이없다.

우리의 정서라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숨겨져 담겨있어도 그것을 건축적인 사고와 디자인의 요소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지 비원이나 절이나 하는 고적답사정도의 프로그램 가지고는 기대하기 힘든 것이다. 누군가 한 말이 기억난다.

『생각한만큼 보고 본만큼 느낀다』라는 말이 절대적이지는 않아도 한국건축사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학과 과목의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왜 기성건축가들 중 그것도 몇몇 전문가들에게만 한국건축 역사의 문제를 떠 맡기는가.

올해 건축대전 초대작가전에 한구석에는 『한국조형원리탐구』라는 무엇인가 난해하기는 하지만 무식코들 스쳐가는 작품이 있었다. 모양은 울놀이판에 한자들로 수북히 논리가 얹혀있어 보인다. 바로 그내용이 우리 상고사와 고대의 역사서를 5년여를 탐독하며 찾고계신 한 선비같은 「조, 모 교수님의 한국건축역사에 대한 신념이다. 왜 우리는 그 산 노력을 보지 못하는가.

3. 건축가는 예술가인가 사업가인가!

4년 동안의 짧다면 짧은 대학 건축교육기간 건축설계에 애착을 갖고 있던 비교적 우수하고 꿈이 있는 건축가 지망생이 설계사무소의 문지방을 밟는 후배들의 모습은 어느 누구도 「건축가는 예술가」이며, 「건축은 하나의 예술이다」라는 자긍심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후배들이 실무를 시작한 때 대학교육이 현실과 연결되지 않아 불평하는 설계사무소 선배들의 문제는 단순히 연필선의 숙련도나 건축설계 드로잉 능력부족에 대한 불만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그러한 문제는 방학기간 실무실습이나 설계교육 보완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은 『건축행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부족이다. 예술을 하는 건축가를 꿈꾸는 후배들이 사무소에 들어올때면 몇년전만해도 현실적인 임금이 얼마가 되든, 언제주든 무조건적으로 유명건축가 밑에 수업을 받는 것이 황송할 정도의 자세로 단순 목적적인 모습이 흔히 보였다. 그러나 그러한 각오와 자세는 몇달, 몇년 지나지 않아 사무소는 회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의 아뜨리에에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조직이라는 인식이 된후부터 체불되는 임금과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에 대한 불만이 그 강렬한 건축의 꿈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우리 현실의 모습이다. 건축가는 예술가이지만 사업가이다. 실제적으로 건축은 지어져야 하는 그 목적이 있으며, 건축주라는 제3자가 있는 순수예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건축문화의 90% 이상의 건축물은 누가 뭐라해도 이름없는 건축가라는 사업가들이 지었고 앞으로도 그럴것이다.

왜 그 다수의 건축가들의 행위를 무시하는 것인가. 「건축은 사업이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해야만 허울좋은 자만심이 풀리고 바로 우리 동료, 선·후배들이 그들이라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가. 그것이 현실이다. 필요할 때만 예술가적 건축가이다, 편할때면 집요한 건축사업가가 되어야할 법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현실적인 표현일 것이다. 그래서 건축교육에서 『건축 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이러한 접근이 비속적이라고 만 할 것이 아니고 막연한 기대나 꿈보다는 진실한 건축가를 유도할 수 있는 솔직한 교육이 필요하다.

4. 소외된 건축과목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20여 과목은 설계를 전공하고픈 학생에게는 모두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 지식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이라는 학문이 언제부터인가 세분화, 전문화되고서부터 설계전공 이외의학생들은 교육에 불합리한 비중을 느끼게 된다. 건축교육과목에서 구조, 설비, 환경, 조경, 재료, 시공, 비평 등의 전공을 하려면 건축설계에 비해 산만하고 열악하고 소외적이 되기 일쑤이다. 사실상 건축비평도 대학원 정도의 고급 전문적 수준이 아니라도 개론적 교육마저도 소홀한 것을 보아도 이들 소외과목에 대한 비중이 조정되어 편성되어야 한다.

하나의 건축을 완성하기 위해 이 소외부분들의 전문적 조인과 협동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느 곳에 어느 누구에게 해야할지 난감한 것은 바로 우리의 편중된 교육의 소산이 아닐까. 그래서 건축설계는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단지 개인의 관심으로 전문분야 뛰어드는 단순논리보다는 보다 정리하고 예상된 교육시스템이 요구되어진다.

5. 이땅의 흙내음을 느낄 수 있는 진실한 교육

건축교육체도의 모순과 문제를 형식과 구조에서 보다 건축교육을 받은 한 젊은 건축인으로서 느낀 몇가지의 상황과 생각들을 그려 보았다.

건축의 어느 분야이든간에 건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현상과 문제제기들은 궁극적으로 이들 문제해결이 오히려 개별적 전문분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기능적 역할 때문에 화살이 교육측면에 돌아가기 마련이다. 그만큼 「교육」이라는 시간과 단계가 건축에서 생명적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스스로 찾을수 있고 느끼는 자기인식과 올바른 「건축행위」에 대한 이해를 유도하는 실제적 교육이 있음으로써 이땅에 추구될 건축이 진정한 이땅의 흙내음을 맡아 숨쉬는 진실한 건축문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바로 진실한 건축만이 진정한 건축문화를 이룩할 것이기 때문이다.

도심재개발의 권리처분 계획(Ⅱ)

Adjustment of Rights in Management and Disposition of Urban Renewal

—權利調整에 관하여—

崔燦煥/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Choi, Chan-Hwan

1. 서론

지난호에 기술한 권리변환에 이어 재개발후 권리조정에 대한 방법과 기준을 살펴보고 공동건물의 권리조정문제에 대한 고려와 건물의 공간효용 가치에 따른 권리배분 등을 어떻게 하는 것이 권리처분의 효율성이 있는지를 고찰하고 끝으로 재개발전의 철거대상건물의 유무에 따른 재개발후의 권리조정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2. 권리조정방법과 기준

권리조정이란 재개발사업후의 권리변환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의미하는데 재개발의 권리조정에 있어 먼저 현황 권리조정(제1차 조정)을 하고 다음 새로운 건물에 대한 권리이행의 신 권리조정(제2차 조정)을 행한다.

제1차조정은 종전의 관계권리의 내부조정으로 조정의 범위가 좁으며 제2차조정은 개발후 신규건물에 권리가 이행되는 것이므로 그 범위가 넓고 상태위치에 따른 교환, 병합하며 共有持分, 區分所有에 대한 것이 많다.

권리조정에는 3가지 형태가 있다.

1) 권리를 소거(消去)하는 방법

$$\frac{B^B}{A_B} \rightarrow \frac{A^A}{A_A} \text{ 또는 } \frac{B^B}{B_B}$$

금전청산 매수하여 관계권리를 해제·소감시켜 권리자수를 줄이는 방법.

2) 배분 하는 방법

$$\frac{B^B}{A_B} \rightarrow \frac{A^A}{A_A} \cdot \frac{B^B}{B_B} \text{ 또는 } \frac{A^A}{B_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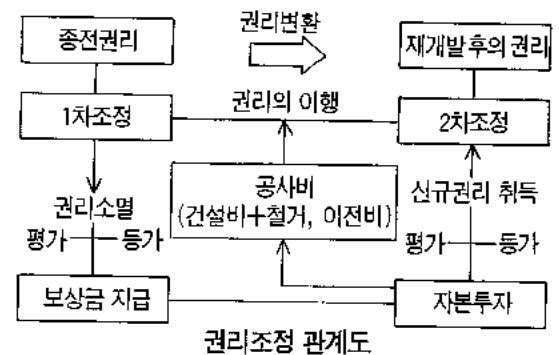
부지의 배분 또는 구분소유하여 정리하는 방법

3) 신규로 취득하는 방법

$$\frac{B^B}{A_B} \rightarrow \frac{C^C}{C_C} \text{ 또는 } \frac{B^B}{A_B} \cdot \frac{E^E}{E_E} \cdot \frac{F^F}{F_F} \text{ 또는 } \frac{B^B}{A_B} \cdot \frac{E^E}{E_E} \cdot \frac{(B^B \cdot E^E)}{(A_B \cdot E_E)}$$

조합, 주식회사, 공유 등 신권리가 생기는 권리, 운영조직체일때 또는 신규권리 취득자가 있을때 하는 방법

종전권리가 1차, 2차의 권리 조정을 거쳐 재개발후의 권리로 변환되는 관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권리조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원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권리가액불변의 원칙

각 개인이 소유하는 권리가격은 재개발전후에도 변하지 않으며 변화하는 경우는 금전으로 清算한다는 원칙이다.

a) 평면환지를 행하는 구할정리의 경우

$$C_A A_1 = C_2 A_2 \dots\dots\dots ①$$

C_A : 종전 개인이 소유한 토지의 단위가격

A_2 : 종전 개인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

C_2 : 재개발후에 소유하게 된 토지의 단위가격

A_2 : 재개발후에 소유하게 된 토지 면적

減少率을 P라하면

$$A_2 = A_1(1-P) \dots\dots\dots ②$$

$$C_1 = C_2(1-P) \dots\dots\dots ②를 ①에 대입$$

$$C_2 = \frac{C_1}{1-P}$$

즉 감소된 面積率만큼 단위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b) 입체환지의 경우

$$m_1 C_A A_1 + m_1' C_1 A_1' = C_2 G + C_2 A_2 + n_1 C_2 \sum A_2' + n_1 C_2' \sum A_2''$$

$m_1 C_A A_1$: 종전의 토지권리

$m_1' C_1 A_1'$: 종전의 건물권리

$C_2 G$: 토지의 소유권

$C_2 A_2$: 재개발후 급부된 상가적

$n_1 C_2 \sum A_2'$: 재개발후 공용부분의 부담가격

$n_1 C_2' \sum A_2''$: 토지권의 부담분

따라서 재개발전후의 가격은 불변한다는 원칙이 성립된다.

2) 照應의 원칙

중전의 위치, 일조, 편리성, 위생상태, 배수상태, 조망, 경관 등의 조건은 재개발후에도 거의 같은 조건에 있다는 원칙으로서 平面換地와 立體換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평면환지의 경우보다 경직적이며 입체환지에서는 다소 변칙적인 경향이 있으나 원칙에는 동일하다.

3) 토지권리의 원칙

토지의 가격은 총면적에 단위가격을 승한 것이지만 그 값은 토지에 부하된 제권리의 합계를 가격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토지에는 所有權, 土地權, 借地權, 低當權, 地役權, 小作權, 質權 등의 권리가 있다. 보통 토지의 권리로서는 소유권, 차지권, 차가권(점유권)으로 요약되지만 이 비율은 국가별, 지역별 각 상황에 따라 구성비율이 다르며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대도시 경우 4:3:3으로 보고, 특히 상업이 변화한 중심지가지(CBD)에는 3:3.5:3.5 혹은 2:4:4가 되며 중심도심부에는 5:2.5:2.5, 농촌지역에서는 6:2:2로 보고 있지만 여건에 따라 각각 다르다.

여기서 보면 차지권과 차가권(점유권)이 같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가가 높은 도심부일수록 소유권의 비율이 낮아지는 대신 차지권 및 차가권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用益價値가 클수록 차지권 및 차가권의 비율이 증가되며 지가는 토지이용 가치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권리에 대한 명확한 개념설정과 그 가치구성비가 아직 충분히 확립되지 못한것 같고, 소유관념에 많이 집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유권의 비율이 다소 높을 것으로 생각되나 용역가치가 크고 지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차지권 및 차가권의 비율이 증가되는 반면 소유권은 그 구성비가 점차 약화될 것이 확실시 된다.

예를 들면, 건물물 매수 비용은 전체 소유권의 가치로 나타나고, 전세금은 용익권에 해당되며, 이 비율은 다양할 수 밖에 없다.

4) 건물권리의 원칙

건물의 권리는 소유권과 차가권(점유권)이 되지만 그 가격은 신축으로부터 경과연수에 의한 減價率을 제한 액수이다. 이것을 구성하는 소유권과 차가권의 비율은 보통의 경우 5:5이지만, 토지의 상황에 따라 6:4 혹은 4:6이 된다.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건축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지로서 분양할 경우는 1필지의 면적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소대지면적 이상일 것(60㎡이상),

주거용 건축시설의 1주거당 면적은 33㎡(10평) 이상일 것, 사무실, 점포,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기하는 건축시설의 단위당 면적은 10㎡(3평) 이상일 것.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조정기준에 의하지 못할 경우 그 내용을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5) 대지의 공유지분 비율산정

중전 토지소유자에게만 대지의 공유 소유권을 부여하는

원칙형의 권리변환에서는 토지구획정리 방법으로 공유지분 비율을 평가적으로 구하면 되겠으나 지상권이 설정되지 않고 건물의 구분소유권자에게 대지의 공유지분을 급부하는 特別型에서는 건물구분소유권의 전체건물가액 구성비에 비례하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지급하면 되겠고, 중전 토지소유자는 권리의 감소에 상당하는 보상으로 건물구분소유권을 취득하면 될 것이다.

특칙형에서는 대지의 공유지분 비율이 구분소유권의 가액에 비례하고 구분소유권의 가액은 건물의 용도, 위치 등 사용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6) 건축시설의 특정부분의 가액(금액가치) 산정

건축시설의 전체적 가액은 건물의 가액(전용부분과 공용부분)과 대지의 정비에 요하는 비용을 합한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부분의 가액은 전용부분에 소요된 총비용을 건축연면적에 대한 특정부분의 바닥면적비율만큼 배분하고 공용부분(대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지분비율에 따라 가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한 것이다.

그 관계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C_i = \frac{cb}{\sum A_i} A_i + \sum^{n-1} b \cdot Rb_i + Cs \cdot Rs_i$$

C_i : 특정부분의 가액

C : 대지의 정비에 요하는 비용……건물의 철거, 보상비 등도 포함

Rs_i : 대지의 공유지분 비율

Cb : 전용부분(공용부분이외의 부분)의 비용

Cb : 공용부분의 비용

Rb_i : Cb 에 대응하는 공유지분의 비율

A_i : 특정부분(전용부분)의 바닥면적

7) 지상권의 공유지분 비율의 산정방법

각 시설건축물의 위치에 따른 건물바닥의 공간가치를 대지에 대한 이용가치로 표시되는 비율을 구하여 이 비율은 층수별로 또는 같은 층에서도 다시 위치별로 정한다.

다음에 건물바닥이 전체에 갖는 비율을 곱하여 이것을 합계한다.

대지에 대한 지상권이 건물의 바닥면적에 따라 어떤 비율로 배분되는데 이 배분비율이 건물 바닥면적의 이용가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면 지상권의 총량이 100라고 했을때 특정한 층이 전체건물의 효용가치에 대한 구성비로 보아서 10의 지상권을 배분받았고, 같은층에서도 위치에 따라 어떤 가치비중이 있어 특정부분의 단위면적에 0.1의 지상권이 부여되었다면 특정부분의 단위면적은 전체 바닥면적의 효용가치의 0.1%를 차지하는 셈이다. 건물 단위면적 지상권지분의 총계가 전체지상권이 된다.

8) 시설건축물의 공용부분의 공유지분의 비율

각 건물 바닥면적마다 공용부분(복도, 계단, 기계실 등)에 대한 이용상 또는 구조상 수해의 정도에 따라 의존도의 비율을 정하고 같은 방법으로 배분하면 된다.

3. 공동건물의 권리조정

재개발전의 종전권리관계자가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공동건물을 건축했을 때의 공동건물에 대한 권리조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재래의 대지분할에 따른 제권리를 그대로 두고 연속공동건축하여 구분소유
- ② 대지는 재래 그대로 두고 건물은 대지에 관계없이 공동화
- ③ 권리자 상호간의 조합운영
- ④ 권리자 상호간의 회사법인운영
- ⑤ 권리자 대지에 제3자가 신권리를 설정하고 건물을 공동화
- ⑥ 앞의 각 방법을 혼용한 방법

그런데 이러한 권리조정은 보통 단일형식을 취하지 않고 소유방법과 운영방식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각 조합의 「패턴」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A. ①+③ 및 ①+④

이 방법은 각자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구분소유하므로 공유재산이 없으며 운영, 관리, 유지는 법인격의 조합이나 주식회사가 맡아 각인재산의 일체 운영과 함께 이익배분 등을 관장하고, 자기사용부분에 대해서는 규정된 사용료를 지불한다. 재산상의 권리가 종전 그대로 있기때문에 소유구분이 명확하고 안전하며 이해가 용이한 이점이 있으며 관리면의 불리한 점은 관리기구로서 대처하며 건물이나 대지소유권이 법인소유로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부단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B. ②+③

②의 방법은 재산이 전원의 공유등기로 되어 개개인의 재산이 불안정하나 이 경우 조합이 정한 공유재산의 운영규정인 「정관」으로 공유의 불리한 점을 시정하도록 하고 각자의 대지경계에 관계없이 건물계획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C. ①+⑤

건설자의 대지에 자금을 제공한 측에서 임차권을 설정하여 이 대지를 건설자가 사용할 것을 서식으로 용인하는 것이며, 따라서 개개인의 연속 건물이라도 종래의 대지분할에 무관하게 건설할 수 있다.

D. ①+③+⑤ 또는 ①+④+⑤

각자의 대지를 공유하지 않으나 대지분할에 관계없이 건물을 공동화하여 조합 또는 회사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공동화의 경우에 생기는 많은 결점을 피할 수 있으며 A 또는 C의 진보된 형태이다.

E. ②+③+⑤

B의 변형으로서 공유대지에 공동건물을 세워 제3자가 대지에 임차권을 설정하여 관리기구를 두는 방법.

F. 상기 각 조합한 형태를 병렬한 방법.

이상의 각 방법을 권리변환의 유형인 단순구분방식, 건물공유방식의 분류에 따라 구분하면 A, C는 원래의 토지소유 지분에 따라 건물을 구분하는 단순구분방식이고 B, E는 원래 토지소유권에 의한 지상권을 인정해주고 건물을 입체구분해서 권리변환을 해주는

立體區分方式이며, D는 토지를 공유하지 않고 건물만을 지분의 형태로 공유하는 建物共有方式이라 할 수 있으며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는 권리구성상황과 내용, 성격, 건물계획 등 여러 복합적 여건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면 될 것이고, 별도로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규정하기는 곤란하며 일반적으로 공유지분을 갖는 것이 구분소유에 비해 권리변환상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으나 건물계획의 제약성이 적고 관리상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나름대로의 장점도 많다.

또한 공동건물 권리조정 관계를 살펴보면 「표1」과 같으며 건물의 형식이나 대지의 구분방식도 다양하다.

독립소유의 건물형식은 구분방법에 따라 몇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수직분할식(중합식)은 독립된 2동의

〈표1〉 공동건물 권리조정에 따른 관리처분방안

공동건물형식구분		수 지 구 분	건 축 물 형 태 구 분		문 제 점
독립소유	중합식 (복합적구분)	○공 유 ○분 유 ○가공유(공동대차) ○부분임차권의 중중	①당사자 이외의 제3자를 건 설초기에정	④적벽완전분할 각종구분명확 하나 관리등은 불명확	○공유부분의 정리 ○기계설비계공간의 범차다
		○혼합(공동권)	②구분소유자가2~3명의소수	④대규모화의 암시적 가능성	○공동권 혼합등 문제의 정 리
	칭 할 식 (계층적구분)	○공동임차 ○공동임차 ○자기차지권의 설정	당사자의 부지 이용목적 건축비 부담관계, 관리기구 동취차단별, 공유부분 복리다수 경계관련	④별도회사설립 일괄지적 토 지 사용(대기업, 법인, 조합,) 관청, 회사 등)	○차후발생문제(상속·전 매) 상각, 제해 등)과 각종권리 조정
공 유		○공 유 ○분 유 ○준공유	①구분소유권없고 전부공유부분 공유특분등기 ②관리회사별도설립(수입, 지출, 유지 등의 처리) ③건축계획상 자유가 많다		○공동관리체계의 법적조치
민 간 분 양 APT		○공 유 ○공동대차	①건설초기부터 구분소유권의 양도를 예정 ②구분소유자가 불특정다수인 ③건물구분(이용, 소유구부 등)이 규격화, 단순		○단계적분양등 공유부분의 권리배분
복합용도의 주택		○임 차	①1인 또는 권리자가 공동으로 수지소유 ②주택공단이 차지할때 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에 임대		○권리조정(조합, 주식회사 ...) ○동선처리
구 분 소 유 (시 설 건 축 물)		○입체환지	①단면적으로 잡다한 권리관계의 입체적, 집약적 재편성. ②다수당사자가 기능상, 이용상, 계획상 복리 ③사유구분이 입체환지의 제약을 받아들임.		○구분소유권 등기상에 시 설조건과 이용 형태의 개발

건물을 함께 붙여두는 형식과 같으므로 건물의 대형화가 어렵고, 기계설비 등 공동설비의 처리가 문제시 된다. 또한 각종 구분은 명확하나 관리를 어떻게 할것인지는 명확하지 못하여 칸벽도 완전히 분리되므로 건축계획상 융통성이 적다.

준분할식은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임차권을 설정함으로써 여러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자에 비해 대규모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부분분할식은 계층적으로 구분하여 독립된 소유형태를 갖고며 토지는 일괄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건물소유에 대한 차지권의 설정이 필요하다.

공유건물에서는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전부공유로 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관리운동을 맡을 별도의 조합이나 회사를 설립해야 하며, 이러한 공동관리체제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소유권이 공존지분의 형태로 되는 것은 소유권의 객체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단점일 수 있으나 건축계획상 자유스러우며 독립소유형의 문제점을 해결한 진보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민간분양 APT의 경우는 규격화, 단순화되어 있고 그 성격상 블록정다수인에게 분양되므로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음 입체환지의 구분소유 형식을 들 수 있다. 대지는 공유지분이 되나 건물 바닥면적의 구분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지에 별도로 지상권을 설정하여 이용상의 공유와 권리상의 구분소유가 가능하므로 전자에 방법을 조합, 절충한 형식이다. 평가적으로 잡다한 권리관계를 입체적인 개념으로 집약적으로 재편성을 한 것이나 관리운영에서 별도의 조합을 구성하면 효율적일 수 있다.

4. 건축물의 공간 효용가치

건물 전체의 가치가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알아야 적절한 권리조정이 가능해진다.

건축물은 층이나 위치, 용도 등에 따라 그 효용가치가 다르며 접근성이 중요한 상업판매기능과 환경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주거용도는 층별 선호경향에 큰 차이가 있다. 판매시설이라도 백화점의 매장배치에서 알 수 있듯이 업종에 따라 층별로 나누어지고 같은 층에서도 위치에 따라 차이가 난다.

비교적 판매시설이 이와같은 위치에 민감한 영향을 받게 되며, 가치차이도 매우 크고 업무는 층에 큰 영향이 없으며 주거의 경우도 큰 차이는 없다.

접지층, 특히 1층을 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경제적인 가액은 다른층에 비해 높으나 주거의 경우는 접지층이 다른 층에 비해 오히려 가격이 낮으므로 용도별 층에 따라 공간효용가치가 다르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와같은 면을 고려하여 최대한으로 가치를 높힐 수 있도록 용도배분하려 한다.

공간효용가치를 소상히 파악하고 여기에 상응하는 권리배분과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와같은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유사한 사례를 참고로 하여 가액을 산출할 수 있겠지만 건축물은 개별성이 있고 새로운 건물에 새로운 용도로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시장가격이 형성될 지는 불확실하다.

특히 상업시설인 경우 영업실적에 따라 가격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의 가액 산정을 정확하게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용도나 업종의 결정이 권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면 권리조정시 용도나 업종이 밝혀지지 않게 되어 순전히 시설을 중심으로 층별, 위치에 따른 공간효용가치를 정하여 권리조정을 해야 한다.

5. 기존 건축물 유무별 권리조정

일정한 토지에 철거대상인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A)와 건물이 없는 경우(B)를 예로들어 재개발함으로써 양자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며 그 손익관계를 비교하여 재개발의 권리조정문제를 뚜렷하게 나타내고자 한다.

건물이 있는 A는 내대지인 B보다 재개발전에는 건물로 인한 이용가치가 높지만 재개발할 경우에는 기존건물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며, 신규건물의 건설비나 재개발후의 토지와 건물의 재산가치는 A, B 모두 같다.

〈표 2〉 건물유무에 따른 권리

구 분	A	B
종전권리가액	토지가(V1) + 건물가(V2)	토지가(V1)
건물철거비용	C1	-
건설비	C2	C2
재개발후 가치	V	V

재개발전의 재산가치는 토지 및 건물의 가격을 합한 것이며, 건물은 복층식이나 수익환원법 등의 평가방법으로 가액이 산출되지만 철거해야 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로 인해서 철거하는 추가비용이 소요되므로 감가하는데 이를 建付減價라고 한다.

즉 재개발전에는 건물이正的 가치를 가졌다면 재개발하게 되면 負의 가치를 가지게 되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평가를 하며 어떻게 권리가액을 산정하는지에 따라 이해가 크게 달라지게 되며 같은 건물도 보는 관점에 따라 正(+)과 負(-)로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으며 기존 건물의 소유권자와 그렇지 않은 권리자와는 크게 상반된 견해를 가지게 된다.

건부감가를 하면 건물이 있는 A의 토지가격에 비해 내대지인 B의 토지가격이 많으나 건물감가를 적용하고 토지가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을 많이 쓴다.

왜냐하면 토지에 건부감가를 하는데 건물에도 최우효사용의 상태에서 불균형 상당분만의 감가를 한다면 이중의 감가가 되는 셈이다. 건물이 최우효사용이라면 양자가 감가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며 최우효사용에 대한 책임은 건물에 있으므로 토지에 대한 건부감가는 불합리하고 건물감가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A는 $V > V_1 + V_2 + C_1 + C_2$ 이라야 개발로 인한 이익이 생기며, B는 $V > V_1 + C_2$ 이면 된다.

A의 종전권리($V_1 + V_2$)가 B의 권리(V_1)에 비해 건물에 해당되는 가액만큼 더 많이 평가를 받게 되고 개발후에도 이와같은 권리를 기준으로 하여 그만큼 더 많은 권리를 취득한다.

A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권리가액불변의 원칙에 의해 종전의 권리($V_1 + V_2$)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것이나, B의 입장에서 보면 A의 권리중 건물의 권리는 개발후에도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철거된 후 소멸되는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그에

상당하는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재개발후의 가치(V)를 기준으로 보면 A의 기존건물의 가액(V_2)이 V 에 하등의 이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철거비용(C_1)만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관계권리자의 조합이고, 개발로 생긴 이익이 관계권리자에게 배분된다면 A는 B와 같이 개발하는 것이 A+A의 개발형태에 비해 유익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반면 B는 A와 같이 개발하는 것이 B+B의 개발형태에 비해 불리하다고 생각할 것이 분명하다.

A가 자발적으로 개발하려면 철거비용을 들이면서 건물가액의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즉, $V > V_1 + V_2 + C_1 + C_2$ 이라면 V_2 를 포기할 수 있는데, 재개발로 인하여 V_2 의 가액만큼을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C_1 의 비용도 혼자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을 보는 셈이다. 그렇다면 철거될 건물가액이 많을수록 새로 취득되는 권리도 이와 비례하여 많아질 것이며, 증가되는 비용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건물권리자는 건물이 없는 권리자에 비해 유리하게 된다. 양자간의 개발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그 권리를 평가받는 배분적 측면에서는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A는 B보다 V_2 의 재산가치를 더 지니고 있으며 V_2 가 어떤 잔존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로 인하여 소멸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권리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익배분에서도 종전권리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면 V_2 를 종전권리로 인정할 때 A는 $V_1 + V_2$ 에 대한 이익을 얻게 되고, B는 V_1 에 대한 이익을 할당받게 된다.

그런데 B의 입장에서 보면, A의 V_2 로 인해 그만큼 이익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V_2 에 대한 이익배분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즉, V_2 가 이익창출에서는 부(-)의 요인이면서 이익배분에서는 정(+)의 요인으로 평가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종전권리를 평가하는 대안적 방법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B의 권리는 그대로 인정하면 되겠으나 A의 V_2 에 대한 권리가 문제시 된다. (A의 경우)

권리변환상 종전권리.....① $V_1 + V_2$ ② $V_1 + \alpha V_2$
개발이익의 배분상의 권리.....㉠ $V_1 + V_2$ ㉡ $V_1 + \alpha V_2$
㉢ V_1

이것을 조합하면 ①-㉠, ①-㉡, ①-㉢의 형태와 ②-㉡, ②-㉢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α 는 건물권리의 평가계수로서 $0 < \alpha < 1$ 이다.

α 를 산정하는데 사용, 수익, 처분권으로 구분하여 건물의 殘存價에서 사용, 收益權만 인정하는지 반대로 處分權만 권리평가하는지 신규건물과의 관계나, 개념설정에 따라 다른 것으로 생각한다.

종전권리가액 불변의 원칙을 적용하면 권리변환상 종전권리는 $V_1 + V_2$ 로 되어야 할 것이며, 이익배분에서는 개발후의 가치에 전혀 보탬이 되지 못한 V_2 를 소거시키는 것(①-㉢)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다음은 재개발지구에서 기존건물을 보존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보존건물에 대해 얼마만한 공공부담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보존건물은 그 지역의 재개발에 의해서 개발이익을 얻고 있는데, 이 경우 철거건물은 재개발사업 때문에 그 지역의 기존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입장과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즉, 보존건물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가상승 등 근린외부 경제효과를 얻게 되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수혜를 받는만큼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공공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존건물의 경우 기존건물의 가치와 재개발후의 가치를 평가한 후 그 지역전체의 종전가치와 재개발후의 가치를 비교하고 철거되었을 경우 얻게되는 이익의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용 부담이 있어야 형평원칙이 성립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철거건물의 재산가치가 많으면 재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히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철거할 것인지 보존건물로 존치시킬 것인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고 철거함으로서 오는 이익보다는 보존함으로서 얻는 효과가 클 때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보존건물일지라도 재개발후 지역의 기능변화에 어떻게 조화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수립도 필요할 것 같다.

6. 결론

종전 토지 및 건물에 관련된 모든 권리에 대한 평가와 그 권리가 어떤 유형으로 전체 재산권에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재개발후에 계속 이행되는 것인지 보상으로 소거되는지의 권리 변환을 하게 된다.

그 후 권리가액과 변환된 권리 유형에 대한 권리배분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전체적인 정리작업이 권리조정이다.

권리조정은 재개발후의 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여 변환된 권리상에 어떤 비율로 할것인지를 신규건물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일이다.

그런데 재개발 전후에 관련된 여러권리가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고, 이와같은 변화과정에서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상당한 의견차를 노정시키게 되므로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즉 이용되지도 않은 신규건물에 대한 공간효용가치와 비율결정, 기존건물의 유무에 따른 재산평가와 권리가액 산정, 존치건물에 대한 문제, 기존 건축물에 영업함으로써 형성되고 실제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권(권리금의 형식)에 대한 보상문제 등 여러가지 대상건축물에 따라 특수한 여건과 사정이 깊이 고려되고 각 권리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거나 원만하게 수렴될 수 있도록 하여 정판이나 규약 등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여하튼 이해관계가 복잡한 여러 권리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며, 각 재개발사업단위별로 특수하게 작성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개발의 관리처분 기법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적용이 대단히 복잡하므로 이를 단순화하여 추척 등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통폐합돼야 할 건축사의 감리업무

Architect's Supervision must Rearrange

尹汝旭/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심환경

by Yoon, Yeo-Wook

문명의 발달과 함께 건축물도 시대를 반영하듯 대형화, 고층화, 고품질화 되어 가고 21세기 주도권확보를 위해 민, 관 구분없이 고도의 정책수립과 시행으로 분주하며, 감리업계의 선도를 위해 정부산하 투자기관에서 재벌회사들의 종합감리전문회사를 설립토록 정부가 관심을 갖고 부실공사의 복합적 관행을 근절시켜 나가도록 한다고 한다.

앞으로 10년동안 집을 지어야 할 택지가 1억2천만평 필요하고 기존 도시에 약 7배 정도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추산하고 있다.

수평적 요소의 한계성을 넘어 지하도시개발에 토지이용제도의 활성화 방안제시를 하지만 택지위 건축물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요구하는 대책과정에 따라 설계와 감리 연구를 전개하고 특히, 새로이 감리를 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튼튼히 다져야 할 입장이다.

감리란 무엇인가?

최근 우리들은 설계만큼 더 중요한 의미에서 많은 물음을 끌어내고 있다.

훌륭하게 건축되는 것은 설계와 감리역할도 중요하지만 건축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諸)규정을 알고 준수함으로써 비로소 건축된다고 할 수 있으며, 눈부시게 복잡화되는 건설환경에 우리들로서도 지금껏 감리역할이 그대로 방치되었던 것과 설계보다도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이제는 제2의 조형과 기술의 수단으로 위상을 옮기려하는 건축화의 꿈틀거림이 감리방향 설정 및 책임과 한계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20일 협회 강당에서 토론회를 가졌었다. 지난날을 반추해 볼 때 우리들은 감리 역할에 무관심으로 지내왔었고, 스스로의 감리 기술에 완전히

통달한 사람보다는 관심과 노력이 없는 방조자로서의 길을 걸어왔음이 사실이다. 때때로 우리는 감리를 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며, 그 이유는 아무 준비와 훈련이 없는 운동선수와 다를 바 없다.

노련한 사격선수의 금메달은 감독, 코치에 의해 피나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얻어지듯이 경험이 없는 우리들의 감리역할은 메달권밖에 있는 선수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번 토론회로 건축감리의 개념과 정의부터가 뚜렷하지 못하고 적절한 용어 난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볼 때, 그 책임과 한계의 명확한 설정을 논하기 이전 관계제도를 살펴보면,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련법, 종합건설업 면허제도법, 건설업법, 주택건설촉진법, 기타관련법,령 규칙 감리에 관한 직,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관련 제도를 통폐합하여 감리는 분명히 건축사의 고유의 업무라고 하는 독립된 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분명히 감리는 전문가가 아닌 재벌회사의 손에 맡겨진다면 건축문화는 어두운 영역으로 사라지고 인류의 역사과정의 시간과 공간은 커다란 파실과 와해로 나타날 것이며, 창조라는 흐름이 수시대를 거쳐 인간의 근원적 작업의 완전함과 풍부한 상상력이고 보면 건축행위는 우주심미에서 생명의 원천을 찾고 불가능의 속에 들어가 살을 깎고 수없는 투쟁으로 미지의 것이 진실과 현실로 나타날 때 창조의 수단으로 될 수 있는 것인데, 하나의 단순한 작업의 부속물로 생성되어질 때 그 의미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

분리감리는 감리자가 자기몫을 지키고 설계 따기 위한 온상화지대가 되었고, 전문 감리는 특정한 건축사의 울타리 확보를 위하여 21세기의 기업의 재원으로 축적을 삼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건축은 불합리한 작업들이 태연하게 표출되고 이미 건축감리의 한부분이 떨어져나가 건축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모든 감리의 공통대상으로 공감하지 못하여 우리에게 긴장감으로 위험한 상태로 좁아들고, 감리전문회사 소속 감리원들은 그 기법을 개발하고 결과로 나타난다고 볼 때 우리들은 준비 이전에 무책임한 탓으로만 볼 수 없는 수단이 아닐까 뜻하는 바이다.

나 아닌 우리의 경제적 고통이 일시적인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서도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큰 이익 즉, 나무보다는 숲을 위해 적은 것은 희생되어야 할 스스로의 탈바꿈이 필요한 오늘의 입장이다.

「무당도 혼자 굶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거대한 경제구조의 숲이라 할 감리가 회원간에 의견이 각기 다른 욕구로 중첩되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분열되고 있는 것이 한심스럽고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현대건축은 불합리한 작업들이 태연하게 표출되고 이미 건축감리의 한부분이 떨어져나가 건축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모든 감리의 공통대상으로 공감하지 못하여 우리에게 긴장감으로 위험한 상태로 좁아들고, 감리전문회사 소속 감리원들은 그 기법을 개발하고 결과로 나타난다고 볼 때 우리들은 준비 이전에 무책임한 탓으로만 볼 수 없는 수단이 아닐까 뜻하는 바이다.

나 아닌 우리의 경제적 고통이 일시적인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서도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큰 이익 즉, 나무보다는 숲을 위해 적은 것은 희생되어야 할 스스로의 탈바꿈이 필요한 오늘의 입장이다.

예컨대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자면, 첫째, 국내외 현대건축의 관계나 작가 작품을 계통적으로 수집하고 아울러 감리 및 감정관계자료 보급 둘째, 외국의 감리와 연관되는 법과 제도 규정을 수집하여 보급 셋째, 현대건축 흐름을 전망할 수 있는 교육적 내용을 계통적으로 보급 넷째, 학교 및 실무교육과 감리훈련 방안 대책으로 시공 전과정을 이해 못하고 현장감 결여로 미비한 교육적 내용을 보급 다섯째, 감리 경영 관리와 품질관리를 기능토록 유지관리업무를 보급 여섯째, 감리기록을 문서화하고 승인절차에 기술적 행정과제의 체계화를 보급 일곱째, 건설환경을 위한 현황과 대응에 관한 과제들을 계통적으로 보급한다.

아울러 감리기술개발 지원 방안으로 협회는 공인될 수

있는 가칭 감리품질관리기구(시험소), 감리교육훈련연구기구, 분쟁조정기구 등을 설치하고 자료와 기술보급에 앞장서야 되겠다. 편협된 이기심에 빠져 외부에서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겠지만, 생존권 차원에서 우리의 권익과 정당한 요구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용기가 협회차원에서 절실하다. 다행히 최근 정부관계자로부터 여건조성의 터를 만들어 주겠다는 언질이 있었고 만약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의 권리가 커진 만큼 책임감 또한 막중함을 알고 철저한 직업의식으로 무장해야겠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적당한 직업윤리를 주장한 반면 칼빈은 직업을 절대적 천직으로 여기는 주장을 하여 혁신적이긴 하였지만 오늘날 자본주의에 도전의 등장으로 다소 상반된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건축사의 직업이 고도의 기술과 숙련을 요하는 화이트 컬러로 불려질 때 건축사의 자격과 명예 그것은 공동생활로 합류할 때만이 비로소 지켜지는 것이라 여겨진다.

감리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건축사 자신이 설계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구조·미의 건축이념과 「출자」「관리」「운영」하는 삼위일체의 유일한 협동(Cooperation) 정신이다.

실크로드 탐방

A Report of the SilkRoad Inquiries

文震昊/(주)정림건축

by Mun, Jin-Ho



호텔발코니에서 내다본 우루무치 시내모습

우루무치행, 10월9일 4시5분

상해를 출발한 중국 신강항공공사 9512편에 우리 일행은 쿵지에(空姐) 즉 공중의 처녀(空中小姐)인 중국의 스튜어디스의 미모에 반해 쓸데없는 주문을 하는가 하면 통로를 오가는 모습에 눈을 붙이고 있는 사이 북경 공항에 도착하게 된다.

북경 여행에 대한 미련이 많지만 반시간 정도 대기한 뒤 재차 탑승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탑승교에 매달린 채 이 중국 국내선은 두시간여 동안 기내방송 한번 없이 요지부동이다. 우리 일행은 약간의 짜증과 불쾌소리가 연이었는데 중국인 여객의 '만만다이즘'은 실로 듣던대로였다.

이유인즉 탑승한 여객수가 수하물 체크인 숫자보다 적기때문이었다. 공중납치나 대만으로의 망명에 지친 항공사의 적절한 조치이긴 했으나 시간개념에 미숙한 중국인의 모습과 사회주의 체제이던 민중성이던간에 서두름없이 기다리는 여유를 엿볼 수 있는 경험이었다.

위그루어로 '우아한 목장'을 의미하는 우루무치는 인구 120만명의 대도시로 그 가운데 5%가 위그루족으로 구성되며, 나머지 13개의 소수민족이 섞여 살고 있다.

중국 전체의 1/6에 해당하는 160만km² 면적에 1,35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신강성의 중심도시이자 당대부터 서역의 도읍으로 번영한 우루무치는 실크로드 각 도시로의 출발기점으로 유명하다.

이 거대한 변방수도 우루무치의 광대한 목초지는 유목인들의 생활이 걸린 생명선이어서 이 신강고원의 옥토를 차지하기 위해 오랜 세월 치열한 투쟁이 벌어졌다.

원래 초원기후로 목축이 주산업이고 목축, 양모, 피혁이 생산, 교역되었으며, 람건설 이후 관개농업이 발달하여 농작물 생산이 급속히 증가했다. 더구나 시멘트, 화학, 주철, 강철, 자동차공업의 발달과 함께 신강성 최대의 공업도시가 되었다. 특히 인도, 파키스탄, 소련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방지역의 수도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천산천지, 10월10일 아침 7시

서른일곱된 호남형의 위그루족인 우메알짚씨가 우리 일행의 운전 기사역을 맡았다. 일본 HINO 버스가 처음 출고 되었을 때 자신이 직접 북경에서 차를 몰고오는데 12일이 걸렸다는 믿지못할 이야기는 중국대륙의 장대함을 새삼 실감하게 했다. 시내를 벗어나면서 차창으로 보이는 풍경은 이방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벽돌공장, 스파클러프 같은 PC를 제작하는 공장, 제철공장이 보이고 빨간 종이 리본을 부착한 혼인차량 행렬도 만나고 공교롭게도 선두차에 영정이 있고 뒤따른 차에는 하얀 종이 꽃을 매단 장례행렬과도 마주친다.

시장의 노점식당에서 아침을 해결하는 위그루인의 과한 눈빛과도 만나고 도심주변에서 근교농업을 하는 농부가 재배한 채소를 자전거에 싣고 시내시장으로 향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미루나무 같은 백양수가 좌우에 즐비하게 늘어선 포장도로를 지나면 산양, 여우 또는 야생 뱀이나 낙타가 산다는 사막의 고원을 만난다.



만년설이 덮힌 천산의 천지



천지주변의 몽고배오

천산의 천지가 가까와 오면서 개울
여기저기에 유목민의 빠오와 양떼가 흔하게
눈에 띈다. 기묘하게 생긴 암산 절벽을
지나 1,950m 산상에 있는 천지까지의 길은
굽이도는 가파른 언덕길이다. 천지는 해발
5,445m인 천산산맥의 주봉 보그다봉에
위치한 거대한 호수다.

이곳 사람들이 천제부인의 세숫대야라
믿는 면적이 3km², 수심이 최대 100m, 남북
길이는 4km 규모인 천지는 백두산의
화산작용과는 다른 빙하호수이다. 백두산에
관한 화보에 눈이 익은 우리 일행에게는
유람선의 관광도 그리 큰 감흥을 주지
않는듯 만년설을 배경한 천지의
아름다움보다는 추위를 잊고 배고픔을
달래려고 시작한 고량주를 곁들인 덕담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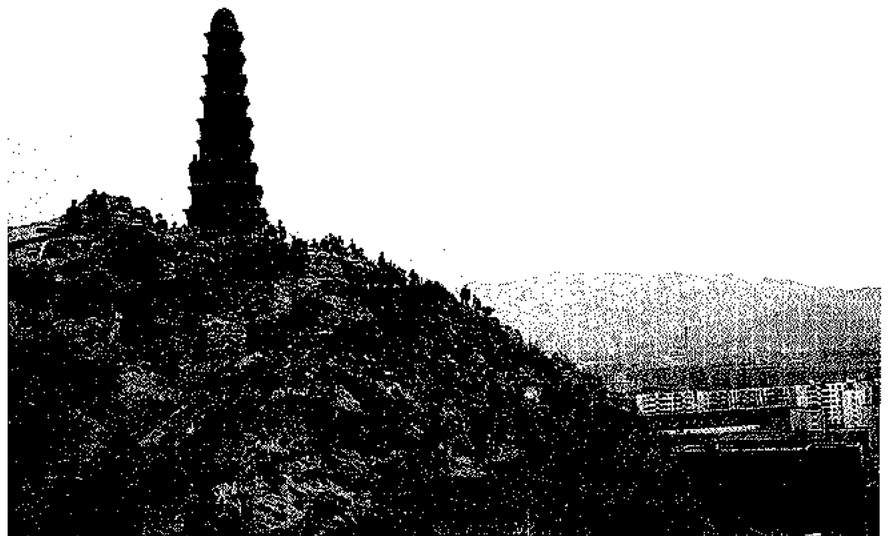
인민군 모자를 쓰고 말을 모는 몽고족의
호객 행위를 물리치고 유목민의 빠오를
구경하며 그들의 생활상 일부를 구경하게
된다. 빠오의 내부는 넓고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고, 바닥에는 융단이 깔려있고
펠트로 둘러싼 벽에도 장식용의 융단이
널려있으며 층상에 난로가 놓여 있다.

몽고 빠오는 그 자체가 이동성의
상징이라 할 정도로 매우 정교한
천막집이다. 한 빠오에는 한가족이
이용하며 가구도 그리 많지 않다.
조리기구는 장신구를 넣어 장으로도 쓰도록
이중으로 되고 화려하고 채색된 나무장속에
보관한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는
펠트와 약간의 목재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기준은 나무를 적게 이용하는 일과 말로
쉽게 운반하는 점이다.

나무로 된 팬토그래프(pantograph)는 매우
가볍고, 접으면 작아지고 펴면 원형으로
세워져 횡력에 대해 안정감을 갖는다.
지붕의 프레임도 고리에 서까래를 달아
간단히 펴서 벽 위에 놓을 수 있다.

빠오의 골격 위에는 최소한의 밧줄을
사용하여 펠트돛자리를 덮게 된다.
여름에는 한겹의 펠트와 잠베만 사용하지만
겨울에는 펠트층의 수가 8층까지도
늘어나며 빠오 하나를 반시간 정도면 세울
수 있다.

천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왕모냥냥의
무용담이 얹힌 홍산(紅山)공원에 잠시 들리
우루무치 시내를 내려다 보게 되었다.
우루무치가 원래 바다였는데, 그 속에 사는
용의 횡포가 심해 왕모냥냥은 천산의
천지로 물을 퍼서 보내고는 바닥에 드러난
용을 머리카락 하나를 뽑아 진압했다는
전용담이 우뚝 솟아 있다. 홍산공원
입구에서 회족 노점상이 파는 양고기
스시계밥의 맛도 일품이다.



우루무치시내의 홍산공원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는 시내 화천로에
있는 시장을 방문하여 양도살시장이나 낙타
매매시장도 돌아보고 과일시장에서는 포도,
수박 그리고 유명한 하미과를 시식할 수
있었다.

투루판, 10월11일 오전

옛부터 서역으로 물리던 신강위그루
자치구는 오아시스 여러 도시를 연결했던
동서교통로이다. 그 가운데서 천산산맥
남쪽 기슭에 사막으로 둘러싸인 분지
가운데의 오아시스 투루판은 당시 가장
번영하였던 숙소의 하나이고, 역사적인
유적과 출토된 많은 문물이 동서문화의
접점으로 번장해온 역사를 입증하고 있다.

이곳의 자연환경은 대단히 냉혹하여 비가
거의 없는 극도의 건조지대로서 여름의
평균기온은 섭씨 40℃를 넘고 지표의
온도는 70℃까지 오르는 중국제일의 엄열의
땅이다. 또한 겨울에는 영하 20℃에
모래섞인 찬바람이 휘몰아쳐 엄동의 땅으로
변한다.

일행이 탄 버스는 우루무치 시가지를
남쪽으로 빠져 천산산맥 기슭의 구룡지대로
접어들다. 지형은 갑자기 험준해지고
황량한 불모의 대지를 따라 도로는
구불구불 산 사이로 통한다. 양쪽 기슭에
버드나무가 무성한 청류 백양강을 따라가던
버스는 천산에서 불어내려오는 강풍이
산간을 통과하는 바람의 통로,
“노풍구(老風口)”에 이른다.

역에 멈춰서던 화차가 바람에 날려
쓰러진 경우도 있다는 강풍이 심하면
차량을 바람을 피웠다 간다고 한다. 먼
옛날 고비사막을 횡단해서 실크로드를 가던
대상들은 이 강풍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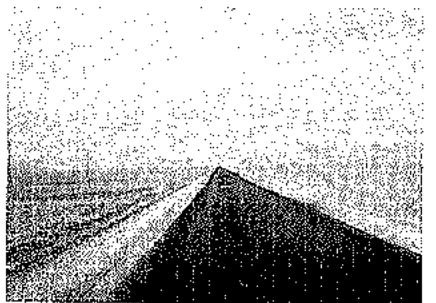
이윽고 차는 협도를 벗어나 주먹만한



몽고빠오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일행들



하이과를 파는 우루무치 과일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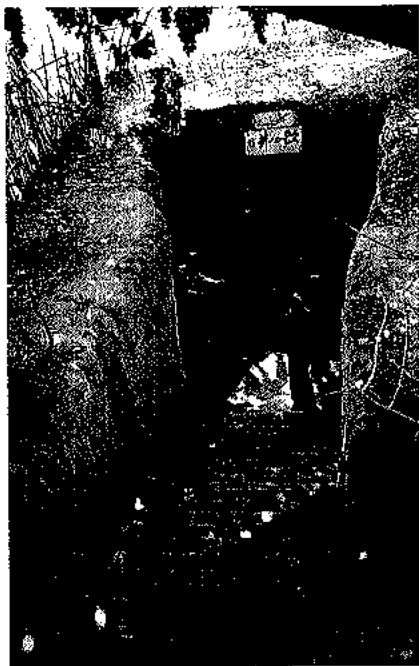
거대한 절구속으로 빨려드는 투루판 진입로



우루무치에서 투루판으로 가는 길목



지하수로의 단면 그림



지하수로의 입구

들이 깔린 자갈사막을 가로질러 투루판 분지가 시작된다.

투루판(吐魯番)이란 위그루어로 '파인 땅'이라는 의미로 중국에서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그중 바닥에 해당하는 애정호의 수면은 해면보다 154m나 낮고, 중동의 사해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낮은 곳이다.

투루판의 광대한 고비사막 분지로 질주하는 차는 저대한 절구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다.

칸아루친

길 좌우에는 파낸 흙이 쌓여 마치 달의 분화구같은 우물의 흔적이 산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눈 녹은 물이 풍부한 천산산맥의 기슭에서 20~30m 간격으로 단단한 줄을 파고 밑바닥을 배수를 위한 수로로 연결하여 투루판까지 물을 대는 칸아루친(坎兒井)이다.

칸아루친의 물은 투루판 취락의 끝에서 지표로 나오는데 벽돌로 덮인 수로를 따라 취락을 빠져나간 뒤 증발을 막기위해 심어진 포플라와 수양버들 사이를 지나 마지막으로 포도경지로 인도되어 녹색의 오아시스를 만들어 낸다. 투루판의 기반을 형성하는 도시의 생명선인 Infrastructure인 셈이다.

이 지하수로는 사람도 다닐 수 있도록 크게 고안되어 많은 양의 물이 풍부히 공급되게끔 하고 있다. 우리 일행이 본 칸아루친은 기념품을 파는 민가의 마당에 놓여있고 지하수로의 단면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단면그림이 준비되어 있었다. 일행은 위그루의 토산품을 기념으로 구입하고 천산의 만년설이 녹은 물맛도 보고 문밖의 아궁이에서 구운 토속음식인 난(NAN)도

사먹으며 민가를 빠져 나온다.

투루판은 포도의 도시이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 포도의 당도가 높고 일사량이 풍부하다. 도처가 포도밭이고 여기서 생산되는 포도의 반은 건포도로 만들어져 해외에 수출, 막대한 외화를 모은다. 우리는 일행의 덕으로 이 소문난 포도의 맛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하고성(交河古城)

넓은 포도밭을 따라 시내 서쪽 10km쯤 가면 '넷물이 교차하는 곳'에 30m가 되는 높다란 절벽을 만난다. 이 절벽은 전체가 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남쪽 1,600m, 동서 330m의 대지전체를 전흙 구조물로 구축한 것이 바로 교하고성이다. 교하고성은 20m의 절벽이 자연성벽을 이루고 있어서 따로 성벽을 하지 않아도 교하고성을 철옹의 요새로 구축하게 했다.

성문을 들어서면 벽돌길이 남북에 걸쳐 일직선으로 뚫려 있는지 길이 끝나는 곳에 광장과 거대한 사원지가 나오고 중앙은 궁실과 관청가·고급주택 남쪽은 일반주택가로 구성되어 있다.

광장 북쪽에 있는 중앙사원지는 인도식 사원형식으로 남북 80m, 동서 40m의 반형구조이고, 광장 좌우에는 승방이 들어서 있으며, 북쪽으로는 3층 기단위에 높이 7m의 거대한 방형탑이 구축되어 있다. 흙벽돌을 쌓아 만든 방형탑의 서쪽면에는 감실이 있고, 그 안에 소조물이 부조되어 있지만 이슬람교도에 의해 파괴되어 원형은 찾기가 어렵다.

일반서민의 주거지에는 담으로 구획된 폭 3~5m의 골목이 종횡으로 달리고 있고, 굴뚝, 아궁이, 우물 등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교하고성은 조각된 도시이다. 대개의 시가가 햇볕으로 말린 벽돌을 자연위에 쌓아올려 만드는데 비해 교하고성은 주저뽀 아니라 도로까지 위에서 파고들어가 만든 시가이다. 중앙의 사원 등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햇볕에 말린 벽돌이 아닌 자연의 흙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것이다.

교하고성 출구에서 산 건포도를 나눠먹으며 포도넝쿨로 터널을 만든 '포도의 거리'를 통해 시내를 벗어나 투루판역으로 향한다. 포도교역의 산지답게 도로의 양측에 대형관으로 마련한 중국개방정책 슬로건은 변모하는 중국의 한 단면을 읽게 하고 있다.

유원역, 10월12일 새벽 6시

여행의 풍미를 보태는 방법 가운데
교통수단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의
사막을 횡단하는 직행기차 침대칸에서 우리
일행은 여행의 초반을 함께한 교분을
나누며 삼삼오오 숨겨둔 안주에 교량주와
투투판산 포도주 파티를 벌린다.

해를 등지며 가던 기차가 낙조의 어둠을
가를 때 쯤에는 정취에 한껏 젖어 취기가
오른 탄성이 솟기도 하였다.

14시간의 아쉬운 기차여행을 마치고 내린
유원역의 새벽은 마중나온 관광버스의
기름냄새와 옷깃을 세우는 사막바람
뿐이었다. 유원역에서 돈황까지는 15km,
자동차로 2시간반 예정임을 전하는
운전기사의 말에 다시금 잠을 청하려
하여도 새벽 여명이 아름다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밤새 직쾌(直快) 기차로 달렸건만 보이는
사막의 모습은 제자리에 서 있는 듯한
풍경이니 이 망망한 사막은 인간의
크기로는 도저히 그 넓음을 견주어 볼 수가
없다.

버스안에서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온통
지평선뿐인 사막에는 아마도 외계인이
이곳에 떨어졌다가 돌아가면 지구는 온통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모래와 자갈로
버려진 곳이라 증언하였을 듯하다. 우리의
육안으로 마치 지구가 농글다는 사실을
확인할 듯한 끝없는 평원위에 새벽먹이를
찾아 나온 야생 사슴 한떼가 여명을 뒤로
하며 달리고 있다.

돈황

돈황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역사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한무제때이다. 그 이전의
하서는 한족 외에 대월씨, 소월씨, 강족,
홍노 등 여러 민족이 뒤섞여 사는
지대였으나, 점차 홍노가 강세가 되어 이
지대를 제압해서 한(漢) 왕조에 대한 일대
적대세력으로 등장한다. 무제는 위청,
곽지병과 같은 명장으로 하여금 홍노를
치게하고, 이 일대를 한의 세력하에 두어
서역경영과 대홍노 작전의 전선기지로써
하서사군(河西四郡-武威, 張掖, 酒泉,
敦煌)을 설치하게 된다.

순수한 군사기지로써 한대에 크게
변형했던 돈황은 그후 역사의 파장에 밀려
5세기초 서량과 북량의 고전에서
수공작전(水攻作戰)으로 인해 완전히
붕괴되어 지하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당(唐)시대에 이르러 장안에 서역호족의
문화가 범람해지고, 서역에의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군사기지가 되기 보다는



교하고성의 주택지

동서문화교류 또는 동서 무역의 중계지로서
다시 번영하게 된다.

돈황 박물관

일행이 묵은 絲路빈관에서 돈황의 대대로
돌아서 500여미터 남짓한 거리에 돈황
박물관이 있다. 막고굴과 돈황일대에서
발견된 다양한 출토품을 진열하는 곳이다.
때마침 돈황 한장성(漢長城)전을
개최중이어서 한나라 장성과 봉화,
2000년전 봉화대에서 사용된 갈대묶음 등
다양한 만리장성 수축당시의 유물을 접할
수 있었다. 한나라때의 문서, 대나무에
글을 적은 돈황漢簡, 견직물 등이 돈황의
전조한 기후 덕에 상당량 남아 있을 수
있어 실크로드의 신비를 한층 더해 주고
있었다.



교하고성의 사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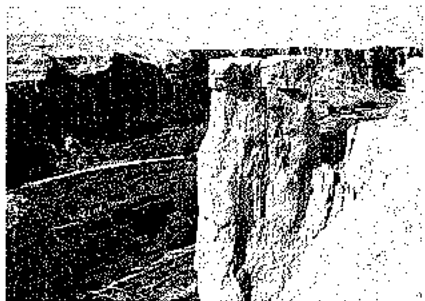
교하고성의 사원지내부의 우물

명사산

본격적인 돈황답사는 명사산(鳴沙山)과
월아천(月牙泉)을 찾아 나섬으로
시작되었다. 돈황 시내에서 4km 남짓 남으로
달리면 온통 모래로 이루어진 명사산이
펼쳐져 장관을 이룬다. 명사산은 남북으로
20km 동서로 40km 뻗어있고 평균높이는
200여 미터의 모래고원이다.

석양이 계절에 따라 달라 그때그때
보이는 모래의 색은 흑·백·홍·황·녹
다섯가지라 하며, 바람이 강하게 부는 때는
산에서 모래 무너져내리는 소리가 영락없는
천둥소리라 하여 명사산이라 불리운다는
설과 모래벌판에서 일전을 벌이던 진실속의
군대가 모래바람에 묻혀 죽어서 아직도 그
아래에서 울고 있다는 설 등 다양하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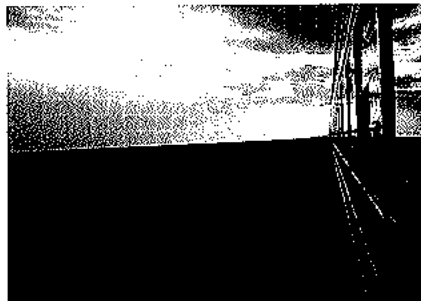
월아천 입구 매표소에는 관광객을



천연절벽으로 둘러싸인 교하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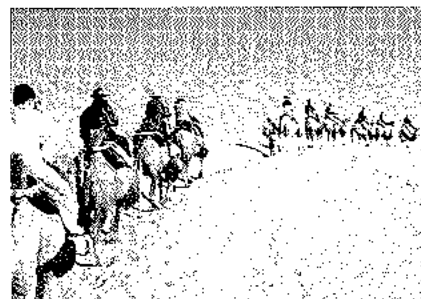
투루판 시내의 포도넝쿨터널



기차의 꼬리를 붙잡는 중앙아시아의 저녁노을



밤새 직궤열차로 달려도 한결같은 사막의 모습



실크를 뒤에 싣고 실크로드를 따라가는 현대판 카라반(?)

월아천까지 왕복으로 태워주는 낙타들이 대기하고 있어 고비사막의 이방인 마음을 들뜨게 하기에 충분하다. 1km 남짓한 거리를 가면서 실크로드 만리길을 낙타에 의지하여 왕래하던 순례승, 사절 그리고 카라반의 심정을 헤아려 본다.

낙조가 절정은 아니더라도 황금빛 모래산과 파란 하늘아래 한 조각 에머랄드처럼 반짝이는 초생달 모양의 월아천은 신비롭기만 하다.

청나라때는 주변에 무수한 정자가 놓여있고 도교사찰도 화려했다 하나 문화혁명 당시 모두 철거되고 한때는 물로 제거되었다 한다.

돈황사람들은 단오날 명사산에 올라 액을 막기위해 모래 미끄럼을 타는 풍습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몇몇 일행은 5원의 목재계단 사용료를 지불하고 모래언덕의 정상으로 향한다. 꺾이나 힘들게 오른 정상에서 넘여다본 명사산의 모습은 모래바람이 그려놓은 능선의 자유로운 곡선이 병풍처럼 펼쳐지는 대장관이다. 산등이 칼날같이 말로 밝으면 허물어지고 이내 바람이 불면 다른 모양의 능선을 만든다. '모래가 울리는 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얼굴을 때리는 모래바람의 소리가 사납게 들린다.

일행이 준비한 생수로 갈증을 채우면서 바라보는 북쪽의 돈황오아시스는 황망한 사막의 바다에 빛나는 동대외도 같았다. 경사진 모래산을 맨발로 뛰어내리는 경험또한 형언하기에 표현이 모자란 황홀경이다. 곤륜산의 도인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기분도 이러하리라.

막고굴, 10월13일 오전

돈황에서 동남쪽 25km 떨어진

막고굴(莫高窟) 가는 길은 모래바다와 자갈과 황토로 이어질 뿐이다. 우리의 해초스님이나 현장법사가 보았던 풍경도 이와 같으리라는 상상을 한다. 명사산의 동쪽 끝 단애가 보이는 골짜기로 들어서자 석굴의 천년신비를 간직하려는듯 무성한 백양나무 숲이 나타난다.

366년 낙준(樂尊)이라는 스님이 명사산에서 서광이 비친 것을 보고 굴을 뚫기 시작한 이래 북위, 수, 당을 거치면서 1천여개의 굴을 개착, 서역불교의 성지로 널리 알려지게 된다. 1천여개의 굴 가운데 현재는 492개의 굴만이 어느정도 체모습을 갖고 있다.

돈황석굴은 왕모래가 진흙 등과 섞여 이루어진 역암(礫岩)이어서 불상을 조각할 수도 없고 그림을 그릴 수도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벽에 흙을 발라 벽화를 그리고 강바닥에서 채취한 흙을 이겨 불상을 조성했다. 흙으로 된 소상은 나무 골재에 풀새끼를 묶고 강바닥에 침전된 고운 점토를 삼베나 모래 등과 섞어 형상을 만들고 이 위에 백토로 마감한 뒤 색채나 금박을 입혀 아름다운 채소(彩塑)를 만든다. 이들 소조작품은 현재 2,415구가 현존하는데 자연파손된 것과 도굴해간 것까지 합치면 가히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렵다.

돈황의 벽화는 다종다양한 내용과 풍부한 양, 뛰어난 회화성 등에서 세계미술 사상 경이의 대상이 된다. 전 석굴의 벽면을 현란하고 호화롭게 장식한 불화의 신비는 직접 보지 않고서는 그 아름답고 신비한 세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소상이나 벽화에 관한 상술보다는 석굴의 건축적인 특징에 관해 설명하기로 하겠다.

실제 돈황석굴하면 3곳의 석굴을 총칭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막고굴로 감숙성 돈황현에서 남쪽으로 25리의 명사산 동쪽 기슭에 있으며, 492개의 현존 석굴을 가지고 있고, 두번째가 천불동으로 16개의 동굴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38개의 동굴이 있는 유림굴로 막고굴에서 100리 가량 떨어져 있다.

돈황성굴은 채색벽화와 니소상 형식인데 이는 돈황의 석질이 조각에 부적합하고 내구성이 없기 때문이다.

돈황벽화의 주요내용은 불보살과 공양인상, 각종 불교고사, 불경에 근거한 불타의 활동 모습을 비롯한 도인상이 있다. 벽화의 채색은 북위의 것은 청, 옥 등 한색이 많아 차가운 느낌이고 당대의 것은 적색에 치우쳐 따뜻하다.

건축적인 내용은 불사, 성곽, 궁궐, 탑,

주택을 비롯하여 감옥, 묘, 읍집, 교량 등으로 다양하고, 세부별로도 기단과 난간, 담장, 창호, 두공과 지붕장식 등의 표현이 뚜렷하여 실제 건물이 남아 있지 않은 당 이전의 건축양식을 엿볼 수 있어 건축사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동굴형식은 대부분 석굴이 전실 앞면에 돌기둥을 세우는 것과 달리 돈황석굴의 경우에는 석질이 좋지 않아 돌기둥을 두지 않았다. 동굴의 전실은 인간세계에서 불타게로 들어가는 매개공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실의 양식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돈황석굴의 주실 형식은 대략 6종류로 나누어지나, 이중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중심탑주식, 복두식, 배병식의 세 종류이다.

중심탑주식은 복조의 전형적인 동굴형식으로 면적이 대략 50평방미터 내외인 큰 동굴에서 사용된다. 이 형식의 가장 큰 특징은 주실의 중심기둥과 주실입구쪽의 인자형(人字形) 천정에 있다.

평면은 장방형이고 대략 3등분하여 안쪽으로 1/3지점에 탑주를 세우고, 네면에는 불상 및 감실을 두며, 출입구쪽에서 1/3지점은 인자형 천장을 둔다. 좌우 양쪽벽에도 감실을 둔다.

복두식 굴은 평면이 방형이고 복두형의 천장을 구성하며 중심탑이 없고 후벽에 대형감실을 둔 것이 특징이다. 복두식 굴은 수·당의 기본적인 동굴형식으로 수·당 이후에는 전실 앞으로 긴 복두형의 전로를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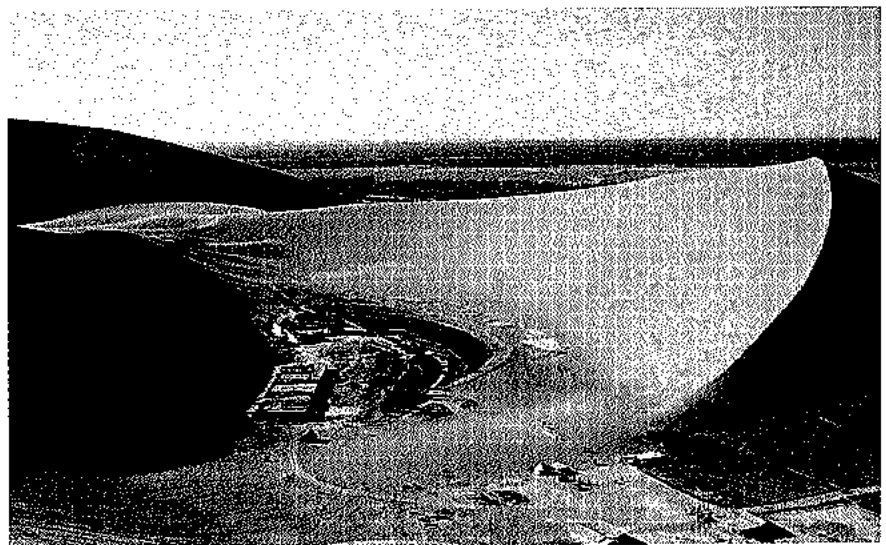
중국 초기 사원의 배치형식에는 탑을 중심으로 한 것과 불전을 중심으로 한 것이 있는데 수·당 이후에는 후자가 유행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중심탑주식 동굴과 복두식 동굴은 사찰배치양식의 축영이라 할 수 있다.

배병식은 복두식과 유사한 동굴형식으로 평면이 방형이고 복두천장으로 구성한다. 배병식과 복두식 굴을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은 배병에 있다. 배병은 굴을 팔 때에 뒤쪽에 연해서 석벽을 남기고 굴착하는데 이 석벽은 천장에까지 이른다. 두께는 약 1m, 폭은 4m 이상으로 이 석벽 앞에 주존을 모시고 석벽을 배병이라 칭한다.

배병식 동굴 양식은 복두식의 발전 형태로 배병은 불전중의 불단 뒷부분을 천장까지 벽으로 막아 그 앞에 불상을 모신 형태와 같다.

양관

한대의 서역사(西域史)의 화려한 무대에 옥문관과 함께 등장하는 양관(陽關)으로



명사산으로 둘러싸인 초생달 모양의 월아전

향한다. 서역으로 통하는 중요한 문인 옥문관은 서역북로, 양관은 서역남로의 기점이다. 시대가 흘러 당대(唐代)에 이르러 옥문관은 돈황의 동쪽으로 옮겨가고 양관은 당대 동서무역의 현관역할을 맡으면서 번창하게 된다.

농장이 있는 오아시스지대를 지나니 멀리 모래언덕위에 봉화대가 있다. 한나라부터 양나라때까지 전투지휘소로 사용되었던 양관은 황량한 사막속에 묻혀 특별한 유적하나 찾을 길 없으나 눈아래 망망한 모래바다가 구름으로 물결치는 어느 한 곳에 양관지(陽關止)가 놓였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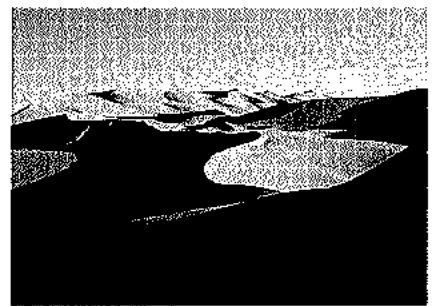
오아시스로 돌아오는 길에 한족의 민가를 방문하게 된다. ㄷ자형식을 도로에 면한 담으로 폐쇄한 이곳에는 외부에 면한 창은 하나도 없고, 중정쪽으로 모든 개구부가 열려있고, 창고와 부엌에는 천장이 마련되어 있다. 할아버지내외와 장자내외 그리고 친진한 손자가 살고 있는 3세대 1가구 5식구의 구성이다.

보리와 과일 재배가 생업이고, 3년전 자신의 주택을 신축할 당시 2,000元정도 경비가 소요되었다는 설명을 보태는 순박한 표정의 노인을 카메라에 담으며 작별의 인사를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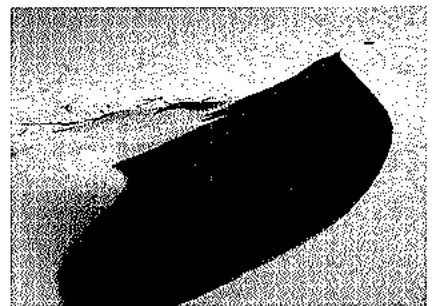
백마담

하루를 마감하며 돈황관광 중심에서 저녁식사를 하러가는 길목에 백마담을 구경하게 된다.

5세기초 쿠차의 고승 무마라습이 인도에서 장안으로 돌아오던 길에 경전을 실은 백마가 돈황에서 병사하게 되고, 이를 기념하여 12m의 9층 전탑을 축조하는데, 이 탑이 바로 백마담이다. 간다라 후기 양식을 이어받은 이 탑은 황량한 사막을



병풍처럼 펼쳐지는 명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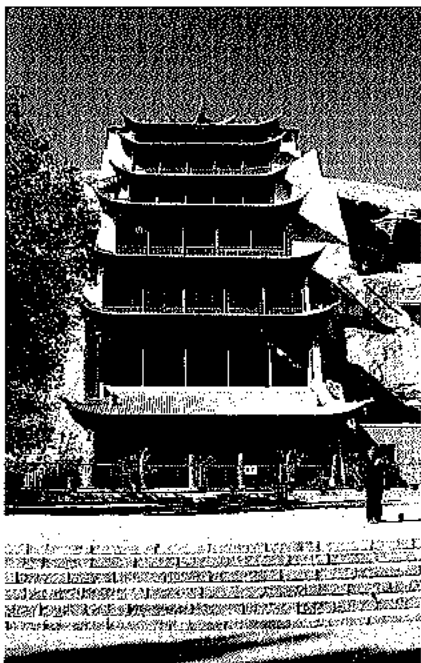
바람이 만들어낸 명사산의 모래능선



돈황 막고굴



돈황 막고굴



돈황 막고굴



양관지의 모습은 사막에 어느곳에 묻혀 있으리라

배경으로 높이 서있어 불교문화의 전파를 기념하는 상징이 되고 있다. 탑 주변에는 모래바람이 세고 발에 붙여놓은 염소, 양떼를 돌보는 촌로의 한가한 모습과 입구에 줄지어선 기념품상의 분주한 상흔은 짝이나 대조적이다.

서안공항, 12월14일 오후 7시

중국문화의 발원지이며 동방문화의 발원지인 황하가 만들어낸 황토고원, 그 내륙 깊숙한 곳, 외침이 없어 중국의 옛문화를 가장 잘 보관한 곳, 동양과 서양의 문화교류의 통로인 실크로드의 시발점, 세계 8대 기적의 하나라고 자랑하는 진시황 병마용이 있는 곳, 서유기의 주인공인 현장법사가 인도에서 불경을 가져와 번역사업을 주관하던 대안탑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우리에게 오히려 장안(長安)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고도 서안이다.

장안은 원래 한대(漢代)의 수도였고 6세기말 중국을 재통일한 수(隋)에 들어와 남쪽으로 이전하여 다시 건설되어 당의 융성과 함께 당의 수도로서 크게 번성하였다. 변방민족의 침입을 막으려는 실제적 목적과 통일국가의 중심이라는 상징적 기능의 반영으로 이상도시를 세운 것이다.

방위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성문은 각기 3개씩 12개를 두고 사적단과 종묘도 남북축에 맞게 배치하였다. 중앙의 주작대로(朱雀大路)는 남문까지 연결되어 이를 중심으로 남북가로 11개, 동서가로 14개가 격자형으로 방(坊)을 형성하였다. 기능적으로는 도시 중앙과 북쪽에 관아지구, 동서 양쪽에 동서시장, 성과 대로에 의해 분리된 주변의 주거지역으로

나뉘어 상류층이 동구에 살고 서민이나 서역인같은 하류층은 서구에 거주했다. 특히 실크로드 길을 왕래하던 교역은 주로 서시(西市)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서시는 실크로드 무역상으로 몹시 번성하였다.

대도장안의 번영도 안록산의 난에 이어 당말기의 농민전쟁과 군벌의 발호로 황도로서의 기능이 사라지고 신성(新城, 907~1368)을 정비하여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한다. 오늘날의 서안성은 명나라때 수축(1368)된 것을 기본으로 약간의 손질이 가해진 상태이다.

진시황 병마용, 12월15일 오전 8시20분

진시황 병마용 박물관은 동서길이 230m 남북너비 62m가 되는 거대한 규모에 지표에서 4.5m 깊이에 11개의 갱이 세로로 줄지어 6천여구의 도용(陶俑)과 도마(陶馬)를 정연하게 배치하고 있다. 앞 3열은 보병선봉, 다음 9열 32열은 보병과 전차가 엮여 배치된 본진이고, 좌우와 후열이 있어 양익과 후진을 이루는데 당시 진시황의 근위군단 편성을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다.

우선 방대한 수량과 정연한 구도에 압도당할 뿐 아니라 실물대 내지 실물대보다 약간 큰 도제, 청동 또는 복제의 각종 용(俑)이나 말, 전차 조각의 사실성에 아연하게 된다. 또한 당시 진나라 군사들의 인종적 특징까지 사실적으로 포착하여 거의 원형에 가깝게 묘사함으로써 감동을 일으키고 있다.

당시 부하나 노비, 말 자체를 생매장하는 순장제도가 불가능하여 대신 용(俑)을 이용하게 되자 실제형상에 가까울수록 순장과 같은 효과가 있으리라는 믿음이 이처럼 생동감 있는 도용과 도마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으리라 생각된다.

현지 안내자가 전하는 병마용 발견과정은 조직적인 조사가 아니라 우연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74년 5월 서안 임동현 서양촌 옥수수밭에서 농업용 우물을 파던 양배언이라는 농부에 의해 토기파편같이 도용을 찾아낸 것이 세계적인 유물발견의 계기가 되었다.

진시황 병마용 박물관 우측 별관에서는 모택동 탄신 100주년 기념전이 매마침 한창이었다.

1893년에 태어나 1976년 83세에 파킨슨씨 병으로 사망한 모택동은 오는 12월26일로 탄생 1백주년을 맞는다. 요즘 중국대륙 곳곳에 「모택동 열풍」이 불어 초상화가 넘치고 관광지마다 모택동의 얼굴이 새겨진 배지가 불티나게 팔리는가 하면 T-셔츠의

인물로도 등장하며 심지어 차안 백미러에 부적처럼 달고 다니는 추주차(出租車·택시) 기사도 많다고 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하는 중국인들이 모택동의 얼굴까지 훌륭한 상품으로 활용하는 상흔에 이상한 아이러니를 느끼게 된다.

진시황릉 주변의 길가에 석류나무밭이 줄지어 선 것이 인상적인데 장안 일대는 석류농사가 유명하며 그 가운데 신석류는 한약 약재로 활용되며, 단석류는 식용이나 장식용으로 사용된다 한다. 한나라의 장군이 서역을 개척하고 실크로드를 따라 가져왔다는 석류는 양귀비도 껍이나 즐겼다 한다.

중국사람들은 미인의 조건으로 작은 입을 내세우는데 양귀비의 입이 하도 작아서 석류를 세워서 먹지 못하고 눌려서 막을 정도였다는 현지 안내인의 믿지 못할 이야기가 일행의 실소를 자아냈다.

화청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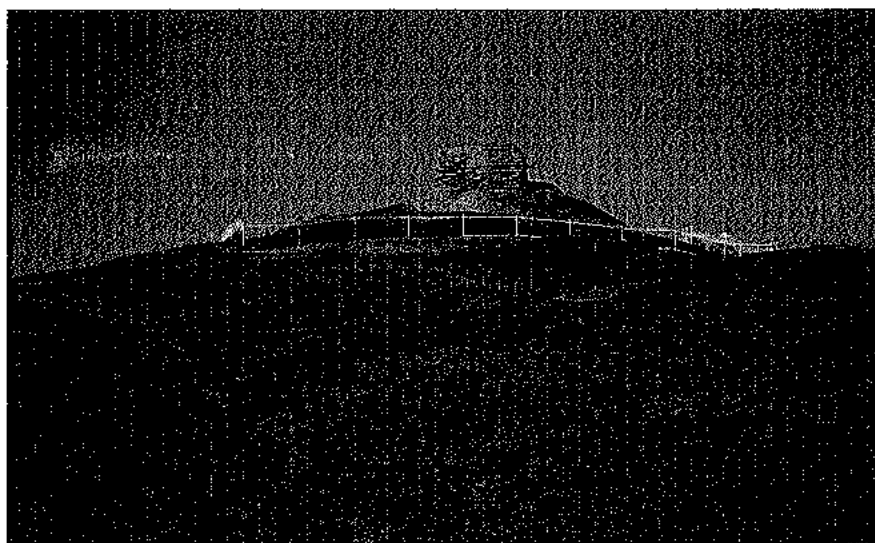
서안에서 25km 떨어진 여산 산록의 온천지인 화청지는 역대 제왕의 이궁으로 휴양하던 곳이며, 당 현종과 양귀비가 사랑을 나누던 장소로 인구에 회자되던 유명한 곳이다.

땅아래 솟는 온천물로 사과꽃 모양의 옥조를 채워서 용뇌향을 피우고 옥으로 된 용과 물고기를 만들어 떠나나게 하고서는 숙취로 게걸대는 시인 이백을 불러다가 양귀비의 浴身을 보이고 찬미하는 시를 짓게했던 현장이 바로 이곳이고, 공산군을 토벌하고자 서안에 주둔하고 있던 장학량이 전승을 독려하기 위해 남경에서 서안으로 와 오간가(五間家)에 머물던 장개석을 감춤편으로 야반도주한 장개석을 감금하여 국공(國共)내전의 종식을 요구했던 서안사변의 현장도 바로 이곳이다.

서안공군 요양원

화청지에서 비림으로 가는 길목에 예정에 없이 현지 가이드의 예정된 즉흥에 의해 따라간 서안공군 요양원에서는 전통적으로 개발한 9가지 한약에 대한 소개에 이어 판매가 이루어졌다.

220v를 기공의 힘으로 30v 이내로 낮출 수 있는 전기기공에 의해 디스크, 관절의 치료를 돕는다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천연 약재의 치료 등 다양한 한약제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신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한국여행객의 핫점을 잘 적중하고



양관의 봉화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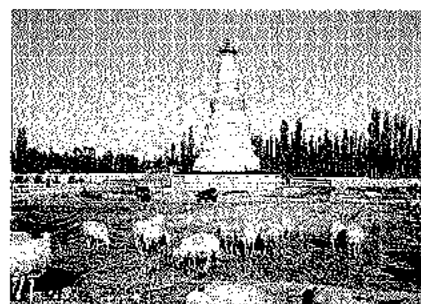
그 옛날 당나라때 당장에 약값이 없는 어려운 이에게는 차용증만 받고 약을 지어주던 송청(宋淸)이라는 약제사가 명성을 날리던 장안에서 한날 장사치와 같은 약사를 만나는 유쾌하지 않은 경험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비림

고색창연한 섬서성 박물관은 서안문묘(西安文廟)였는데 당·송이래 전래되는 석비(石碑)나 법첩을 집대성해 놓으면서 박물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송나라 여대종이 당의 개성석경이 유실되는 것을 염려하여 문묘뒤에 옮겨 놓고, 현종이 어주한 효경비와 안진경, 구양순, 저수량 같은 역대 저명한 서예가들이 쓴 석비를 모아 비의 숲을 이루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름도 비림(碑林)이다. 중국 서예사 연구에 막중한 보고 구실을 하는 이곳은 모두 6실로 이루어져 1실은 개성석경(開成石經)이, 2실에는 구양순, 구양통, 저수량, 안진경 등 당대의 서예대가의 걸작이, 3실에는 역대서체를 대표하는 작품이 4실에는 송·청대의 선각의 탁본이 5,6실은 송 이후의 비석들이 각각 전시되어 있다.

상해

‘바다위에 건설된 도시’ 상해는 당·송시대에 바닷가 개펄위에 건설되기 시작했다. 17, 18세기에 들어 세계적인 비단 교역항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무역의 중심도시로 변성하기 시작하며, 19세기 초에는 인구 5만의 대도시로 커지면서 대륙의 최대수출 항구로 떠오른다.



백마탄



양귀비와 당현종의 사랑의 현장, 화청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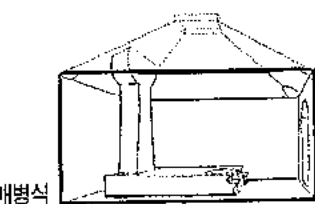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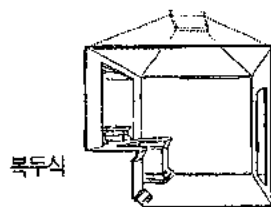
비림



무희 가운데 어울려 춤을 추는 이가 안록산이다



비림



동원막고굴 동굴형식

이후 상해는 서양 제국 열강의 중국 침략 중심이 되면서 역설적이지만 더욱 번성하게 된다. 인구 1,300만의 도시, 세계에서 다섯번째가는 도시 상해는 중국의 경제적 만행으로 소수민족의 번방을 지원할 뿐 아니라 '북경이 수도지만 상해사람이 번 돈으로 먹여 살리는 도시가 북경'이라는 자존심이 팽배한 곳이다.

황포강 제방을 따라 동쪽으로 황포강에 면하고 서쪽으로는 상해시 인민정부 청사를 비롯한 대형 건물이 늘어선 와이탄(外灘)은 상해의 정치, 경제 중심지라 할 수 있는 곳이다.

1840년 아편전쟁의 결과 개방된 와이탄 일대는 외국의 조계(租界)가 되어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소련 등 열강의 각종 건물이 당시 서양의 북고주의 양식을 따라 다양하게 들어서게 된다.

이곳에서 건너다보이는 포동지구는 포동개발계획을 통해 50년 잡에서 깨어나 20년대의 와이탄의 영화를 되찾기 위해 대규모 현대 도시계획이 진행중이다.

이곳은 대형의자 건물이 유치되어 마치 미국 달라스나 휴스턴을 연상시키는 메갈로매니아(초거대주의) 증세가 두드러진다.

성장 우선주의가 우세한 작금의 상황에서 대형개발 수요가 많은 것은 당연하나 과연 중국의 경제규모, 기술력, 사회수준이 포용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추진되어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다.

이러한 메가개발의 배경에도 나름대로 당위성이 찾아질 수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수요급증과 중국정부의 정치적인 과시욕, 그리고 중국 특유의 저대성향이라 하겠다.

상해시의 도시계획설계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각종 신규 메가프로젝트는 해외의 유명 건축가를 유치하여 프로모션의 수단으로 삼는 전략을 펴면서도 북고주의적 전통주의가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계림에 가면 산봉우리만 보이고 상해에는 사람의 머리만 보인다는 말을 듣는다. 상해의 엄청난 인구를 표현하는 말이다. 상해시 정부공식 통계에 의하면 상주인구는 1,350만, 유동인구까지 합치면 1,800만에 달한다.

1992년초 등소평의 남순강화(南巡講話)에 따른 개혁 개방조치의 가속화로 상해의 경제발전이 강화되면서 내륙지방 인구의 급속한 인구유입이 늘고 있다. 인구의 과밀현상은 동시에 심각한 교통체증의 문제를 초래한다. 북경이 가로, 세로 반듯한 계획 교통망을 갖는데 비해 상해는 좁고 구불구불한 옛도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이같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상해시 정부는 고속도로와 시내외곽을 연결하는 순환도로의 건설, 포동지구 개발을 통한 포서인구의 분산책과 95년 전면개통 예정인 지하철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내 중심부에 대해서는 강제적 차량 홀·짝 운행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에서 온 일행의 눈에 비친 상해의 교통문제는 우선 교통안전이나 질서에 대한 교육이 결여되어 있고 좁은 시내도로내의 무분별한 주차관행이 큰 문제이며, 또한 파도처럼 밀리는 자전거의 물결 또한 체증의 원인이라는 판단이 선다.

모택동 복(服)에 인민보를 쓴 라오바이싱(老百姓)들이 자전거로 통행하는 모습을 상상하였는데 상해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은 형형색색의 다양한 의상패션이 활개를 치며 그 가운데 짧은 미니스커트 차림에 검은 선글라스를 쓴 미녀들이 자전거 곡예를 보이는 장면이다. '너를 홀리는 치마(迷你裙)'라며 문화적 악의로 표현되던 미니스커트는 개방바람의 속도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현상인 듯 하다.

임시정부청사, 10월16일 오전

임정청사는 상해 이곳저곳을 옮겨다녔으며, 현재 우리가 임정청사로 알고 있는 곳은 프랑스 조계지(租界地)내 마당로에 있는 3층짜리 벽돌 건물로 1926년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었던 1932년 직후까지 청사로 사용하였다. 그동안 일반 주택으로 사용되어 퇴락한 것을 삼성물산에서 1년6개월에 걸쳐 20만불의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해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해 원형의 모습을 복원하였다.

1층에는 전정을 지나 회의실, 계단실, 부엌이 3.5m 폭이 16m 정도의 깊이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앞뒤로 골목에 면하고 있다.

2층에는 계단실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두개의 집무실이 있으며, 배자난층에는 윤봉길, 이봉창 의사의 거사와 관련된 사진이나 친필편지 등이 소개된 전시실이 있으며, 3층에는 요인의 숙소가 있으며, 계단실은 천장을 형성하여 옥상으로 연결되어 있다.

청사는 중국측에서 관리소와 참관 접대실을 마련하고 조선어를 구사하는 중국인을 고용하여 관리하고 방문객의 입장료와 성금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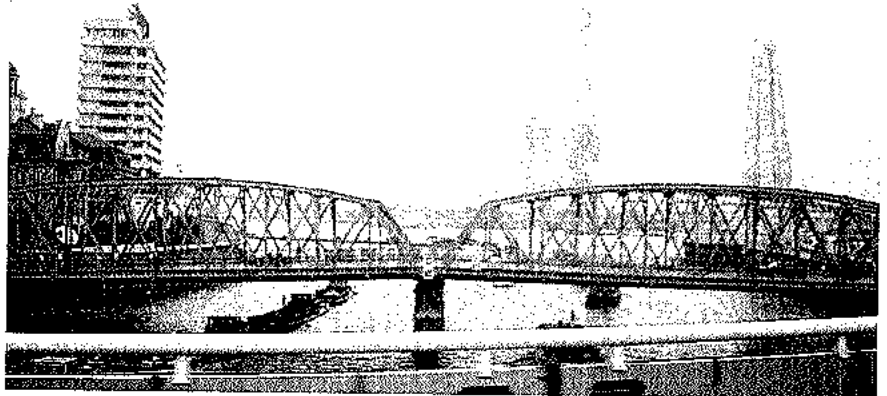
시장 경제로의 개방이후 두자리 숫자에 이르는 급속도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각종 산업의 기술수준도 날로 향상하고 있다. 상해의 종교경제특구나 포도지구개발에서 공사중인 각종 대형프로젝트의 현장과 함께 아직도 손작업에 의존하는 전 근대적인 건축공사가 동시에 상존하는 모습은 중국이 갖는 양면성의 한 단면이라 하겠다.

건축현장에는 중장비를 찾기가 쉽지 않고 값싼 노동력에 의존한 수작업이 많으며, 비계공사는 목재나 대나무의 사용이 대부분이고 소규모 도시의 경우는 토공사에 나뉘어, 수레를 이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중국의 철사발에게 제약제를 시행하려는 위협이 다가오는 '사회주의 개방정책'은 많은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몰고 온다. 개체화가 되기 위해 대도시로 몰려드는 인구집중으로 인해 도시 주거문제가 대두되며 교통수단의 빈곤이나 도로율의 저하로 교통체증의 문제도 날로 심화되고 있다.

상·하수도 보급과 같은 위생문제도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상해의 아침은 마통 썰는 소리로 시작한다고 할 정도로 오·배수 개념이 부족한 형편이다. 석탄의 연료사용이 전체 에너지원의 70%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말하듯 서울의 대기오염에 익숙한 일행이 경험한 중국의 오염정도는 심각하다 하겠다. 다른 선진, 선발국가가 10년, 20년 전에 겪었던 도시문제, 오염문제, 인구, 공직부조리, 부동산투기 등 사회 각분야의 문제가 지금 산업화에 박차를 가한 중국에 동시 상영되는 것이다.

실크로드 기행을 하면서 새삼 피부로 실감하는 특징은 아마도 대륙의 광대함이 우선일 것이다. 밤새 기차로 달려도 끝이



포동개발현장

나지 않는 사막의 두려움이나 양판의 봉화대에서 소리쳐본 광야의 절규, 현대의 교통수단으로 지구의 어느 구석을 하루의 생활권으로 좁히는 우리를 당황하게 한다. 또한 이 너른 대륙에 56개나 되는 다양한 민족이 각자의 문화와 관습을 유지하면서 한나라의 체제속에 머무르는 정중동의 신비를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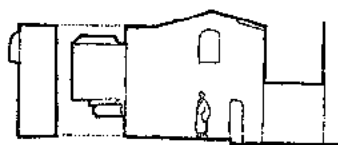
투루판의 고창고성이나 돈황의 가곡과 서안 거르부구의 야오동 등 가까이 갔음에도 기회를 갖지 못한 곳이나 그밖에 가보지 못한 헤아릴 수 없는 역사현장의 신비를 뒤로 한채 7박8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낙타 등에 자신의 몸을 의지하여 황망한 대륙속에 험난한 기후를 뚫고 각양각색의 이방인과의 교역을 마치고 돌아온 카라반의 심정을 헤아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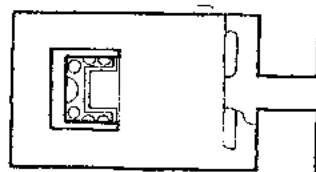
상해 임시정부청사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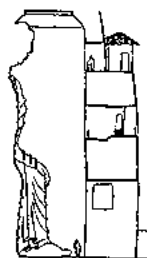
공군휴양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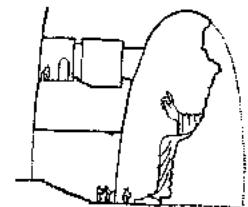
북위 제259굴



제263굴 북위때 개착되어 당말기 개축함



당초중기 제130굴



유림굴 송대 제6굴



대불굴

강동구 의회 의사당

강동구청에서는 구의회 의사당의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표상화 하고 강동구민을 위한 집회, 관람, 예식 및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주변 도시환경과의 조화 및 관리운영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동구 의회 의사당 현상공모를 실시하였다.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이번 현상공모에서는 총 12개 작품이 응모를 하여 그중 예·지·인종합건축(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투시도



당선작

대지위치 / 강동구 명일동 305-45번지

대지면적 / 1,851.90㎡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4층 미관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아파트 지구

규모 / 지하 2층, 지상 6층

건축면적 / 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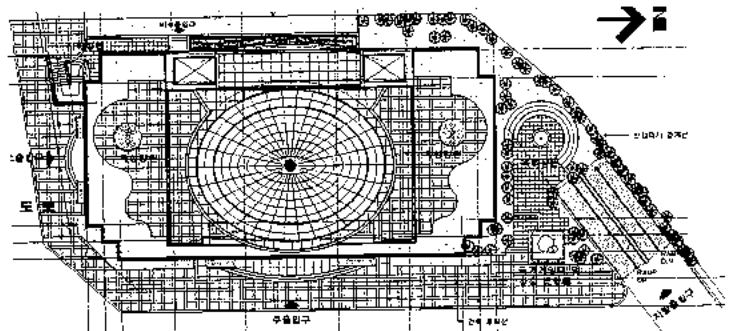
연면적 / 5,787㎡

건폐율 / 4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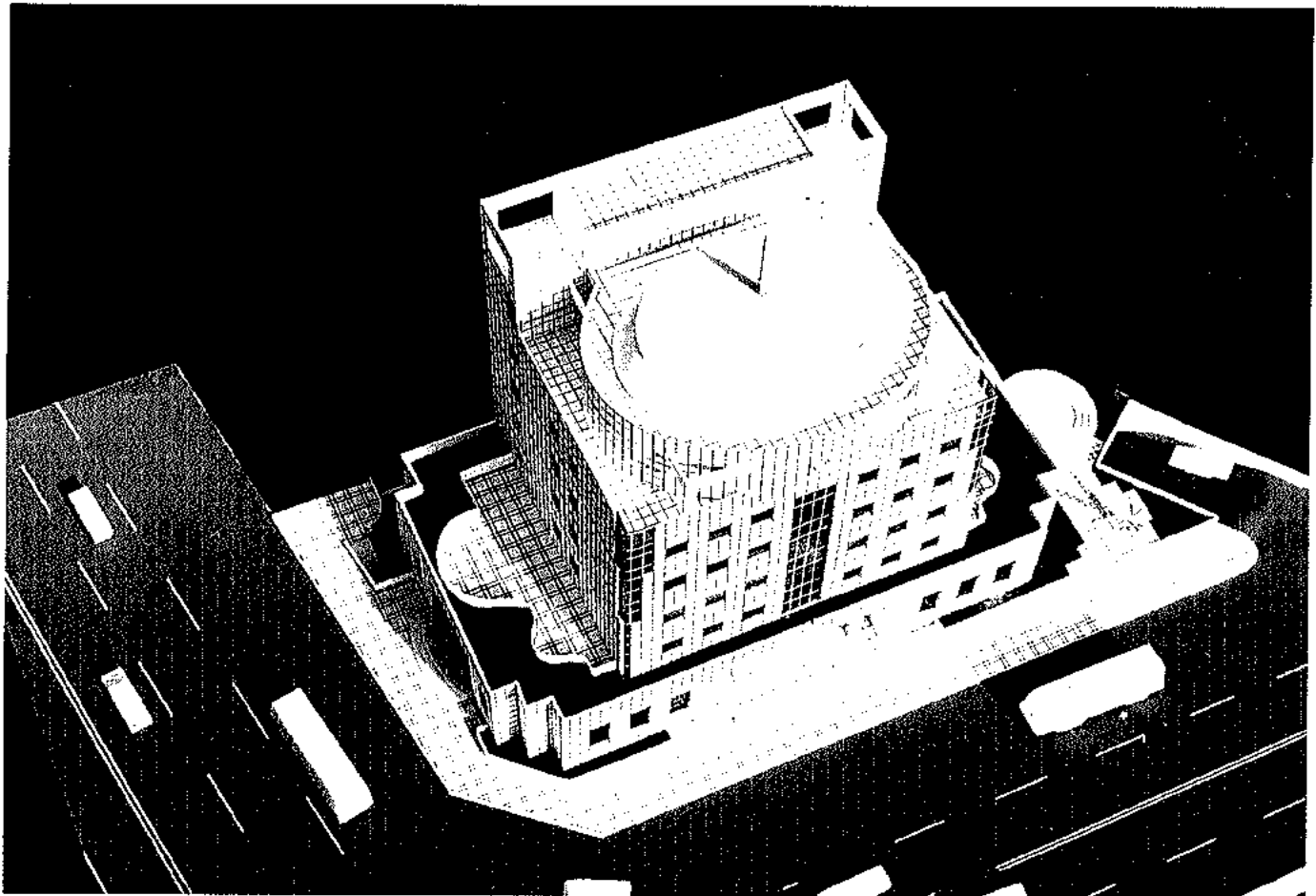
용적률 / 177.82%

주차대수 / 계획 62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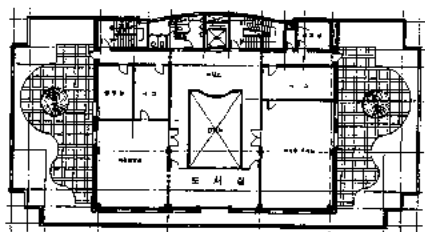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경량철골 트러스조(최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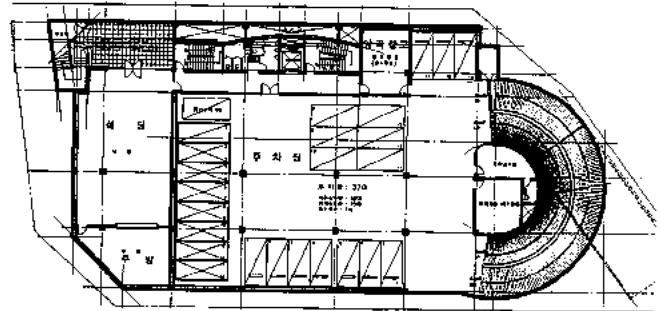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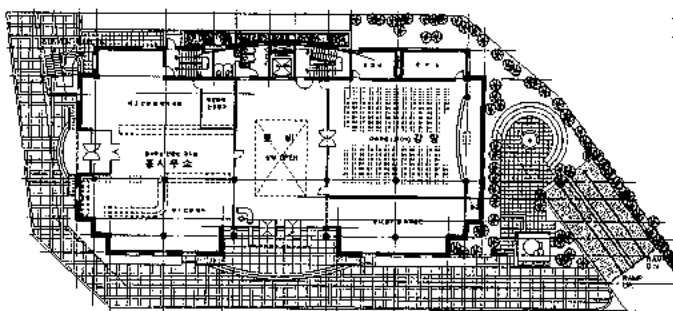
모형도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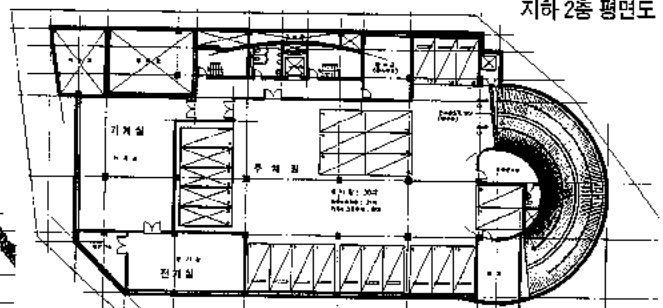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지하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 계획의 목적

- 구의회 의사당의 미래지향적 이미지 표상화
- 건축공간 활용의 극대화
- 주변 도시환경과의 조화 및 적응

• 관리운영의 용이성 확보

■ 계획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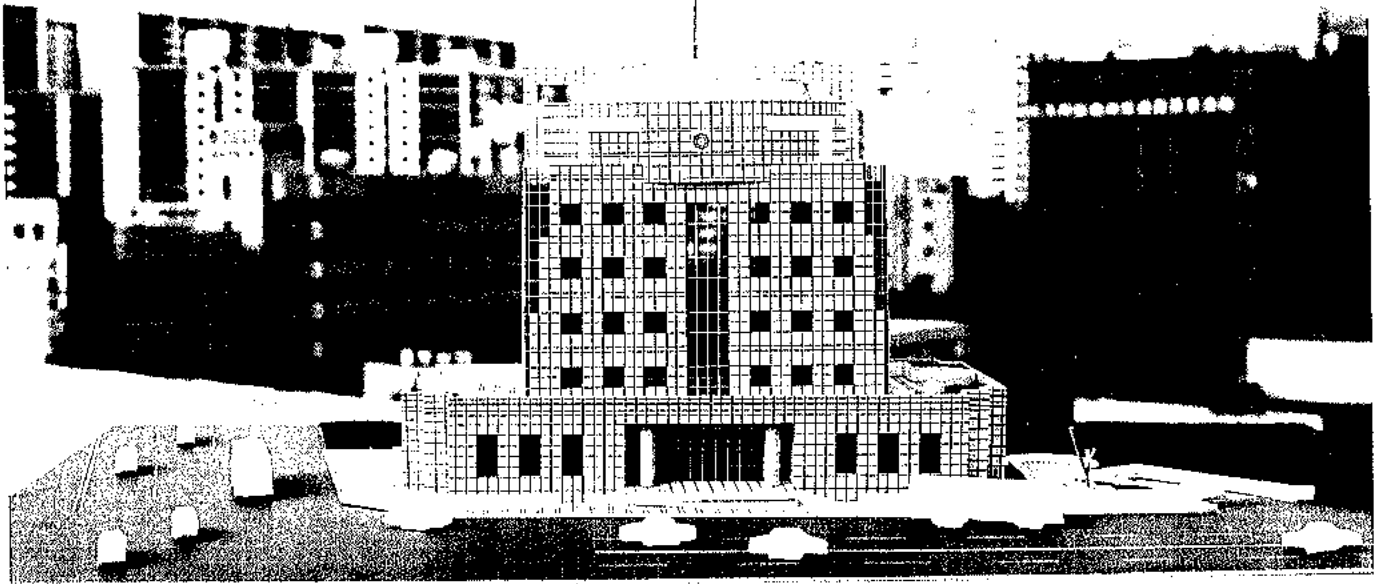
- 구의회 의사당 건물의 상징성 창출
- 구민 의정 활동의 장소성 확보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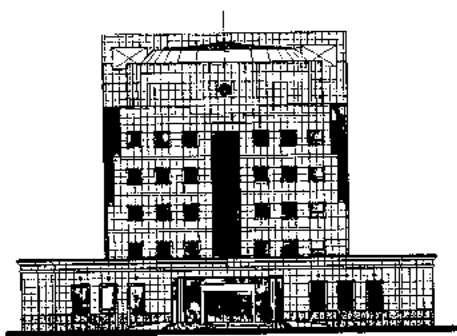
- 현대적 조형감각에 의한 전통 건축기법 구현
- 융통성 높은 공간계획
- 지하정원(Sunken Garden)계획으로 집회, 관람, 예식 및 교

육의 장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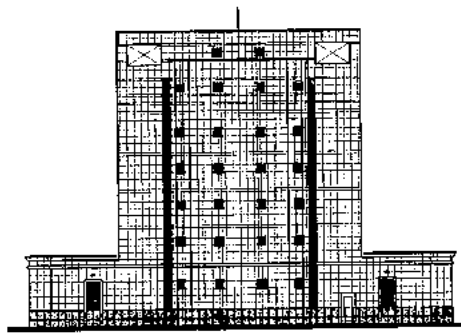
- 친밀감 있는 외부공간계획 수립
- 보차분리에 의한 명료한 동선 체계도 구성
- 부도심지내의 랜드마크(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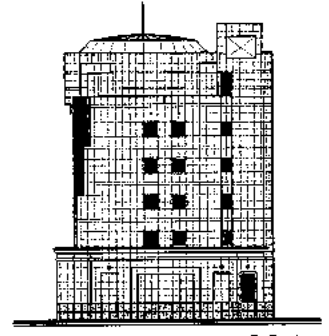
모형도 II



정면도



배면도



우측면도

Mark) 역할 부여

- 기능별 공간 구획(Zoning)
- 관리, 운영의 편리성 제고
- 에너지 절약계획에 따른 자동화 설비

■ 배치 계획

- 도심지 측에 적응한 배치 계획
- 기능별 공간 구성으로 동선의 혼재 방지
- 지하정원 및 옥외정원 계획으로 대지이용의 활성화

■ 입면 계획

- 의사당으로서의 이미지 창출
- 현대적 조형감각에 적합한 전통건축의 기법 사용
- 도심지 환경에 조화를 이룬 안정감 고려
- 휴먼 스케일(Human Scale)에 적합한 기단 저층부 형성

■ 단면 계획

- 유기적인 수직동선 처리
- 집중 코어(Core)배치로 수직동선의 단순화
- 지하공간의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한 선릉가든(Sunk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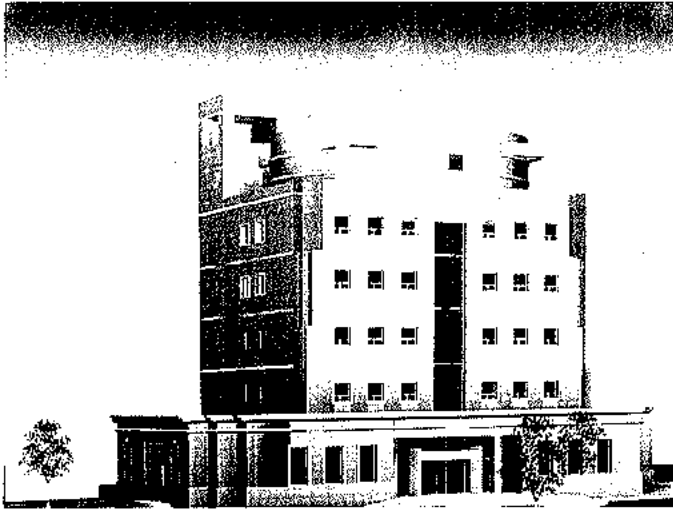
Garden) 확보

- 구의회 공간과 구민공간의 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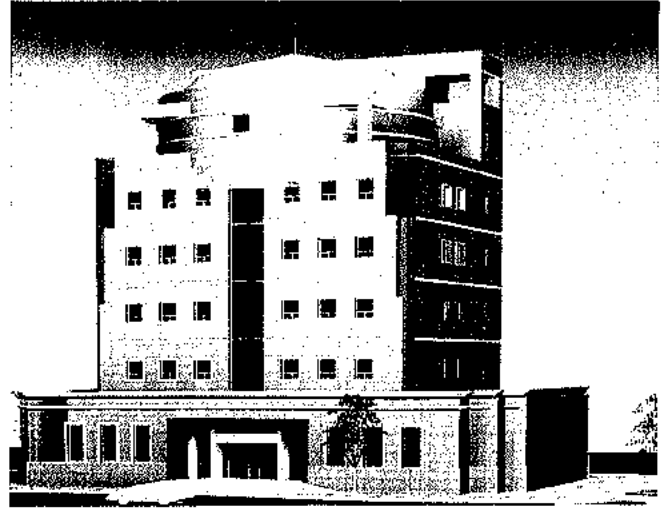
■ 조경계획

- 부지내 기존 아파트단지와의 완충녹지(Buffer Green) 확보
- 옥외 정원 조경계획으로 친밀감의 분위기 연출
- 선릉가든의 조경계획으로 자연스러운 지하 공간의 연결
- 건물 외장이 강조 되는 관목 군식
- 동일 수종의 정형 식재로 입구의 인식성 및 시선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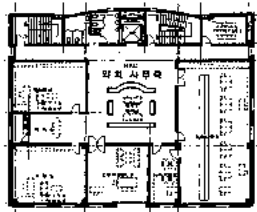
- 건물 전면부의 바닥 포장 패턴 및 출입구의 열린 공간 조경 계획
- 경관에 대한 일관성 부여와 인식성 고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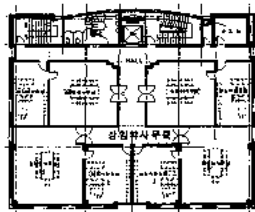
컴퓨터 모델링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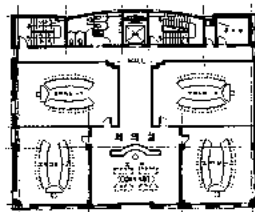
컴퓨터 모델링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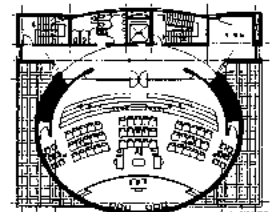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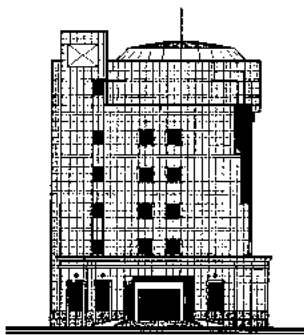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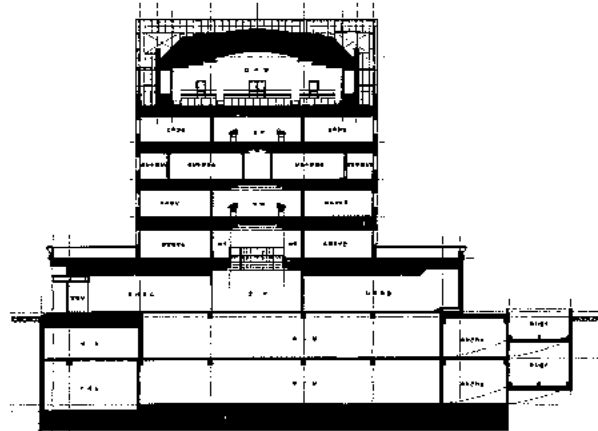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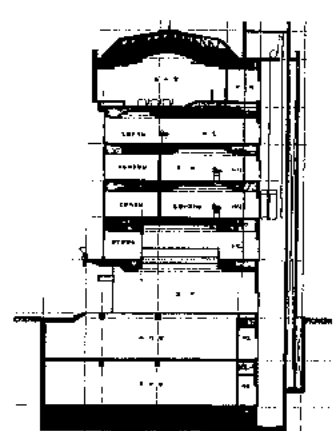
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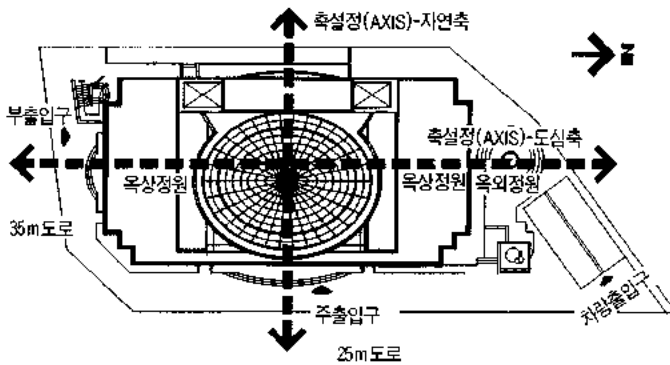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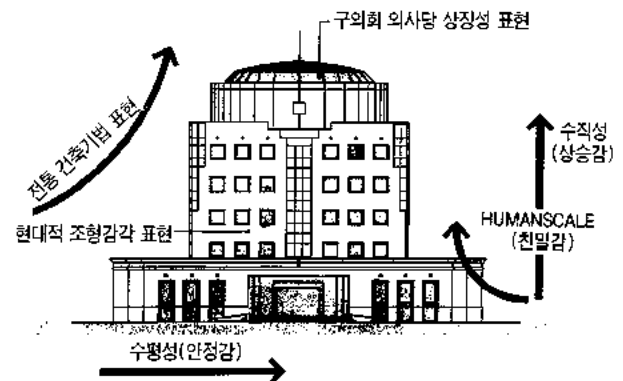
횡단면도



종단면도



배치개념도



조형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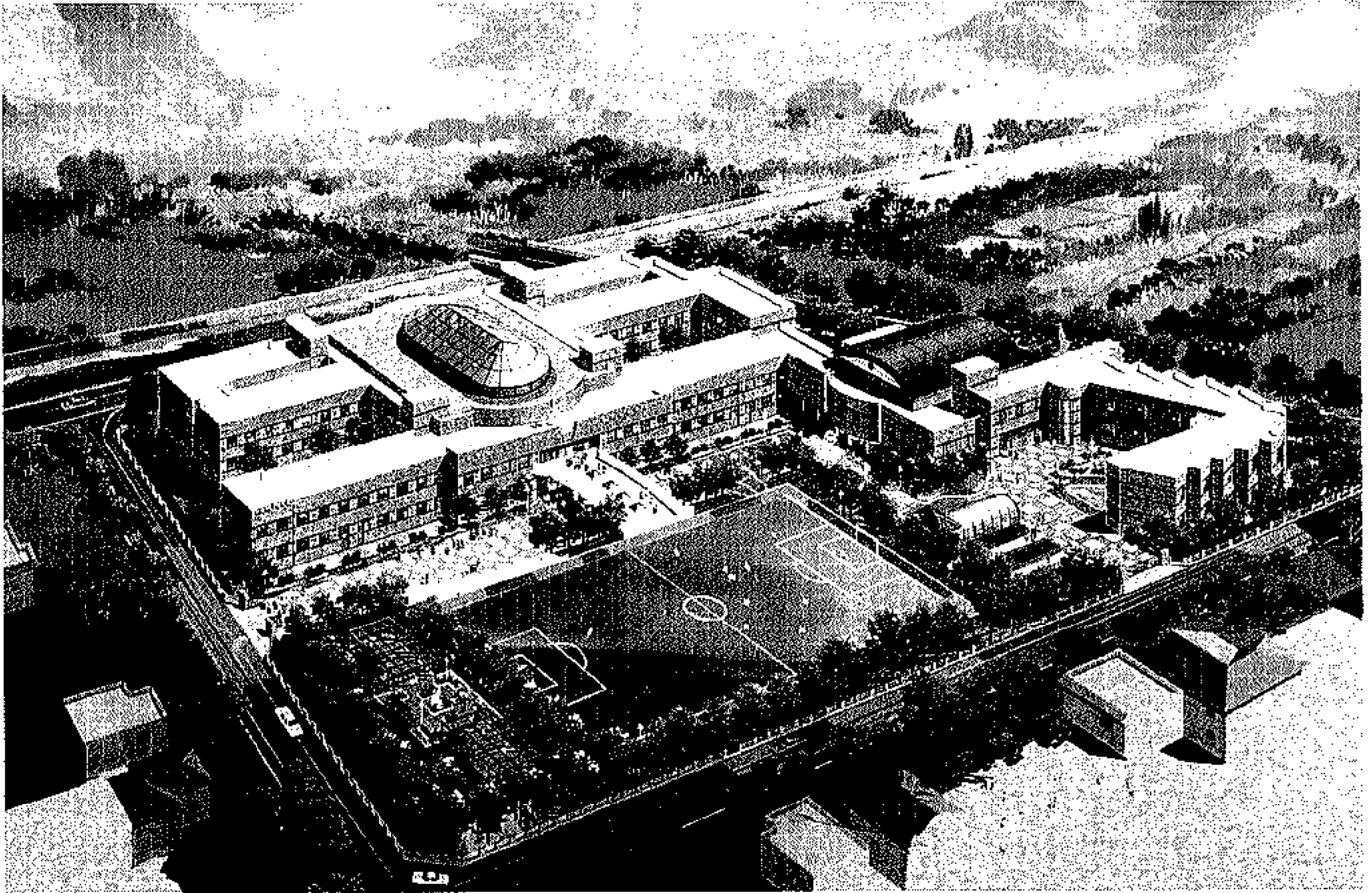
경남공립특수학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지체부자유아와 정서장애아의 사회적응 훈련 및 특수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시설확충과 여건조성을 위한 교육시설로서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함께 설치될 경남공립특수학교 현상공모를 실시하였다.

경남 창원시 명서동에 건립될 이번 특수학교 현상공모에는 총 7개 사무소가 작품을 응모하여 그중 예진종합건축(안)이 당선작

으로 선정되었다.

본 당선작은 경사대지를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동선의 원활한 처리와 토목공사량을 극소화시켜 공사비를 절감시켰고, 특수학교의 특성을 잘 반영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감도

당선작

대지위치 / 경남 창원시 명서동 32번지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18,200㎡

건축면적 / 6,431.4㎡

연면적 / 12,734.9㎡

건폐율 / 33.2%

용적률 / 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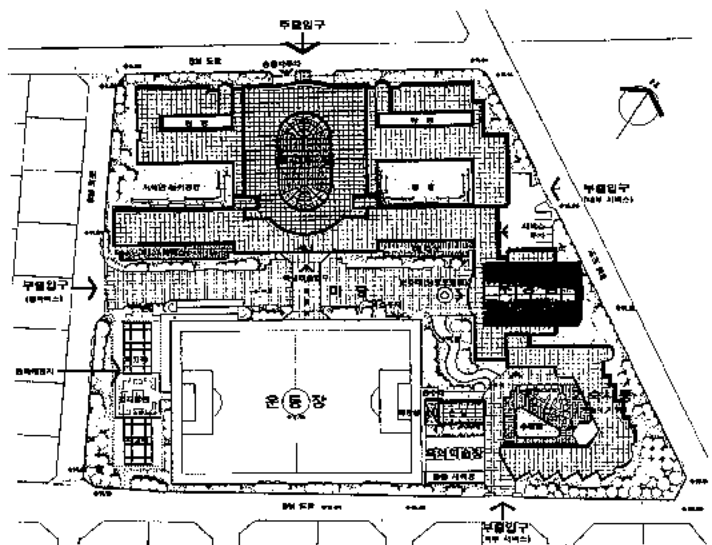
구조 / 철근콘크리트+철골조

규모 / 본관동-지하 1층, 지상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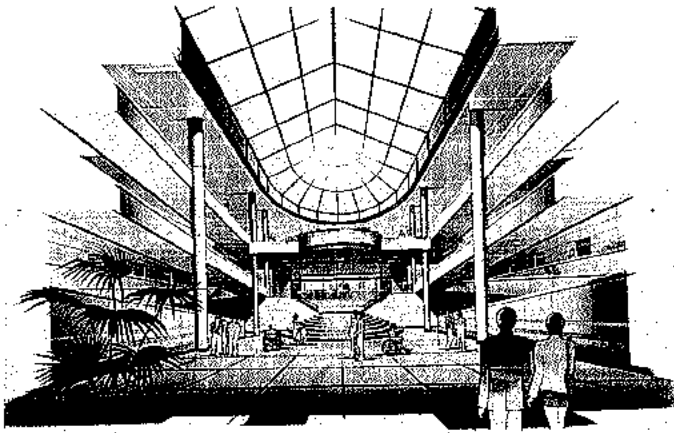
후생동-지상 2층

기숙사동-지상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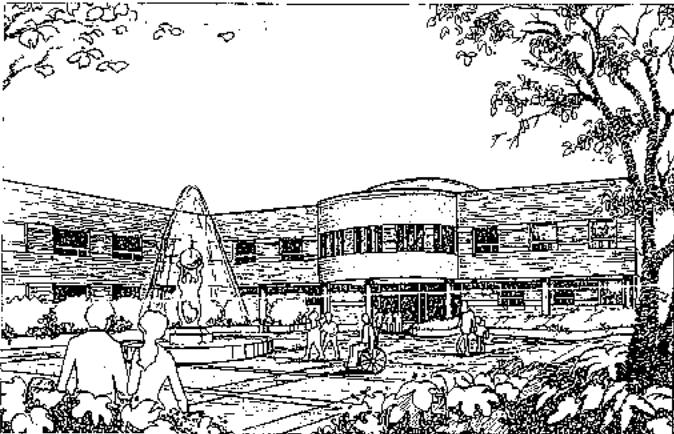
주차대 / 37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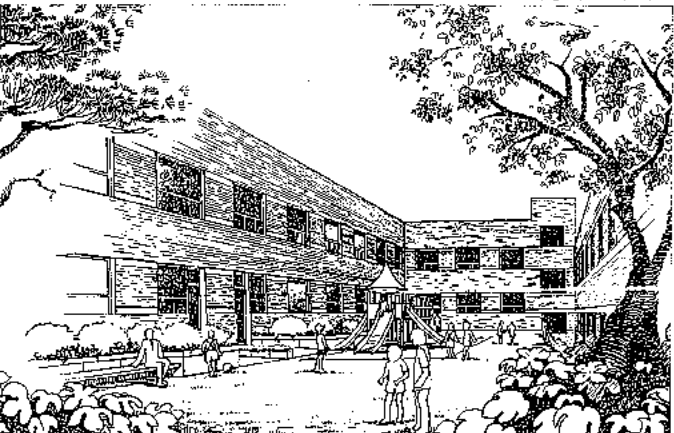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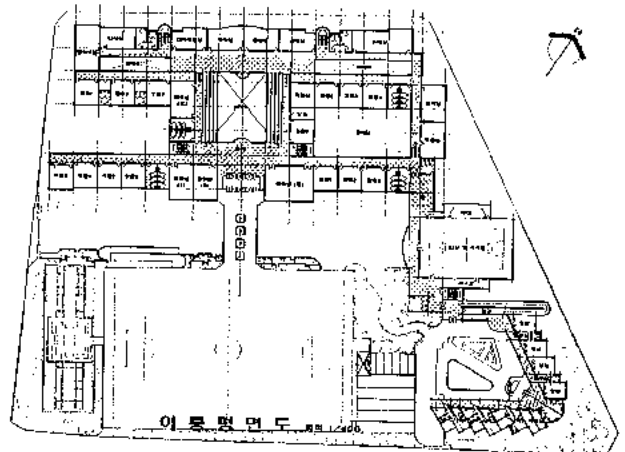
중앙 홀 부분 실내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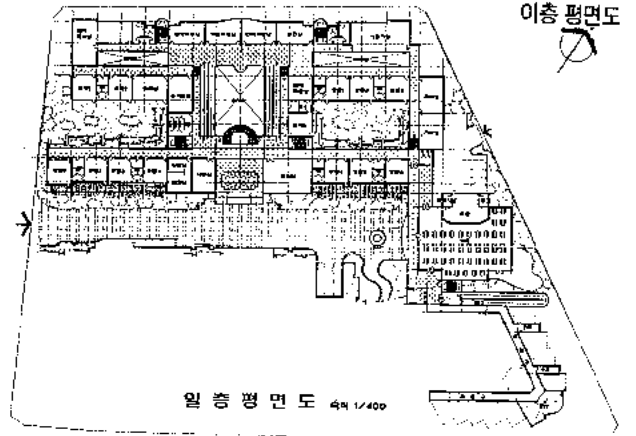
마당 부분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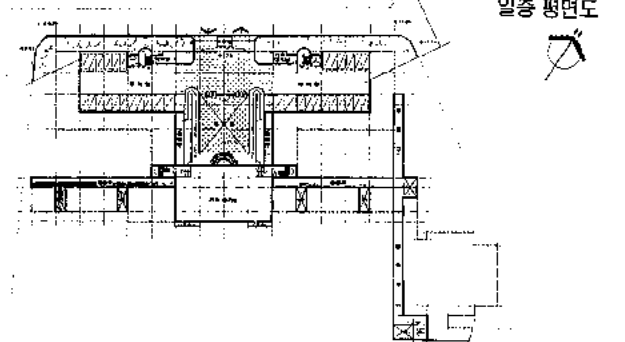
중정부문 투시도



이동 평면도



일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계획의 주안점

매개공간

지체부자유와 정서장애, 저학년(유치부, 초등부)과 고학년(중등부, 고등부), 건축물과 외부공간, 주간 사용공간(본관동)과 야간 사용공간(기숙사동), 동적공간(본관동, 운동장)과 정적공간(기숙사, 정원) 등의 상반된 공간간을 매개공간(중앙홀, 마당, 후생동, 옥외학습지) 설정으로 처리하여 명확한 분리 및 자연스러운 연결을 도모하였다.

진입과 전면도로

대지의 4면이 모두 8m도로에 접해있어 도로의 특성에 따른 진입개념을 설정하였다.

진입도로와 연결된 북측도로는 본관동과 직접 출입될 수 있는 주출입구로 배려되고 서측도로는 학생 통학버스 출입구, 동측도로는 건물 부출입구로써 서비스 동선을 수용한다.

남측도로는 운동장으로 연결되는 외부 서비스 동선처리의 기능을 가진다.

동선처리와 공간개념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인 만큼 동선의 유기적인 처리는 가

장 중요한 계획요소이다.

평면동선은 1층에 저학년 공간을 두어 중정과 테라스로 직접 연결시켜 내·외부 공간의 일체화를 꾀하고, 2층에 고학년 교실을 두어 운동장과 같은 레벨로 처리 연결다리를 통해 직접 연결시킨다.

수직동선은 내·외부 모두 램프를 통해 원활하게 이동될 수 있다.

경사대지의 극복

전체적으로 지형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원칙아래 절토와 성토의 비율을 맞추어 반출토량이 없도록 하며, 운동장의 레벨

을 본관동 2층 바닥높이로 맞추어 연결다리를 통해 이어지므로써 운동장 활용도를 극대화 시켰다.

극적 공간의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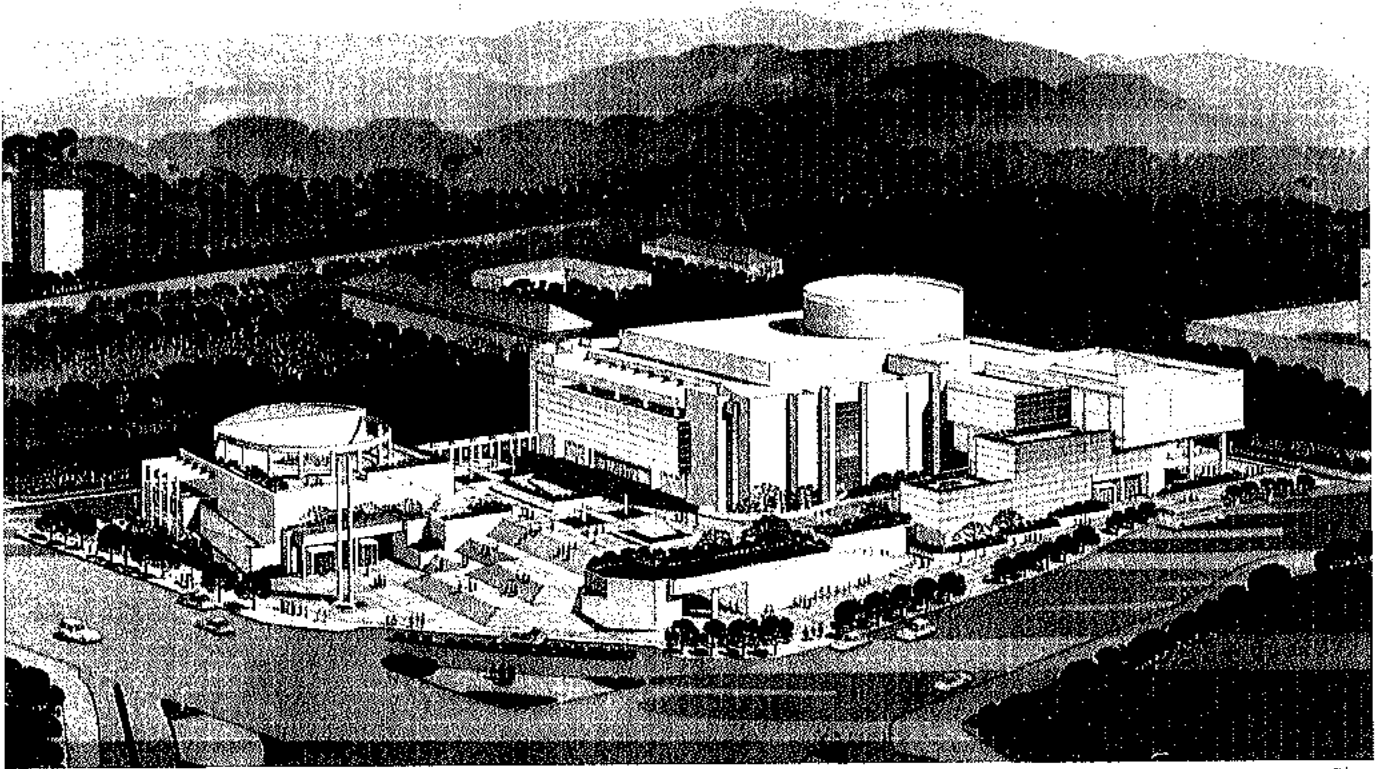
중앙홀의 설치는 정서장애와 지체부자유 상반된 기능을 완충시켜주는 역할과 함께 단조로운 분위기로 되기쉬운 교육시설의 공간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천창을 통해 쏟아지는 하늘빛은 풍부한 내부공간의 분위기를 생동감있게 하므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감을 돋구울 수 있을 것이다.

군포 시민회관

군포시에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군포시의 문화예술 공간의 확보와 지역 문화 활동의 구심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의 전당으로서 시의 상징성을 갖는 건물을 계획, 현상설계공모를 실시하였다.

본지에서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부림종합건축안을 게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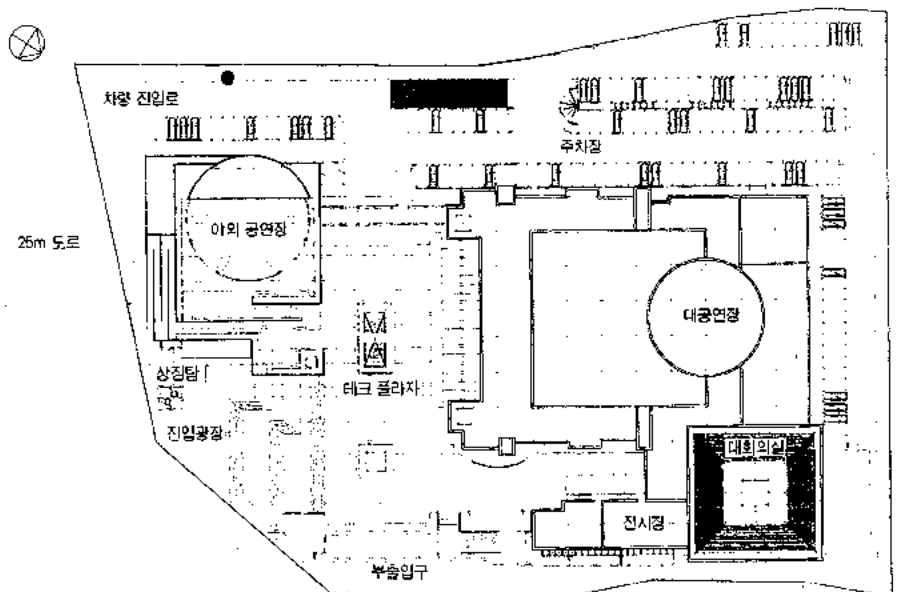


조감도

당선작

부림종합건축(인)
(대표 김 호)

대지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381
지역 / 도시설계구역
대지면적 / 16,971.9㎡
건축면적 / 4,768.98㎡
연면적 / 13,846.13㎡
건폐율 / 28.06%
용적률 / 53.40%
규모 / 지하 2층,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주차대수 / 260대(법정 250대)
외부마감 / 화강석 버너구이



25m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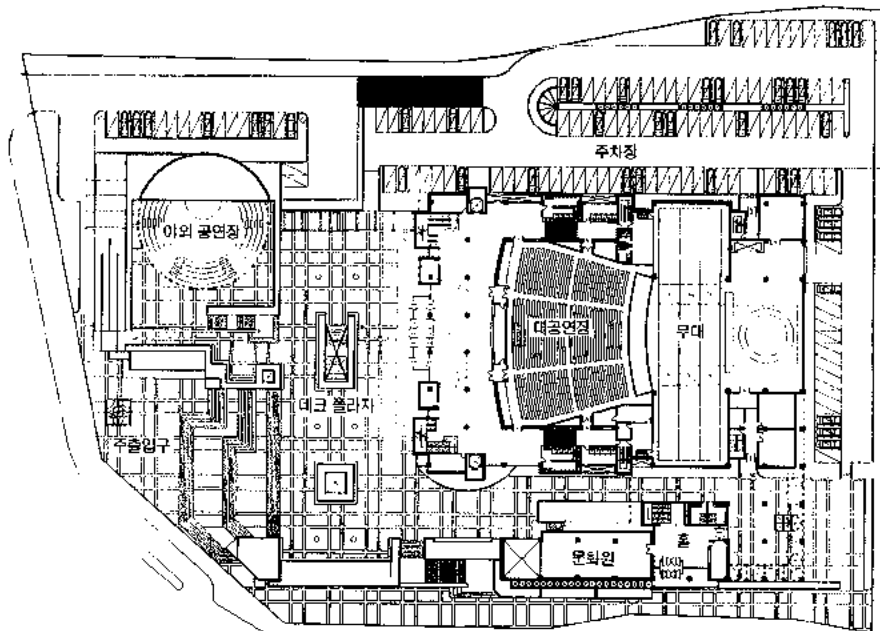
배치도

군포 시민회관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군포시의 문화·예술 공간의 확보와 지역 문화 활동의 구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하에 형태는 문화의 전당으로서 시의 상징성을 갖는 건물로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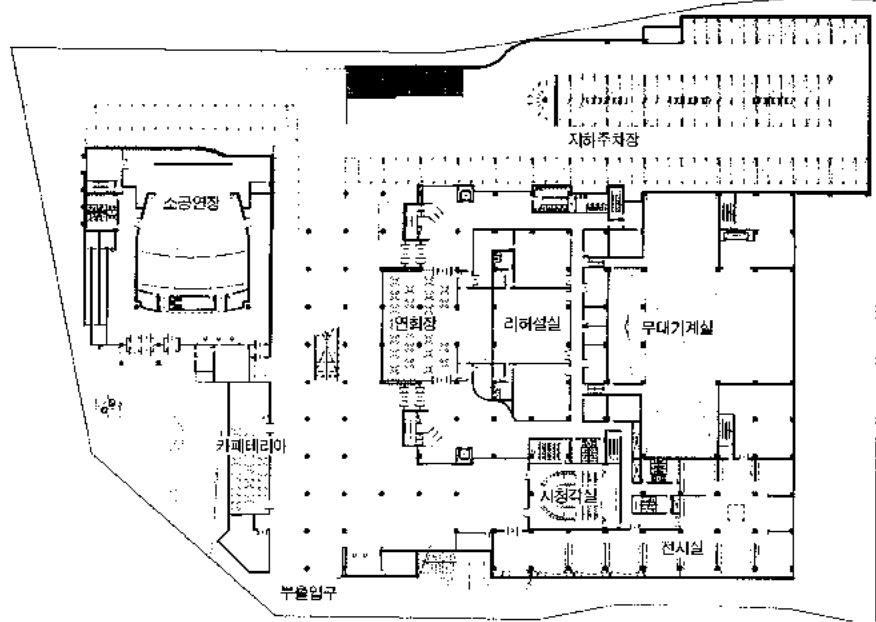
전체 배치 계획으로는 대지 남동쪽 25m 전면도로를 주출입구로 시민광장에 연계시켜 소공연장 및 야외 공연장, 대공연장으로의 진입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연 출연자 및 회의, 사무 용무의 비관람자들을 위해 주출입구 반대편에 부출입구를 두어 동선의 분리를 의도했다.

시민 광장은 대극장 전면 테크상부에 배치하여 대지내 외부 공간의 구심점과 시민들의 만남과 휴식의 장소가 되도록 하고 시민광장에서 내부로 통하는 콘코스를 설치하여 내·외부 공간 사이의 유기성을 갖도록 했다. 또한 대공연장은 1,600석 규모의 다목적 홀로 객석의 발코니 형식으로 각층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소공연장은 400석 규모로 상부 옥상에 야외 공연장을 설치하여 다양한 공연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속동의 지하에는 전시실을 1,2층에는 문화원 및 예충산하 각종 단체, 3층에는 통역실을 갖춘 국제 회의장 규모의 대회의장이 배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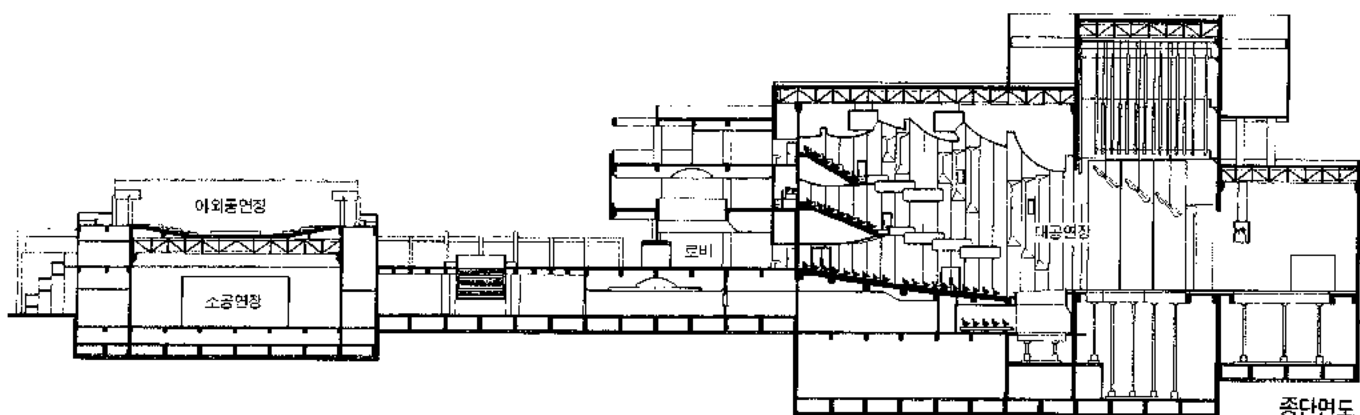
입면은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한 자연과의 조화와 건물 전체의 통일성에 의한 질서정연한 패턴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종단면도

중국의 고건축을 보는 눈 ③

The Ancient Architecture of China ③

필자: 祁英濤 / 中國文化部文物保護科學技術研究所高級工程師

역자: 韓東珠 / 國立臺灣大學建築與城鄉研究所

Translation by Han, Tong—Soo

(목차)

〈제1회〉

*中國古代歷史年代表

*宋式, 清式斗拱部分名稱圖

1. 두가지의 조사, 두가지의 비교, 연대의 확정

(1) 두가지의 조사

- ① 건축물의 현재 구조상황 조사
- ② 관련된 문자기록의 조사

(2) 두가지의 비교

- ① 현존하는 구조와 이미 연대를 알고 있는 건축물의 법식 비교
- ② 현존하는 구조와 문헌자료의 비교

(3) 연대의 확정

〈제2회〉

2. 각 시대의 건축 특징

(1) 당대(唐代)—청대(清代)의 목조건축특징

- ① 평면
- ② 양기구조(梁架構造)
- ③ 양기구조 중 몇몇 부재들의 변천
- ④ 두공(斗拱)의 양식
- ⑤ 두공에서 몇가지 부재의 변천

〈제3회〉

(2) 장수(裝修), 지붕, 채화(彩畫)의 발전

- ① 문과 창
- ② 난간(欄干)
- ③ 와수건(瓦獸件)
- ④ 채화

(3) 각 시대의 전석건축(磚石建築)의 특징

- ① 전석장(磚石牆)
- ② 아치(Arch)
- ③ 전탑과 석탑

2. 장수(裝修), 지붕, 채화(彩畫)의 발전

1) 문과 창

건축에서 문과 창, 난간 등의 소목작(小木作)을 가리켜 장수(裝修)라고 한다. 문의 양식으로서 종종 볼 수 있는 것은 판문(板門)과 격선문(格扇門) 등이 있다. 송대의(영조법식) 모양에는 오두문(烏頭門)과 연문(聯門) 등이 있다. 이미 발견된 당대의 건축은 모두가 판문을 사용하였으며 송대의 많은 주요한 건축은 이를 계승하여 사용하였다. 원대 이후에는 건축조군(建築組群)의 입구에 번문(幟門)을 사용하였지만 광범위하게 분포한 농촌주택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입구에 판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판문의 체제와 형태의 주된 변화는 문장(門簪), 문정(門釘), 포수(鋪首) 등에서 나타난다. 한대에는 2~3개의 다방형(多方形) 문잠이 이미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당대에서 원대까지도 여전히 대다수의 건축물이 2~3개로 이루어진 정사각형, 바둑모, 직사각형 등 다양한 형태의 문잠을 사용하였다. 문잠의 정면에는 많은 조각을 하였는데, 사판(四瓣)과 시제(柿蒂)가 있고 사용된 문양도 모두 다르다. 명, 청대에는 대부분 4개가 사용되었으며, 일반 민중의 가옥은 2배로서 팔각형 또는 육각형인데 각 판은 등글게 선을 표현하였으며, 정면에 새긴 도안은 꽃무늬이다. 문정에 대한 기록은 위진 시대에 이미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 역대 건축물의 판문과 전석담의 부조에는 절대 다수가 문정을 사용하였지만 명대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정하지지는 않았다. 일반적인 문정은 모두 종과 횡방향으로 3~7열이며 각 열마다 3~7개가 있다. 청대에는 건축물의 등급에 따라서 엄격한 등급이 있어 최고 등급의 건축물에는 종횡으로 각각 9열을 사용하였고, 그 다음 등급의 건축물은 종으로 9, 횡으로 7열이었으며, 가장 등급이 낮은 것은 종횡으로 각각 5열이다.

격선문은 대략 북송 초기에 출현하였다. 현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시기가 이른 것은 요대의 건축인 각원사(覺院寺) 문수전(文殊殿)으로 이 건축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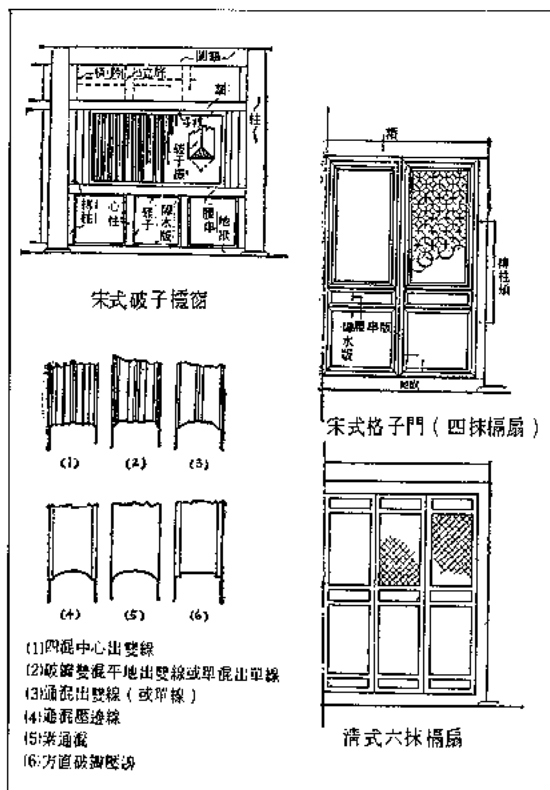
주18) 원야: 조경에 관한 전문서적의 하나로서 명대의 이성(李成)이 지은 책이다. 모두 3권으로 되어 있고 송정4년(崇禎四年: 1631년)에 완성되었다. 중국조경예술에 관한 중요한 이론서이다. 일찌기 1931년 중국영조학사에서 영인을 한 바 있고, 1956년 중판을 인쇄하였으며, 1981년 대만에서는 원야주석에 관한 문고판 서적이 여러 권 출간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원야 원본이 영인된 바 있다.

외침횡파(外棼橫披)에는 담문(縹紋)의 격심(格心)이 있다. 현존하는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은 금대의 건축인 숭복사 미타전인데 각 칸은 네개의 선(扇)으로 각 선의 중간에는 말두격개(抹頭隔開)를 사용하였고, 윗면의 격심양식에는 10여종이 있으며, 아랫면의 군판(裙板: 혹은 障木板이라고 한다)은 아두호봉(牙頭護縫)을 사용하였다. 송대의 〈영조법식〉에 규정하기를 격선에는 모두 요화판(腰華板)이 있으며, 관습적으로 “사말격선(四抹格扇)”이라고 하였다. 격심과 군판의 높이 비례는 대략 2:1이고 격심양식에는 조배구문(挑排球文), 사사구문(四四球文), 사직구문(四直球文), 방격안(方格眼)등의 네가지가 있다. (그림17).

원, 명대에는 이미 오말격선(五抹格扇)이 있었는데 격심은 〈원야(園冶)〉(주18)에서 서술하기를 “옛 문호(門戶)의 격선령판(格扇檁板)은 상공(上空)과 하판(下板)의 비례가 4:6이면 충분히 돋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새로운 작법은 영공(檁空)이 10분의 7내지 8을 점하고 평판(平板)은 10분의 2내지 3을 점하게 하는 동시에 호령(戶檁)의 장단(長短)을 도량하여 대략 탁제(卓几)의 높이와 같게 해야 하며 높이가 더 높더라도 4내지 5촌(寸)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 이외에, 격선은 여전히 사말이고 격심의 양식은 유조식(柳條式), 정자두화(井字朵化) 등 40여종의 각종 모양이 있다. 청대에는 모두

육말격선으로 격심과 군판의 높이 비례는 대략 6:4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차이가 많이 있어 본래의 규제와는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다. 격심의 양식은 삼교육완(三交六掩)을 즐겨 사용하였다. 군판의 꽃무늬는 송, 요, 금대 모두 비교적 소박하여 소판(素板)만을 설치하거나, 혹은 아두호봉을 덧 붙였으며, 원대에는 간단한 여의두(如意頭)를 조각하였다. 명, 청대에는 비교적 복잡해졌으며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던 사합여의(四合如意)이외에, 종종 눈에 띄는 것은 기룡(夔龍), 단룡(團龍), 무환(套環), 수자(壽字)등의 문양이 있다. 요, 금대의 격심령조의 작법은 단지 평판만을 사용하여 선도(線道)가 교차되게 하였다. 원, 명대 이후에는 가는 나무를 써서 각종의 꽃무늬를 조각하여 전체적인 도안을 형성하였다. 변방(邊框)과 선도는 송대의 〈영조법식〉에 6가지 종류의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혼중심출쌍선(四混中心出雙線), 포판쌍혼평지쌍선(破瓣雙混平地出雙線: 혹은 單混出雙線), 통혼출쌍선(通昏出雙線: 혹은 單線), 통혼압변선(通混壓邊線), 소통혼(素通混), 방직파판(方直破瓣)등이다. 청대에는 비교적 간단한 “피조선(皮條線)을 많이 쓰게 되었다. (그림17)

창의 양식으로는 현대의 도옥(陶屋)과 화상전(畫像磚), 화상석(畫像石)(주19)에서 보이는 지령창, 사방격(斜方格), 정방격(正方格) 등이 있다. 실물로는 남북조, 수, 당대에서부터 북송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모두가 직령창, 판령창(板檁窓) 혹은 파자령창(破子檁窓)을 사용하고 있다. 송대 〈영조법식〉의 규정에는 섬전창(縵電窓)과 수문창(水文窓)이 또 있으나 아직까지 실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17) 당대에는 “사선창(死扇窓)”이 많았으며 송대에는 이미 “난함구창(蘭檻鉤窓)”과 “지창(支窓)”의 작법이 있었다. 이런 종류는 자유자재로 여닫을 수 있어 “활선창(活扇窓)”이라고



(그림17) 창수(裝修)의 도해



(사진16) 불국사목탑의 난간

주19) 화상석, 화상전: 이것은 묘혈의 벽면과 입구의 두 기둥, 입구의 문위를 가로지른 횡랑 등에 있는 장식석의 예술품이다. 그 제제는 아주 풍부하여 우리들보 하여금 당시의 사회상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 현대의 문묘를 우리는 한묘(漢墓)라고 하는데 현대, 이후 위진남북조 시대의 석굴과 수, 당대의 석각벽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 전해 오는 화상전, 화상석의 숫자는 무수히 많고, 그 주요한 분포지역으로는 산둥(山東), 하남(河南), 사천(四川), 섬서(陝西), 산서(山西), 서주(徐州) 등지이며 기타 지역에서도 간혹 발견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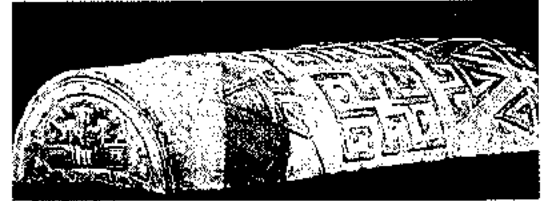


(사진17) 안제교 난간

한다. 각 시대의 격심화문은 대부분 동일 시대의 격선문과 일치하며, 사선창은 원대 이후의 건축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다. 명, 청대의 건축에서는 공예수준의 향상과 함께 일반 민가의 창격양식도 나날이 새로워졌다. 예를들면 판령의 “보보진(步步緊)”이나 영조공당(靈照空堂)이 있는 곳의 공자(工字), 와잠(臥簪), 화두(花朵), 방승(方勝)과 같은 각종의 화두(花頭)를 덧붙인 것이 바로 그것이다.

2) 난간(欄干)

난간의 사용은 시기를 아무리 늦게 잡아도 한대에 이미 보편화 되어 있었으며 수많은 간접자료를 통해서 망주(望柱), 심장(蓐杖), 지복(地楨), 혁판(革板) 등의 부재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남북조 시대에는 이미 후대의 형제(形制)를 대략 갖추고 있었으며 아무리 늦어도 수대의 난간에서 이미 분순(盆筍)과 촉주(蜀柱)를 사용하고 있었다. 석현에 있는 요대의 독락사 관음각, 응현에 있는 불궁사 목탑(사진16)은 여전히 이러한 제도를 이어 받고 있다. 송대의 〈영조법식〉에는 단구란(單鉤欄)과 중대구란(重臺鉤欄)의 두종류로 분류되는데, 실물 중에는 단구란간(單鉤欄杆)이 비교적 보편적이다. 송대 이전의 석조난간에는 각 면마다 약간의 망주를 세웠고, 기둥 사이에는 난판(欄板)을 사용하여 꽃무늬를 조각하였으며, 어떤 것은 목조난간의 양식을 모방한 것도 있다. 예를들면 월현(越縣)에 있는 수대의 안제교(安濟橋)(사진17)가 바로 이와 같은 예이다. 송대의 목조난간도 석조난간의 영향을 받아서 각 면의 망주 숫자가 증가하였다. 난간에서 양식의 변화가 비교적 많은 부분은 망주두, 촉주, 판 등이다. 한대에서 당대까지의 시기에는 전각(轉角)이 있는 곳에서 두 방면의 심장을 교차시켜 머리를 내밀게 한 것을 문구조(紋口造)라고 하는데 망주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망주를 사용한 것은 대부분 조각을 하였다. 수, 당대에서부터 원대까지의 각 시대에는 사자(獅子), 명주(明珠), 연화(蓮花) 등을 대부분 조각하였다. 명, 청대에는 판승적으로 권운(卷雲), 용문(龍紋), 석류두(石榴頭) 등을 조각하였다. 촉주의 양식은 수대에는 두자권엽(斗子卷葉)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당, 요, 금대에는 두자촉주(斗子蜀柱)를 종종 사용하였고, 송대에 사용된 영향활항(靈項嶺項)과 명, 청대에 사용한 보병(寶瓶)은 형태와 체제가 비슷하다. 그러나 후자가 비교적 규칙적이고 완전하며 그 형태는 비교적 통통하고 큼직하다. 난간에서 변화가 가장 많은



(사진18) 연하에서 발굴된 통와

것은 화판(華板)에 속하는 것이다. 한대에는 투환(套環), 사방격(斜方格) 등의 형식이 있었으며 남북조, 수, 당, 오대에는 구편문(鉤片紋), 만자(卍字) 등의 기하학적 문양을 많이 사용하였다. 개별적으로는 용무늬를 썼으며 어떤 것은 인물의 고사(故事)를 조각하였다. 명, 청 시대의 화판조각은 세밀하고 번잡한 것을 취하는 경향이 있었다. 원림에서는 각종의 다양한 화란간(花欄杆), 대화를 조각한 화판, 경광(鏡光), 방편(氷片), 방승(方勝) 등이 출현하였다. 예를 들어 원림건축에 관한 책인 〈원야〉에는 필관식(筆管式), 척란식(尺欄式) 등 백여종의 난간형식이 실려 있다. 그 밖에도 “좌등난간(坐燈欄杆)”, “고배난간(靠背欄杆)”이 있으며 석조난간에는 석망주를 사용하지 않고 난판만을 사용하여 연결시킨 “나한난판(羅漢欄板)”이 있다. 때로는 벽들을 각이 만든 “화란장(花欄牆)”도 있는데 이것은 난간의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3) 와수전(瓦獸件)

기와의 제작기술은 이미 주대(周代)에 발명된 것으로 진흙판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전국시대의 연하(燕下)에서는 잘 구워서 만든 통와(筒瓦)와 판와(板瓦)가 출현하였다. (사진18) 기와의 일반적인 치수는 비교적 큰 동시에 작은 기와도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대형건축에만 기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차선적인 건축에도 기와지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남북조 이전에는 모두 회와(灰瓦)를 사용하였으며, 북위 시대에 이르러서 유약을 발라 구운 유리와(琉璃瓦)의 제작기술이 비약적으로 진보하였다. 또한 기와지붕의 주요한 부재인 치미(鸚尾), 구두(句頭), 격수(滴水)와 같은 와수전에는 이미 부분적으로 유약을 칠하여 기와를 굽는 제도가 채용되었다. 역대 기와지붕에서 각종 와수전의 변천을 분류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구두와(句頭瓦)

이것은 지붕의 처마머리에 있는 용와(龍瓦)의 첫번째 통와로서 앞 끝에는 기와마다 여러가지 모양의 꽃무늬를 찍었다. 전국시대에는 모두가 반원와당(半圓瓦當)으로서 문양에는 수면(獸面), 쌍룡(雙龍), 쌍호(雙虎) 및 문자문양 등이 있으며, 와신(瓦身) 위에는 꽃무늬를 새겼다. 진, 한대에는 대다수가 원형와당(圓型瓦當)으로서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반원형인 것도 있으며, 문양은 더욱 증가하여 사신(四神), 고사리 문양, “상림감천(上林甘泉)”, “장동미양(長東未央)” 등의 지명(地名)과 길상어(吉祥語) 같은 종류의 것이 있다. 반원와당은 남북조 시대에 이르러 점차 사라졌다. 이후 와당은

모두 원형의 것으로 바뀌고 문양은 연화문이 위주가 되었으며 연판은 뾰족하고 길며 주변은 약간 넓은 형태이다. 수, 당 시기의 연화문은 화판이 풍부하고 주변은 넓고 낮다. 또한 수면와당(獸面瓦當)도 보편화되었다. 송대 이후에는 보상화(寶相花)를 사용하였다. 명, 청시대의 궁전건축에는 용무늬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묘우(廟宇)에는 수면(獸面)과 화패(花片)무늬를 많이 사용하였다. 초기의 기하문은 이미 사용되지 않았다.

(2) 적수와(滴水瓦)

이것은 첨두의 첫번째에 있는 판와(板瓦)이다. 원대 이전의 와두(瓦頭)는 “ㄱ”과 같은 형태로서 그 위에는 꽃무늬를 찍었고, 대부분이 줄문(櫛紋), 연주문(連珠紋), 거치문(鋸齒紋) 등의 기하학적 무늬를 썼으며 “중진판화(重唇板瓦)”라고 하였다. 원대에는 이미 “Q”한 형태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명, 청대에는 대부분 화패나 용무늬를 썼다.

(3) 척(脊)

송대의 <영조법식>에 규정하기를 기와지붕의 각종 척에는 모두가 기와조각을 쌓아서 사용하였으며 수, 당대의 실물에는 이미 이와 같은 제도가 보인다. 원대에는 척통자(脊筒子)가 출현하였고 명, 청대에 이르러서는 모든 것이 척통자로 대체되어 더욱 화려하고 다채로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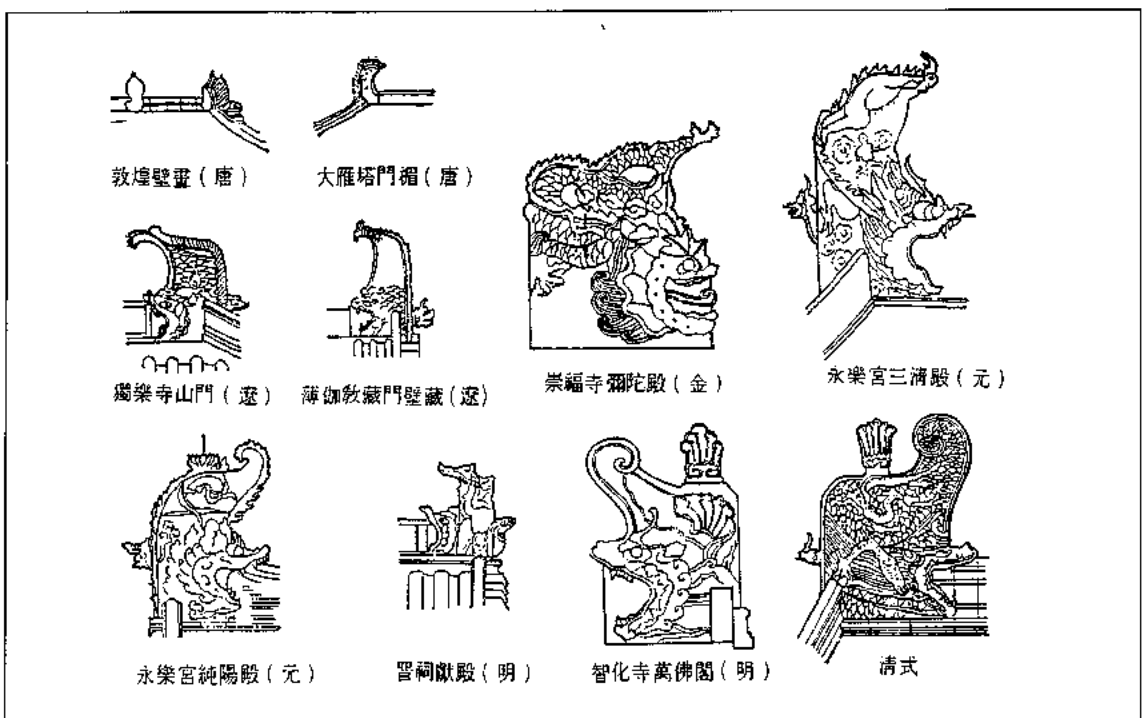
(4) 문수(吻獸)

정척(正脊) 양 끝의 척식(脊飾)은 한대에 이미 여러가지 종류가 있었으며, 가장 간단한 것은 3 내지 5개의 통와를 쌓거나 “ㄱ”과 같은 형태의 권관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문수의 사용시기는 아무리 늦게 잡아도 진대부터로 이 시기에는 이미 중요건축의 정척 양끝에 치미(鸚尾)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전체적인 형태는 물고기의 꼬리와 비슷하며 권곡(卷曲)은 정척의

중앙부분을 향하였다. 수, 당대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양식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대략 당대 중기 이후부터 늦어도 만당(晩唐)시기에 사이에 “치문(鸚吻)”이 또 출현하였다. 이 시기 보이는 치문의 형태는 치미의 앞 끝과 정척이 서로 접하는 부분을 입벌린 토척(吞脊)으로 변화시켜 전체적으로 하나의 맹수머리로 굽고 짧은 꼬리를 갖고 있게 한다. 송, 요, 금대에는 보편적으로 이와 같은 양식이 사용되었다. 송대의 <영조법식> 기록 중에는 “용미(龍尾)”라고 하는 명칭의 기록이 있는데, 실례로서 가장 이른 것은 삭현(朔縣)에 있는 금대의 건축인 송복사(崇福寺) 미타전(彌陀殿)의 것으로 외형이 치미와 비슷하고 몸체의 안은 완전히 구불구불하게 구불어진 용이 점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용문(龍吻)”이다. 원대 이후에는 이런 종류의 양식에 많은 수정을 가하여 사용하였고, 관습적으로 대문(大吻), 혹은 문수(吻獸)라고 하였다. 원대의 용미 꼬리 부분은 이미 점차적으로 외권곡(外卷曲)을 향했고, 명, 청시기에는 완전히 외권곡으로 바뀌어 형제(形制)는 예전과 전혀 다른 취향을 띄게 되었다. 명대의 조각은 비교적 세밀하고 동위의 검파(劍把)는 이미 상징적인 형태로 변하였다. 또한 권관은 앞으로 경사가 젖으며 앞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 청대에는 검파와의 권관이 대부분 똑바로 선 정권(正卷)이고 두 눈은 대부분 측면을 바라보고 있으며, 수신(獸身) 위에는 용이 날으며 춤추는 모습을 조각하여 뒤로 뒀어 나오게 하였다. 수수(垂獸), 창수(戢獸)는 이미 완전히 정형으로 되었다. 민가에서는 정척의 양끝에 대부분 비자(鼻子) 및 권초식 척식(卷草式脊飾)을 사용하는데 “오침(熬尖)”이라고 한다. (그림18)

(5) 주수(走獸)

사익각창척(四翼角戩脊)의 척식은 한대에서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통와를 3개 내지 5개씩 사용하여 만들었다. 송대에는 1개의 빈가(頻伽) 및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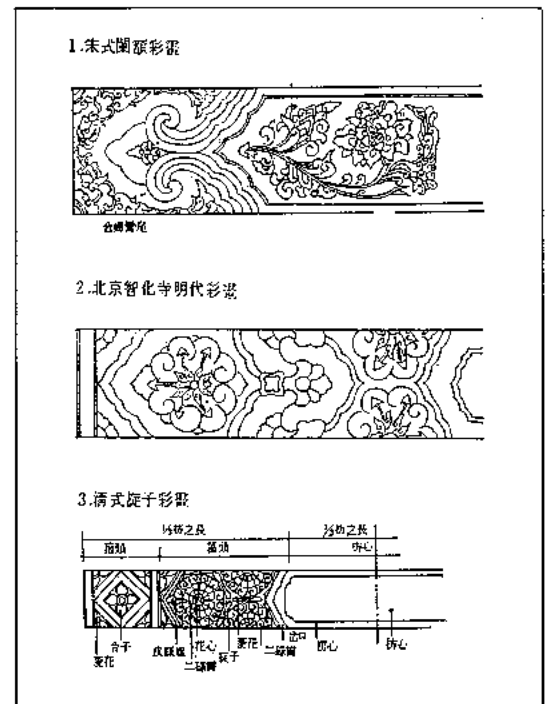
(그림18) 역대의 치미(吻獸)

내지 8개의 존수(尊獸)를 사용하되, 최소한 1개 이상의 존수를 쓰도록 규정하였으나, 실물 가운데는 빈가가 1개인 것을 제외하고, 존수는 대부분 1개에서 4개 사이의 범위에서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양식 및 배열의 순서에도 모두 정해진 규칙은 없다. 그러나 청대의 건축은 주수의 사용숫자를 규정하였을 뿐 만 아니라, 대개 단수인 3, 5, 7, 9를 사용하였으며, 앞에서부터 뒤로 배열되는 순서에도 엄격한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지방의 건축 중에는 각기 그 지방의 습관이 있어서 대부분 관식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그 형상도 매우 생동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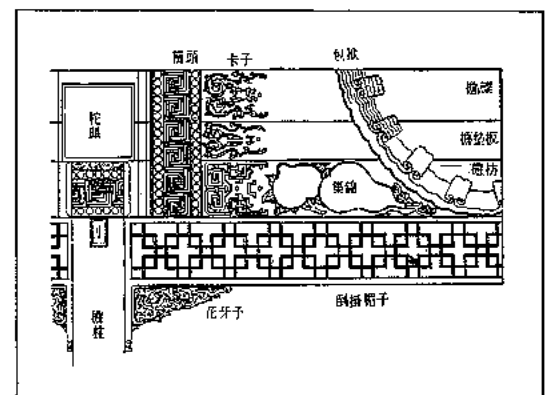
4) 채화(彩畵)

채화는 목조구조건축의 장식예술일 뿐 아니라 목재를 보호하는 수단 중의 하나이다. 중국에는 이미 일찍부터 목조구조 위에 단분(丹粉)을 뿌렸다는 기록이 있다. 진한시대에는 용문(龍紋)과 운문(雲紋)을 많이 사용하였을 뿐 만 아니라, 편직물의 문양에서 말하는 “능면(綾綿)”을 점차 채용하였다. 남북조 시대에는 불교예술을 흡수하여 새로운 도안을 창조하였는데, 권초(卷草), 연판(蓮瓣), 보주(寶珠), 곡수(曲水), 만자(万字) 등을 그 예로서 들 수가 있다. 현존하는 것으로서 가장 오래되고 비교적 완전한 것은 돈황(敦煌)의 막고굴(莫高窟)^{주20)} 제431호 회랑에 있는 채화로서 붉은 바탕위에 청록색의 문양이 있다. 송대(宋) 〈영조법식〉의 규정에는 9종류의 채화제도 뿐만 아니라 상세한 문양도 설명이 되어 있다. 보와 도리의 층단(層端)에는 “각엽(角葉)”을 많이 그렸고, 몸체 안의 회화문양은 매우 다양하며 그 운영이 비교적 자유롭다. 원대에는 “선자채화(旋子彩畵)”가 출현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고, 전체적인 색조는 초기의 따뜻한 색 위주에서 청록 등의 차가운 색 위주로 바뀌었다. 명, 청시기에는 선자채화가 이미 성숙되어 가장 주요한 채화형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청대의 채화는 대부분이 새채화(靛彩畵), 선자채화, 소식채화(蘇式彩畵)의 세가지로 크게 분류된다. 앞의 두 종류는 규모가 근엄한 도안화이고, 소식채화는 일종의 회화적인 수법의 것으로 제재의 선택에 일정한 자유가 있으며, 청대의 채화문양에는 변화가 가장 많다. (그림19, 20)

양방채화 중에 당대의 것으로 현존하는 것은 대부분 붉은 물을 뿌려서 칠주팔백(七朱八白)을 그린 것이고, 송대와 요대의 초기에는 기하학적인 도안으로 가득차 있는 것이 많으며 비천(飛天), 운문(雲紋)을 그린 것도 있다. 현존하는 당대의 양식은 가장 간단한 채화의 일종으로 추측된다. 송대 〈영조법식〉의 규정에는 양방채화의 회화제도는 보의 양끝에서 먼저 “각엽”을 그리는데 긴 것은 보 높이의 1.5배이다. 그리고 중간에는 각종의 꽃무늬와 기하무늬를 그린다고 되어 있다. 금, 원대에는 여전히 이러한 제도를 답습하였지만 각엽의 형식은 이미 변화가 있었고,



(그림19) 채화양식



(그림20) 소식채화(청대)

길이는 대략 보 높이의 2.5배 내지 3.5배이며, 개별부재의 경우는 보 길이의 4분의 1에 가깝다. 원대 선자채화의 조두(藻頭)는 대다수가 선화(旋畵)만을 사용하였지만, 이미 고두(箱頭)의 형상이 출현하였다. 명대 초에는 선자채화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 이미 기본적인 형제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조두와 고두의 길이 총합은 보 길이의 4분의 1이 되고, 방심(枋心)은 보 전체 길이의 2분의 1이 되었다. 명대 말기에는 방심의 길이가 이미 보 길이의 3분의 1이 되었고, 청대에는 이것의 3분의 1이 척례로 되었다. 기둥채화의 경우 당, 송 시기에는 흙으로 씻어 붉게 하거나, 혹은 주두나 기둥의 가운데 부분에 속련(束蓮), 또는 권초를 그렸다. 이후 각 시대에는 대부분 유식(油飾)으로 바뀌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축과 이슬람교당 내에서는 번련(翻蓮)을 그린 것이 많으며, 역분점금(潑粉點金)을 썼다. 청대에는 반룡(蟠龍)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

주20) 돈황의 막고굴: 감숙성(甘肅省) 돈황(敦煌) 명사산(鳴沙山)의 동쪽 기슭에 있는 인공동굴로서 입구는 삼위산(三危山)을 바라보고 있으며, 남북의 길이가 약 1600미터나 되는 암벽면 위에 굴을 만들었다. 문헌의 기재에 의하면 진대 건원2년(建元二年: 366년)에 착공하였다고도 하며, 동진(東晉)의 영화9년(永和九年: 353년)에 착공하였다고도 한다. 현재는 16국, 북위, 서위, 북주, 수, 당, 오대, 송, 서하, 원 등등 각 시대의 동굴이 있는데, 모두 429개에 이른다. 전체 동굴은 건축, 벽화, 조각이 하나로 결합된 예술품으로서 풍부한 고대의 조각상과 채화기교 등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사진19) 진사
경모전의 기둥

밖에도 송대의 진사(晉祠) 경모전(經母殿) 앞의 화랑에 있는 나무로 새긴 용(사진19)과 명, 청 시대의 건축에 보이는 당대의 두공채화는 궁두에 붉은 흙을 문질러 장식한 이후 백색의 제비꼬리를 그렸다. 송대에는 대략 만회화문(滿繪花紋), 청록침운(靑綠疊暈), 토주쇄식(土朱刷飾)의 세가지 방법이 있다. 원대에는 화문을 그리는 것이 비교적 적고 청록침운이 비교적 많으며 명, 청대에는 대다수가 청록쇄식이다.

채화의 기법과 그리는 제작기술의 변천은 문양의 변화에 비해서 약간 늦다. 원대 이전에는 대부분 지장(地仗)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나무부재 위에 저분(低粉)을 뿌리고 그위에 직접 그림을 그렸다. 명대에는 이미 비교적 얇은 유회지장(油灰地仗)을 사용하였다. 청대의 지장은 이미 현저하게 두터워졌고 보와 도리에는 삼도회(三道灰)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문과 창, 기둥에는 피마(披麻)나 호포(糊布)의 지장을 많이 썼다. 회화기법에서는 당, 오대에 이미 첩취가 있었다. 역분점금의 기법 중에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는 돈황 제263호 석굴에 있는 북위시대의 벽화에 보이는 예이다. 송대에는 이미 채화를 그리는 하나의 완벽한 순서가 체제에 맞게 이루어졌는데 촌지(襯地), 촌색(襯色), 진색(填色), 첩금(貼金)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침운을 그리는 방법이 등장하였다. 원대에는 건축 전체에 색채를 사용함에 있어서 청록일치의 법칙에 주의를 하였고, 청대에는 이러한 법칙이 상당히 성숙할 정도로 운영이 되어 서로 인접한 부재의 보와 도리, 두공은 모두 이 원칙에 의거하여 색을 결정하였으며, 소식채화가 표현하는 다층침운(多層疊暈: 청대에는 退暈라고함)의 기법은 매우 성숙한 경지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3. 각 시대 전석건축(塼石建築)의 특징

중국건축은 비록 목조건축을 위주로 삼았지만 전석건축에서도 아주 뛰어난 업적을 쌓아 목조구조와 마찬가지로 독특한 구조와 조형을 창조하였다. 예를들면 한대의 석결(石闕), 석실(石室), 북위시대의 숭악사 전탑(嵩岳寺塔), 월현(越縣)에 있는 수대의 안제교(安濟橋), 정현(鄭縣)에 있는 송대의 개원사 요적탑(開元寺料敵塔), 북경에 있는

원대의 묘응사 백담(妙應寺白塔) 및 명대의 만리장성과 무량전(無量殿) 등이 있다. 중국전석건축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술적 가공에 있어서 목조구조의 수법을 많이 모방한 점이다. 이로 인해서 목조건축의 특징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은 전석건축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편리한 점이 많아 있다. 여기서는 전석건축의 구조 및 전체적인 조형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전석장(塼石牆)

중국건축 중에는 장신(牆身)의 기법이 있다. 이것은 일종의 편벽(編壁)으로서 원시사회에서부터 당대, 요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용되었으나 형제(形制)는 모두 서로 다르다. 장신이 비교적 두터운 벽은 향토장(夯土牆), 토괴장(土塊牆), 전장(塼牆), 석장(石牆)으로 분류된다. 담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향토장이 가장 먼저 출현하였다. 노예사회 초기에는 향토장의 축조기술이 이미 상당히 성숙해 있었다. 정주(鄭州)에 있는 상대(商代)의 성지(城址)에는 판축으로 된 향토장의 유적이 있다. 향토장의 다음으로 출현한 것이 토괴장이다. 가장 이른 시기의 토괴장은 서한(西漢)의 한대 유적에서 보인다. 이상의 두가지 종류의 담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농촌의 건축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벽돌의 제조는 벽돌의 제조과정에 따라서 토괴의 제조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전석장의 출현은 오히려 토괴장의 시기 보다는 늦다. 주대에는 비록 전장의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실물의 예는 아직 없다. 전국시대에는 공심전(空心塼)이 있었고 묘실을 축조하는데 사용하였다. 한대에는 조전(條塼), 방전(方塼), 설형전(楔形塼) 및 대순(帶樑)의 권전(卷塼)이 있었다. 가장 일찍이 발전된 것은 전묘(塼墓)의 사방 벽에 있는 전장이다. 지상 위에 있는 건축에는 흙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어떤 경우에는 흙담 안에 “목골(木骨)”을 증가시킨 것도 있다. 벽돌을 쌓아서 만든 담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명대부터이다. 당, 송 시기의 회화에 보여지는 전석성대(塼石城臺)나 혹은 건축물의 전대기(塼臺基) 등은 모두 내부를 흙으로 다진 뒤 외곽만을 전석으로 쌓아 독립된 전석담과는 그 성격이 서로 다르다.

동한 말기에는 이미 모르타르를 섞어 사용하는 수법이 있었으나 당대까지는 여전히 황토진흙이 널리 사용되었으며, 송대에는 흰색 모르타르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였다. 명대부터는 주요 건축물에 이미 완전히 흰색의 모르타르만을 사용하였으며 간혹 참쌀풀을 첨가하였다. 한대의 지면전석(地面塼石)에서는 표면을 갈아서 광을 낸 실례가 이미 있다. 당대의 어떤 전석담은 그 표면을 정교하게 갈아서 광을 낸 판계로 메아리 작용까지도 일으키고 있었다. 청대의 전석담을 쌓는 방식에는 조채, 상백시봉(牆白斷縫), 조상백(牆上白), 간파(干擺) 등의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원림 중에 보이는 꽃담도 전석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매우 일찍부터 석재로 담을 쌓았다. 내몽고의 자치구역인 적봉시(赤峰市) 동팔가(東八家)에 있는 유적지 중 석성(石城)은 원시 씨족사회에 축조가 된

것이다. 그것은 천연의 돌을 사용하여 축조한 것으로
 윗부분의 넓이는 1.2미터로서 현존하는 높이는
 1.5미터이다. 한대의 장성(長城)가운데 어떤 것은
 단면이 삼각형으로 여전히 천연의 돌을 쌓았으며, 동한
 시기의 묘 중에는 벽과 아치지붕에 모두 규칙적으로 잘
 다듬은 돌을 이용하여 그 형태를 만든 것도 있다.
 당시에는 석실, 석묘, 석궐의 가공에 있어서 이미 매우
 정교하고 섬세하였으며 석조재료의 가공기술은 점차
 성숙되었다.

남북조 시대에는 이러한 기술이 매우 성숙하였지만
 주요건축 가운데 돌로 쌓은 담장은 많이 볼 수가 없다.
 광대한 농촌의 지역에서는 줄 곧 조각난 돌을 사용하여
 “난석자(亂石牆)”를 쌓았는데 이것을
 “호피장(虎皮牆)”이라고도 한다. 명, 청대의 원림에는
 간혹 담장의 아래 부분에 석조재료의 천연적인 색조를
 사용하여 담장전체의 미관을 더욱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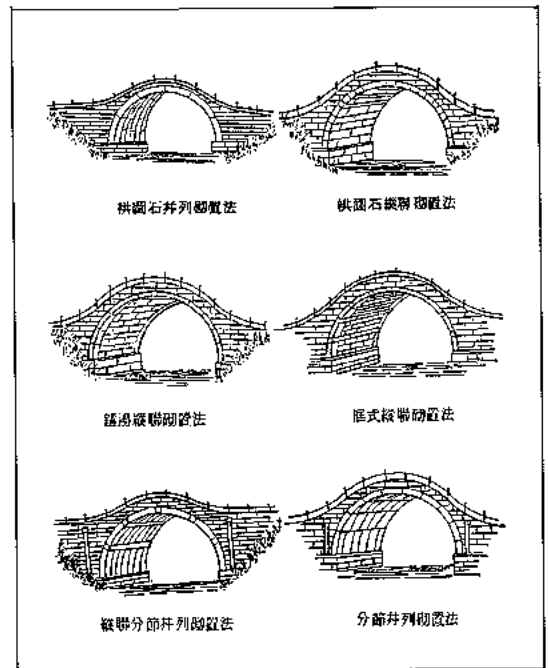
고대 중국에는 담을 쌓을 때 종종 “수분(收分)”을
 즐겨 사용하여 담장의 상부는 좁고 하부는 넓게
 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향토양식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송대의 〈영조법식〉에 규정하기를
 담장의 두께는 담 높이의 3분의 1로 하였다. 하전을
 쌓는 방법은 원대 이전에는 이미 대부분
 침삼제(疊澌砌)로서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수분을
 만들었다. 원대에는 이미 수평으로 쌓고 수분을 만들지
 않는 기법이 출현하였는데 명, 청대에는
 무수분(無收分)을 제도로서 정한 듯하다.

2) 아치(Arch)

한대의 전실석묘(塋室石墓)에는 이미 아치부재가
 출현하였다. 평면이 직사각형일 때는 반원의 아치를
 많이 사용하였다. 아치를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병렬의 아치와 종렬의 아치로서 대략
 동시에 출현하였다. 과거에는 이러한 두 가지의 아치가
 모두 병존하였으며, 한대에는 종종 동일한 묘실 안에서
 두 종류의 방법을 병용하였다. 동한 시기의 일부
 묘실에서는 여전히 벽돌과 석재를 혼용하였다. 한대
 이후 병렬아치는 교량에서 많이 보이며, 묘실과 전탑,
 기타 건축건축(建築建築)에서는 종렬의 아치를 많이
 썼다. 아치의 형태와 체제는 한대에서 청대에
 이르기까지 비록 변화가 크지는 않지만 벽돌의 제작,
 모르타르, 예술적인 가공 등등에 있어서 시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여전히 시대판정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

종렬의 아치는 한대에도 단지 1~2층의 조전(條塼)을
 쌓는 곳에만 썼으며, 복전(伏塼)은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개별적인 곳에서는 일권일복(一卷一伏)을
 썼다. (四川 德陽黃許鎮 漢墓의 경우) 일권일복의
 사이에 사용한 아치를 만드는 방법은 명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완전히 규칙으로 정해졌다. 명, 청
 시기에는 종렬의 아치에 또 양변종렬 및
 팽식종렬(框式縱聯)의 양식이 출현하였다. 어떤 것들은
 이 두가지 방법이 결합하여 종렬분절병렬 아치라고
 하는 것도 출현하였다. (그림21)

평면은 사각형, 정사각형, 육각형, 팔각형이고
 전묘실(塋墓室)의 맵 위의 부분은 궁륭의 천장을 많이



(그림21) 석교의 아치조성 방법의 실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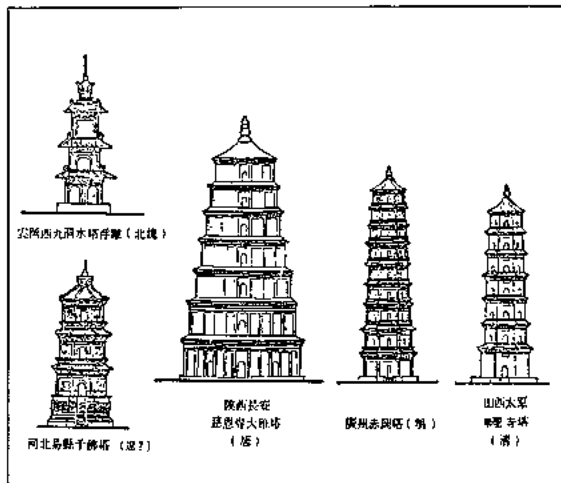
사용하였다. 한대의 대형 석묘실은 대부분
 “조정식(藻井式)”을 많이 채용하였는데 대부분 큰 돌을
 써서 층마다 각을 죽여가며 쌓은 형태가 복두(覆斗)와
 유사하다. 전묘(塋墓)는 사면에서 중심을 향하여
 벽돌을 쌓고, 밑변은 호선(弧線)으로 네개의 편이
 복합된 아치를 이루었는데, 형태는 근래에 사용되는
 “박호정(薄壳頂)”과 비슷하다. 한대 이후 송,
 원대까지는 모두가 벽돌담을 쌓는 방식과 같은
 평제(平砌)로서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윗부분이
 점차 줄어드는데, 평면이 사각형, 원형, 다각형인 것을
 막론하고 모두가 원형을 이룬다. 송, 요, 금대의
 묘정(墓頂)은 높고 포물선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한대에는 반원형의 아치를 많이 썼고 궁륭정은
 대부분이 호형이며 그 사이에는 두개의 원심(圓心)으로
 된 아치를 썼다. 이후의 발전은 반원형이 위주가
 되었다. 명대에는 대다수가 두개의 원심으로 된
 아치이며, 청대에는 이미 거의 모두가 반원형으로
 되었다.

3) 전탑과 석탑

탑의 조성은 인도로부터 불교가 전래되어 들어온
 중국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한대에는 이미 탑을 건조한 기록이 있지만 현존하는
 탑으로 시기가 가장 이른 것은 남북조 시기의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탑은 최소한 2,000개
 이상으로 그 중의 절대다수는 벽돌과 석재로
 만들어졌으며, 건조시기를 보면 대부분이 당, 송, 요,
 금, 원대에 지어진 것이다. 그 유형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 대략 누각식, 밀첨식(密檐式), 라마교식,
 단층탑의 네가지 종류가 있다.

(1) 누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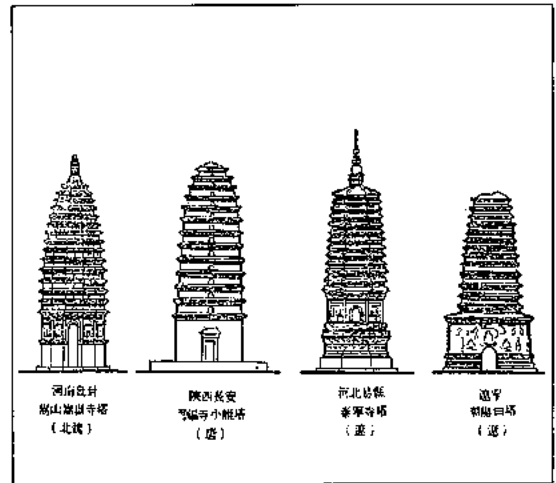
이런 형식의 탑은 초기에는 웅당히 목재를 사용한
 것이었다. 벽돌과 석재는 완전히 목재의 형식을



(그림22) 누각식 탑

모방하여 지어졌다. 가장 이른 시기의 누각식 탑은 남북조 시대의 석굴에서 볼 수가 있다. 누각식 탑은 각 층마다 문과 창문을 열고서 올라갈 수가 있다. 각 층의 넓이와 높이는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축소되고 있다. 전체적인 윤곽은 각추형(角錐形)이다. 누각식 탑의 평면은 당대에는 사각형이었고, 송, 요, 금대에는 팔각형이었으며 송대에는 육각형과 출현하였다. 명, 청대에는 여전히 육각형과 팔각형의 평면을 많이 썼으며, 가장 초기의 것은 13층이고, 15층에 이르는 탑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7층과 9층이다. (그림22) 당대의 탑구조를 살펴보면 탑벽은 한겹이고, 가운데 부분은 비워져 있어 내부는 통형(筒形)이다. 내부에는 나무계단과 마루를 설치하였다. 송, 요, 금 각 시대에는 탑의 정심(正心)에 모두 벽돌기둥을 꽂았다. 기둥과 탑벽의 사이에는 탑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간혹 탑의 내부에 복도를 두었다. 또한 밑부분에는 간단한 대기(臺基)를 썼다. 송대의 이전에는 기좌(基座)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송대 이후가 되어서야 기좌를 증설하기 시작했다. 탑의 몸체에는 각 층마다 모두 기둥, 액(額), 문, 창을 만들었다. 송, 요대에는 원주(圓柱)를 많이 썼고 난액 위에는 보배방을 썼다. 각 층의 처마 밑에는 모두 벽돌이나 석재로 만든 두공이 있고 양식은 당시의 목조부재와 유사하였다. 나무부재의 누각층에는 모두 평좌와 난간을 만들었다. 그러나 벽돌과 석재로 만든 누각식 탑은 남북조 시대에서 당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평좌를 쓰지 않았으며 송, 요, 금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평좌를 쓰기 시작했다. 이러한 종류의 탑에서 각 층에 있는 문은 모두가 반원의 아치문이고 설치된 창은 모두 가창(假窓)이다.

각종 유형의 탑찰(塔刹)은 수미좌(須彌座)로 되어 있고, 혹은 2층의 화판(花瓣)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 위에는 복발을 설치하고 또 그위에다 상륜(相輪)을 두었는데, 벽돌로 쌓은 뒤 쇠로 만들어 올렸다. 탑찰의 위부분에는 대략 세가지 종류가 있다. 가장 간단한 것은 벽돌과 석재로 만든 보주(寶珠)이며, 또 다른 한 종류의 내부에 활주를 설치하고 노출된 부분인 상륜 위에 보개(寶蓋), 원광(圓光), 양월(仰月), 보주(寶柱) 등을 설치한 것이다. 이러한 부재는 대부분 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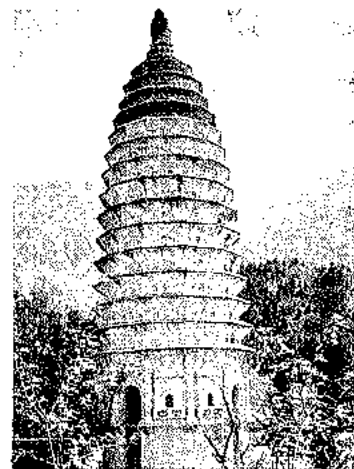
(그림23) 밀침식 탑

동(銅)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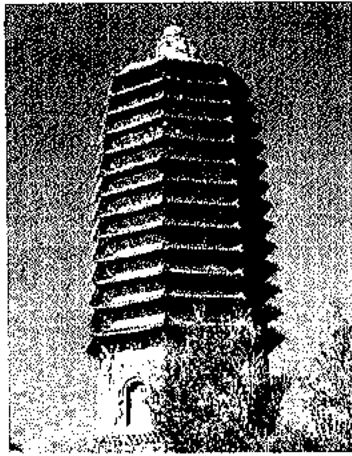
(2) 밀침식

이런 종류의 탑은 모두 제1층이 특별히 높고, 그 위의 각 층에 있는 처마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밀침탑이라고 부른다. 전체적인 윤곽선은 포탄의 외형과 유사하므로 포탄형이라고 한다.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실례로는 하남의 숭산(嵩山)에 있는 송악사 탑(사전20)으로 이 탑은 북위시대 정광원년(正光元年:520년)에 건립되었다. 평면은 12각이며 밀침식은 15층으로 내부는 공심(空心)이다. 제1층의 네 곳에는 아치문을 세우고 기타 각면에는 창동(窓洞)으로 두었다. 팔각형은 의주(倚柱)에 의지하고 주두에는 연판(蓮瓣)을 사용하였으며, 각 층의 처마는 모두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왔다. 이 탑의 구조형식이 당대의 밀침식 탑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러나 그것의 평면은 오히려 하나의 호례(弧例)이다. 이런 종류의 탑은 그 평면과 구조에서 지역성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데, 대략 두가지의 유형으로 나뉜다(그림23)

첫번째 유형은 평면이 사각형인 것으로 단층의 탑벽이며 외형은 사형(梭形)을 이룬다. 이러한 탑은 당대에 가장 많이 세워졌으며, 비교적 넓은 지역에 분포하지만 특히 황하 중류지역에 비교적 많이 분포한다. 탑의 대기는 낮고 정사각형이며, 첫번째



(사진20)
송악사탑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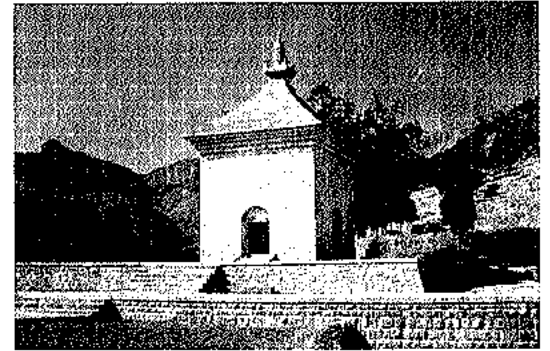


(사진21)
천녕사 삼경탑전경

층에 문을 만드는 한편, 벽면은 소박하고 장식이 없다. 이와 동시에 대부분 기와를 설치하지 않았다. 각 층의 처마는 울퉁불퉁하게 쌓아서 튀어나오게 하였고, 기와를 깐 경우는 매우 적다. 2층 이상에는 창을 내기도 하였으며, 어떤 탑의 경우에는 내부에 목가(木架)를 설치하여 이를 붙잡고 올라갈 수 있게 하였다. 이런 종류의 탑은 당대 이후의 시기에는 비교적 적게 보인다. 금대의 건축인 하남성의 천녕사(天寧寺) 삼경탑(三經塔)(사진21)은 외형상으로는 비록 당대의 탑과 유사하지만 처마 밑부분에는 장식이 증가하였고, 내부는 모두 벽돌을 쌓아서 만들었으며, 우회하는 길을 만들어 탑의 중간부분까지 오를 수 있게 하였다. 구조는 누각식 탑의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하지만 당대의 중공탑(中空塔)과는 완전히 다르다. 명, 청의 수 많은 묘탑(廟塔)은 모두가 실심으로 되어 있으며, 외형은 대다수가 각추형을 이루고 있어, 초기의 형태와 쉽게 구별이 된다.

두번째 유형은 평면이 팔각형(부분적으로는 사각형이나 육각형도 있다)으로 탑의 구조는 모두가 실심체이다. 어떤 탑들은 1층에만 아치문이 있고 그 안에 불상을 설치하였다. 표면의 장식은 화려하고 기와와 첫번째 층의 탑신에 장식의 표현이 집중되어 있는 점이 이런 유형의 탑의 특징이다. 전체의 윤곽선은 비교적 곧다. 이런 탑들은 절대 다수가 과거 요, 금대의 통치지역인 요녕(遼寧), 하북(河北), 산서(山西) 및 내몽고 자치구에 분포하고 있다.

탑의 제일 밑부분은 대기이고, 그 위에 기와를 두었다. 소형탑은 기와 위의 연판을 한층 내지 3층을 설치했다. 대형 탑의 경우에는 2층의 수미좌 위에 평좌를 놓았으며, 벽돌로 두공과 난간을 조각하였다. 이런 유형의 탑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세부 조각은 금대가 요대에 비하여 더욱 화려하고 복잡하다. 하북성에 있는 대다수의 탑은 제1층의 면에 가문(假門)을 조각하고 불상을 설치하였으며, 외부에는 역사(力士)를 조각하였다. 또한 아차문의 위에는 비천(飛天), 산개(傘蓋) 등을 조각하였다. 이와 같은 유형의 탑은 제1층의 탑신을 모두 목구조에 의거하여 기둥과 액, 두공등을 만들었다. 요대에는 원주와 팔각주를 많이 썼고, 금대에는 탑주(塔柱)를 즐겨 썼다. 각 층의 처마는 절대 다수가 기와지붕을 썼으며, 어떤 것은 조전을 써서 기와형식으로 쌓았다. 처마의 밑에는 벽돌을 쌓아서 두공을 만들었는데, 양식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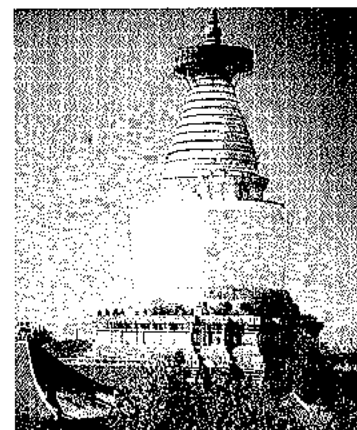
(사진22) 신통사 사문탑전경

특징은 목조구조의 탑과 유사하다. 아래 층은 비교적 복잡하고 위로 올라 갈수록 간단하다. 이런 종류의 각종 처마 각량(角梁)은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져서 양두(梁頭)에 풍봉(風鋒)을 매달기에 편리하도록 되어있다.

탑신의 구조는 전체를 벽돌로 쌓아 만들었으며, 사리를 보관하는 위치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탑신의 아래에 사리를 보관하는 것으로, 북경의 쌍탑(雙塔)과 같은 것이다. 또 다른 형식은 탑신의 안쪽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탑의 상부에 공실(空室)을 쌓아서 사리를 안치한다. 탑신은 모두 조전을 사용하며, 두공, 조화(雕花), 연(椽), 비연(飛椽) 등 대다수의 부재들은 모두 방전(方磚)을 써서 만든다. 이런 유형의 탑은 요, 금대 이후에는 이미 사라졌다. 비록 원, 명대에도 이와 같은 탑이 존재하였지만 대부분 소형탑에 불과하다.

(3) 단층탑

가장 초기의 것은 남북조 시대의 석굴에서 보이는데, 실제적인 예로는 산동에 있는 석조방형(石造方形)의 신통사 사문탑(神通寺 四門塔)(사진22)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이 묘탑이며, 벽돌이나 석재로 만들었다. 탑의 평면은 당대의 경우 여전히 사각형이지만 팔각형, 육각형, 혹은 원형의 벽돌탑도 출현하였다. 탑의 제일 밑층에는 낮은 대기를 세웠는데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는 2층으로 된 수미좌이다. 속요처(束腰處)에는 벽돌을 사용하여 호문(壺門)을 조각했다. 당대의 수미좌는 조전을 써서 울퉁불퉁하게 쌓았다. 오대 이후 송, 금대에는 효혼전(梟混傳)을 써서 그 위에 복연을 조각하였으며 어떤 것은 더욱 복잡해졌다.



(사진23)
묘용사 사리탑 전경

명대 이후에는 대부분의 수미좌가 사라졌으며, 밑면에는 규각(圭角)을 썼고 벽돌탑의 차마는 모두 울퉁불퉁하게 쌓아 튀어나오게 하였다. 당대의 탑신은 가운데가 빈 것이 많으며, 내부는 궁륭정으로 되어 있고, 외부에는 기둥과 액, 두공을 쌓았다. 당대 이후에는 대부분 실심체로서 정면에 가문(假門)을 조각하였으며, 차마 밑에 두공을 두었다. 명, 청대에는 모두가 비교적 간단하게 되었다. (그림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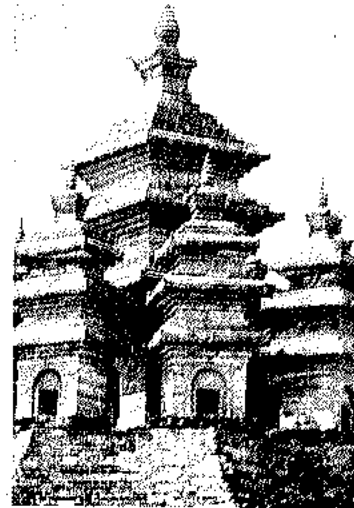
(라)라마교식 탑

가장 초기의 실례로는 원대에 지은 북경의 묘용사 사리탑(사진23)이 있다. 명, 청대에는 이러한 실례가 점차 많아졌는데, 대다수가 묘탑이다. 탑은 기좌, 탑신, 탑정의 세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기좌의 평면은 사각형 혹은 십자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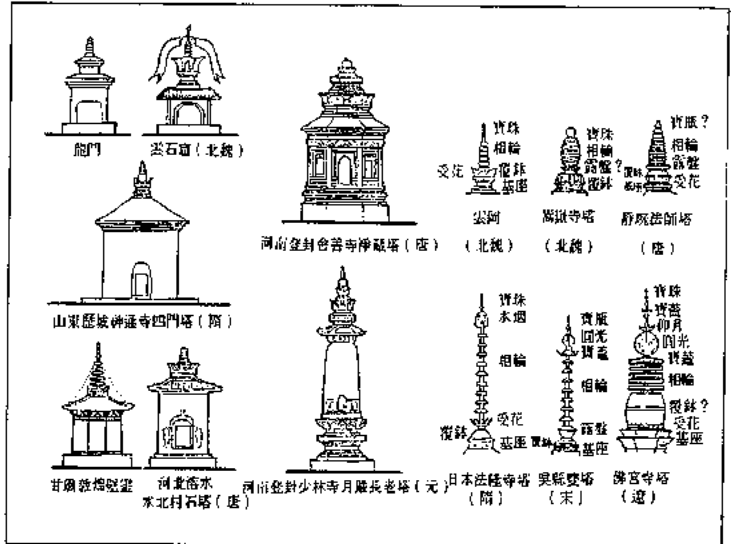
원대의 수미좌는 모두가 2층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명대에도 수미좌는 여전히 2층이지만 그 비례는 높아졌다. 청대에는 대다수가 단층의 수미좌를 썼다. 원, 명대에는 비례가 뚱뚱하고 짧지만, 청대에는 비교적 날씬하고 호리호리하며 높다. 정면에는 “안광문(眼光門)”을 증설하였고, 그 안에 불상을 두었다. 원대에는 탑신과 기좌 사이에 대부분 연판을 한층 두었고, 그 위에는 작은 선도(線道)를 여러 층 설치하였으며, 선도에는 연주(蓮珠)를 끼웠다. 이러한 제도는 명대로 계속 이어졌으며, 청대에는 금강권(金剛圈)을 고쳐서 삼층으로 하고 연판을 쓰지 않았다. 탑 꼭대기의 제일 밑부분을 탑의 목이라고 부른다. 원, 명대에는 이것이 비교적 두껍고 웅장하였지만 청대에는 비교적 가늘어졌다. 탑의 목 위에 있는

13천(十三天)은 상륜의 변체이며, 일반적으로 13층으로 되어 있다. 원, 명대에는 이 비례가 뚱뚱하고 짧았으며, 청대에는 탁벌(鐸柄)이 가늘었다. 또 그 위에는 원반(圓盤)이 있으며, 명대에는 동반(銅盤)을 수직으로 흐르게 했다. 한편 청대에는 2층의 천지반(天地盤)을 두었다. 맨 위에는 보주나 작은 동탑(銅塔)을 설치했으며, 청대에는 해와 달의 불꽃모양을 많이 썼다. 표면에는 일반적으로 백회를 많이 바르고 흰 색의 모르타르를 뿌린 관제로 일명 백탑(白塔)이라고 부른다. (그림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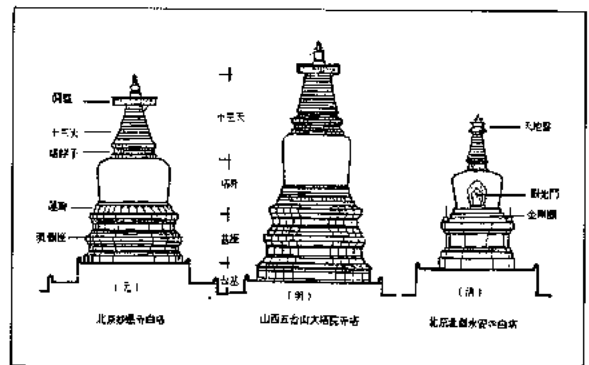
중국에는 위에서 기술한 여러가지 유형의 석탑과 전탑을 제외하고도 특이한 형식의 탑이 많이 있다. 예를들면 산둥에 있는 당대의 구탑사(九塔寺)(사진24), 허북 정정현(定正縣)의 화탑(華塔), 북경의 서쪽 교외에 있는 명대에 오탑사(五塔寺), 금강보좌탑(金剛寶座塔)(사진25) 등은 모두 벽돌과 석재로 구성된 우수한 작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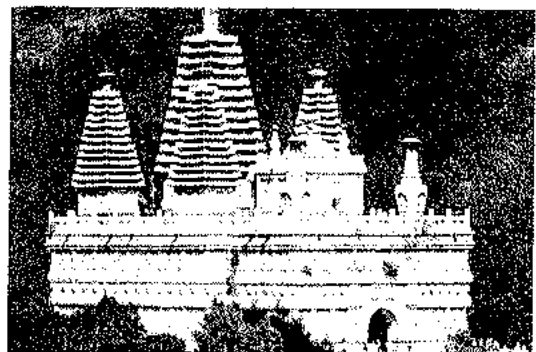
(사진24) 당대의 구탑사 전경



(그림24) 단층탑과 탑찰



(그림25) 라마교식 탑



(사진25) 명대의 금강보좌탑 전경

'93건축3단체 송년회 개최

지난 12월 14일(화)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 하얏트호텔 1층 그랜드볼룸Ⅱ에서 「'93 건축3단체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유상열 건설부차관을 비롯한 여러 내외 귀빈과 2백여 3단체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웅석 본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이처럼 건축계가 단합된 모습으로 성대한 화합의 장을 마련한 것은 우리 건축계의 큰 발전의 결과로 기쁘다」고 말하고, 「새해에는 우리 건축인이 새로운 모습과 보다 성숙된 위상으로 국민들에게 비취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엄숙한 성찰과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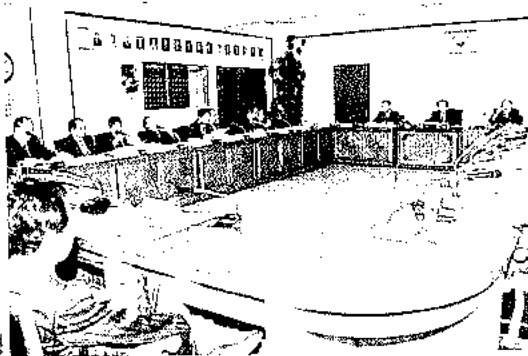
로운 각오로 분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송년모임은 그동안 건축계의 3단체가 각기 독자적으로 모임을 갖던 것을 올해 처음으로 합동으로 개최, 단합된 건축계의 모습을 보였으며,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3단체가 화합해서 계속 정진할 것을 다짐하며 가는 해를 아쉬워했다.

올해는 건축학회에서 주관했으며, 내년행사는 우리 협회가 주관할 예정으로 3단체가 번갈아 주관할 계획이다.



건축 3단체
송년회 전경



이사회 광경

제10회 이사회 개최

본 협회는 지난 12월 14일(화) 오전 10시부터 본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10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94위원회 조직 및 위원선임의 건과 사무처 및

법령연구소 기구개편(안)승인의 건 그리고 재건축 진단업무 및 보수기준 지침(안)승인의 건 등 3개 안건을 협의하여 자세한 실무과약을 위해 소위원회에 위임, 처리키로 하고, 폐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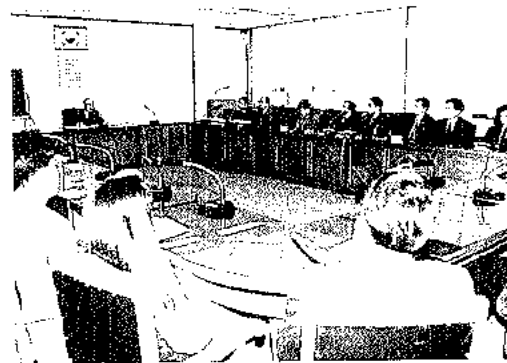
직원 「경제교육」 실시

지난 12월 7일(화) 오전 8시30분부터 본 협회와 서울건축사회 직원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박경환 본 협회 부회장의 주재로 경제교육이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94년도 예산안의 편성내용 중 주요 역점분야에 대한 요약강의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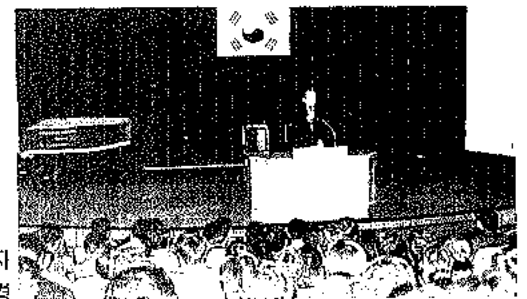
이날 교육에서 박경환 부회장은 「선진국의 문턱에서 우리의

실상과 현위치를 냉정히 비판해 보고 우리의 취약부분과 장애요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 이를 보완하고 제거하는 길이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이라 말하고, 「국민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의식개혁을 통한 자기정비를 향한 꾸준한 노력과 부단한 변화를 활발히 전개한다면 경제선진국에도 무난히 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직원 경제교육
광경

건축사자격(면허)시험합격자 소양교육



건축사시험 합격자
소양교육 광경

'93건축사시험 합격자, 소양교육 실시

93년도 건축사자격(면허)시험 합격자 765명에 대한 소양교육이 지난 12월20일(월) 본 협회 강당에서 실시되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실시된

이번 교육은 오웅석 회장의 인사말에 이은 협회 소개와 가입안내 그리고 건축사소양교육을 받은 후 면허증과 면허수첩을 교부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서울건축사회, 불우이웃 돕기 성금기탁

서울건축사회(회장 김영수)에서는 매년 주변의 불우한 이웃을 찾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올 해는 지난

12월 11일(토) 노들담장애자교육원을 찾아 성금을 기탁하고 훈훈한 세모의 정을 나누었다.

경기도건축사회, 사보 결의대회 개최



건축사보
결의대회 광경

경기도건축사회(회장 송인창)에서는 지난 12월 6일(월) 오전 10시부터 의정부 마사회 회의실에서 의정부 분회 소속 건축사보 62명을 대상으로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문민시대를 맞이

하여 지역 건축문화에 앞장서 주민의 주거생활 공간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앞장설 것은 물론 설계,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건축3단체 국제위원회, 제1차 간담회 개최

건축 3단체 국제위원회 제1차 간담회가 지난 12월 6일(월) 뉴월드호텔에서 개최되었다.

「3단체간의 국제관계에 대한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세계건축가연맹 등에서 한국건축계의 창구 일원화를 요청하는 등 국제업무의 창구 일원화가 시급한 실정에서 개최되어 각 단체의 주요 국제활동 보고와 함께 3개 단체는 각각의 국제활동에서 발생하

는 정보를 상호간에 교환할 것과 3개 단체의 국제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행사를 추진하여 3개 단체간의 실질적인 교류와 상호협력을 실천할 것과 내년 5월 우리 협회와 독일문화원간에 공동개최하기로 협의중인 바우하우스에 관한 강연회를 3개 단체간의 첫번째 공동사업으로 발전시킬 것 등을 협의하였다.

「'93 대한민국환경문화상」 수상작 발표

문화체육부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제정한 「'93대한민국환경문화상」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이 상은 지난 90년 아름다운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제정한 「도시환경문화상」을 올해부터 「대한민국환경문화상」으로 격상, 시상하게 되었다.

각 부문별 수상현황은 다음과 같다.

- 건축 : 국립부여박물관(설계-한규봉)
- 인테리어 : 기아자동차 나선형계단(설계-김신양)
- 조경 : 기아자동차 옥외경관
- 조각 : 기아자동차 「소리-대지」

건축학회, 「범죄예방과 건축」세미나 개최

건축학회(회장 송종석)에서는 지난 12월 4일(토) 건축심의위원회 주최로 주거단지의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환경 계획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범죄예방공간에 관련한 국내논문 분석한 임승빈 서울대 교수는 「기존의 연구가 다양한 연구방법이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고 분석하고, 정확한 사례연구를 통한 환경적

대응방안 마련」을 지적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계획으로의 대응방안으로 주거단지의 건폐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각적으로 차폐되는 공간을 가능한 줄일 것과 관상형 주동인 경우 양끝에 위치한 세대에 철도피해 가능성이 가장 높으므로 양끝 주변의 시야를 개방할 것 등을 제안했다.

「건축물의 표준화 확립에 관한 간담회」개최

행정쇄신위원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12월 1일(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8층 회의실에서 「건축물의 표준화 확립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축물 표준화를 위한 건물부품과 건축설계의 표준화의 추진경위 설명과 함께 그간의 정책수립방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되어, 그동안 건축물 표준화 방

안이 관련부처의 업무중복으로 인한 책임회피와 자재 생산업체의 인식부족 등으로 실현되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날 공진청과 건설부 측은 표준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밝혔으며, 행태위 연구과제로 선정된 이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정책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친 상태로 현재 행정쇄신위원회의 종합기획 연구과제로 본격 추진되고 있다.

한국실내디자인학회, 공개세미나 개최

한국실내디자인학회(회장 윤도근)에서는 지난 12월 13일(월) 연세대 알렌관에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박돈서 아주대학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건축 및 실내디자인에 색채이미지 스케일을 이용하면 보다 정확하고 예측이 가능한 설계가 가능하다」는 색채 이미지 스케일 시스템을 소개하고, 우리나라도 우리의 정서에 맞는 색채에 대한 데이터가 축

적되면 디자인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역 홍익대학교수는 건축설계와 실내설계를 통합할 수 있는 CAD시스템을 소개하고, 「건축설계시에 사용했던 기본적인 자료를 실내설계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설계업무의 중복과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색채계획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업계 대책회의」개최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의한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업계의 대책회의가 지난 12월 9일

(목) 오후 2시 30분부터 건설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홍 철 건설부 제

1차관보의 주제로 열려 우리 협회를 비롯한 관련협회와 현대건설 등 업계 그리고 학회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국내 건설시장 개방계획의 내용

설명과 시장개방과 관련한 국내 건설산업 보호대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가 되었다.

「'94 POSCO 강구조 작품상」공모

한국강구조학회는 강구조기술의 창의력을 배양시키고 철강이용기술을 개발시킴으로써 우수한 강구조물 건설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94 POSCO 강구조 작품상」을 제정, 시상한다.

이 상은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의 후원으로 구조물의 작품성과 신 강재의 사용 또는 강재이용 기술개발 촉진에 크게 기여한 강구조물에 수여된다.

- 접수기간 : 1994년 1월 1일 ~ 2월 28일
- 대상작품 : 1992년 1월 1일 ~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되어 공용중인 강구조물
- 시상대상 :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또는 발주기관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강구조학회 사무국(전화 : 02-568-7636, 1224)



유럽편 '94 建築文化探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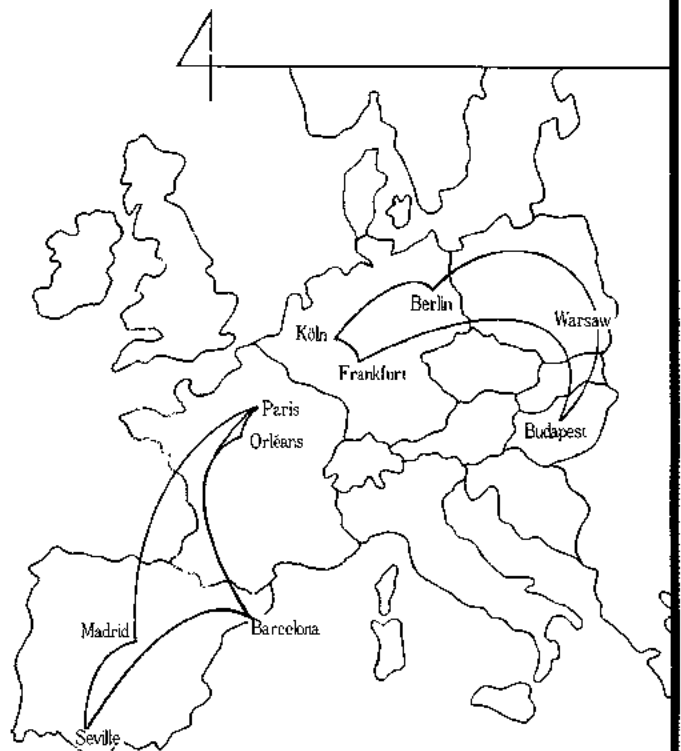
알함브라궁전과 베를린장벽

알함브라궁전과 베를린장벽으로 건축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파리 남서부 르와르 강변을 따라 축조된 프랑스의 옛성과 시라센의 영향으로 독특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스페인의 건축물, 그리고 독일 건축의 중후함과 동유럽 폴란드, 헝가리의 특색있는 건축 문화를 탐미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공간여행이 첫번째로 시도하는 유럽 건축문화탐방 시리즈에 관심있는 건축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방문국	방문지역	일정
제1코스	스페인 프랑스	마드리드, 톨레도, 아란헤즈, 세비아, 그라나다, 코르도바, 카르펜로나, 파리, 샤토르브, 누주, 오를레앙	12박 13일
제2코스	독일 폴란드 헝가리	프랑크푸르트, 쾰른, 에센, 하임메르그, 베를린, 포츠담, 뒤셀도르프, 바르샤바, 브다페스트 * 예선 건축 박람회 참관	11박 12일

■ 출발일 : 1994년 1월 22일

■ 요 금 : ₩ 2,480,000



공간여행
SPACE TRAVEL

문의 : (02)723-3939

무 지 보 역 타 설 공 법

무지보 역타설(N.S.T.D.)공법은 기존의 모든 토류벽을 이용하여 건축지하 구조물을 축조하는 공법으로 종래 역타설 공법의 굳은암층, 선굴착 Con'c 타설로 거푸집 받침 동바리(중적비 작업 방해)가 필요하지 않고 토류벽의 인치말뚝(H-PILE) 또는 건축구조물의 철골기둥(STEEL COLUMN)에 기 제작된 철골통(강재거푸집)을 설치하여 상, 하향 자유자재 이동하며 Con'c를 타설하는 공법이며 철골통이 강기둥(STEEL COLUMN)의 LIFT BLOCK에 의하여 매달려 있으므로 지하굴토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굴토작업의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종래 TOP DOWN 공법과 비교하면 30%의 공기 절감과 중장비 작업대기, 동바리, 거푸집 설치해체, 소운반품 등의 삭감이 15%의 공사비를 절감합니다.

무지보 역타설 (N.S.T.D.)공법은 공사비, 공사기간, 지하굴토 공사로 인한주변 피해 원인을 억제하는 획기적인 공법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하며 건축기술인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주식회사 정 님

TEL: (02)594-8100 / 9

품질과 디자인에서 앞서갑니다.



**흡음율
50% 이상**

초고층, 대형화, 고급화 되어가는
현대건축 천정재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고급 천정판 금강 마이톤—

암면을 주원료로 만들어 흡음력이 뛰어나며 가볍고 불에 타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다양한 금강 마이톤은
실내분위기를 더욱 우아하게 연출합니다.

- 흡음력이 뛰어납니다.
- 디자인이 다양합니다.
- 불에 타지 않고 단열성능이 좋습니다.
- 가볍고 시공, 보수가 간편합니다.

고급 흡음 천정판



마이트론[®]
MITONE



주식회사 금강
Keumkang Limited

■ 본사 · 서울 543-2101 ● 부산 512-3211~5 ● 대구 252-4321~5 ● 대전 284-4934~5 ● 광주 523-1505~9 ● 전주 74-3005~7
● 마산 55-9583~5 ● 수원 35-5001~3 ● 인천 428-8451~3 ● 원주 44-5821~3 ● 인동 55-0555 ● 순천 741-8005~7
● 천주 52-2021~3 ● 포항 81-5138 ● 울산 92-2734 ● 강릉 43-8148 ● 진주 55-5800 ● 제주 52-8935